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사례집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목차

외국인 신입생 한국어 분반 운영 현황 및 평가 기준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설계
- 수준별 학습 배치와 적응 지원을 위한 분반 운영 지침 개발 ..... K-Placement Lab (한국어 배치 연구팀) 1

TOPIK 성과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과정 개선 방안 ..... K-Competence Lab (한국어 역량 연구팀) 27

AI 통번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수업 현황 및 최적화를 위한 방안 모색 ..... AI Bridge Campus Lab 51

교양 독일어 교재 개발을 위한 지침 연구 ..... 빌둥(Bildung) 75

AI 활용 교수법 사례 탐구 및 적용 ..... AI와 교육 101

기초 학문 및 교양 교육을 위한 AI 활용 교수법 메타 연구 ..... 융합인문학을 위한 교수법 메타 연구팀 127

AI와 신화로 보는 미래 문화 콘텐츠 개발 교수법 연구 ..... AI신미콘팀 161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 실습교과목 개선 및 생성형 AI 활용 방안 모색 ..... AI융합교육 189

예비교사를 위한 SEL 교육과정 적용방안 탐색 ..... SEL 미래교사연구회 221

약학과 대학원생의 학술적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원 신설교과목 기획 및 고안 ..... 미래약학자 학술역량 증진 연구회 247

※ 이 교수법 커뮤니티는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외국인 신입생 한국어 분반 운영 현황 및 평가 기준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설계

- 수준별 학습 배치와 적응 지원을 위한 분반 운영 지침 개발

K-Placement Lab(한국어 배치 연구팀)

문형남 글로벌융합대학

김경아 기초교양학부

윤경미 글로벌융합학부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4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4
나. 팀 구성 및 특징 ····· 5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 7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 7
나. 주요 활동 내용 ····· 8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12
가. 분반 운영 개선 성과 ····· 12
나. 기대 효과 및 한계 ····· 18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 21
가. 수업· 교과목· 연구 적용 방안 ····· 21
나. 후속 활동 계획 ····· 23

5. 결론 및 제언 ····· 24
가. 분반 운영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제언 ····· 24
나.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개선 제안 ····· 25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본교는 급변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부인 글로벌융합학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2학기에는 11개국 출신 117명의 외국인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학부 차원의 교육 운영 방식과 교수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단순한 학생 수 증가를 넘어 교육 운영의 질과 체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보여 준다.

글로벌융합학부 신입생들은 한국어 능력 수준뿐 아니라 자국 내 학업 경험, 대학 수학 경험 여부, 학습 전략 및 학습 도구 활용 방식 등에서 매우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학습 배경은 학기 초 한국어 교과 및 기초 전공 교과 운영 과정에서 수업 참여도와 학습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한국어 이해 수준의 차이는 수업 이해도, 과제 수행, 수업 참여 태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학습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학습 배치가 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학습자의 적응에 결정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학 직후 실시되는 한국어 분반 테스트는 외국인 신입생의 초기 학습 경험을 결정짓는 핵심 절차로 기능한다. 분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습 환경과 수업 속도로 학기를 시작하며 이는 학습 동기 형성과 대학 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분반 테스트는 단순한 행정적 배치 절차를 넘어 학습자의 출발점을 조정하고 학업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적 장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융합학부는 개강 첫 주 필기시험과 말하기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 분반 수업을 운영해 왔다. 이는 일정 부분 학습자 수준에 따른 수업 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교수자 역시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신입생이 동일한 시점에 입국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평가 시점과 운영 절차에서 어려움이 동반되었다. 별도의 일시와 장소에서 일괄 평가하기보다 수업과 연계하여 분산 시행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일부 학생의 평가가 지연되거나 수강 신청 이후 분반 조정이 필요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분반 테스트가 개별 교원의 노력만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평가 기준의 적용 방식, 분반 결과 공유 절차, 입국 시기별 학생 대응 방식 등이 교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경우 학부 차원의 일관된

분반 체계 구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 경험과 문제의식을 교원 간에 공유하고 공통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었다.

이 교수법 커뮤니티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외국인 신입생 한국어 분반 테스트의 운영 현황과 평가 기준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운영되었다. 단순히 문제점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학기 초 분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본 활동은 현장 기반 교수법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신입생의 수준별 학습 배치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수자와 학생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분반 절차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를 통해 학기 초 수업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동시에 교수자의 수업 설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분반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논의와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학부 차원의 분반 운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2. 팀 구성 및 특징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외국인 신입생 한국어 분반 운영 경험과 유학생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3인의 교원이 협력하여 구성되었다. 각 구성원은 분반 테스트 운영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관점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분반 체계 개선이라는 공동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본 커뮤니티는 단일 교원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종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협력적 연구 구조를 지향하였다.

운영 방식은 연구의 방향-방법-내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연구 방향 설정, 연구 방법 설계, 연구 내용 구체화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분반 운영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각 단계의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대표교원은 학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커뮤니티 활동이 학부 차원의 운영 개선 논의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방법 담당 교원은 분반 테스트 운영 자료와 평가 기준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절차를 설계하고, 자료 수집·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내용 담당 교원은 실제 한국어 수업 현장에서 관찰한 학습자 사례와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 결과가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연구가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운영 개

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1>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할

구분	주요 경험	역할
교원 A (대표교수)	-유학생 전용 학부 교과 담당 -다양한 국가 출신 유학생의 학업 준비도 차이 분석	-연구 비전 및 방향 설정 -팀 협력 구조 총괄
교원 B	-유학생 전용 학부 교과 담당 -분반 테스트 운영 및 평가 지표 이해	-연구 방법 설계 -운영 현황·평가 기준 분석 주도
교원 C	-유학생 대상 한국어 수업 직접 담당 -학습자 발화·참여·적응 과정 관찰	-연구 내용 구성 -현장 사례 및 학습자 요구 수집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 방향 설정, 연구 방법 설계, 연구 내용 구체화를 담당하는 교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팀 구성은 분반 운영이라는 복합적인 교육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분반 운영이라는 공통의 교육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 인식을 공유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각 교원은 유학생 교육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반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통된 문제 인식은 커뮤니티 논의의 출발점으로 기능하였다.

아울러 행정, 수업 운영, 평가 경험 등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교원들로 팀이 구성되었다는 점은 분반 운영을 특정 교과나 개인의 경험에 국한하지 않고 학부 차원의 운영 경험으로 확장하여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가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운영 기간 동안 총 3회의 정기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임은 학기 중 대면 회의를 기본으로 하되, 교수자들의 수업 일정과 행정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비대면 논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연구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실제 교육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커뮤니티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1차 모임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한국어 분반 테스트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공유하였다. 개강 초기 분반 테스트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평가 시점과 방식은 어떠했는지, 분반 이후 수업 운영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를 중심으로 각 교원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학기 초 분반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논의의 주요 쟁점을 설정하였다.

2차 모임에서는 1차 모임에서 확인된 쟁점을 바탕으로 분반 테스트의 평가 기준과 운영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신입생 분반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 문항의 적절성, 입국 시기 차이에 따른 평가 시점의 불균형, 온라인·오프라인 평가 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반 테스트가 학기 초 학습 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분반 운영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교수자 간 의견을 수렴하였다.

3차 모임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분반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정리하고 실제 운영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였다. 신입생 분반 테스트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다음 학기 수강을 위한 분반 평가 운영 사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학습 성취도에 기반한 분반의 가능성과 효과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분반 운영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하고 교수자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각 모임에서는 분반 운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학기 초 분반 테스트 운영 경험, 학생 반응, 수업 진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기 모임 외에도 메신저 등을 활용한 비공식적인 소통이 병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분반 운영과 관련된 즉각적인 의견 교환과 자료 공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연한 운영 방식은 교수자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 주요 활동 내용

1) 운영 자료 수집 및 정리

본 교수법 커뮤니티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어 분반 테스트의 운영 경험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실제 시행 과정과 그 특징을 자료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분반 테스트가 학기 초 수업 운영과 학습 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 방식, 시행 시점,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분반 테스트 운영 경험을 개별 교원의 인식 차원이 아닌 공동 연구 자료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해당 분반 테스트는 개강 직후 학기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목표로 필기시험과 말하기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을 수준별로 분반하여 수업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반 결과는 한국어 강의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수강하게 될 기초 전공 교과의 이해도와 수업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이해 수준이 전공 수업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학기 초 분반은 전공 학습 환경을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번 학기 신입생 분반 테스트에 사용된 평가 문항은 외국인 신입생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분반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평가 문항을 일부 차용하여 임시로 구성·적용한 것이었다. 해당 문항은 기본적인 한국어 이해도와 표현 능력을 확인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능하였으나, 글로벌융합학부 신입생의 학습 특성과 이후 이수하게 될 교과 내용까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 문항의 적합성과 분반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또한 신입생들의 입국 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으로 인해 분반 테스트는 별도의 통합 일정과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개별 수업과 연계된 형태로 분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은 평가 시점이 늦어졌으며 초기에는 임시 분반 상태에서 수업을 수강하다가 평가 결과에 따라 분반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기 초 분반 안정화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와 행정 담당자의 협력적인 대응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교적 빠른 시점에 자신의 한국어 수준에 적합한 반에 배치될 수 있었으며 수업 운영 역시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분반 테스트가 학기 초 학습 배치와 수업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반 운영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신입생 분반 테스트 운영 경험은 단기적인 분반 조정의 문제를 넘어, 향후 분반 평가 문항 구성, 평가 시점 설정, 운영 절차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이에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본 단계에서 수집·정리된 운영 자료를 토대로, 다음

단계에서 운영상의 쟁점과 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2) 분반 테스트 평가 기준 분석

본 교수법 커뮤니티에서는 신입생 한국어 분반 테스트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기 초 분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과 운영 절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들은 개별 교원의 수업 운영 차원을 넘어 학부 전체의 분반 체계 안정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평가 기준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가 학기 초 학습 배치와 수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입국 시기 차이에 따른 평가 시점의 불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신입생들은 비자 발급 일정, 항공편 사정, 현지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입국 시기가 상이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학생은 개강 직후 분반 테스트를 치른 반면 일부 학생은 2~3주차 이후에 평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평가 시점의 차이는 학기 초 임시 분반 상태에서 수업을 수강한 후 분반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초래하였으며 학생의 학습 연속성과 교수자의 수업 설계 측면에서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평가 기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과 절차가 분반 운영의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 주는 사례로 해석되었다.

둘째, 분반 테스트 운영 절차의 복잡성 역시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다. 평가가 개별 수업과 연계된 형태로 분산 시행되면서 어떤 강의에서 어떤 학생이 평가를 받았는지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동일 학생에 대한 중복 평가 가능성이나 평가 누락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신속하게 취합·반영하는 데에도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운영상의 복잡성은 평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분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분반 테스트 문항 구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기 분반 테스트에 활용된 문항은 외국인 신입생 수의 급격한 증가라는 운영 환경 속에서 신속한 분반을 위해 임시로 구성·적용된 것이었다. 해당 문항은 기본적인 한국어 이해도와 표현 능력을 확인하는 데 적절히 활용되었으나 글로벌융합학부 신입생의 학습 배경 다양성과 이후 이수하게 될 교과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분반 기준으로 활용되는 평가 문항이 학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또한 일부 학생의 경우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한 수준 파악을 고려하였으나 인터넷 환경의 차이, 사전 자료 활용 가능성, 주변인의 도움 여부 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온라인 평가 방식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분반 기준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분반 결과와 수강 신청 절차 간의 연계 문제도 평가 기준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입학 전 한국어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마친 이후에 분반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강 신청 기간에 입국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국에서 제한된 정보에 기반하여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후 분반 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평가 기준이 학습 배치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강 신청 절차와의 연계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분석된 쟁점들은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신입생 유입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기존 분반 운영 체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었다. 이에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분반 테스트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평가 절차의 단순화, 평가 기준의 명확화, 결과 공유 방식의 개선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분반 운영 개선 방향과 분반 운영 지침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분석 단계로 활용되었다.

3) 학습 성취도 기반 분반 사례 검토

본 교수법 커뮤니티에서는 신입생 분반 테스트 운영 경험과 대비되는 사례로 재학생의 다음 학기 수강을 위한 분반 평가 운영 사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평가는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다음 학기 한국어 교과의 수준별 분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운영되었다. 이는 학기 초 진단 중심의 신입생 분반과 달리 한 학기 동안의 학습 과정을 반영한 성취 기반 분반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교 사례로 다루어졌다.

재학생 분반 평가는 학기 말 기말고사와는 별도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강한 한국어 교과의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평가 문항은 평균 4개 내외의 한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진 핵심 내용과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단편적인 지식 암기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실제 수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언어 기능과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해당 평가는 학습 과정 전반을 반영하는 성취도 평가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은 학생들이 해당 학기 동안 어느 정도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순한 진단을 넘어 학습 결과에 근거한 분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수강 과목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성취 수준에 부합하는 단계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분반 결과가 학습자의 실제 성취와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재학생 분반 평가의 또 다른 특징은 평가 시점과 수강 신청 절차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해당 평가는 수강 신청 이전에 실시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평가 결

과를 분반 운영에 반영한 상태에서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기 초 수강 신청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분반 이동이나 수강 변경 사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기 시작 전부터 보다 안정적인 분반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자 측면에서도 재학생 분반 평가는 다음 학기 수업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학습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반 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교수자는 수업 속도와 난이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수업 중 발생하는 수준 차이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수·학습 환경의 질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재학생 분반 평가 운영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습 성취도에 기반한 분반이 학습 배치의 안정성과 수업 운영의 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기 초 진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입생 분반과 비교할 때 성취 기반 분반은 평가 시점, 분반 결과의 활용 방식, 수강 신청과의 연계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신입생 분반 테스트 운영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반 체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4) 분반 운영 지침(안) 도출을 위한 논의

본 교수법 커뮤니티에서는 신입생 분반 테스트 운영 경험과 재학생 분반 평가 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분반 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사례는 모두 학습자 수준에 따른 적절한 수업 배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평가의 목적과 운영 방식, 결과 활용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신입생 분반 테스트는 학기 초 학습 배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진단 중심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입학 직후 제한된 정보 속에서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했으며 입국 시기 차이와 운영 여건으로 인해 평가 절차의 유연성이 요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분반 테스트는 초기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운영의 일관성과 평가 기준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반면 재학생 분반 평가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참여와 학습 성취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성취 중심 평가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학생들이 실제로 이수한 교과 내용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며, 평가 결과를 다음 학기 수강 신청과 직접 연계함으로써 분반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기 초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분반 이동과 수강 변경 문제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분반 운영에서 평가의 목적과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신입생 분반의 경우에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영 절차와 평가 기준을 단순화·명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재학생 분반의 경우에는 학습 성취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평가 방식을 유지·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시사점은 분반 평가 결과가 수업 운영 및 수강 신청 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될 때 학습 배치의 효율성과 수업의 질이 함께 향상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분반 테스트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수·학습 전반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분반 운영 개선을 위해 신입생과 재학생의 특성을 구분한 분반 운영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이후 본 커뮤니티의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분반 체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3.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성과

가. 분반 운영 개선 성과

1) 신입생 한국어 분반 운영 현황 분석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영된 한국어 분반 테스트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리·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반 테스트는 학기 초 수업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운영 절차와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문서화되거나 교원 간에 공유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커뮤니티는 분반 운영 경험을 하나의 운영 체계로 정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커뮤니티에서는 개강 초기 신입생 분반 테스트의 실제 운영 흐름을 단계별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반 테스트 실시 배경과 목적, 평가 시점과 방식, 평가 결과의 활용 과정, 분반 이후 수업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 과정을 통해 신입생 분반 운영이 단일한 평가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기 초 학습 배치와 이후 수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인 과정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학기 분반 운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분반 테스트가 지니는 기능과 한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분반 테스트는 입학 직후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며 초기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반면 입국 시기 차이, 평가 시점의 분산, 임시 문항 활용 등으로 인해 분반 결과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단순한 문제 인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구조로 정리함으로써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신입생 분반 운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분반 테스트의 목적 설정, 평가 절차의 일관성 확보, 평가 결과의 공유 방식, 수강 신청 절차와의 연계 여부 등이 분반 운영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분반 운영 개선 논의가 경험 중심의 운영 단계에서 공통 기준에 기반한 체계적 논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외국인 신입생 한국어 분반 운영은 개인별·상황별 대응 수준을 넘어 공유 가능한 운영 체계로 정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이후 분반 체계 개선 논의가 축적된 운영 경험과 공동의 문제 인식을 토대로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반 운영 지침(안)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 성과로 활용되었다.

2) 신입생·재학생 분반 운영 기준의 구분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신입생 분반 테스트와 재학생 분반 평가가 동일한 목적과 기준으로 운영되기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크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두 평가는 모두 수준별 학습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기능, 그리고 결과 활용 방식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커뮤니티는 신입생과 재학생 분반을 동일한 틀로 접근하는 기존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신입생 분반 테스트는 입학 직후 학습 배치를 위한 초기 진단 중심 평가로서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평가 문항은 기본적인 한국어 이해력과 표현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임시 분반 이후 수업 운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기 초 학습 방향 설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입국 시기 차이와 평가 시점의 분산 등으로 인해 운영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재학생 분반 평가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이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학습 성취 중심 평가라는 점에서 신입생 분반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평가 문항은 실제로 수강한 교과의 핵심 내용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과 직접 연계되어 분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성취 수준에 부합하는 단계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학기 초 분반 이동과 수강 변경이 반복되는 상황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본 교수법 커뮤니티에서는 신입생 분반 테스트와 재학생 분반 평가의 운영 특성을 비교·정리하였다.

<표 2> 신입생 분반 테스트와 재학생 분반 평가의 비교

구분	신입생 분반 테스트	재학생 분반 평가
평가 시점	학기 초(입학 직후)	학기 말(다음 학기 수강 전)
평가 목적	초기 학습 배치 진단	학습 성취도 기반 분반
평가 성격	진단 중심 평가	성취 중심 평가
문항 구성	기본 이해·표현 능력 중심	교과 내용 종합
결과 활용	임시 분반 후 조정	다음 학기 분반에 직접 반영
운영 효과	초기 학습 방향 설정	분반 안정화 및 수업의 질 제고

위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입생 분반 테스트와 재학생 분반 평가는 평가 시점, 목적, 활용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분반 평가를 단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기보다 학습자의 단계와 학습 맥락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은 본 교수법 커뮤니티가 분반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분반 운영 지침(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전제로 작용하였다. 즉, 신입생과 재학생의 특성을 구분한 분반 기준 설정은 분반 체계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공동으로 확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3) 분반 운영 지침(안)의 핵심 요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반 운영 지침(안)’은 단일한 매뉴얼이나 절차 문서로 완결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도출된 분반 운영의 핵심 원칙과 구성 요소를 정리한 개념적 틀이며, 향후 학부의 운영 여건과 교육 환경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체화·보완될 수 있는 기초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완성된 지침의 제시가 아니라, 분반 운영 지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와 운영 원칙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 분반 운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분반 체계 개선을 위해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분반 운영 지침의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에 본 커뮤니티는 경험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져 오던 분반 운영 방식을 공통 기준에 기반한 체계적 논의 단계로 정리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실제 운영에 활용 가능한 분반 운영 지침(안)의 핵심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그 기본 틀을 정리하였다.

우선 분반 운영 지침은 평가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신입생 분반의 경우에는 학기 초 학습 배치를 위한 초기 진단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며, 재학생 분반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의 학습 성취도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수업을 배치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통해 ‘분반 평가’라는 동일한 명칭 아래에서도 대상과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운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이 정리되었다.

또한 분반 운영 지침에는 평가 시점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가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평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가 사전에 공유될 경우 교수자와 학생 모두 분반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며 학기 초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평가 결과의 취합, 공유, 반영 과정은 분반 운영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분반 운영 지침은 수강 신청 절차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핵심 요소로 도출되었다. 재학생 분반 평가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분반 결과가 수강 신청 이전에 제공될 경우 학습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이 고르게 배치된 강좌 구성이 가능해지며, 학기 초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분반 이동과 수강 변경으로 인한 행정적·학습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분반 평가가 단순한 진단 절차를 넘어 학기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분반 운영 지침(안)이 단일한 평가 도구나 문항 구성에 국한되지 않고 평가 목적-운영 절차-결과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지침(안)의 핵심 구성 요소는 향후 분반 체계 개선을 구체화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부의 실제 운영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보완·적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분반 운영 지침(안)이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사례와 학습 성취 결과를 통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한 학기 동안 실시된 분반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분반 운영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분반 평가 결과

본 교수법 커뮤니티에서는 앞서 도출한 분반 운영 지침(안)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운영된 분반 수업과 이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절의 분석은 분반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단순 비교하거나 판별하기보다는 수준별 학습 배치가 학습 성취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다음 학기 분반 운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형성평가 결과와 (2) 특정 한국어 교과목의 한 학기 성취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분반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분반별 형성평가 결과

형성평가는 각 분반에서 한 학기 동안 수강한 한국어 교과의 주요 학습 내용을 종합하여 구성되었다. 평가 문항은 어휘·문법 이해, 읽기 및 듣기 이해, 기초적인 표현 능력 등을 중심으로 총 30문항(30점 만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분반의 수업 내용과 학습 목표를 반영하여 출제되었다. 본 형성평가는 분반 간 성취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반 내 학습 성취도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 분반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의 분반별 형성평가 결과를 점수 구간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재학생 분반별 형성평가 결과 분포

점수	1분반	2분반	3분반
25점 이상	18명	19명	23명
20-24점	6명	8명	5명
15-19점	5명	4명	6명
14점 이하	7명	1명	0명
합계	36명	32명	34명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분반은 중·하위 구간부터 중상위 구간까지 점수 분포가 비교적 폭넓게 나타나 학습 이해도와 성취 수준의 개인차가 큰 분반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초 학습 이해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학습자들이 함께 구성된 분반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분반의 경우 중위권을 중심으로 상·하위 구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단계별 학습 성취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 출발점과 수업 참여 조건이 비교적 유사한 학습자들이 분반 내에 고르게 배치되었음을 시사한다.

3분반은 25점 이상 구간에 속한 학생 비율이 높아 상위 학습자 중심의 성취 분포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학습 성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분반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5-19점 구간에 포함된 일부 학생들은 학기 초 입국 지연으로 인해 분반 테스트를 제때 응시하지 못하고 해당 분반에서 수강하게 된 사례로, 동일 분반 내에서도 학습 출발점과 수업 참여 기간에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은 분반 운영 결과를 해석할 때 점수 분포뿐 아니라 입국 시기, 분반 경로, 수업 참여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분반별 학습 성취 분포(형성평가)*

2025-2학기 수강 분반	형성평가 성취도 분포 (30점 만점)	특성	2026-1학기 분반 예상
1분반	중·하위권부터 중상위권까지 폭넓은 분포	기초 학습 이해도 차이가 확인됨	기초 보강 중심 분반 유지 및 단계적 상향 이동 검토
2분반	중위권 중심, 상·하위 고른 분포	학습 성취 분포가 비교적 안정적	동일 단계 내 균형 분반 구성 가능
3분반	중상위~상위권 중심 분포	상위 학습자의 비중 높음	상위 단계 수업 안정적 운영 가능

위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분반은 서로 다른 학습 성취도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학기 초에 이루어진 수준별 분반이 이후 학습 성취 양상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1분반의 경우 중·하위권부터 중상위권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여 기초 학습 이해도의 개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2분반은 중위권을 중심으로 상·하위가 고르게 분포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취 경향을 보였다. 3분반은 중상위~상위권 중심의 분포가 나타나 상위 학습자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기 초 분반이 학습 성취 측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분반별 학습 특성에 따라 다음 학기 분반 운영 방식이 달라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형성평가 결과는 단순한 학습 결과 확인을 넘어 앞으로의 분반 시스템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개별 교과 성취 결과를 통한 분반 운영 타당성 검토

형성평가 결과와 함께 분반 운영이 실제 교과 학습 성취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이 수강한 개별 한국어 교과 중 1개 과목의 성취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은 모든 교과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동일 과목 내에서 분반 배경과 학습 참여 조건이 성취 결과에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이다.

분석 대상 과목은 학기 동안 동일한 평가 기준과 성적 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되었으며 총 38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해당 과목의 최종 점수 분포를 구간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

* 일부 학생은 수업 참여도, 과제 수행, 종합적인 학습 경향을 함께 고려하여 분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형성평가는 각 분반의 수업 내용과 학습 목표를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분반 간 절대적인 점수 비교보다는 분반 내 학습 성취도 분포를 확인하고 다음 학기 분반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5> 특정 교과 성취도 분포

점수	인원
90점 이상	13명
80-89점	9명
70-79점	5명
70점 미만	11명
합계	38명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체 수강생 중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1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명은 학기 초 입국이 지연되어 신입생 분반 테스트를 제때 응시하지 못하였으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강 신청을 진행한 뒤 수업에 참여한 경우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초 학습 단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했거나 수업 참여 시점 자체가 상당히 늦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동일 과목을 수강한 다른 학생들 중에는 입국 시기에 맞추어 분반 테스트를 거쳐 수준에 적합한 분반에 배치된 사례가 다수였으며, 이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취 분포를 보였다. 물론 입국 지연 학생 중에서도 학습 적응을 통해 상위 점수를 받은 경우가 존재하였으나, 전체적인 점수 분포 경향에서는 학습 출발점과 수업 참여 조건이 성취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반 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학습 배치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후 교과 학습 성취와도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보여 준다. 특히 학기 초 적절한 분반을 거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의 경우, 동일한 교과 환경에서도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계량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상의 형성평가 결과와 개별 교과 성취 분석을 종합하면 분반 운영은 단기적인 진단 결과에 국한된 절차가 아니라 학기 전체의 학습 성취와 연계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기 초 수준에 적합한 학습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분반 운영의 안정성과 학습 성과 간의 연계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나. 기대 효과 및 한계

1) 분반 운영에 대한 교수자 인식 변화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학기 초 분반 운영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까지 분반 테스트는 학기 초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행정

적 절차이자 수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기 분반 운영 경험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분반 테스트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수업의 질과 학습 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교수·학습 요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신입생 분반 운영 사례와 재학생 분반 평가 운영 계획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들은 분반 운영의 목적과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될수록 학기 초 수업 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재학생 분반 평가를 수강 신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향후 학기 초 분반 이동과 수강 변경을 줄이고, 보다 예측 가능한 수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공유되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교수자들이 분반 운영을 '사후 조정이 필요한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계하고 관리해야 할 교수법적 과제로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분반 결과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시될 경우 교수자는 수업 목표와 수준을 보다 분명히 설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 또한 자신의 학습 위치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교수자 간 협의 과정에서 분반 운영과 관련된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감당하던 부담이 공동의 논의와 협력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확인되었다. 이는 분반 운영이 특정 교과나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 차원의 교수·학습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종합하면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학기 초 분반 운영을 둘러싼 교수자들의 인식을 즉각적인 실무 대응 중심에서 체계적 설계와 협력에 기반한 교수법적 과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이후 분반 운영 지침(안)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향후 학기 초 수업 운영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2) 분반 운영에 대한 학습자 적응 및 수용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분반 운영이 학생들의 학습 적응과 수업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었다. 특히 재학생 분반 평가를 다음 학기 수강 신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을 인식하고 분반 결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재학생 분반 평가의 경우, 한 학기 동안 수강한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분반 결과를 자신의 학습 성취와 연계하여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분반 결과가 단순한 행정적 배치가 아니라 학습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향후 분반 평가 결과가 수강 신청 과정과 연계될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강좌를 선택하려

는 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반 결과를 수강 신청 이전에 안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자신의 학습 위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학기 초 수강 변경이나 분반 이동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사례를 완화하고 학습 초기 단계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신입생 분반 운영 사례에서도 분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자와의 상담 및 조정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보다 적합한 수업에 배치되었을 때 수업 이해도와 참여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학생의 경우 초기에는 분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 부담이 완화되고 과제 수행이 수월해지면서 분반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분반 운영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은 분반 결과를 학습의 제약이 아니라 학습을 지원하는 장치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분반 체계가 학생들의 학습 적응과 수업 만족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분반 운영 지침을 통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을 보여 주는 논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반 운영의 개선 가능성과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본 연구가 지닌 한계와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 역시 함께 도출되었다.

우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부인 글로벌융합학부의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적용 범위는 해당 학부의 교육 환경과 학사 구조에 한정된다. 글로벌융합학부는 입학 단계에서 한국어 능력 수준의 편차가 큰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 분반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운영 조건 속에서 분반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와 성과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부 또는 입학 시점에서 한국어 능력 수준의 이질성이 큰 교육 환경을 전제로 한 분반 운영 사례에 의미를 지니며, 입학 요건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확보되는 일반 학부의 운영 맥락과는 구분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의 한계라기보다는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한 분반 운영 문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신입생 분반 테스트의 경우, 평가 문항과 운영 방식이 학기 초 급증한 학생 수와 제한된 준비 기간 속에서 임시적으로 구성·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평가 도구 자체의 정교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분반 테스트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

었으나 동시에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입학 이전 단계에서의 한국어 수준 파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였다. 온라인 평가의 경우 응시 환경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시간 평가 방식 역시 국가별 인터넷 환경과 시차 문제로 인해 운영상 제약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신입생 분반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분반 운영의 구조와 기준 설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평가 문항의 타당성 검증이나 평가 도구 개발 단계까지 심층적으로 다루기에는 연구 범위상 한계가 있었다. 이는 향후 분반 체계 개선 논의가 평가 도구 개발이나 사전 진단 체계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분반 운영을 경험적 차원이 아닌 연구와 협력의 대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계와 과제는 향후 글로벌융합학부의 분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논의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계적인 연구와 실천을 통해 분반 운영 체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가. 분반 운영 개선 성과의 적용 방안

1) 신입생 분반 운영 적용 방안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연구 성과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초 한국어 분반 운영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신입생 분반 운영은 제한된 시간과 행정적 여건 속에서 신속한 학습 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분반 테스트 결과 역시 주로 즉각적인 수업 배치에 활용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입국 시기가 상이한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상 모든 학생을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분반 결과를 교수자가 충분히 해석하여 수업 설계에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분반 테스트의 목적과 활용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면서 신입생 분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분반 테스트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학습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적 평가로 이해하고, 그 결과를 수업 난이도 조정, 학습 활동 설계, 학습 부담 조절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는 신입생 분반 운영이 ‘즉각적인 배치’ 중심에서 ‘학습 지원을 고려한 배치’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정리된 분반 운영 지침(안)은 신입생 분반 테스트의 운영 시점, 평

가 요소, 결과 활용 방식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교수자들이 분반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기 초 수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분반 조정과 혼란을 완화하고,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적용 방안은 신입생 분반 운영을 획일적인 절차로 고정하기보다는 학부의 실제 운영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완·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성과는 외국인 신입생 분반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천적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향후 학부 차원의 분반 운영 개선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재학생 분반 운영 및 수강 연계

본 연구의 또 다른 적용 영역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반 운영과 이를 다음 학기 수강 신청 과정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재학생 분반은 주로 이전 학기의 수강 이력이나 종합 성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의 실제 학습 성취 과정을 분반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본 교수법 커뮤니티에서는 기말고사와는 별도로 분반을 위한 형성평가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취 수준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형성평가는 한 학기 동안 수강한 한국어 교과의 주요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통해 축적한 학습 성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시험 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습 과정 전반을 반영한 분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해당 결과는 다음 학기 분반 운영을 설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분반이 학습 과정과 분리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업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육 운영의 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분반별 형성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각 분반의 학습 성취 경향을 비교·검토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는 학습 수준이 유사한 학생들이 보다 고르게 배치된 강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학기 시작 전 수강 신청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분반 변경과 수강 조정의 필요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학생 분반 운영 방식은 다음 학기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교수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생에게는 자신의 학습 성취 수준에 기반한 수강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성과는 재학생 분반 운영의 안정성과 수업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참고 가능한 적용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3) 교수자 협력 기반 분반 운영의 의의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분반 운영을 교수자 개인의 판단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협력적 논의를 통해 공유·조정되는 운영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분반 운영이 각 교과 담당자의 수업 경험과 현장 판단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수자 간 분반 기준과 해석 방식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과정에서 교수자들은 분반 테스트 운영 경험과 평가 결과를 함께 검토하며 분반 운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협력 과정은 분반 운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일정 수준에서 조율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각 교수자가 축적해 온 경험을 공동의 운영 기준으로 정리·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분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다음 학기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교수자 간 인식 차이를 완화하고 보다 일관된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수자 간 협력은 분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별 교원이 단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공동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할 교수·학습 과제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분반 운영이 특정 교과나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 차원의 교육 운영과 긴밀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이러한 협력 경험은 분반 운영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교수법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본 교수법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된 협력 구조는 단기적인 연구 활동에 그치기보다 향후 학부 차원의 교육 운영 경험으로 축적·공유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 후속 활동 계획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분반 운영의 구조와 개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 과제도 함께 도출되었다. 이러한 후속 활동은 단기간에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운영 체계를 점진적으로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정리된 분반 운영 지침(안)에 포함된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다음 학기 분반 운영 과정에서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평가 시점과 절차, 결과 공유 방식 등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운영 원칙을 학부의 여건에 맞게 조정·적용함으로써 학기 초 분반 운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반 운영이 특정 담당자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보다 공유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입생 분반 테스트와 관련하여 입학 이전 단계에서의 한국어 수준 파악 가능성은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평가의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 평가의 신뢰성 확보 문제, 응시 환경의 제약, 국가별 인터넷 환경 차이 등 현실적인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사전 평가와 입학 이후 분반 운영

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단계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재학생 분반 평가의 경우에는 학기 말 성취도 기반 평가가 다음 학기 학습 배치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한 점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 구성과 운영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가 분반 결과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수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분반 운영 경험과 논의 결과는 교수자 간 정보 공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학부 차원의 교수자 협의 과정에서 분반 운영 사례와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분반 체계가 개별 교과나 특정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교수·학습 과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후속 활동은 새로운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목표로 하기보다 이미 정리된 분반 운영 원칙과 지침을 실제 운영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학부의 교육 환경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발전 방향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수업의 질과 학습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가. 분반 운영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제언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분반 운영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학습자의 초기 적응과 수업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교육 운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기 초에 실시되는 분반 테스트는 신입생의 학습 출발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그 운영 방식과 평가 결과의 활용에 따라 학생과 교수자 모두의 학기 초 경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분반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반 테스트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 분반 테스트가 단순한 반 편성 절차로 인식될 경우 평가 결과가 수업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분반 테스트의 목적을 ‘학습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적 평가’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교수자 간에 공유할 경우, 분반 결과는 수업 난이도 조정이나 학습 활동 설계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분반 운영 시에는 분반 테스트의 목적과 결과 활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교수자 간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분반 운영 과정에서 교수자와 행정 담당자 간의 협력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시기가 상이한 상황에서 분반 테스트, 수강 신청, 분반 조정이 학기 초에 집중되는 경우, 교수자와 행정 담당자 모두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본 학기 운영 경험을 통해 분반 관련 정보가 비교적 신속하게 공유되고 역할이 명확히 분담될 경우, 학기 초 운영상의 혼란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분반 운영에서는 평가 일정, 결과 취합, 분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 구조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재학생 분반 운영에 있어서는 한 학기 동안의 학습 성취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말고사와는 별도로 분반을 위한 형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의 일시적인 성적보다 실제 학습 성취 수준을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다음 학기 분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넷째, 분반 결과 안내 과정에서 학생의 이해를 돕는 설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분반 결과는 학생의 학습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그 취지와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본 학기 운영 과정에서 분반 결과의 취지와 향후 학습 방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되었을 때 학생들의 분반 수용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은 이러한 설명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향후 분반 결과 안내 시에는 분반 배치 결과뿐 아니라 해당 분반에서 기대되는 학습 목표와 학습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은 특정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반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개선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 정리된 이러한 제언들이 향후 분반 운영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학기 초 운영의 안정성과 수업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개선 제안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확인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반 운영이 개인의 경험이나 즉각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 교수자 간의 공동 논의와 기준 정립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반 테스트와 그 운영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다양한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일한 관점이나 개별적 대응만으로는 운영상의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분반 운영을 교수자 간 협력을 통해 하나의 교수법적 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 커뮤니티 활동은 분반 운영에 대한 교수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기존에는 분반이 행정적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

나, 연구 과정에서 분반 테스트의 목적과 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분반 운영이 수업 설계와 학습 적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적 장치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이는 분반 운영을 단순한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의 출발점을 조정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수법의 일부로 재인식하게 하는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수법 커뮤니티라는 운영 방식은 교수자 개인의 경험이 공동의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각 교원이 현장에서 축적한 분반 운영 경험과 판단 기준은 개별적으로는 단편적인 사례에 머무를 수 있으나 이를 공유하고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구조화된 운영 원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양한 교수법 개선 논의에서도 교수자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분반 운영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모든 과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특히 입학 이전 단계에서의 한국어 수준 사전 파악 방식이나 온라인 평가의 신뢰성 확보 문제 등은 이번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연구의 한계라기보다 분반 운영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전 평가 방식이나 분반 운영 지원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외국인 유학생 분반 운영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교수자 간 협력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은 단기적인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부 차원의 교육 운영 경험으로 축적되어 향후 분반 운영과 교수법 논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의 제한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TOPIK 성과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과정 개선 방안

K-Competence Lab(한국어 역량 연구팀)

김경령 한국어문학부

전세재 영어영문학부

권제은 글로벌융합학부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30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30

나. 팀 구성 및 역할 ····· 31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배경 ····· 31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요 ····· 31

나. 글로벌융합학부의 교육과정 현황 ····· 34

3.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 37

가. 주요 활동 내용 ····· 37

나. TOPIK과 학업성취도 관계 ····· 38

다. 설문조사 분석 ····· 40

라. 논의 ····· 43

4.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43

가.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 43

나. 한계 ····· 44

5.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 44

가. 교과과정 개선 방안 ····· 44

나. 후속 활동 계획 ····· 49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이 보고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수 소속된 융합학부의 교육과정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과를 접목하여,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습자와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글로벌융합학부는 2024년 3월에 신설된 이래로 꾸준히 신입생이 늘어 2025년 2학기에는 그 수가 108명에 이르렀다. 급증하는 학생 수에 맞추어 학부에서는 교강사와 교과목 분반을 늘리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고 있어 지금은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습자 및 교강사의 요구, 교육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검토된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학부의 교육과정에는 토픽(이하 TOPIK) 성과를 연계하지 않을 수 없다. TOPIK 급수로 확인할 수 있는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학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며, 전공 수업의 이해도와 참여도, 과제 수행 능력, 나아가 학업 성취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 개선에 TOPIK 성과 및 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첫째, TOPIK 성과는 한국어 실력의 객관적 지표로서 학습자의 실제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 목표와 학습 내용을 설계하도록 해 준다. 둘째, 급수별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교수학습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셋째, TOPIK 성과를 기준으로 학업 지원 제도 및 교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습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넷째, TOPIK 성과가 수업과 연계될 경우, 학생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과의 교육 성과를 대외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융합학부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업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교과목, 수업, 평가, 학습 지원 체계의 네 층위에서 TOPIK 성과를 접목해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교육과정을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부 전체의 학습 성취도 및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팀 구성 및 역할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한국어문학부 교수, 국제처 처장, 한국어 교육 강사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령 교수가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을 총괄하고 전세재 처장이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권제은 강사가 융합학부에서 실제 한국어 수업을 하며 교강사 및 학습자 요구를 조사하였다.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배경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요

TOPIK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한국어 숙달도 시험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시험은 1997년에 첫 시행된 이래 2025년까지 총 104회 치러졌고 응시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TOPIK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황을 살펴보면, TOPIK Ⅰ 응시자 수는 2020년 13,609명에서 121,058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TOPIKⅡ 응시자 수는 2020년 총 100, 623명에서 2024년에는 251,76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IK은 TOPKⅠ(1-2급)과 TOPIKⅡ(3-6급)로 구분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IBT(인터넷 기반 시험)가 도입되어 현재는 PBT(지필 방식)와 IBT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TOPIK 말하기 평가도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TOPIK 시험의 등급과 점수 구간은 다음과 같다.

(PBT) 구분	토픽Ⅰ(초급)		토픽Ⅱ(중·고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 결정	80~139	140~200	120~149	150~189	190~229	230~300

<표 1>. TOPIK PBT 구분에 따른 등급과 점수 구간

(IBT) 구분	토픽Ⅰ(초급)		토픽Ⅱ(중·고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 결정	121~235	236~400	191~290	291~360	361~430	431~600

<표 2>. TOPIK IBT 구분에 따른 등급과 점수 구간

또한 PBT TOPIK Ⅰ은 듣기, 읽기 영역으로만 구성되며 응시료는 40,000원이다. TOPIK Ⅱ는 듣기, 읽기, 쓰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시료는 55,000원이다. 반면 IBT 시험은 시험 영역은 TOPIK Ⅱ와 같지만 문제 유형 및 문항 수, 시험 시간이 축소된 것이 PBT와 다르고 응시료도 TOPIK Ⅰ이 70,000원, TOPIK Ⅱ가 95,000원으로 비용이 더 높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교시	영역	문항 수	시험 시간		배점	총점	응시료
토픽 Ⅰ	1교시	듣기	30문항	40분	100분	100	200	40,000
		읽기	40문항	60분		100		
토픽 Ⅱ	1교시	듣기	50문항	60분	110분	100	300	55,000
		쓰기	4문항	50분		100		
	2교시	읽기	50문항	70분		100		

<표 3>. TOPIK PBT의 영역별 시험 정보

구분	교시	영역	문항 수	시험 시간		배점	총점	응시료
토픽 Ⅰ	1교시	듣기	30문항	30분	70분	200	400	70,000
		읽기	40문항	40분		200		
토픽 Ⅱ	1교시	듣기	30문항	35분	125분	200	600	95,000
		읽기	30문항	40분		200		
		쓰기	3문항	50분		200		

<표 4>. TOPIK IBT의 영역별 시험 정보

TOPIK 성적은 한국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실제 학업 수행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대학과 같이 입학 요건으로서의 TOPIK 점수를 없애거나 많이 낮추고 있는 추세긴 하나, 기존에는 국내 대학들 대부분이 TOPIK 3급 이상, 즉 중급 정도의 점수를 요구해 왔다.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TOEFL 또는 IELTS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한국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대학에 TOPIK 점수를 제출하고 있다.

물론 TOEFL이 주로 대학 강의나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점수로만 결과가 나오는 데 반해, TOPIK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전문적인 학술 내용까지 모두 다루며 1급(초급)부터 6급(고급)까지 등급과 점수가 함께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문적 내용만을 다루는 한국어 평가 도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어 부문에서는 TOPIK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학업 수행 능력 증명이 가능한 성적은 TOPIK 중급(3-4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TOPIK 3급 보유자의 경우 문어와 구어의 특성을 구분하고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4급 보유자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 뉴스 및 신문기사 이해가 가능해지며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소재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등급별 한국어 수행 능력에 관한 내용은 TOPIK 홈페이지에 제시된 등급별 평가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시험 수준	등급	평가 기준
TOPK I	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TOPIK II	3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일상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표 5>. TOPIK 등급별 평가 기준

실제로 TOPIK 고득점 학습자는 강의 내용 이해도, 과제 수행 능력, 발표 및 토론 참여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TOPIK이 단순한 언어 지식 시험을 넘어 학술적 언어 사용 능력, 즉 텍스트 독해력, 문제 해결적 쓰기 역량, 상황 맥락에서의 이해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TOPIK II의 읽기와 쓰기 영역은 대학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문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강의 노트 정리, 보고서 작성과 같은 활동은 TOPIK이 평가하는 언어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TOPIK 성취도는 국내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기초 학습 역량, 학습 지원 방향 설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융합학부에서는 입학 후 첫 교육과정 배치에 TOPIK 급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TOPIK 성과를 교육과정 개선 및 학습 지원 전략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글로벌융합학부의 교육과정 현황

1) 교육과정

글로벌융합학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문 역량, 문화 감수성, 국제 시각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및 기초 교양 능력 향상을 위해 입학 후 1년 동안 전공 선택 과목으로서 기능별, 수준별로 한국어 과목을 이수하고 그 외에 전공 기초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학년부터는 희망하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해 주는데 희망 전공을 이수할 경우(예체능 계열, 약학부, 사범계열, 르꼬르동외식경영전공을 제외),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전공을 제1전공으로 하여 졸업 가능하다. 이때 졸업 기준은 TOPIK 4급 이상이며, TOPIK 3급이 있을 경우에는 토픽 700점 이상이거나 졸업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다음은 글로벌융합학부의 학년별 교육과정 이수표이다. 본 논의와 관련된 부분은 입학 후 1년 동안 학생들이 듣게 되는 한국어 교과목이다. 기능별로(어휘와문법, 읽기와듣기, 말하기, 쓰기) 개설된 중급과 고급 한국어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초급과 중급 한국어 과목만이 운영되었는데, 이는 신입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추어 강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표 6>. 글로벌융합학부 학년별 교육과정 이수표

2) 학습자 TOPIK 급수 보유 현황

실제 융합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토픽 급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2024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재학생 19명 중에서 토픽 급수 보유자는 7명이고 2025년 2학기에는 신입생 108명 중에 토픽 3급(중급) 이상 보유자가 12명에 불과했다.

구분	인원(명)	TOPIK 3급 이상 보유자(명)	비율
2024-1학기 입학 학생	11	3	27.2%
2024-2학기 입학 학생	3	1	33.3%
2025-1학기 입학 학생	5	3	60%
2025-2학기 입학 학생	108	12	11.1%

<표 7>. 입학 당시 TOPIK 3급 이상 보유자 현황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의 세부 등급을 살펴보면, 입학 당시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는 3급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급 수준인 5급과 6급도 각각 4명, 3명이 있었으나, 한 클래스의 정원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므로 고급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학부에서는 고급 수준의 신입생들에게는 전공 기초 과목과 중급 한국어 과목

을 듣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분 \ TOPIK 등급	3급	4급	5급	6급
2024-1학기 입학 학생	3	0	0	0
2024-2학기 입학 학생	0	0	0	1
2025-1학기 입학 학생	1	1	1	0
2025-2학기 입학 학생	5	2	3	2
합계	9	3	4	3

<표 8>. 입학 당시 TOPIK 3급 이상 보유자의 세부 등급

그 외에는 TOPIK 초급(1-2급)을 보유하고 있거나 TOPIK 급수가 없었다. TOPIK 급수가 없이 입학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국에서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한국어를 학습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글 자모를 모르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초급 한국어 과목에서는 한글 자모를 읽고 쓰는 것부터 다루고 있다.

결국 융합학부 신입생들의 한국어 수준 편차가 0급부터 6급까지 상당히 크고, 고급 수준의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 학습자의 요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교수자가 학습자의 실제 언어 능력과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급 학습자의 경우 학습 동기 저하, 언어 능력의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3) 한국어 교과목 및 수업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 내 한국어 교과목은 기능별, 수준별로 개설되어 있다. 특히 신입생이 급증한 2025년 2학기에는 어휘와 문법, 읽기와 듣기, 말하기, 쓰기의 초급 과목이 세 개의 분반씩 개설되었고 각 분반은 적게는 32명, 많게는 38명의 몽골,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다양한 국적의 수강생으로 구성되었다. 수강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급 과목은 말하기 그리고 어휘와 문법 과목만이 개설되었다.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입학 전 학생이 보유한 TOPIK 급수를 조사하고 2차적으로는 개강 첫 주에 레벨테스트를 일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01-02분반과 03분반은 한국어 수준에 차등을 두었다. 03분반은 01과 02분반보다 한국어 수준이 한 단계 높다.

수업 내 평가 도구로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형성평가, 퀴즈(수시 시험)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각 과목의 핵심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총괄평가의 역할을 하며, 형성평가와 퀴즈는 학습 과정에서의 이해도 점검과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TOPIK을 수업 내용과 연계하는 방법은 특정 과목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교수자가 담당 과목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연계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해 왔다. 이제는 수업 내용과 TOPIK 연계 방안을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교강사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TOPIK 모의시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4) 학부의 한국어 관련 지원 체계

융합학부에서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자 TOPIK 성적을 졸업 요건에 반영할뿐만 아니라 TOPIK 취득 금수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비교과프로그램으로 토픽 특강(프로그램명: TOPIK 10days)을 운영한다. 10일 동안 진행되는 토픽 특강은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제공되며 출석률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특강 신청자에게는 TOPIK 교재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TOPIK 외에도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튜터링,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예- < K-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튜터링은 본교 미래교육원에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한국어 교원을 외국인 유학생과 연결해 주고 일주일에 1-2회씩 만나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가. 주요 활동 내용

본 커뮤니티 활동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학업 능력뿐 아니라 졸업 요건, 장학금 혜택에도 반영이 되는 TOPIK을 현 교육과정에 접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부 학생의 입학 당시 TOPIK 성적 보유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한국어 강사진에는 TOPIK과 수업 내용을 연계한 강의 운영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TOPIK 성적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TOPIK을 접목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및 수업 방법에 관한 논의를 거쳤다.

다음으로 TOPIK 모의시험 시행 방안이 1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내용 보강을 위해 방학에 운영되는 토픽 특강을 진행하면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융합학부 한국어 강사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까지 마쳤다. 마지막으로 교과목, 수업, 평가, 지원 체계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정	활동 내용
2025. 10	• 학부 유학생의 입학 당시 TOPIK 성적 보유 현황 조사 • TOPIK을 활용한 수업 운영을 한국어 강사진에 요청
2025. 11	• 재학생의 첫 학기 이수 학점과 GPA 자료 요청 • TOPIK을 접목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및 수업 방법 논의
2025. 12	• 학부 차원에서 TOPIK 평가 도구 개발 및 모의 토픽 시행 방안 논의(ZOOM 회의) • 토픽 특강 진행 및 학생 설문조사
2026. 1	• 한국어 강사 설문조사 •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표 9>. 본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

나. TOPIK과 학업 성취도 관계

본고는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관점하에 TOPIK을 접목해 교육과정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글로벌융합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TOPIK 성과가 실제로 학업 성취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먼저 언어 수준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는 입학 직후인 첫 학기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첫 학기의 이수 학점과 GPA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첫 학기 GPA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가였다. 이렇게 볼 때, 보고서 준비 시점에 2025년 2학기 입학한 신입생은 첫 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2024년 1학기, 2024년 2학기, 2025년 1학기에 입학한 학생들로 총 19명이 선정되었다. 이때 TOPIK 급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TOPIK과 유사한 형태인 숙명대체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은 입학 시 TOPIK 급수란에 '숙명대체시험'으로 표시해 두었다. 학생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학생	국적	입학 시 TOPIK 급수	첫 학기 이수 학점	첫 학기 GPA(4.3 만점)
A	태국	6급	18	4.15
B	일본	5급	27	4.20
C	미얀마	4급	12	2.97
D	베트남	3급	18	3.60
E	일본	3급	12	2.47
F	미얀마	3급	15	3.98
G	미얀마	3급	15	3.78
H	베트남	2급	12	3.72
I	베트남	2급	12	3.72
J	베트남	2급	24	3.95
K	인도네시아	2급	0	0
L	미얀마	없음/숙명대체시험	24	3.50
M	미얀마	없음	15	3.72
N	베트남	없음/숙명대체시험	12	3.40
O	중국	없음/숙명대체시험	12	2.82
P	베트남	없음/숙명대체시험	12	4.22
Q	미얀마	없음	15	3.89
R	우크라이나	없음	21	2.78
S	중국	없음	15	2.62

<표 10>. 대상자의 TOPIK 급수와 GPA

입학 시 보유한 TOPIK 급수와 첫 학기 학업 성취도(GPA)를 비교한 결과, TOPIK 급수를 보유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TOPIK 5급 이상의 고득점자인 학생 A(4.15)와 학생 B(4.20)는 모두 4.0 이상의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었으며, TOPIK 3급 학생들 역시 평균 GPA가 약 3.45점으로 나타나 최소한 전공 기초와 한국어 강의 이해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을 때 성적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TOPIK 4급 학생(C)와 3급 학생(E)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개인 학습 배경, 학과목 수업 난도 등 언어 능력 외적 요인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TOPIK 급수 미보유 학생들에게서 관찰된다. 이들의 GPA는 2.62~4.22점으로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평균은 약 3.34로 확인된다. 특히 P 학생은 언어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높은 GPA(예: 4.22)를 달성하였는데, TOPIK 급수는 없어도 숙명대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미보유 그룹 내 하위권 학생들은 GPA가 2점대에 머물렀으며, 이는 언어적 장벽이 학업 수행의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TOPIK 성취는 학업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나 학업 수행의 중요한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TOPIK 급수에 따른 성취도 분포 차이는 입학 초기 한국어 능력 진단의 필요성과 수준별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언어 능력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기초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 설문조사 분석

1) 학생 설문조사

교육과정 개선에 학습자 요구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25년 2학기가 끝나자마자 융합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토픽 특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수강생 17명 중에서 15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후 토픽 특강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2명을 추가로 조사하여 조사 대상자는 총 17명이 되었다.

학생	학년	국적	TOPIK 급수	토픽 특강 수강
A	1학년	몽골	없음	○
B	1학년	독일	없음	○
C	1학년	몽골	없음	○
D	1학년	몽골	없음	○
E	1학년	미얀마	없음	○
F	1학년	베트남	없음	○
G	1학년	베트남	2급	○
H	1학년	베트남	2급	○
I	1학년	베트남	2급	○
J	1학년	베트남	2급	×
K	2학년	인도네시아	2급	○
L	1학년	베트남	3급	×
M	1학년	몽골	3급	○
N	1학년	미얀마	3급	○
O	1학년	미얀마	3급	○
P	1학년	미얀마	5급	○
Q	1학년	일본	5급	○

<표 11>.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정보

(1) 학업 수행과 TOPIK과의 관계 인식

먼저 학업 수행과 TOPIK이 관계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17명

중에 16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상당수는 TOPIK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수행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한 명의 학생(J)은 TOPIK 특강 미신청자였는데 TOPIK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기 때문에 학업 수행 능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밀접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2) TOPIK과 대학 강의 연계 선호도

학부 한국어 강의에 TOPIK을 연계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17명 중에 16명이 좋다고 응답했다.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도 가능하고 장학금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TOPIK을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J학생이었다. TOPIK과 연계한 수업보다는 전공 과목 이수를 위한 학술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3) TOPIK 학습 시 가장 어려운 영역

TOPIK 학습 시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는 쓰기가 7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어휘와 문법이 5명으로 2위, 듣기가 3명으로 3위로 나타났고 읽기는 2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강의 수강 시 가장 어려운 점

대학 강의를 수강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발표와 토론이 5명으로 1위로 나타나 TOPIK 준비 시 ‘쓰기’가 가장 어려웠다는 응답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실제로 학습자들이 ‘쓰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교강사가 인식하고 학습자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해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험 준비는 2위, 수업 내용 이해, 친구 관계, 수업 내 활동(짝 활동, 팀 활동 등)은 공동 3위로 나타났다. 보고서 쓰기, 과제 수행, 스노우보드 사용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택한 항목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의 부족을 손꼽았다. 한편 친구 관계를 언급한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 친구와 사귈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교에 바라는 지원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 수업을 잘 듣기 위한 학술 한국어 지원이 7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발표와 같은 말하기 지원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고 전공 단어와 토픽 특강과 같은 다양한 단

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공동 3위로 나타났다. 쓰기 지원 프로그램에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TOPIK 학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① 토픽 특강의 기간 연장, ② 한국어 수업 시간에 TOPIK 다루기, ③ 모의시험과 쓰기 첨삭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2) 강사 설문조사 분석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2025년 2학기에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신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커뮤니티 참여자 1명을 제외한 총 11명 중에 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1) 학업 수행과 TOPIK과의 관계 인식

학업 수행과 TOPIK 성적과의 관련성에 대해 모두 그렇다고 응답해 학생들의 인식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강사들의 경우, TOPIK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학업 수행과는 TOPIK 성적보다 개인의 성실도나 성향 등이 더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수행 시 가장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고서 등 쓰기 수행이 1위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업 내용 이해이 2위였고, 발표와 토론 등 말하기 수행과 수업 활동(짝 활동, 조별 활동)이 공동 3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발표와 토론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것과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담당 강사들이 수강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쓰기 과제의 난도를 낮추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TOPIK과 수업 내용의 연계 방법

강의 진행 시 TOPIK과 연계한 방법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강사들은 크게 ① 퀴즈 등 평가 문항 유형 연계 ② 강의 주제 연계 ③ 기출 문제 풀이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TOPIK 모의시험 활용 방안

TOPIK 모의시험 활용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① 분반 배정에 활용 ② 학습 의욕 고취에 활용 ③ 학습 방향과 전략 상담 수립에 활용 ④교육과정 평가에 활용 ⑤ 대외 홍보 자료로 활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논의는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다음 장

에서 발전시켜 다루기로 한다.

(5)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학부에 바라는 지원

마지막으로 수업을 위해 학부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① 부교재 제작비 및 프린트 지원, ② 모의토픽이나 토픽 관련 자료 인쇄 및 배부 지원, ③ TOPIK 교과목 개설 ④ 학생들의 TOPIK 응시료 일부 지원, ⑤ TOPIK 교재비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응시료 및 교재비는 현재 융합학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다.

라. 논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과 학업 성취도는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 성과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업 성취가 한국어 능력 외의 학습 동기, 정의적 요인, 개인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학생 및 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두 집단의 상당수가 TOPIK이 학업 수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TOPIK 연계 수업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가. 주요 성과 및 기대 효과

본 커뮤니티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글로벌융합학부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능력과 학업 수행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의 한국어 교육 운영이 단순한 경험적 판단이 아니라 실제 학습자의 TOPIK 성과를 반영하여 설계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둘째, 학생과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업 수행이 어려운 원인, 수업 방식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TOPIK 연계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실질적 필요성이

확인되어 향후 교육과정 구성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TOPIK 연계 수업 운영을 제도화하거나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 교과목 운영, 수업 방법, 평가 방식 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이는 TOPIK 성과 활용, TOPIK 모의시험 시행, 학습 보조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한계

본고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TOPIK 성적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분석은 매우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특히 학습자의 초기 한국어 수준 외에도 학습 동기, 수업 적응 정도, 수강 태도 등 다양한 변인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역시 매우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응답자가 학부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5.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가. 교육과정 개선 방안

이 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교과목, 수업, 평가, 학습 지원 체계의 네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TOPIK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1) 교과목 차원

(1) TOPIK 성과 기반 교과 이수 경로 설계

현재 글로벌융합학부의 학년별 교과과정 이수표를 살펴보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반영해 학년별로 이수 경로를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학기

신입생 11명 중에서 TOPIK 3급 이하의 학생이 8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입학 후 1년이 지나도록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나 되었다.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전공과목의 성공적인 이수와 TOPIK 급수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아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학년별 이수표와 별개로, 과목별로 권장되는 TOPIK 급수를 확립해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첫째, 학생들은 본인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수강 가능 과목과 준비가 필요한 과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공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라도 TOPIK 학습을 지속해야 함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언어 역량을 기준으로 상담과 수강 지도를 체계화할 수 있어, 수업 부적응이나 성적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목별로 권장되는 TOPIK 급수를 명시함으로써 TOPIK 성과와 전공 학습의 연계를 강화해 학습자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TOPIK 성과를 기준으로 한 이수 경로는 학년 단위보다는 언어 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 급수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기초 또는 한국어 과목을 먼저 수강하도록 하고, 반대로 목표 급수를 조기에 취득한 학생에게는 전공 심화 과목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선택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TOPIK 성과 기반 이수 경로는 유학생 개별의 학습 역량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사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학업 부담을 조절하고 중도탈락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급 한국어 과목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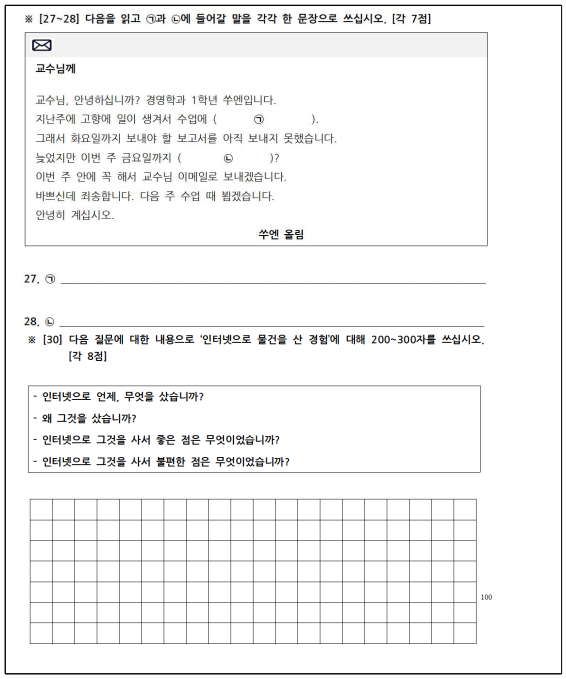
현재 글로벌융합학부에서는 고급 한국어 과목의 부재로 고급 수준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한국어 강의를 듣기 어렵다. 그러나 고급 한국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학술적, 전문적,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언어 사용 능력을 다룬다. 특히 고급 독해를 통한 논문・학술 자료 이해, 전공 개념 확장, 다양한 담화 유형에 대한 분석 능력, 학문적 글쓰기 기술 습득 등은 일반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충족되기 힘든 부분이다. 학생 설문조사에서 학술 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목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급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고급 한국어 과목 개설은 높은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전공 수업에서의 경쟁력과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수업 차원

(1) TOPIK 문제 유형 연계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바, 한국어 강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담당한 강의와 TOPIK을 연계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양한 수업 전략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커뮤니티에서는 수업 내용 혹은 평가 문항에 TOPIK 문제 유형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초급한국어쓰기> 과목에서는 '교수님께 문의하는 이메일 쓰기'로 수업을 할 때, TOPIK II 쓰기 51번 문제 유형과 연계해 교육하며 이를 성취도 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긴 글쓰기 작문 과제를 제시할 때도 TOPIK 쓰기 54번 문제 유형과 같이 주제와 세부 과제를 같이 제시해 TOPIK 쓰기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다.



※ [27~28] 다음을 읽고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각 7점]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1학년 쑤엔입니다.
지난주에 고향에 일이 생겨서 수업에 (㉠).
그래서 화요일까지 보내야 할 보고서를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
이번 주 안에 꼭 해서 교수님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 수업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쑤엔 올림

27.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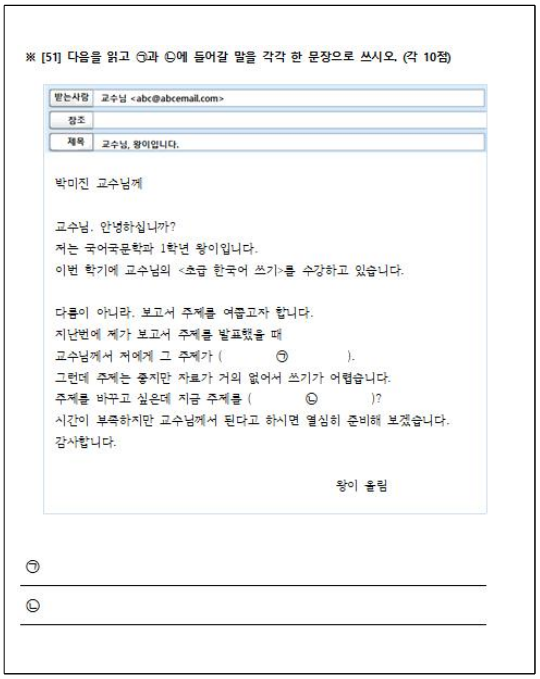
28. ㉡ _____

※ [30] 다음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 경험'에 대해 200~300자를 쓰십시오. [각 8점]

- 인터넷으로 언제, 무엇을 샀습니까?
- 왜 그것을 샀습니까?
- 인터넷으로 그것을 사서 좋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인터넷으로 그것을 사서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00

<표 12>. TOPIK 문제 유형 연계한 중간시험 예시



※ [51] 다음을 읽고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 (각 10점)

받는사람 교수님 <abc@abcemail.com>
참조
제목 교수님, 왕이입니다.

박미진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국문학과 1학년 왕이입니다.
이번 학기에 교수님의 <초급 한국어 쓰기>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고서 주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서 주제를 발표했을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 주제가 (㉠).
그런데 주제는 좋지만 자료가 거의 없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주제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주제를 (㉡)?
시간이 부족하지만 교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이 올림

㉠ _____

㉡ _____

<표 13>. TOPIK 문제 유형 활용한 수업 자료 예시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과제 수행이 대학 생활과 시험 준비에 동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 또한 매 단원 마무리 시간에 관련 기출문항 1~2개를 퀴즈 형식으로 풀이하거나, 읽기・듣기 수업에서 주제와 관련된 기출 지문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 과제 연계: 수업 과제 및 평가와 TOPIK 문제 유형을 연결. • 퀴즈 활용: 단원별 마무리 시간에 관련 TOPIK 기출 1~2문항을 퀴즈 형식으로 풀이. • 평가 반영: 중간·기말 평가 과제 중 일부를 TOPIK 유형 기반으로 설계.

<표 14>. TOPIK 문제 유형을 연계하는 수업 전략

(2) TOPIK 시험 응시 안내 및 권고

교강사는 수업을 통해 TOPIK을 자연스럽게 자주 접한 학생들이 실제 TOPIK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 수업 전략 중 하나이다. 예컨대 성적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TOPIK 시험 응시를 권고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시험 일정 정보, 시험 전략 등을 간략하게라도 언급을 해 주면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평가 차원

(1) TOPIK 모의시험 시행

평가 차원에서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TOPIK 모의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학생들에게 TOPIK 취득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TOPIK 시험을 자주 보기란 대단히 어렵다. 일단 TOPIK 시험 신청일에 많은 인원이 한번에 몰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을 완료하기가 쉽지 않고 신청에 성공하더라도 응시 장소가 서울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1회 응시료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TOPIK 모의시험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진단하고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성취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반 진단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별 수업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레벨테스트를 대체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다.

학기 말 평가는 학습 성취도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준다. 이는 학생 개개인에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교강사에게는 TOPIK 연계 수업의 교육적 효과와 적절성에 대해 시사한다. 큰 폭으로 성적이 향상된 학생에게는 인센티브나 마일리지 지급, 장학금 혜택 등 적절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모의시험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시험 불안을 낮추고 문제 유형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 실제 TOPIK 응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TOPIK 모의시험 개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OPIK 모의시험 시행은 순기능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TOPIK 모의시험 개발과 구축이다. 궁극적으로는 모의시험을 학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평가 도구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독자적인 모의시험을 구축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공개된 TOPIK 기출 문제를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문항을 조정·보완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의 언어교육원에서 자체 개발한 TOPIK 모의시험을 학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후 학습자 데이터가 축적되고 교수자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되면, 학부 수준의 자체 모의시험을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원 체계 차원

(1) TOPIK 성과 기반 교과목 이수 경로 상담 지원

학습 지원 체계에서는 학생의 TOPIK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목 이수 경로를 안내하는 상담 체계가 필요하다.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개인별 편차가 크고, 동일 학년 내에서도 언어 수준에 따라 전공 수업의 부담 정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언어 진단과 TOPIK 급수 변화 확인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수강 계획을 제시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공 수업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 부담을 개인의 역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담 지원은 유학생의 학업 실패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부 전체의 학습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2) TOPIK 특강 및 쓰기 첨삭 프로그램 지원

정규 교과과정과 병행할 수 있는 TOPIK 특강 및 쓰기 첨삭 프로그램 운영 역시 학습 지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TOPIK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 중 하나는 쓰기 영역으로, 이는 단기간의 수업만으로 보완하기 어렵다. 현재 방학에 운영되는 〈토픽 10 days〉 수업 기간 연장, 개별·그룹 쓰기 첨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예산 및 가용 인력의 확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쓰기 첨삭 프로그램은 TOPIK 대비 효과뿐만 아니라 대학 학업 수행 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학생의 언어적 성장을 촉진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TOPIK 관련 수업 자료 제작 지원

교수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학부 차원에서는 교수자가 TOPIK을 수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TOPIK 부교재 제작비 지원, TOPIK 모의시험 및 수업 자료의 인쇄・배부 지원은 교수자가 수업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후속 활동 계획

본고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학생 및 교강사의 요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커뮤니티에서는 아래와 같은 후속 활동 계획을 마련하였다.

첫째, 2026년 1학기부터 TOPIK 모의시험을 시행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궁극적으로는 자체 TOPIK 모의시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번에는 공개된 TOPIK 기출문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모의시험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잘 확보해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결과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별, 집단별 언어 능력 신장 추세를 확인하고 향후 수업 설계 및 학습자 지원 정책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TOPIK 모의수업 결과는 반 배치, 학생 피드백, 상담, 인센티브 지급 등 다방면으로 활용해 볼 계획이다. 특히 초기 진단 결과는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취약 영역을 파악하여 수준별 수업 운영, 학습 보충 프로그램 제공, 개별 학습 전략 안내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학기 말 성취도 변화는 수업 및 지원 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지표가 되며, 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학습자에게는 장학금, 비교과 마일리지, 수료증 부여 등 적절한 동기 유발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TOPIK 연계 수업 전략을 공유할 것이다. 이번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한국어 강사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TOPIK 연계 수업 전략을 수립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 워크숍 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AI 통번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수업 현황 및 최적화를 위한 방안 모색

AI Bridge Campus Lab

김경아 기초교양학부

문형남 글로벌융합대학

전지원 글로벌융합대학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54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54
나. 팀 구성 및 특징 ····· 55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 56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 56
나. 주요 활동 내용 ····· 57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59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 ····· 59
나. 기대 효과 및 한계 ····· 66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 68
가. 수업· 교과목· 연구 적용 방안 ····· 68
나. 후속 활동 계획 ····· 72

5. 기타사항 ····· 73
가. 건의사항 ····· 73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교육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유학생 대상 대학교육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융합학부의 경우 학부생 전원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한국어 숙달도의 편차가 크고 기초가 부족한 학습자가 다수인 상황이다. 이에 AI 통번역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경험하는 언어적 소외감을 일부 완화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교내에서 운용 중인 실시간 AI 통번역 시스템의 실제 활용 경험을 토대로, 수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 이해 격차를 완화하고 번역 오류나 기술적 지연 상황에서도 교수자가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업 효과를 확인하고, 대학 차원의 다문화·다언어 교육 모델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포용적 학습 환경(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전공 교육의 질적 보장과 혁신적 교수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한 어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전공 수업에서 발생하는 언어 이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업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의 언어 지원 체계와 포용적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이 추구하는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AI 통번역 시스템의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 운영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교내에 구축된 실시간 AI 통번역 시스템이 단순한 편의 도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번역 오류, 전공 용어의 표현 불일치, 학생들의 실시간 이해도 저하 등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은 시스템 활용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가 되면, 나아가 대학의 국제화 전략과 교육 혁신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교수자 간 경험 공유를 통한 집단지성 기반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AI 통번역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은 기술 그 자체보다 이를 수업 설계에 녹여내는 교수자의 운영 방식과 직결된다. 따라서 교수자들이 개별 수업에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성공 사례를 가감 없이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특히 번역 오류 발생 시의 즉각적인 개입 매뉴얼, 학생의 집중도와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발화 속도 및 언어적 표현 전략, 국가별·문화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과정은 개별 교수자의 성장을 넘어 교수법의 집단적 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협업 체계는 대학 전체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나. 팀 구성 및 특징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부의 전공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으로 구성되었다. 팀원 모두가 한국어 숙달도의 편차가 큰 유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며 현장의 교육적 난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김경아 교수는 팀 내 대표 교수로, 커뮤니티 활동 전반의 총괄 기획과 수업 운영 모델 설계를 담당하였다. 본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AI 통번역 시스템을 교과목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에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표준 운영 원칙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수진이 직접 관장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는 수업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교수학습센터에 전달하는 연계 역할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과정에도 참여하여 질적 자료 해석과 교수 전략 도출에 공동으로 기여하였다.

문형남 교수는 대표 교수와 협력하여 현재 운영 중인 AI 통번역 시스템의 작동 특성과 언어별 번역 양상을 수업 후 함께 점검하였다. 번역 오류, 자막 지연, 용어 불일치 등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 운영상 유의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기여하였다.

끝으로 전지원 교수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연구 도구 개발 및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하였다.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지와 FGI 질문지를 직접 설계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업 이해 과정, 참여 인식, 시스템 활용 경험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로 정성적으로 분석되어 커뮤니티 내 논의 자료로 공유되었고, 다언어 수업 환경에서의 발화 가이드라인 도출과 교수 전략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시스템 활용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 경험의 특징과 교수자 발화 전략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단순히 개별적인 업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정기 모임을 통해 '기술적 탐색-실전 적용-데이터 분석'이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부의 전공 교과목 담당 교수자로서, 본 활동을 통해 도출된 교수 전략이 단일 교과목의 성과를 넘어 학부 전체의 다문화 교육 가이드라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기적인 팀 구성은 언어적 장벽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교수자 간의 집단지성을 통해 대학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2025년 10월 3일 ~ 2026년 1월 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2025년 10월 2일 최종 선정 안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 학기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 4회의 정기 모임을 진행하였다. 교수진의 강의 일정과 학기 중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본 커뮤니티는 4회의 정기 모임을 통해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AI 통번역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① 초기 단계(제1~2회차)

- 수업 현장에 AI 통번역 시스템을 처음 적용하면서 경험하게 된 생생한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교수자마다 다른 억양과 구사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역의 차이를 점검하였다. 특히 강의 중 자주 쓰이는 용어나 개념들이 어떻게 잘못 번역되는지 그 유형을 수집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AI 통번역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느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와 이용 편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병행하였다.

② 심화 단계(제3~4회차)

- 수업 현장에서 축적된 오번역 사례와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지연이나 번역 오류가 발생했을 때 교수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특히 수강생 전원이 유학생인 수업 특성에 맞춰, 학생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교수자의 최적화된

발화 전략(속도, 어휘 선택, 반복 설명 등)과 보조 설명 방식 등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설계된 정기 모임 체계는 수업 현장의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장이 되었다. 정기 모임 내에서의 집중적인 논의와 교수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별 교수자가 직면한 교육적 난제를 공동의 지혜로 해결하고 대학 차원의 다문화 교육 모델을 정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나. 주요 활동 내용

이번 커뮤니티 활동은 AI 통번역 시스템이 실제 수업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1단계】 학습자 환경 분석 및 조사도구 설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국적과 모국어 구성, 그리고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파악했다. 특히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학습 격차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경험과 AI 통번역 시스템 서비스의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와 인터뷰(FGI) 문항을 설계하며 조사 계획을 세웠다.

【2단계】 학습 현장 데이터 수집 및 실태조사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접속의 안정성, 번역 품질, 전달 속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몽골, 미얀마,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TOPIK 급수가 없거나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이 수업 중 느끼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3단계】 정량·정성 데이터 분석 및 교수법 함의 도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번역 오류나 접속 문제를 정리했다. 특히 언어권에 따라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며, 특정 국가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교수법적 보완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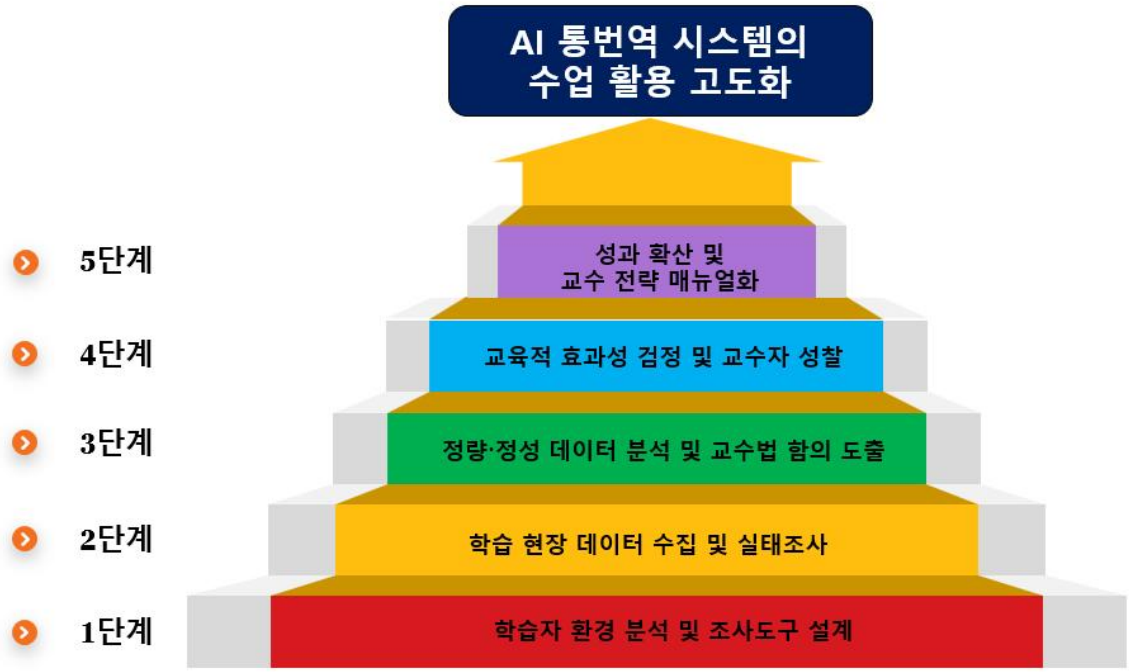
【4단계】 교육적 효과성 검정 및 교수자 성찰

조사 결과와 수업 현장의 사례를 종합하여 AI 통번역 시스템의 실제 교육적 기여도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교수진 간의 세미나를 통해 시스템 도입 후 학생들의 강의 접근성

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평가하였으며,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과 수업 운영의 방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5단계】 성과 확산 및 교수 전략 뉴얼화

활동 성과를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출된 교수 전략을 체계화하였다. AI 시스템 활용 시 주의할 점과 번역 오류 대처법 등을 매뉴얼화하였다.



〔그림 1〕 연구방법 체계

이번 활동을 통해 수강생 전원이 외국인 유학생인 수업 환경에서 실시간 AI 통번역 시스템이 학생 참여와 수업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번역 오류, 용어 불일치, 자막 지연 등 주요 문제가 정리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수자 개입 전략이 구체화 되었다.

주요 결과물로는 설문·인터뷰 결과 정리 자료, 교수자를 위한 AI 통번역 시스템 운영 권장사항, 번역 오류 발생 시 수업 운영 대응 방안, 포용적 교수법 가이드라인 초안 등이 도출되었다.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

1)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절차

설문조사는 AI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활용 경험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식과 학습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2025학년도 2학기에 본교에 입학하여 실제 수업 환경에서 AI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는 개강 후 12주차에 해당하는 2025년 11월 18일에 실시되었다. 이 시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수업의 운영 방식과 학습 환경에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된 단계로, AI 통번역 시스템에 대한 초기 인상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적인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사 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인지도나 기대 수준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 과정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인식과 활용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설문에는 총 33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부실기재한 1부를 제외하고 총 32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설문 응답자는 조사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은 후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통번역 서비스 이용 언어를 살펴보면, 몽골어 사용자가 12명(3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미얀마어 7명(21.9%), 베트남어 6명(18.8%), 영어 4명(12.5%), 중국어 3명(9.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을 TOPIK 급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TOPIK 급수가 없는 응답자가 17명(53.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TOPIK 3급 보유자가 7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TOPIK 4급과 5급 보유자는 각각 3명(9.4%)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조사대상자 다수가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한국어 숙련도에 상당한 개인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표 1> 참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

구분		N(%)	구분		N(%)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언어	몽골어	12(37.5)	TOPIK 급수	없음	17(53.1)
	미얀마어	7(21.9)		2급	2(6.3)
	베트남어	6(18.8)		3급	7(21.9)
	영어	4(12.5)		4급	3(9.4)
	중국어	3(9.4)		5급	3(9.4)

※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100%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측정문항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경험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식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총 다섯 개의 영역으로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외국인 유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AI 통번역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이해, 정확성, 실시간성, 편의성, 만족도 등 전반적 인식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첫째, 학습 내용 이해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AI 통번역 자막만으로도 교수자의 설명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문항은 서비스가 실제 수업 이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설정되었다.

둘째, 번역 정확성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자막이 교수자의 발화를 올바르게 전달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는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실제 학습 과정에서 이해를 방해하는 오류 여부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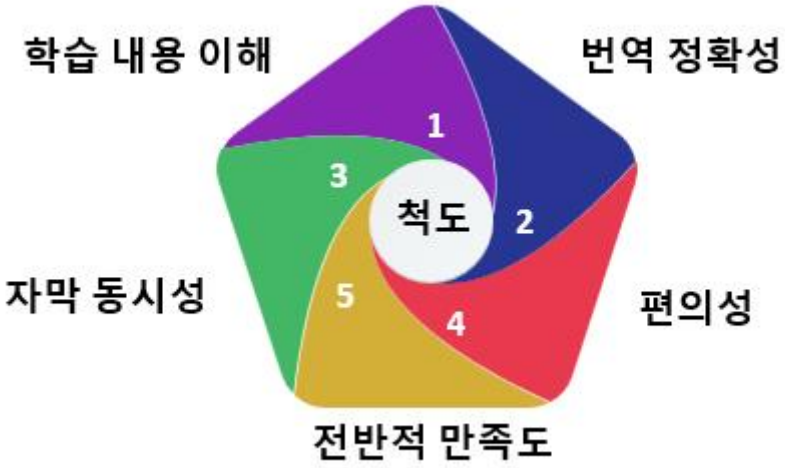
셋째, 자막 동시성 영역에서는 교수자의 발화와 자막 제공 간의 시간적 일치를 평가하였다. 학생들이 자막을 거의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지는 수업 진행의 적시성과 실시간 학습 효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접속 및 사용 편의성 영역에서는 AI 통번역 서비스에 접속하는 과정이 얼마나 쉽고 빠른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 참여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끝으로, 전반적 만족도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AI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문항은 서비스 활용 전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본 조사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 환경에서 AI 통번역 서비스를 활용하며 형성한

구체적 인식과 경험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양적연구 설문문항 구성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3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경험 척도는 각 문항별 6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학습 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본 척도의 α값은 .88로 나타났다.

(3) 설문조사 결과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경험에 대한 영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인 학습 내용 이해는 평균 3.67점(100점 환산 시 약 61점, *SD*=1.27)으로, 일부 학생들은 자막만으로 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를 보면 1~3점을 선택한 학생이 약 4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60%는 4~6점으로 응답하여, 자막이 일정 부분 학습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영역인 번역 정확성은 평균 3.35점(100점 환산 시 약 56점, *SD*=1.25)으로, 번역

의 정확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중간 정도임을 나타냈다.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가 각각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학생별 경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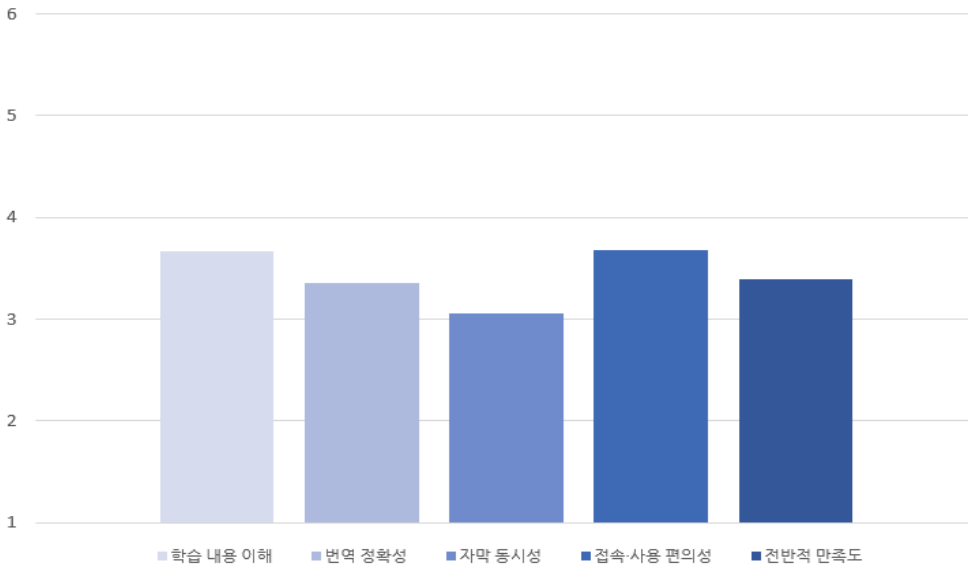
세 번째 영역인 자막 동시성은 평균 3.06점(100점 환산 시 약 51점, *SD*=1.32)으로, 일부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1~3점으로 응답한 학생이 약 56%를 차지했으며, 4~6점은 44%로 나타나, 시스템의 실시간성이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네 번째 영역인 접속·사용 편의성은 평균 3.68점(100점 환산 시 약 61점, *SD*=1.08)으로,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대부분이 3~5점 사이에 몰려 있어, 서비스 접속과 사용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39점(100점 환산 시 약 57점, *SD*=1.41)으로, 학생들이 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나, 완전한 만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경험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위 영역별 점수를 종합하면, 학생들은 접속·사용 편의성과 학습 내용 이해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번역 정확성, 자막 동시성,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AI 통번역 시스템의 강점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외국인 학생들은 AI 통번역 시스템을 통해 수업 내용을 일부 이해할 수 있었고, 서비스 접속과 사용 과정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으나, 번역의 신뢰성, 자막 제공의 실시간성, 전반적 만족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으며,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경험

2) 인터뷰

(1) 인터뷰 참여자 구성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상호 인식과 경험의 교류를 통해 심층적이고 집약적인 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경험에 대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적으로 설명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예비 대상자 명단을 구성한 후, 연구 목적, 인터뷰 방식, 녹취 및 자료 활용에 대한 윤리적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자발적 사전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5명의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특히 한 학기 동안의 수업 경험을 종합적으로 회고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여, 향후 AI 기반 수업 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반영하고자 인터뷰는 12월 4일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2025학년도 2학기 입학생으로, 대학 입학 이후 첫 학기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다. 이들은 한국 대학의 수업 운영 방식, 전공 강의에서 요구되는 언어적 난이도, 학사 제도 전반에 아직 충분히 적응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학습자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은 AI 통번역 시스템이 학습 초기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실제 수업 참여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커뮤니티 활동이 진행된 교육환경에서는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등 총 5개 언어를 대상으로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언어의 배열 순서는 본 수업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 순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본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각 언어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 1인씩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수업 환경과 동일한 교수자 발화 조건에서도 언어 구조 및 사용 맥락의 차이에 따라 통번역 정확도와 학습 경험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2) AI 통번역 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경험과 인식

인터뷰 자료를 발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몽골어는 통역이 좀 어색했어요. 그 번역을 보면 그 교수님이 말하는 것의 번역은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 교수님이 말하는 대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참석자 A)

수업이 시작할 때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수업이 아마 20분 아니 40분, 10분 후에 약간 통하지 않아 (참석자 D)

중국어도 완전 달라요. 완전...(참석자D)

하지만 그 교수님 말하는 단어랑 그 단어는 달라서... (참석자 E)

예를 들면 '새로운'이라는 표현에서 '새'로 시작되면 그 '새(Bird)'가 나와요. (참석자 B)

교수님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했지만, 'I want to anything for many'라고 이렇게 했어요.... AI가 하니까 문법 미스테이크 많이 있어요. (참석자 E).

말하는 속도가 빠르거나 많이 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끊겨요. 그대로 있어요... 빠르면 그냥 안 나와요. 그냥 멈춰요. (참석자 B)

다른 수업 교수님들이 너무 빠르고 이렇게 많으니까 이 수업은 듣기가 너무 좋아요 해요. (참석자 A)

저도 완전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요. (참석자 B)

저는 000(타과) 전공수업 신청했는데, 번역이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 교수님 앞에 나가서 울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참석자 B)

이상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참여자들은 AI 통번역 시스템 기반 수업에서 번역 결과 자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 경험을 보고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번역이 전반적으로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진술하였으며, 교수자의 실제 발화와 번역된 내용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수업 내용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언급되었다.

둘째, 언어권에 따라 번역 경험이 상이하게 인식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특정 언어의 번역이 다른 언어에 비해 특히 부정확하거나 어색하게 제공된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수자의 발화 내용과 AI 통번역 시스템의 번역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수업 중 다양한 형태의 오역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되거나, 문장의 핵심 의미가 왜곡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일부 경우에는 원 발화와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되는 경험도 언급되었다.

넷째, AI 통번역 시스템의 번역 결과는 교수자의 발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식되었다. 참여자들은 교수자가 천천히 말하고 문장을 짧게 나누어 발화하며 쉬운 어휘를 사용할 경우, 번역 결과의 이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진술하였다.

다섯째, 일부 참여자들은 AI 통번역 시스템이 수업 이해에 제한적으로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당 시스템을 수업 이해의 핵심 도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참고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 기대 효과 및 한계

1) 기대 효과

(1) 학습 이해 보조 및 참여 촉진

AI 통번역 시스템은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학습 내용 이해와 접속·사용 편의성 영역에서 학생들이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시스템이 학습 초기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강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 분포를 보면, 학습 내용 이해 영역에서 1~3점을 선택한 학생이 약 4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60%는 4~6점으로 응답했다. 이는 일부 학생들이 자막만으로 강의 내용을 완전히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학습 이해를 돕는 보조적 기능은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FGI 분석에서는 학생들이 AI 통번역을 활용하여 강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교수자의 발화 및 시각 자료와 병행함으로써 학습 참여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활용은 교수법 커뮤니티 내에서 실제 수업 사례와 활용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교수법 개선 및 맞춤형 수업 설계 가능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수자의 발화 속도, 문장 길이, 전공 용어 사용 정도에 따라 번역 정확도와 이해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FGI에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교수법 커뮤니티에서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시 발화 조정, 학습 자료 보조 활용, 언어 난이도 조절 등의 교수법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학생들의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경험은 향후 학습자 맞춤형 교수 설계와 언어별 학습 전략 개발의 실증적 토대가 된다. 이는 교수자가 유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때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시스템 기반 교육 연구 자료 확보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AI 통번역의 학습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양적·질적 데이터로, 교수법 커뮤니티에서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언어별 번

역 정확도 차이, 오역 사례, 학습 혼란과 불안 경험 등은 향후 AI 기반 수업 지원 정책 개발이나 개선 연구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단순한 기술 활용 사례를 넘어, 교육 환경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실증적 교수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2) 한계

(1) 학습 효과의 제한성

일부 학생들은 자막을 통해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였으며, 언어별 번역 정확도 편차가 존재하여 동일한 수업 환경에서도 학습 경험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활용 전략이 학습 효과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시스템을 단독 학습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기술적·운영적 한계와 현실적 활용 범위

기술적 제약은 분명히 존재하였다. AI 통번역 시스템의 실시간성 한계, 번역 품질의 불안정성, 발화 속도와 문장 구조에 따른 오류 발생 등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학습 이해도와 만족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커뮤니티 활동은 실질적인 교육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교수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전략을 확보하였으며, 다언어 환경에서의 강의 운영 방식과 발화 조정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향후 강의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침을 도출하였다.

이번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경험을 구조적으로 성찰하고, 교수법 개선 및 학습 지원 전략을 탐색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후속 논의 및 검토에서는 다양한 교과목과 학습 맥락을 포괄한 비교·확장 분석을 통해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수업의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가. 수업·교과목·연구 적용 방안

통계 분석 결과와 FGI를 종합해 보면, AI 통번역 시스템은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접근성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나, 번역 정확도와 실시간 처리 지연 문제로 인해 학습 이해도와 만족도에서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일수록 번역 오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업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수자의 발화 방식과 수업 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업 차원에서는 AI 통번역 시스템을 '주요 전달 수단'이 아닌 '보조적 학습 도구'로 명확히 위치시키는 운영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강의 시작 단계에서 핵심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전에 제시하고, 시각 자료(PPT, 도식, 키워드 정리)를 병행하여 통번역 오류로 인한 의미 왜곡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FGI 결과를 바탕으로, 다언어 수업 환경에서 효과적인 AI 통번역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발화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학생들은 번역 지연, 문장 구조에 따른 의미 왜곡, 전문 용어 오번역 등으로 인해 강의 흐름을 놓치거나 이해에 혼란을 겪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교수자의 발화 방식과 수업 운영 전략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커뮤니티에서는 수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발화 전략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그 중요도와 적용 시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먼저, 해당 가이드라인은 학습 이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항목'과, 수업 몰입도와 안정성을 보완하는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필수 항목에는 문장 단순화, 전문 용어의 사전 제시, 발화 속도 조절, 핵심 개념의 반복 설명, 번역 오류 발생 시 즉각적 재진술, 핵심 구간의 의도적 반복 설계, 수업 종료 시 번역 친화적 요약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는 AI 통번역 시스템을 보조적 학습 도구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수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선택 항목에는 담화 표지어 활용, 질문 발화 구조의 단순화, 관용 표현 사용 최소화, 행동 기반 이해 점검, 발화와 시각 자료의 동시 정렬 유지 등이 포함되어 교수자의 수업 숙련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항목은 수업 전·중·후 단계별 교수자의 실제 수업 행동과 1:1로 대응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현장 적용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수업 전 단계에서는 전문 용어와

핵심 개념을 사전에 시각 자료로 준비하고, 반복 설명이 필요한 구간과 번역 오류 가능성이 높은 발화를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수업 중 단계에서는 발화 속도와 문장 구조를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담화 표지어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 흐름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수업 후 단계에서는 번역 친화적 문장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학생의 이해 여부를 행동 기반으로 확인하며, 번역 오류 사례를 다음 수업 설계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FGI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발화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AI 통번역 시스템의 한계를 전제로 한 실행 중심의 교수 전략으로 구조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다언어 수업 환경에서 교수자가 통번역 시스템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학습 혼란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참여와 이해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표 2> 참조).

둘째, 교과목 차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교과를 중심으로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수업 유형을 단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초 교양 및 전공 입문 단계 교과목에서는 강의 이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실시간 번역 자막과 핵심 개념 중심의 시각 자료를 병행 제공하는 이해 지원형 수업 모델을 적용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수자의 발화 속도 조절, 문장 단순화, 핵심 개념 반복 설명 등 필수 발화 가이드라인을 집중적으로 적용하고, 번역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재진술과 시각 자료 보완을 표준 운영 절차로 설정한다. 반면, 전공 심화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숙달도와 학습 자율성을 고려하여 토의·발표·팀 프로젝트 활동에서 선택적으로 AI 통번역 시스템을 활용하는 혼합형 수업 모델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강의 설명 및 과제 안내 구간에서는 통번역 시스템을 유지하되, 소그룹 토의나 발표 피드백 단계에서는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시스템 사용 여부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교과의 난이도, 수업 목표, 학생들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발화 전략과 시스템 활용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유연한 교과 운영 기준이 구체화되었다.(<표 3> 참조).

셋째, 연구 적용 측면에서는 본 커뮤니티 활동에서 축적된 설문 자료와 FGI 결과를 활용한 후속 연구 설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교수자의 발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문장 길이, 반복 설명 빈도, 담화 표지어 사용 등)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학습 이해도·수업 참여도·번역 신뢰도 인식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양적 분석 연구로 확장할 수 있다. 아울러 언어권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번역 오류 유형(전문 용어 오역, 문장 경계 인식 오류, 속도 지연 등)을 분류하고, 이에 대응한 교수자 발화 전략의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발화 방식과 번역 정확도 간의 상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표 4> 참조).

〈표 2〉 AI 통번역 활용을 위한 발화 가이드라인

내용	적용 단계	중요도
1. 한 문장당 하나의 핵심 의미만 전달하도록 문장을 단순화한다.	수업 중	필수
2. 전문 용어·고유명사는 발화 전에 시각 자료로 제시하거나 철자를 병기한다.	수업 전·중	필수
3. 발화 속도를 일반 강의보다 완만하게 유지하고 문장 간 충분한 간격을 둔다.	수업 중	필수
4. 핵심 개념은 '정의-예시-요약' 구조로 최소 2회 이상 반복 설명한다.	수업 중	필수
5. 번역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시각 자료 제시 또는 간단한 재진술로 보완한다.	수업 중	필수
6. 담화 표지어(예: '이제', '정리하면', '중요한 점은')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강의 흐름을 분절한다.	수업 중	선택
7. 질문 발화는 구조를 단순화하고 선택형 질문(A/B, 예/아니오) 위주로 제시한다.	수업 중	선택
8. 즉흥적 비유·관용 표현·은유적 발화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즉시 재진술을 병행한다.	수업 중	선택
9. 이해 확인 발화는 단순 질문형이 아닌 행동 확인형 과제로 전환한다.	수업 중	선택
10. 번역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전문 개념, 과제·평가 안내)은 '의도적 반복 구간'으로 사전에 설계한다.	수업 전·중	필수
11. 교수자 발화와 시각 자료를 동시에 제시하여 '말-텍스트-이미지'의 정렬을 유지한다.	수업 중	선택
12. 수업 종료 전 핵심 내용을 짧고 단순한 '번역 친화적 문장'으로 요약 정리한다.	수업 후	필수

〈표 3〉 교과목 차원의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수업 적용 가이드라인

구분	교과목 유형	적용 목적	AI 통번역 활용 방식	교수자 발화 전략	운영 포인트
1	교양	강의 이해도 확보	전 수업 구간 상시 활용	문장 단순화, 속도 완화, 핵심 개념 반복	번역 안정성 최우선 오류 즉각 보완
2	전공 입문	개념 정착 및 학습 적응	강의 설명 ·과제 안내 중심 활용	정의-예시-요약 구조 반복	시각 자료와 발화 동시 제시
3	전공 심화	학문적 사고·표현력 강화	선택적·부분적 활용	질문 구조 단순화, 재진술 병행	토의·발표 시 활용 강도 조절
4	토의·발표 중심	참여도 및 상호작용 촉진	발표·질의응답 구간 선택 활용	선택형 질문, 행동 확인형 발화	통번역 의존 최소화 상호 이해 보완

5	혼합형 (강의+활동)	학습 목표 균형 달성	강의 구간 중심 활용	담화 표지어 활용, 요약 발화 강화	교과 특성에 따라 유연성 적용

〈표 4〉 연구 적용 차원의 AI 통번역 활용 수업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영역	분석 요소	구체적 지표	자료 수집 방법	기대 분석 결과
교수자 발화	문장 구조	평균 문장 길이, 복문 비율	강의 녹취 분석	발화 단순화 효과 검증
	반복 전략	핵심 개념 반복 빈도	수업 관찰 기록	이해도 상승 여부 확인
통번역 품질	오류 유형	오역·누락·지연 빈도	번역 로그 분석	언어권별 오류 특성 도출
학습자 반응	이해도	자기보고 이해도 점수	설문조사	발화 전략-이해도 상관 분석
	참여도	질문·응답 빈도	수업 참여 기록	통번역 활용의 참여 촉진 효과
인식 변화	시스템 신뢰도	번역 신뢰·의존도	사전·사후 설문	활용 경험에 따른 인식 변화

이를 종합해 보면,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다언어 수업 환경에서 교수법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구조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비록 학습 이해도와 수업 만족도 측면에서 그 효과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확인되었으나,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교육적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수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화 조정 전략과 수업 운영 방안을 확보하였으며, 다언어 환경에서의 강의 운영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향후 강의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AI 통번역 시스템을 보조적 학습 도구로 활용하면서, 필요 시 교수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시각 자료를 병행하는 등 현실적인 학습 전략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본 커뮤니티는 통계 분석과 FGI 결과를 토대로, 추상적 제언 수준을 넘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발화 가이드라인과 교수 전략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교수법 도입을 요구하기보다는, 외국인 유학생 수업 현장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발화 조정 전략을 체계화한 것으로, 교수자의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AI 통번역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실제 이해도를 제고하는 실효적인 운영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교수자의 발화 전략을 중심으로 AI 통번역 시스템의 활용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시스템 자체의 번역 정확도나 실시간 처리 성능과 같은 기술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교수자의 발화 조정 역량, 수업 규모, 교과목 특성,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와 학습 태도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 적용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본 활동은 특정 학기와 일부 교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모든 교과와 학습 맥락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다언어 수업 환경에서 AI 통번역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실천적 가치가 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발화 가이드라인과 교수 전략은 향후 다양한 교과목과 수업 유형으로 확장·적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선과 교수법의 전략적 적용이 병행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 이해도 제고는 물론, 교수자의 다언어 수업 역량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후속 활동 계획

후속 활동은 본 교수법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실천 중심 활동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각 교수자는 자신의 수업에서 AI 통번역 시스템 활용과 관련한 교수 전략을 소규모로 실험하고, 학생 반응과 수업 운영 경험을 기록하여 공유한다. 이를 통해 실제 수업 맥락에서 효과적인 전략과 한계를 비교·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내 정기적인 사례 공유를 통해 번역 오류 대응 방식, 발화 조정 효과, 학생 참여 변화 등을 공동으로 성찰한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언어 수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간단한 교수 전략 가이드를 정리하여 내부 공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 수업 운영 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5. 기타사항

가. 건의사항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AI 통번역 시스템의 활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 학습 보조 도구로서 일정 부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완전히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시간 AI 통번역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안정적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번역 정확성 및 자막 동시성에서 일부 학생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언어별 번역 정확도 편차를 최소화하고, 오역 사례를 줄이기 위한 **업체 차원의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교내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교내 와이파이 등의 문제로 수업 시간 중 AI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이 접속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들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전용 강의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하나의 화면에 강의 PPT와 번역 시스템을 모두 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전용 강의실을 배정하여 AI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스크린**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초기인 까닭에 아직까지 본 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 수강생 입장에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국어 역량이 매우 미흡한 강좌의 경우 **내국인 재학생과 다른 별도의 잣대를 토대로 수강인원 조정, 수업조교 지원, 성적 평가 등급 등의 통합적인 기준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과 AI 통번역 시스템을 **연계**하여 학생 참여와 이해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내 다문화 수용성이 함양되기를 기대한다.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교양 독일어 교재 개발을 위한 지침 연구

빌둥(Bildung)

최병진 독일언어・문화학과
이주은 독일언어・문화학과
이현애 독일언어・문화학과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78

1.1. 교수법 커뮤니티 운영 배경 및 목적 ····· 78

1.2. 교수법 커뮤니티의 구성 ····· 79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 80

2.1. 교재 분석 ····· 80

2.2. 교수활동 설계 ····· 81

2.3. 교재 기획 ····· 88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89

3.1. 예시 단원 교재 및 지침 완성 ····· 89

3.2. 교재 개발에 대한 기대 효과 및 한계 ····· 99

4. 향후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 100

1. 커뮤니티 활동 개요

1.1. 교수법 커뮤니티 운영 목적 및 필요성

□ 운영 목적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운영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적·교육적 환경과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독일어 교양교재개발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사용 중인 교양 독일어 교재는 제작된 지 오래되어, 현재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AI의 발전으로 외국어 학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글로벌 사회에서 독일어는 학문, 산업,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언어이며, 유럽연합 및 독일 기업과의 교류 증가로 실용 중심 독일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독일어 교양교재는 문법 중심의 전통적 교수 방식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 교양 학습자는 짧은 학습 시간 내 실질적인 성과를 원하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학습자들이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최신 주제의 교재를 선호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AI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학습 도구와 연계 가능한 교재 개발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결합된 학습 콘텐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교재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교재 개발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과 과업 기반 학습 이론을 반영한 교재 편찬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대학 교양 학습자들이 독일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수·학습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및 AI 기반 학습 도구와 연계 가능한 교재 구성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습 지속성을 강화하는 교재 개발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 필요성

최근 글로벌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일어 교양교재는 제작 시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머물러 있어 최신 사회 이슈와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학습자 수준의 다양성과 학습 목적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양 학습자는 제한된 학습 시간 내 실용적인 언어 능력 습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교재는 이를 온전히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있으며, 아울러 AI 기반 학습 환경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교재 차원에서의 체계적 연계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재가 변화없이 오래 사용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동기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 학습자 요구, 교육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교양 독일어 교재의 개편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교재 개발의 이론적・실천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교수법 커뮤니티의 구성

□ 팀구성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앞에서 언어학, 독일어 교수법, 독일어 교육의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3명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각 구성원의 전문성과 커뮤니티에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전문성	역할
최병진	진로 및 전공 능력 개발	프로그램 총괄
이주은	독일어 교수법	기존 교재 분석 및 교수법 설계
이현애	독일어 교육	독일어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2.1. 교재 분석

기존 교양 독일어 교재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 대상을 통해 필요한 주제・수준・활동 유형을 파악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양 독일어 교재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균형 있게 기초 단계에서 함양하여,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기초 외국어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와 달리 독일어는 선택 과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강생의 학습 수준이 매우 다양하며, 일부는 이미 독일어 경험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일어를 처음 접하는 초보 학습자이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할 때, 교재는 알파벳과 발음부터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언어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교양 독일어 교재는 알파벳과 발음 학습을 시작으로 총 1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는 본문(Text), 문법(Grammatik), 연습문제(Übungen)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는 인사말, 가족, 식당, 여행, 숙소, 문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어 학습자에게 비교적 친숙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재 곳곳에는 국명과 국적 표기, 화폐 단위, 음식, 열차표를 보는 방법, 독일의 교육과정, 가족관계 등의 문화 정보가 삽입되어 있으며, Lesetext와 단원별 어휘 정리가 교재 후반부에 제시되어 학습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14과로 구성된 교재는 독일어 I과 독일어 II로 나뉘어 학습하며, 독일어 I에서는 1과부터 7과까지의 문법을, 독일어 II에서는 14과까지의 문법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기초 독일어 문법은 완성된다. 이러한 체계성은 문법 중심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교양 독일어 수업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법 중심 구성은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특히 2과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유대명사, sein 동사, haben 동사, 정관사, 부정관사, 지시대명사 das, 수사, 명사의 단수와 복수 등 매우 많은 문법 요소가 한 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초보 학습자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며, 문법 이해에 대한 어려움뿐 아니라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도 학생들은 문법의 양과 난이도로 인해 독일어를 “어렵고 복잡한 언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양 독일어 교재는 문법 체계의 완결성보다는 학습자의 이해 가능성과 단계성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법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한

과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을 축소·분산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법 설명은 지나치게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초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설명을 병행하여 제시하고, 표, 그림, 도식, 예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Text)의 내용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정보 전달형 대화문보다는 대학생의 일상, SNS, 여행, 아르바이트, 취미, 전공, 진로, 문화 차이 등 학생들의 실제 삶과 밀접한 상황을 반영한 대화문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문법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도록 제시될 때, 학생들은 문법을 암기 대상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연습문제 역시 단순한 문법 변형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짝 활동, 역할극, 간단한 말하기 과제, 짧은 글쓰기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중심 활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독일어를 시험 과목이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교양 독일어 교재는 체계적인 문법 구성과 기본적인 주제 선정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초보 학습자가 대부분인 교양 강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교재는 교양 독일어 설문 조사를 참조하여 문법 중심 구조에서 의사소통 중심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문법의 양을 조절하며, 본문과 활동을 학생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주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교양 독일어 수업은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닌, 흥미롭고 실용적인 외국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과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2. 교수활동 설계: 의사소통 중심·디지털 기반·문화 통합 수업 모형

2.2.1. 교수활동 설계의 기본 방향

본 교양 독일어 수업은 대화문, 읽기 자료,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독일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학습자는 대부분 초보 수준이므로, 문법 중심의 설명식 수업보다는 의사소통 중심, 과업 기반, 문화 통합, 디지털 활용 수업을 통해 독일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 활동은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이해 가능성: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언어 사용
- 참여성: 학습자가 직접 말하고 만들고 발표하는 활동 중심

- 맥락성: 실제 상황과 문화 속에서 언어 사용
- 디지털 친화성: 모바일 및 멀티미디어 도구 적극 활용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수 활동을 단계적으로 설계한다.

2.2.1.1. 디지털・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 sono를 활용한 독일어 노래 생성

본 활동에서는 Sono AI를 활용하여 간단한 독일어 문장을 기반으로 한 노래 생성 활동을 진행한다. 학습자는 Ich liebe Kaffee, Ich liebe Brot, Deutschland ist schön, Guten Morgen! 과 같이 초급 수준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를 입력하여 간단한 노래 형태로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언어를 문자 형태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청각적으로 경험하도록 돕는다.

노래 생성 이후에는 생성된 음원을 함께 듣고 따라 부르는 활동을 진행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독일어 발음과 억양에 노출되도록 한다.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부르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정확한 발음을 의식하기보다는 리듬과 억양에 맞춰 소리를 내게 되며, 이는 초급 학습자가 흔히 느끼는 발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음악 활동은 교실 분위기를 보다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Sono AI 활용 노래 생성 활동은 독일어 학습을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하게 하고, 학습자의 발화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는 자신이 만든 문장이 노래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언어 사용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독일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1.2. 과업 기반 학습(Task-based Learning)

2.2.1.2.1 독일 여행 계획 세우기

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협력하여 독일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이 활동은 단원에서 학습한 독일어 어휘와 기본 문장 구조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과업 중심 학습(Task-based Learning) 활동이다. 학습자는 여행이라는 친숙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독일어를 실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활동의 첫 단계에서는 소그룹별로 여행 목적지를 선택한다. Berlin, München,

Hamburg 등 대표적인 독일 도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교사가 제시한 목록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도시를 정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도시 이름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독일 지명에 익숙해지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선택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동 수단, 숙소, 주요 관광지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이동 수단, 호텔이나 호스텔과 같은 숙소, 박물관이나 랜드마크 등을 선택하도록 하여 여행 계획의 기본 구조를 완성한다.

여행 계획이 구체화되면, 학생들은 이를 간단한 독일어 문장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때 복잡한 문법 사용보다는 Wir fahren nach Berlin., Wir besuchen das Brandenburger Tor.와 같이 초급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짧고 명확한 문장을 중심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은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서로의 표현을 공유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독일어 사용 경험을 확장하게 된다.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각 소그룹이 완성한 여행 계획을 간단히 발표하거나 포스터 형태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게 되며, 다른 그룹의 계획을 들으며 독일어 듣기 능력도 함께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그룹 활동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협력적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본 활동은 독일어 학습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습자의 참여도와 학습 동기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2.2.1.2.2. 식당에서 메뉴 주문하기

본 활동은 역할극(Role-play) 형태로 식당 상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독일어 표현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식당에서의 메뉴 주문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 중 하나로, 초급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제이다. 본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독일어를 교실 안에서만 사용하는 학습 대상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언어로 인식하게 된다.

활동의 시작 단계에서는 학습자를 손님 역할과 직원 역할로 나누어 역할 분담을 한다. 교사는 식당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필요한 기본 표현과 어휘를 미리 제시하여 학습자가 활동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도록 한다. 이후 각 조는 간단한 메뉴판을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메뉴판에는 Schnitzel, Salat, Wasser와 같은 기본 음식 및 음료 이름과 가격을 포함시켜, 실제 식당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역할극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본격적인 역할극 단계에서는 손님과 직원이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며 주문 대화를 연습한다. 학습자는 Ich möchte ein Schnitzel., Was kostet das?와 같은 기본 문장을 활용하여 주문과 가격 문의를 수행한다. 문장의 정확성보다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가 부담 없이 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역할은 활동 중간에 교대할 수 있어, 모든 학습자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각 조의 역할극을 짧게 발표하거나 시연하도록 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며, 실제 상황과 유사한 의사소통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본 활동은 학습자의 발화 자신감을 높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독일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2.1.2.3.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조별 독일 문화행사 포스터 만들기

본 활동에서는 미리 캔버스와 같은 디지털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조별로 독일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제작한다. 이 활동은 언어 학습과 문화 이해를 통합한 과업 중심 활동으로, 학습자가 독일어를 활용하여 문화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는 독일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독일어를 실제 목적을 가진 과업에 적용하게 된다.

활동 주제로는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 크리스마스 마켓(Weihnachtsmarkt), 카니발(Karneval) 등 독일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를 제시한다. 각 조는 하나의 행사를 선택하여 해당 행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독일어로 간단히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행사 이름과 개최 장소, 행사 성격과 특징에 관한 핵심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교사는 초급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복잡한 설명보다는 짧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포스터 제작 단계에서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정리된 결과물을 완성한다. 포스터에는 행사 이름, 개최 장소, 간단한 설명 문장, 그리고 행사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독일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게 되며, 이는 자연스러운 언어 복습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협업 과정은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촉진한다.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각 조가 완성한 포스터를 발표하거나 전시하여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독일어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며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고, 다른 조의 포스터를 보며 독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게 된다. 본 활동은 독일어 학습의 실용성과 문화적 맥락을 동시에 강화하며, 학습자가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2.2.1.2.4. 결과물 공유

본 단계에서는 앞선 활동을 통해 완성된 학습 결과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함으로써 학습 경험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결과물 공유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산출물을 다른 학습자와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습 성과를 인식하고, 독일어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순한 과제 제출을 넘어, 학습 결과를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단계로 기능한다.

우선 각 조는 자신들이 완성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간단한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에서는 복잡한 설명보다는 핵심 내용과 주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짧게 소개하도록 하여, 초급 학습자가 부담 없이 말하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독일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경험을 쌓게 되며, 다른 학습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듣기 연습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완성된 결과물은 Padlet과 같은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공유한다. 디지털 게시판 활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수업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다른 조의 결과물을 보며 다양한 표현과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러운 복습 효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공유 과정은 상호 학습(peer learning)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본 결과물 공유 단계는 학습자가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인식하고, 독일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다른 학습자의 결과물을 통해 학습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2.1.3. 문화적 재미 요소 활용

2.2.1.3.1. 독일 도시 지도 활동

본 활동에서는 독일 지도를 활용하여 주요 도시의 위치를 확인하고, 도시 이름을 독일어로 읽고 말해 보는 연습을 진행한다. 학습자는 베를린(Berlin), 뮌헨(München), 함부르크(Hamburg), 프랑크푸르트(Frankfurt)와 같은 대표적인 독일 도시를 지도에서 직접 찾아보며 독일의 지리적 특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독일어 어휘 학습과 문화·지리적 배경 지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활동의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독일 전체 지도를 제시하고, 도시 이름을 하나씩 제시하며 발음을 함께 연습한다. 학습자는 지도를 보며 도시 이름을 따라 읽고, 시각 정보와 음성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단어를 인식하게 된다. 이후 학습자

는 지도에서 특정 도시의 위치를 직접 가리키거나 표시하며 학습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순한 암기에서 벗어나 공간적 인식을 바탕으로 어휘를 습득하게 된다.

활동의 전개 단계에서는 “Wo ist Berlin?”, “Berlin ist im Osten.”와 같은 간단한 질문과 응답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활동을 진행한다. 학습자는 교사 또는 짝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며 도시의 위치를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때 동서남북과 같은 기본 방향 표현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장소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독일어 표현을 익히게 된다.

2.2.1.3.2. 독일 음식 카드 매칭

본 활동에서는 독일을 대표하는 음식과 관련된 어휘를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 음식 카드 매칭 활동을 진행한다. 학습자는 Bratwurst, Brezel, Sauerkraut 등 초급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독일 음식 사진 카드와 단어 카드를 짝지어 보며 어휘와 의미를 연결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어휘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카드 매칭 활동은 개인 활동 또는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일어 단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다. 교사는 카드 매칭 후 각 음식 이름의 발음을 함께 연습하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학습자가 어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후 학습자는 매칭한 어휘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일 음식 메뉴판을 제작한다. 메뉴판에는 음식 이름과 간단한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시켜, 학습한 어휘를 실제 표현 활동으로 확장하도록 구성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독일 음식 관련 어휘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보는 경험을 쌓게 되며, 언어 학습과 문화 이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2.2.1.3.3.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독일 축제 카드 뉴스 만들기

본 활동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독일의 대표적인 축제를 카드 뉴스 형식으로 소개하는 과업 중심 활동이다. 학습자는 옥토버페스트, 크리스마스 마켓, 카니발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축제의 특징을 간단한 독일어 문장으로 정리한다.

카드 뉴스에는 축제 이름과 장소, 주요 특징을 포함하며, Das Oktoberfest ist in München., Viele Menschen trinken Bier.와 같은 초급 수준의 짧은 문장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사진과 텍스트를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완성된 카드 뉴스는 공유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결과물을 확인하며, 읽기와 쓰기 능력뿐 아니라 독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1.4. 파트너 활동 중심 독일어 회화

파트너 활동에서는 인사하기, 자기소개, 취미에 대해 묻고 답하기,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회화 연습을 진행한다. 학습자는 Wie heißt du?, Ich heiße Minji.와 같은 간단한 질문과 응답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이후 어휘를 바꾸어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 연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문장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현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파트너 활동 중심 수업은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반복 연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일어 회화 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2.2.1.5. Grok.AI를 활용한 영상 대화 제작

본 활동에서는 Grok.AI를 활용하여 초급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독일어 대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독일어 회화 학습에 활용한다. AI가 생성한 짧은 영상 대화는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학습자가 현실적인 의사소통 장면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카페에서 주문하기, 친구를 만나 인사하기, 여행 중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인 주제로 활용된다.

학생들은 먼저 영상 속 대화를 시청하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이후 음성을 따라 말해 보며 발음과 억양을 연습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제공된 대본을 일부 수정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여, 학습자가 언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아가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듣기, 말하기, 읽기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며,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2.2.1.6. 독일 노래 학습 활동

본 활동에서는 독일 동요나 가곡과 같은 노래 자료를 활용하여 독일어 학습을 진행한다. 노래에 포함된 간단한 가사와 반복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독일어 발음과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수업에서는 먼저 가사를 따라 읽으며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후 가사의 의미를 간단히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내용 이해를 돕는다.

다음 단계에서는 노래를 함께 듣고 따라 부르며 발음을 연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정확성에 대한 부담보다는 리듬과 흐름에 맞추어 소리를 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노래 학습 활동은 반복성과 음악적 리듬을 통해 언어를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돕고, 학습자의 긴장을 완화하며 독일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2.2.1.7. 음악가 지도 활동 및 읽기 자료 활용

본 활동에서는 독일어권 문화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대표적인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지도 활용 활동과 읽기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학습자는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와 같은 음악가의 출생지를 독일 및 오스트리아 지도에서 직접 찾아보며, 인물과 장소를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일어 학습이 지리적·문화적 배경 지식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활동 과정에서는 먼저 지도에서 해당 도시를 찾고 위치를 확인한 뒤, 음악가의 사진이나 초상화를 함께 살펴본다. 이후 해당 인물에 대한 짧은 독일어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간단한 문장을 통해 기본 정보를 이해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Beethoven wurde in Bonn geboren.” 과 같은 문장을 통해 과거 시제 표현과 출생지를 나타내는 기본 구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언어 학습에 그치지 않고, 독일어권 문화와 인문학적 교양을 함께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는 음악과 역사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독일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외국어 학습이 다양한 교양 영역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2.3. 교재 기획

본 교재는 대학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독일어 수업을 위한 입문·초급 단계 교재로, 독일어 학습 경험이 없거나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교양 선택 과목의 특성상 학습자의 선행 학습 경험과 언어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본교재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학습 목표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A1~A2 수준에 맞추어 설정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각 단원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수업 운영과 평가 역시 일정한 기준

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단원 주제는 교양 교육의 성격과 대학생 학습자의 생활 환경을 반영하여 일상생활, 가족과 인간관계, 대학 생활, 여행과 여가, 음식 문화, 독일 사회와 문화 등 비교적 친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주제 선정은 독일어 학습을 문법 규칙의 암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된 의미 있는 의사소통 활동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휘와 문법 항목은 CEFR A1~A2 단계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요소만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한 과에 지나치게 많은 문법 내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분산 배치하였다. 문법 설명에서는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용어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초급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함께 표, 예문, 그림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예외 규칙을 나열하기보다는 의미와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문법을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단원은 도입-입력-연습-산출-확장-성찰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며, 읽기・듣기・말하기・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짝 활동, 역할극, 간단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통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교실 안에서 독일어를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교재는 CEFR에서 제시하는 행동중심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학습자를 언어 지식을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 주체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교양 독일어 수업이 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외국어 학습 경험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3.1. 예시 단원 교재 및 지침 완성

3.1.1. 단원 개요 및 학습 목표

□ 단원 개요

본 단원은 CEFR A1 수준의 초급 독일어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학습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친숙한 주제를 중심으로 독일어의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 구성원 소개, 관계 설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황을 학습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학습자는 실제 사용 가능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본 단원은 전통적인 문법 중심 교수 방식을 지양하고, 문법 설명의 비중을 최소화한 대신 의미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학습 흐름을 채택하였다. 학습자는 먼저 듣기와 읽기 활동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후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통해 이를 직접 사용해 보며, 마지막으로 응용 및 확장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자신의 표현으로 확장하도록 유도된다. 이러한 '의미 이해 → 사용 → 확장'의 단계적 구성은 초급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독일어를 단순히 암기해야 할 문법 지식이 아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언어 도구로 인식하게 되며, 초급 단계에서부터 의사소통 중심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구성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이후 단계의 독일어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초를 제공한다.

□ 학습 목표

학습자는 먼저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핵심 어휘(예: Vater, Mutter, Bruder, Schwester, Eltern 등)를 이해하고, 간단한 문장 속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단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가족 소개나 질문·응답 상황에서 해당 어휘를 자연스럽게 선택하여 말하거나 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유대명사 mein/dein과 기본 동사 sein/haben(현재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족을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as ist mein

Vater.”, “Ich habe eine Schwester.”와 같은 기본 문장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 관계, 인원 등을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배운 표현을 조합해 5~6문장 정도의 간단한 소개 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학습자는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Hast du Geschwister?”, “Ist das deine Mutter?”와 같은 질문을 사용해 정보를 묻고, “Ja, ich habe …”, “Nein, ich habe keine …”처럼 간단한 답변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연습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묻기-답하기’의 상호작용 구조를 경험하며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가족을 주제로 한 짧은 읽기·듣기 자료에서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긴 문장을 완벽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관계, 인원, 이름 등 주요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초급 학습자에게 필요한 의미 중심 이해 전략(핵심어 찾기, 정보 선택하기)을 익히도록 한다.

3.1.2. 단원 도입 (Warm-up & Moti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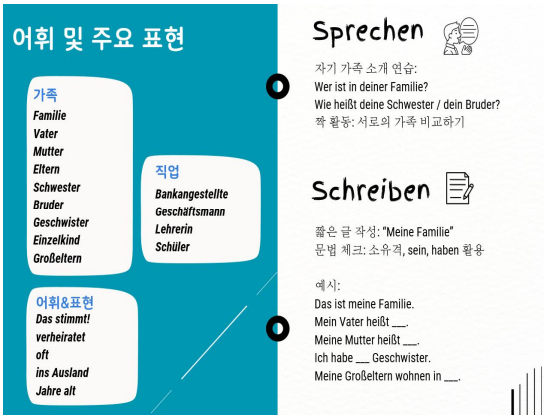
단원 도입 단계에서는 가족 사진이나 관련 삽화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한다. 교사는 Wer ist das?, Ist das dein Vater?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나 표현,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독일어로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알고 있는 표현이나 단어를 활용해 부분적으로라도 발화에 참여하도록 장려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문법적 정확성이나 발화의 정답 여부를 평가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참여와 반응 자체에 초점을 두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독일어 사용에 대한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외국어 발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시각 자료와 질문을 통해 단원 주제를 자연스럽게 예측하고, 이후 학습 내용에 대한 인지적 준비 상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도입 활동은 학습자의 선행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업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초 단계로 기능한다.

→ 의도: 독일어 사용에 대한 불안 감소, 주제 예측 능력 활성화

3.1.3. 어휘 및 기본 표현 (Wortschatz & Redemittel)



본 단계에서는 Vater, Mutter, Bruder, Schwester, Eltern, Familie 등 가족과 관련된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Das ist meine …, Ich habe einen Bruder.와 같은 초급 수준의 기본 문장을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개별 어휘를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어휘와 표현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어휘는 단순한 단어 목록이 아닌, 그림이나 아이콘, 짧은 예문과 함께 제시하여 의미 이해를 돕는다. 또한 어휘는 한 번 제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문, 듣기 자료, 간단한 읽기 텍스트 등 다양한 문맥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반복 노출 방식은 단순 암기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말하기 및 쓰기 활동에서 동일한 어휘와 표현이 지속적으로 재사용되도록 설계함으로써, 학습자는 배운 어휘를 실제로 활용해 보는 경험을 누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어휘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동시에 강화되며, 학습자는 독일어 어휘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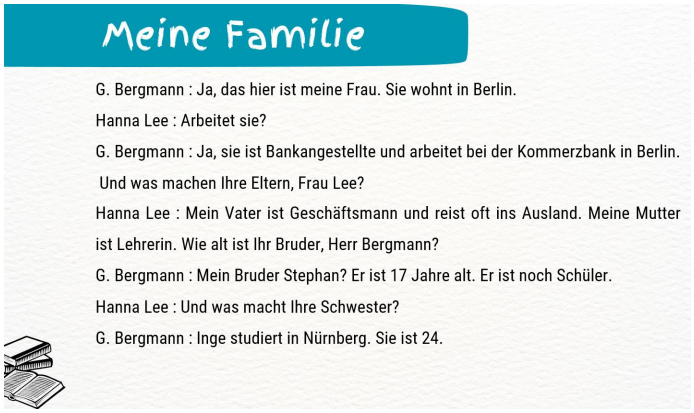
3.1.4. 본문 텍스트 (Input: Lesen & Hören)

본문 텍스트 「Meine Familie」는 초급 학습자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짧은 자기소개 형식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과 관련된 기본 어휘와 표현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학습자는 해당 텍스트를 통해 실제 사용되는 간단

한 문장을 접함으로써 독일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본문 텍스트는 읽기 자료와 함께 원어민 음성 기반의 듣기 자료를 병행 제공하여, 학습자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다.

읽기 활동에서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가족 구성원을 파악하고, 이름이나 관계와 같은 핵심 정보를 찾아보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세부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초급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전략을 익힐 수 있다. 듣기 활동에서는 원어민 음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 학습자가 음성 정보를 중심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경험을 쌓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소리를 통해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기르게 된다.

이와 같이 읽기와 듣기 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자는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입력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는 언어 습득에 필요한 통합적 입력(Input)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접근은 초급 학습자의 이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후 말하기와 쓰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초 단계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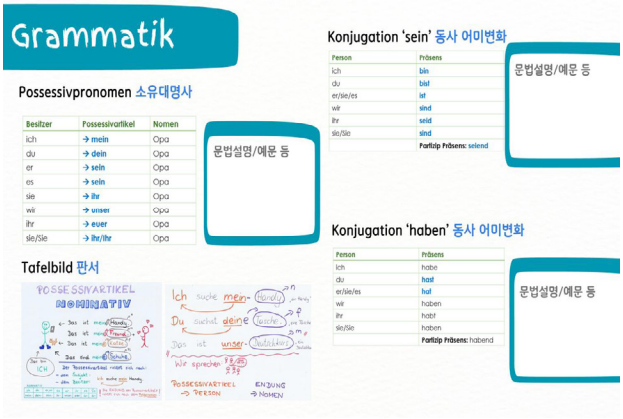
3.1.5. 문법 요소 (Grammatik im Kontext)

본 단원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은 초급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과 관련된 표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소유대명사 mein, dein과 기본 동사인 sein과 haben의 현재형을 중심으로 문법 학습을 구성한다. 이러한 문법 요소는 본 단원의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문법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문법은 별도의 이론 설명 단원으로 제시되지 않고, 본문 텍스트와 예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자는 실제 사용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을 통해 문법 형태를 먼저 인식하게 되며, 이후 간단한 정리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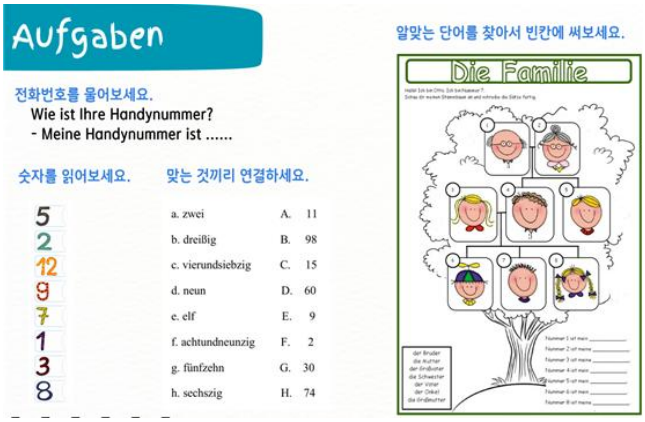
형태와 의미를 연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귀납적 문법 제시 방식(induktive Grammatikvermittlung)은 학습자가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문법 학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법 정리는 '형태 설명 → 의미 이해 → 실제 사용'의 순서로 간결하게 제시되어, 학습자가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해당 문법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이를 통해 초급 학습자는 문법을 독립적인 지식이 아닌, 의미 전달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후 말하기와 쓰기 활동에서 문법 요소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3.1.6. 연습 활동 (Übungen & Interaktion)

연습 단계는 학습자의 언어 숙련도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통제 연습에서 시작해 반통제 연습을 거쳐 자유 연습으로 확장되는 단계적 구조를 따른다. 이러한 구성은 초급 학습자가 언어 사용에 대한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며 학습한 내용을 실제 의사소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습득한 어휘와 표현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구성된다.



먼저 통제 연습 단계에서는 가족 명칭 쓰기, 빈칸 채우기, 문장 완성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핵심 어휘와 기본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언어 형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적인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어지는 반통제 연습 단계에서는 짝 활동을 중심으로 Hast du Geschwister?와 같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연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제한된 표현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며 의사소통 경험을 쌓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유 연습 단계에서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간단한 가족 인터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배운 어휘와 표현을 활용하여 질문을 구성하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자율적인 언어 사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습 단계 구성은 개인 중심 활동에서 상호작용 중심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하여, 학습자가 독일어를 실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3.1.7. 프로젝트 활동 (Produktionsorientierte Aufgabe)

단원 말미에는 학습자가 단원에서 학습한 어휘와 표현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소개 프로젝트 활동을 제시한다. 본 프로젝트는 학습자가 자신의 가족을 주제로 독일어로 5~6문장 정도의 간단한 글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가정한 과업 중심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표현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가족 사진이나 그림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표현을 돕고 과제 수행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시각 자료의 활용은 초급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보다 쉽게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과물은 짧은 구두 발표 형태로 수업 시간에 공유하거나, 학습 환경에 따라 음성 녹음 과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은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학습자가 독일어를 실제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프로젝트 활동의 평가는 전통적인 시험 중심 평가 방식이 아닌,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 중심 평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평가 기준의 첫 번째 요소는 의미 전달의 명확성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독일어로 이해 가능하게 전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문법적 정확성보다는 의사소통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 초급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단원에서 학습한 어휘와 기본 표현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학습자가 Vater, Mutter와 같은 핵심 어휘와 Das ist meine …, Ich habe …와 같은 기본 문장을 실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활용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단원 학습 내용이 단순한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언어 사용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평가 요소로 포함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노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발표나 녹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신의 결과물을 공유하려는 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점수 산출보다는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시험 위주의 평가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행 평가임을 강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1.8. 문화(Landeskunde) 및 성찰 (Reflexion)

문화 코너에서는 독일 사회의 가족 형태와 생활 양식을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개한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뿐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구성원 간 호칭 방식 등 현대 독일 사회의 특징적인 가족 문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언어 학습과 함께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화 정보는 간단한 설명과 예시를 통해 제시되어 초급 학습자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독일의 가족 문화와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인식하고, 외국어 학습이 문화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 활동은 수업 중 간단한 토의나 짝 활동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단원 말미에는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성과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가족을 독일어로 소개할 수 있는가', '간단한 질문과 대답이 가능한가'와 같은 문항을 통해 단원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성찰 활동은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적으로 되돌아보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1.9. Lektion2 단원 설계도

단계	구성 요소	주요 내용	학습 활동 예시	언어 기능	CEFR 연계
도입	Warm-up & Motivation	가족 주제 도입, 선행 지식 활성화	가족 사진 보고 질문 답하기 (Wer ist das?)	말하기 · 듣기	A1: 간단한 정보 이해
입력	Wortschatz & Redemittel	가족 관련 핵심 어휘 및 기본 표현	그림-어휘 매칭, 예문 따라 말하기	듣기 · 말하기	A1: 친숙한 어휘 사용
입력	Lesen & Hören	본문 텍스트 「Meine Familie」	읽고 가족 구성원 찾기, 듣고 정보 확인	읽기 · 듣기	A1: 짧은 텍스트 이해
초점화	Grammatik im Kontext	mein/dein, sein/haben 현재형	예문 관찰 후 의미 추론	읽기	A1: 기본 문장 구조
연습	Kontrollierte Übung	어휘 · 문법 통제 연습	빈칸 채우기, 문장 완성	쓰기	A1: 간단한 문장 작성

단계	구성 요소	주요 내용	학습 활동 예시	언어 기능	CEFR 연계
연습	Teiloffene Übung	반통제 말하기 연습	짝 활동: 가족 묻고 답하기	말하기	A1: 간단한 질문·응답
산출	Freie Produktion	자유 의사소통 활동	소그룹 가족 인터뷰	말하기·듣기	A1: 간단한 대화 수행
프로젝트	Produktive Aufgabe	가족 소개 프로젝트	가족 소개 글 작성 및 발표	쓰기·말하기	A1: 자기소개 확장
확장	Landeskunde	독일 가족 문화 이해	한국 가족과 비교 토의	읽기·말하기	A1: 문화 정보 이해
성찰	Reflexion	자기평가 및 학습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읽기	A1: 학습 성찰

3.2. 교재 개발에 대한 기대 효과 및 한계

본 교재 개발은 기존 대학 교양 독일어 교육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외국어 교양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현재 활용 중인 독일어 교양교재는 제작 시점이 오래되어 사회·문화적 변화, 학습자 요구, 디지털 학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교재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학습 이론과 실제 수업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학습자가 제한된 학습 시간 내에서도 실질적인 독일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본 교재는 단원별 학습 목표, 핵심 언어 기능, 어휘 및 문법 요소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성취 수준을 점검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수업 운영과 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실생활 및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학습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독일어 학습의 실용성을 제고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교재는 AI 기반 학습 도구와의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확장한다. 발음 연습, 작문 활동, 반복 학습 등에서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습자는 개별 수준에 맞춘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교수자의 반복적 지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수업 외 학습 시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교재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을 실천하는 사례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다만, 본 교재는 교양 독일어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공 심화 학습이나 고급 독일어 능력 함양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A1 수준의 공식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문항 유형 연습이나 평가 중심 학습 요소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A1 시험 대비에 필요한 내용은 별도의 보조 자료나 추가 학습 활동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AI 활용을 전제로 한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디지털 접근성, 기기 환경, 활용 역량에 따라 학습 효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교수자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라 수업 적용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단일한 완결형 결과물이라기보다, 수업 환경과 학습자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보완되는 교재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4. 향후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예시 단원 교재를 토대로 1년의 기간을 목표로 교양 독일어 교재를 편찬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개발된 교재는 대학 교양 독일어 수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대면 수업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활동과 과업 기반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핵심 교재로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 또는 혼합형 수업 환경에서는 AI 기반 학습 도구와 결합한 자기주도 학습 자료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업 방식의 다양화와 학습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본 교재를 통해 교양 독일어를 이수한 학생들은 기초적인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기초독일어와 같은 전공 독일어 과목으로 자연스럽게 연계 수강할 수 있는 학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본 교재는 대학별 교육 여건과 학습자 특성에 따라 선택적·모듈형으로 활용 가능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교양 수업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교수자는 교재에 제시된 교수·학습 활동을 토대로 전공 연계형 수업, 비교문화 중심 수업, 디지털 활용 수업 등으로 유연하게 확장·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 교양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과정 혁신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한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와의 연계를 강화한 하이브리드형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QR 코드, 온라인 학습 플랫폼, AI 기반 연습 콘텐츠 등을 통해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교재의 시의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와 수업 적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재 내용을 순환적으로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본 교재를 기반으로 중급 수준 교재, 전공 연계형 독일어 교재 등 후속 교재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교양 독일어 교육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본 교재 개발 사례를 AI 활용 외국어 교양 교육 모델로 정립하여, 타 외국어 교양 교재 개발에도 적용 가능한 확산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대학 외국어 교양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교육 혁신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AI 활용 교수법 사례 탐구 및 적용

AI와 교육

박소영 교육학부

최한나 교육학부

최인희 교육학부

민예슬 교육학부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104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104
나. 팀 구성 및 특징 ····· 104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 105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 105
나. 주요 활동 내용 ····· 105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106
가. 초중등학교 대상 AI 플랫폼 활용 사례: 경기도 하이러닝 ····· 107
나. 상담 AI 챗봇을 활용한 상담자 교육 및 실습 운영 ····· 112
다. ChatGPT를 활용한 진로탐색 실습 운영 ····· 116
라. AI 기반 통계 분석 도구 활용 수업 사례 ····· 120

4.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및 및 발전 방향 ····· 123
가. 교수법 커뮤니티 운영의 성과 ····· 123
나. 교수법 커뮤니티의 한계와 극복 방안 ····· 124
다. 후속 활동 계획 ····· 124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교수학습 환경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교육현장에서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교수법은 학습자 맞춤형 지원, 실습 효율성 향상, 교육자료의 즉각적 분석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AI를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성과를 확인한 경우가 제한적이며, 적용 방법과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부족함

○ 따라서 본 커뮤니티는 AI 활용 교수법 사례를 탐구하고 실제 교과목에 적용함으로써, AI 기반 교수학습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교수자들은 최신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합하게 통합하고, 학습자는 개별 학습 능력과 참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사례 중심의 탐구와 적용 경험 공유를 통해, 향후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법 개발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팀 구성 및 특징

○ 팀의 구성은 교육학부 교수로 구성하여, 교육학부에서 학생 지도와 수업 등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교육학부는 현재 HUSS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문사회디지털융합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HUSS 사업단에서는 교육학과 AI를 결합하여 교육환경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함

○ 교육학부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예비교사들이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과제에 당면함

○ 이에 교수자들이 AI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이런 교육적 변화를 실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현장에서의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 매주 월요일 격주로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 정도에 대해 확인함
○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AI를 활용하여 수업과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습함

나. 주요 활동 내용

1) AI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 사례 조사

○ 자료 및 사례조사: AI를 교수학습에 적용한 국내외 자료 및 사례를 수집함. 특히, 최근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AI 활용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 및 맞춤형 수업 지원 시스템을 검토하여, 예비교사가 숙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함

2) AI 활용 교육 방법 개발 및 적용 사례

○ 상담 AI 챗봇을 활용하여 상담자 교육 및 실습 운영
○ ChatGPT를 활용한 진로탐색 실습 운영
○ AI기반 통계 분석 프로그램 활용 실습 강의 운영

3) AI 활용 교수법 적용 모니터링 및 평가

○ 교과목에서 해당 교수법을 적용한 후, 개별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교수법 적용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함

4) 전문성 개발 활동

○ 교수자들의 AI활용 교수 역량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AI 활용 방안에 대해 학습함
○ 강의를 통해 여러 AI 도구 등에 대해 학습하고 요구에 따라 활용 가능한 AI 도구를 실습함
○ AI 스튜디오 등 app을 개발할 수 있는 AI 도구나 할루시네이션을 감소시키는 설정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함
○ 학생 보고서 채점에 필요한 app 개발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함
○ 학습자료 개발 실습 등을 실시함

<table>
<tr>
<td>
</td>
<td>주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방법 탐색
주요 내용: LLM을 활용한 교육 방법
PAG와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연구 방법
일시: 2025년 11월 20일 12:30-18:00</td>
</tr>
</table>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가. 초중등학교 대상 AI 플랫폼 활용 사례: 경기도 하이러닝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학부는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학과로서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플랫폼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 AI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료를 생성하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예비교사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 또한 예비교사의 교육 환경 변화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 교수자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변화를 예고함. 예비교사들이 이런 교육 플랫폼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동시에, 예비교사 교육자로서 교육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하이러닝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서술형 평가를 AI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플랫폼임. 이에,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초중등 분야 AI 운영과 활용 사례 등에 대해 제시할 예정임

1) 경기도 하이러닝 AI 교수학습 플랫폼의 개요

○ 하이러닝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실 수업 환경 제공 플랫폼으로, 2023년 9월부터 경기도 내 초·중·고 16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됨

○ 주요 기능 및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통합학습창*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핵심 공간으로,

○ 수업 설계: 단원별 영상, 문제집, 교재(PDF, HWP 등)를 등록하고 다른 교사의 설계안을 공유받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부교재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교사는 EBS에서 제공되는 문항을 활용하여 소단원에 따라 문제집을 생성할 수 있음

출처: 이은주 외(2024)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그림 1] 하이러닝의 수업 설계하기 장면

출처: 이은주 외(2024)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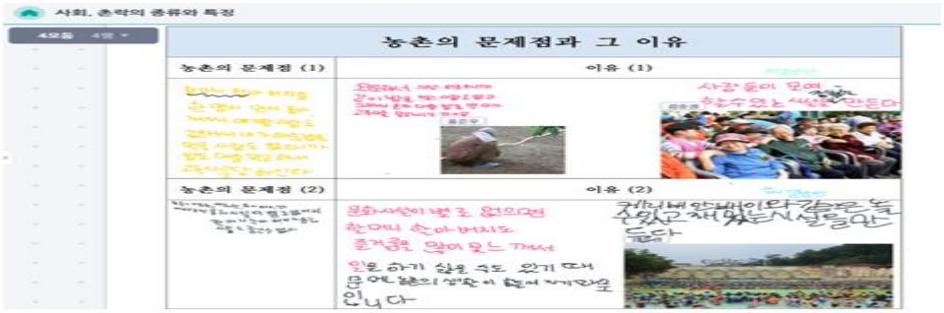
[그림 2] 하이러닝의 수업 설계안 가져오기 장면

* 하이러닝은 경기도교사에게만 인증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이러닝의 수업과 수업도구에 대한 주요 화면은 이은주 외(2024)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활용하였고, 기능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보고서와 유튜브, 교사 대상 연수자료 등의 내용을 활용함

○ 상호작용 도구: 하이러닝 내에서는 모둠/발표 수업 기능이 있어 수업 중 학생들의 모둠 활동을 지원함, 화이트보드, 실시간 필기 공유 등을 지원함

출처: 이은주 외(2024)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그림 3] 하이러닝의 모둠수업 설계 장면



출처: 이은주 외(2024)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그림 4] 하이러닝의 모둠/발표 화면

○ 수업 보조: 타이머, 집중벨, 학생 뽑기 등 교실 수업 관리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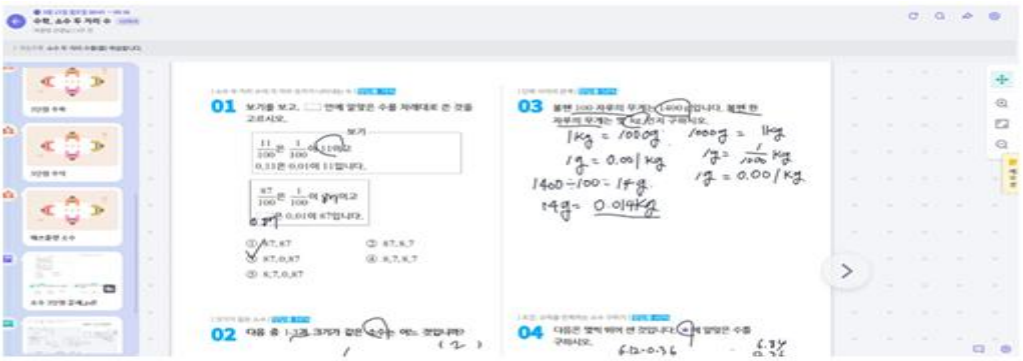
○ 실시간 모니터링: 학생들이 현재 어떤 활동을 하는지, 플랫폼에서 이탈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과정중심 평가를 지원할 수 있음

② 클래스보드

○ 수업 종료 후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그동안 수업이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수업 시간 이후로 확대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 이는 대학의 LMS와 같은 기능을 가짐

○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자신의 활동을 성찰하며,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이러닝은 AI 리포트 및 대시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AI 기반 교육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함. 이는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별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을 말함



[그림 5] 클래스보드에서의 학습 후 과제 확인 기능

출처: 이은주 외(2024)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③ 평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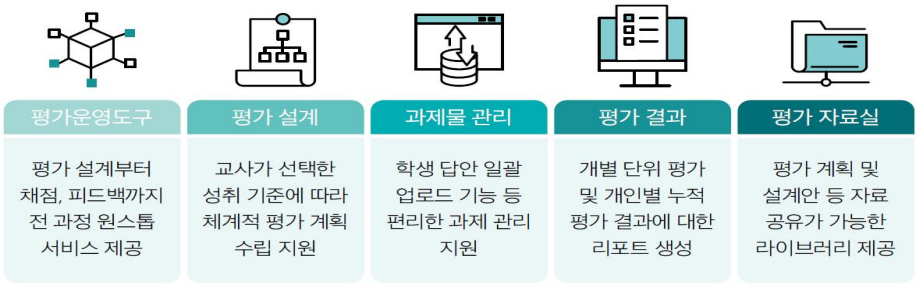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기술적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옴.

○ 2024년 8월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에 AI 논술진단(1.0)이 도입. 국어, 사회, 과학 과목에 대하여 논술형 문항의 출제 및 답안 입력, AI의 채점과 피드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임. 또한, 학생의 답안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제공을 가능해짐

○ 이후 교사의 주도적인 평가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개선이 한차례 이루어졌고, 2025년 교사가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루브릭)을 직접 설계.적용하고 학생이 손글씨로 작성한 답안을 OCR로 인식하여 채점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고도화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개통

○ 하이러닝의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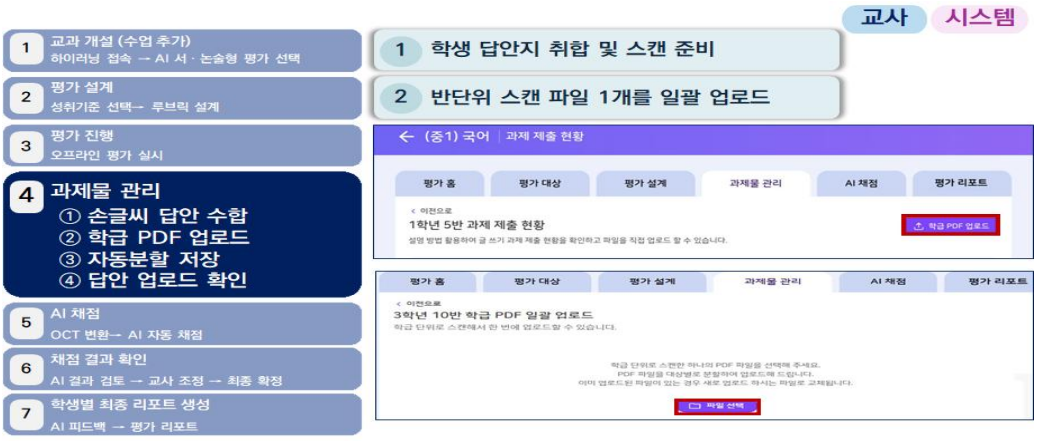
2) 하이러닝의 평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김진희 외(2025).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시범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도입 지원 방안 연구에서 인용함



[그림 6]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주요 기능

출처: 경기도교육청(2025c) AI·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이해 자료

○ 초·중등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자동으로 채점하고 피드백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은 향후 서논술형 평가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응이 예비교사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한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7]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4단계(과제물 관리)

출처: 경기도교육청(2025c) AI·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이해 자료

2) 하이러닝과 AI 디지털 교과서와의 결합 가능성

○ 하이러닝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는 전국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교과서임. 이는 현재 교육 자료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곧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이러닝에 대한 이해와 향후 디지털 교과서와의 결합은 매우 중요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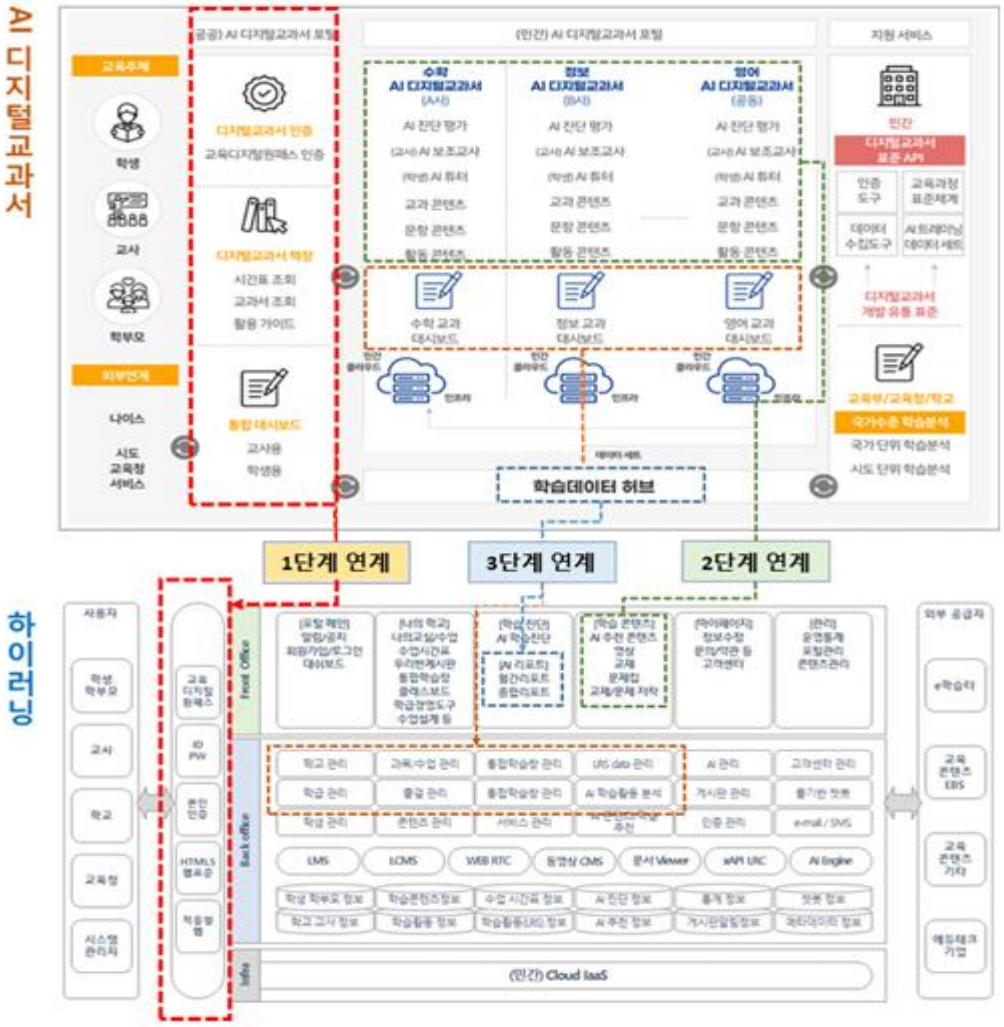
○ 이에 하이러닝이 향후 어떻게 AI 디지털 교과서와 결합하거나 확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예비 교사의 중요한 과제로 보임

○ AI 디지털 교과서는 하이러닝과 같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이러닝과 중복적 특징을 지니므로, AI 디지털 교과서와의 연계는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음

○ AI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러닝의 결합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의 과제가 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1단계에서 학습데이터의 통합, 2단계에서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를 하이러닝에서 활용하도록 하이러닝 중심의 콘텐츠 통합, 3단계에서 출판사별 대시보드의 하이러닝으로의 통합을 제안함

○ 향후 어떤 방식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나 AI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청별 플랫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을 제시함



[그림 8] AI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러닝의 단계적 연계 방안

출처: 이은주 외(2024)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나. 상담 AI 챗봇을 활용한 상담자 교육 및 실습 운영

1) 적용 교과목 개요

○ ‘상담학개론’ 교과는 상담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를 개관하는 과목임.

○ 강의 전반부에 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상담의 실제를 위해 필요한 제반지식을 학습한 후에 학생들은 개인상담, 심리검사 해석을 실제로 연습해보면서 상담사로서의 기본 역량을 개발함.

○ 그동안 학생들이 개인상담 실습을 위해 오프라인에서 동료 학습자와 매칭하여 상담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료 학습자와의 소통이 감소하면서 개인적인 사안을 노출하게 되는 실습에 대한 불편감이 증가함.

○ 또한 동료 학습자들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한 스트리닝 없이 상담 실습을 하는 경우, 학습자들의 역량이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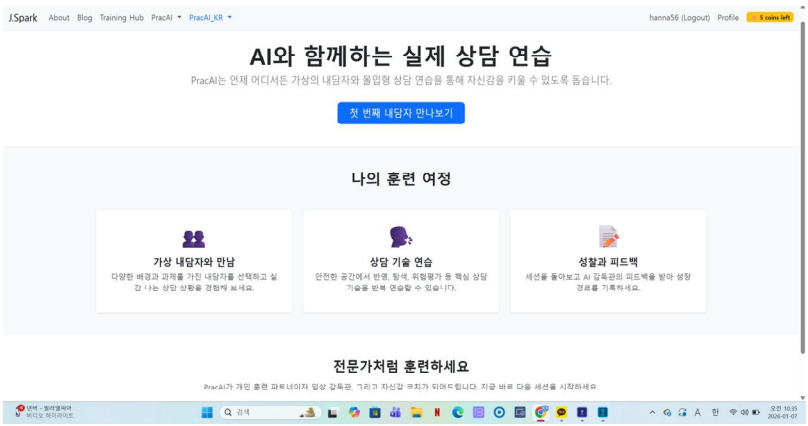
○ 본 교과에서는 학습자들이 AI 챗봇을 사용하여 개인상담 실습을 하고, 교수자는 실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2) 상담 AI 챗봇의 구성과 기능

○ 본 교과에서 사용한 상담실습 AI 챗봇(PracAI)은 가상의 내담자가 되어 텍스트로 상담 대화를 진행함.

○ 한명의 가상 내담자와 최대 3회기까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담자와 동일한 회기를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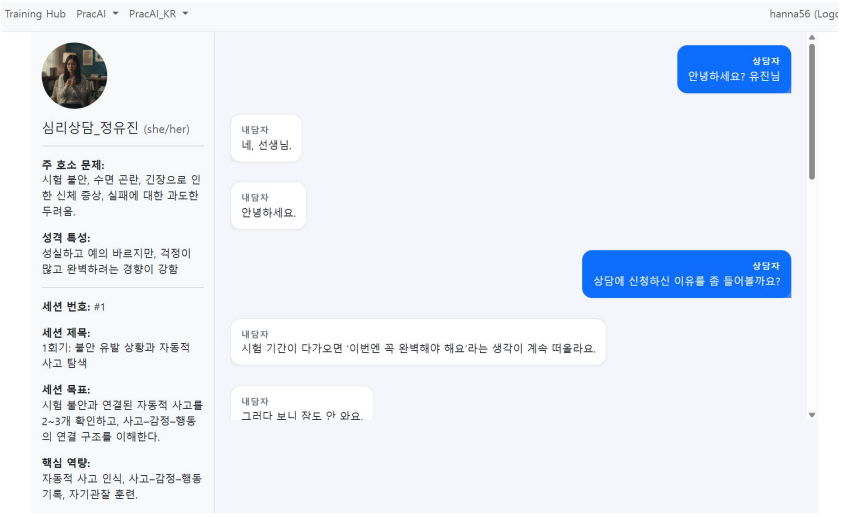
○ 학습자는 로그인을 통해 자신의 실습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음.



○ 상담실습을 마친 후에는 학습자가 상담한 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저장할 수 있어서 학습자는 상담 후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에 용이함.

○ 상담실습을 마친 후 원하는 경우 매 회기 학습자의 상담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 PracAI에서 제공되는 내담자는 호소문제 유형, 연령, 성별에 있어 다양한 내담자 유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다양한 내담자군을 대상으로 실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 상담 AI 챗봇의 수업 적용 맥락 및 활용 방법

○ 1단계: AI 챗봇을 활용한 개인상담 실습을 위한 안내

학습자들은 실제 내담자와의 상담실습이 아닌 AI 챗봇을 활용한 실습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AI 챗봇 활용 실습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한 이해를 높임.

○ 2단계: AI 챗봇과 익숙해지기

학습자들에게 AI 챗봇인 Prac AI를 소개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함. 학습자들이 AI 챗봇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담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AI 챗봇과의 텍스트 기반 대화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짐. 특히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텍스트 입력 속도, 응답 대기 시간 등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함.

○ 3단계: AI 챗봇 내담자와 상담하기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지정한 특정 내담자와 실시간으로 상담을 실습함. 이때 교수자는 특정 내담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들과 함께 내담자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 사례개념화를 토론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상담진행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공함.

○ 4단계: 실습 사례 성찰(대안반응 성찰)

학습자는 자신이 진행한 상담사례의 전체 내용을 텍스르로 저장하여, 스스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상담 반응을 성찰함. 특히 자신의 반응 중 잘한 반응, 부족한 반응을 스스로 평가해 보면서 부족한 반응의 경우 대안반응을 제시해보는 과제를 수행함. 학습자가 자신의 상담세션에 대해 성찰한 후에 교수자는 전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함.

○ 5단계: AI챗봇 종합 상담실습

학습자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AI 챗봇과 3회기의 상담을 진행하는 실습을 함. 3회기 상담실습은 기말과제로 제출함.

기말과제로 단순한 상담반응 뿐 아니라, 3회기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담자에 대한 사례개념화, 호소문제, 상담목표 및 전략을 포함한 상담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상담실습을 통한 상담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과 AI 챗봇 활용 경험에 대한 성찰을 포함함.

4) 상담 AI 챗봇 수업에 대한 학습 효과(학생 인식)

○ 학습자들을 처음 상담을 실시해보는 초보 상담사로서 직접 대면상담에서 부과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이고 상담실습을 할 수 있었음. 특히 실제 내담자와는 연습해 볼 수 없는 반응의 반복 학습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었다고 보고함.

○ 학습자들은 AI를 활용한 학습을 경험한 후에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음. 특히 일부 학습자들의 경우 AI 활용 학습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있었으나, 수업을 통한 실제 경험을 통해 AI 활용 학습의 장점과 제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됨.

○ AI 활용 학습 경험은 향후 학습에 AI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학습장면에 활용 방안에 대해 탐색하게 됨.

○ 학생의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상담 실습을 준비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은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그때마다 상담자는 즉각적인 반응과 적절한 언어 선택이 필요하다. 이번 실습에서는AI를 활용한 가상 상담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상담에서 요구되는 민감성과 반응성을 조금이나마 체험해볼 수 있었다.(학습자 N 보고서 중에서 발췌)

> AI를 활용한 이번 상담 실습은 내가 놓치고 있던 상담자로서의 태도와 언어 사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부족한 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상담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도구가 보조적으로 활용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몰입감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학습자 K 보고서 중에서 발췌)

> 우선, 다양한 AI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실습해 볼 수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나 같은 초보 상담자에게 ‘정서 반영’, ‘재진술’, ‘공감’ 등의 기술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AI 내담자는 복합적인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거나 침묵하고 모호한 반응을 하기는 어려워, 실제 내담자처럼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보이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AI 상담 실습 프로그램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가능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설정해 볼 수 있으며, 아무리 실수하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 인간 내담자였다면 상담자의 발언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등 자칫 비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AI이기에 그렇지 않다. 실제 상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상담자로서의 자신감을 높이고 기초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 교육 도구로서 지니는 장점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학습자 P 보고서 중에서 발췌)

5) 상담 AI 챗봇 활용 수업의 교육적 시사점(교수자)

○ 본 교과의 경우, 상담을 처음 배우는 초보 예비 상담사들의 경우, 처음부터 직접 내담자를 만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편안하게 상담실습을 해봄으로써 이후 실제 내담자를 만나서 진행하는 상담의 전단계에서 효과적이었음.

○ 본 교과에서 도입한 AI 챗봇 실습을 활용한 학습의 경우, 단순히 AI 챗봇과 상담실습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상담한 내용을 수업시간이나 즉각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교수자가 상담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음. 이러한 방식은 1) 초보 상담사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응방식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2) 상담반응을 학습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나만 못하는게 아니구나’ 라는 공감대와 상호지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초보상담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었음.

○ 교육학 전공자로서 상담 뿐만 아니라, AI 활용 교수-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음. 학습자들이 향후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 ChatGPT를 활용한 진로탐색 실습 운영

1) 적용 교과목 개요

○ 교과목명: 교육학 전공자의 커리어 디자인

○ 교육 목표: 교육학 전공자가 지향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음

○ 교육 구성: 교과목의 전반부는 커리어 디자인을 위한 자기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성격강점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함. 교과목의 후반부는 실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선배특강, 희망 진로경로 조사 및 발표, 취업준비 전략 등으로 이루어짐.

2) ChatGPT를 활용한 커리어 디자인 실습 운영배경 및 목적

○ 자기이해 및 직업세계 이해 간의 연결: ChatGPT를 활용한 커리어디자인 실습은 수업 전반부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성찰을 종합함으로써, 자기이해에서 직업세계 이해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함.

○ 다양한 성격 구성개념의 통합적 이해: 직업흥미, 직업적성, 성격강점 등 개별적인 검사결과는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검사의 내용을 통합하여 유의미한 진로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해당 실습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통합적 이해역량을 기르고자 함.

○ 진로의사결정 단계별 맞춤형 탐색지원: 각각 다른 진로의사결정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의 내용과 수준이 상이함(예: 흥미 탐색 단계, 진로대안 확장 단계, 선택 단계, 구체적 전략실행 단계 등). 한 명의 교수자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개별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맞춤형 질의응답을 ChatGPT와 이어가며 자기탐색을 실행하도록 함.

○ 자기탐색을 위한 AI 활용 역량 강화: 외부 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보를 종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탐색 및 진로 의사결정을 위하여 ChatGPT를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3) AI 도구의 수업 적용 맥락 및 활용 방법

○ [1단계: ChatGPT를 활용한 진로탐색 활동 설명] 해당 실습의 목표와 취지에 대해 설명함. 학습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떠올리고, 도움을 받고 싶거나 궁금한 부분을 명료화함. 조원들과 자신의 심리검사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함.

○ [2단계: 심리검사 결과를 ChatGPT와 공유하기] 개별작업으로,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적성 검사, 성격강점 검사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검사의 결과를 ChatGPT에 입력하고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받음. 여러 심리검사 결과를 입력하여 종합함.

○ [3단계: 검사결과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진행] 다양한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진로탐색을 진행함.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활용가능한 프롬프트 예시를 제공함.

[교수자가 제시한 프롬프트 예시]

- 내 유형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간단하게 알려줘
- 나는 **가 높고 **가 낮은데, 이런 흥미 조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만족스러울까?
- 직업 5개를 추천해 주고, 각 직업의 일상 업무, 필요 역량, 성장 전망을 알려줘
- 나의 강점이 발현된 구체적인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 도움이 될 질문들을 계속해 줄래?
- 나의 흥미/적성/강점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경험이나 활동을 추천해 줘
- 취업/임용/진학 등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해. 나의 검사 결과를 활용해서 초안을 잡아줘

○ [4단계: 조별로 ChatGPT 프롬프트 공유 및 우수 활용사례 선정] 조 내에서 각자 활용한 프롬프트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함. 학생들이 개발 및 공유한 프롬프트 예시는 아래와 같음.

[학습자가 개발한 프롬프트 예시]

- 너가 알려준 나의 '능력 조합의 방향'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추천해 줄 직업 3~5개만 알려줄래?
- RI가 낮은 SC형 예비교사가 임용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주간계획을 세워줘
- SE형 결과를 바탕으로 HR, 마케팅 분야 직무의 커리어 로드맵 가이드라인 제시해줘 (저학년, 고학년, 취준, 취업 후 까지 고려)
- 희망 직업을 갖기 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활동을 로드맵 형식으로 정리해줘(현재 학년 고려)데이터를 참고한다면 나는 어떤 면접 유형에서 강약점 드러날까? 면접에서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방법을 알려줘.
-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후) A검사와 B검사를 종합하여 나에게 맞는 직업을 추천해줘.
- 내 강점이 약점으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회계사 실무하면서 생길 수 있나? 구체적 예시 좀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도 알려줘
- 강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사회교사라는 직업에서 강약점이 뭐가 될 수 있을까. (1)일반사회 교과 특성 및 (2)교사직업특성을 중심으로

4) ChatGPT를 활용한 진로탐색 실습의 학습 효과(학생 인식)

○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진로고민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받았다고 평가함. 특히 ChatGPT를 사용 시에 명확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감이 다수 있었음.

○ 학생의 활동 소감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에 제시함.

적합한 프롬프트를 미리 제시해 주어 챗지피티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본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시간이었다. 또한 진로 탐색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생성형 ai를 사용할 땐 명확하게 잘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습자 A에서 발췌)

조원들 전원이 나를 지목해준 덕분에 대표 프롬프트로 선정된 점이 기억에 남는다. GPT에게 나의 성격강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성향 분석을 요청했고, 이후에 강점이 과하게 발현될 때의 위험신호에는 무엇이 있을지 질문했다. (...) GPT는 내 강점들이 모두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힘’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조화로움이 지나치면 솔직한 자기표현이 줄고 ‘착한 사람’ 역할에 묶이며 내면의 분노나 피로가 쌓일 수 있음을 경고해 주었다. 강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 추천을 요청했고, 구체적으로 일반 사회교사 및 상담사 각각의 직업에서 강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질문했다. **평소 생각이 많은 편이라 GPT와 대화하면서 생각이나 고민을 정리할 때가 종종 있는데 프롬프트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익혔던 나의 경험이 이번 차시 수업에서 유용하게 쓰인 것 같다고 느꼈다.** (학습자 B에서 발췌)

먼저 CS형에게 적합한 직업 중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물어봤고, ChatGPT가 제시한 여러 직업 중 가장 마음에 든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이 직업을 준비하기 전에 하면 도움이 될 만한 활동과 경험을 추천받았으며, 이를 다시 현재 학년을 고려한 졸업 전까지의 로드맵 형식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는 근무 장소나 직렬 간 차이점 등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물어봤다. **이후에는 이를 조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같은 유형에 해당하고, 비슷한 직업을 희망하는 조원과 서로의 프롬프트를 참고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학습자 C에서 발췌)

5) ChatGPT를 활용한 진로탐색 실습의 교육적 시사점(교수자)

○ ChatGPT 프롬프트의 구체성: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프롬프트(예: 임용시험 준비 주간계획, HR 분야 지망자의 학년별 커리어 로드맵, 실무에서의 강약점 발휘 상황 등)를 개발하여 AI를 활용함. 심리검사 결과에 기반한 진로 의사결정과 더불어 진로준비 행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탐색해나가는 데에 본 활동이 도움이 되었음.

○ 진로탐색 활동의 공유를 통한 효과성 극대화: 조별로 자신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피드백을 제공한 것이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임.

○ 여러 심리검사의 통합적 적용 필요: 이번 실습에서는 시간의 한계상 하나의 심리 검사를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향후 적용시 해당 실습을 보다 길게 구성하여 여러 심리검사를 통합하는 시간을 가지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라. AI 기반 통계 분석 도구 활용 수업 사례

1) 적용 교과목 개요

○ 교과목명: 교육통계및연구법

○ 수업 형태: SM-BL(Blended Learning) 및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 교과 특징: 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초 통계 이론(상관, 회귀, ANOVA 등)을 학습하고, R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실무 역량을 함양함.

2) AI 기반 통계 분석 도구 활용 배경 및 목적

○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통계학은 학습자별로 기초 지식의 편차가 크고 이론

적 진입장벽이 높으나, 교수자 1인이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 수업에서 모든 학생의 개별적인 질문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함.

○ R 실습의 진입장벽 완화: 프로그래밍 숙련도가 낮은 예비교사들은 실습 중 사소한 구문 오류(Syntax Error)에도 학습 동기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생성형 AI를 '1:1 퍼스널 통계 튜터'로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오류를 해결하고 학습을 지속하도록 함.

○ 시행착오를 통한 역량 내재화: 단순히 정답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AI와의 상호작용(Trial-and-Error)을 통해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데이터 문해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음.

3) SM-BL 기반 AI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모형

○ 본 수업은 온라인 선행 학습(Pre-class)과 오프라인 실습 활동(In-class)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SM-BL(Blended Learning)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학습의 모든 단계에 생성형 AI를 '개인 맞춤형 학습 촉진자(Learning Facilitator)'로 통합하여 운영함.

○ [모형도: SM-BL 및 AI 통합 교수-학습 프로세스]

- Step 1 (Pre-class): 온라인 동영상 이론 학습 → AI 개념 보충 및 퀴즈 생성
- Step 2 (In-class): 강의실 R 데이터 분석 실습 → AI 실시간 코드 디버깅 및 1:1 튜터링
- Step 3 (Post-class): 분석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AI 논리 전개 피드백 및 시각화 지원

○ [모형의 상세 특징 및 운영 원리]

1) 지식의 내재화를 돕는 '이론 보완 도구' (Pre-class)

-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시청 중 발생하는 개인별 이해도의 차이를 AI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즉각적으로 메움.
- 교수자가 사전에 설계한 가이드에 따라 학생은 AI에게 "방금 배운 표준편차 개념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와 같은 요청을 통해 추상적인 통계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조화함.

2) 실습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지능형 디버깅 튜터' (In-class)

- 기존 R 실습 수업의 최대 난제는 학생마다 각기 다른 오류(Error)가 발생하

여 교수자의 피드백이 지연되는 현상임.

- 본 모형에서는 학생이 에러 메시지를 AI에 입력하여 원인을 스스로 파악하게 함. 이 과정에서 ‘Trial-and-Error(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며, AI는 정답 코드를 바로 주기보다 “변수명 오타를 확인해 보세요”와 같은 힌트를 제공하여 학생의 문제 해결 사고력을 자극함.

3) 데이터 문해력을 완성하는 ‘해석 및 시각화 파트너’ (Post-class)

-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도출된 통계 결과가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술하는 과정에서 AI의 조언을 구함.
- 학생들은 AI가 제안하는 다양한 시각화 코드(ggplot2 등)를 비교하며 자신의 분석 목적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비판적 선택권을 행사함.

4) AI 도구의 수업 적용 맥락 및 단계별 활용 예시

○ 수업 전(Pre-class) 이론 습득부터 수업 중(In-class) 실습, 수업 후(Post-class) 과제 수행까지 전 과정에 AI 활용 프롬프트를 통합함.

- [1단계] 이론적 갈증 해소 (Online 선행학습): 동영상 강의 시청 중 이해가 어려운 고차원적 개념에 대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추가 설명을 요청함.

(프롬프트 예시): “통계 초보자 수준에서 ‘중심극한정리’가 왜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지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줘.”

- [2단계] R 실습의 실시간 오류 수정 (In-Class 실습): 강의실 내 R 실습 중 발생하는 기술적 에러를 AI와 함께 분석하여 자가 교정을 실시함.

(프롬프트 예시): “R에서 t.test를 실행했는데 ‘object not found’ 에러가 발생했어. 내가 read.csv로 데이터를 불러온 과정부터 점검해야 할 리스트 3가지를 알려줘.”

- [3단계] 분석 결과 해석 및 시각화 (과제 수행): 분석 수치를 학술적 문법으로 기술하거나 데이터의 특성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AI의 조언을 얻음.

(프롬프트 예시): “회귀분석 결과 유의확률(p-value)이 0.018로 나왔어. 이 수치가 갖는 통계적 의미를 교육학 논문 형식의 문장으로 작성해주고,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Scatter plot) 코드를 추천해줘.”

5) 학습 효과 및 교육적 시사점

○ 시시각각 발생하는 오류의 자가 교정: 학생들은 에러 메시지를 AI와 공유하

고 수정 방안을 제안받는 시행착오(Trial-and-Error) 과정을 거치며, 단순 암기가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 역량을 내재화하게 됨.

○ 심리적 안전감 확보: 사소한 질문이나 반복되는 실수를 비난받지 않는 AI 환경에서 질문함으로써 통계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최소화..

○ 교수자 역할의 고도화: 단순한 기술적 오류 수정 업무를 AI가 분담함에 따라, 교수자는 학습자의 연구 설계 적절성 검토나 복합적인 데이터 인사이트 도출 등 고차원적인 상호작용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음.

○ 예비교사의 미래 교육 역량 함양: 대학 강의실에서 AI를 도구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해 본 경험은, 향후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하이러닝' 등 AI 플랫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디지털 교수 역량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종합: AI 기반 도구의 수업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한계

○ AI를 활용하여 향후 진로행동 실행전략 및 추가적 자기탐색을 위한 경험적 발판을 마련함. 다만 프롬프트 공유 및 상호피드백이 있을 때 해당 활동이 더 큰 효과성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됨.

○ 지능형 튜터를 활용한 개별화 교육의 실현과 비판적 리터러시 함양의 과제

- [기대] 교수자 1인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실시간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통계학의 높은 진입장벽과 R 실습 중 발생하는 기술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예비교사들의 디지털 교수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 [한계] AI의 정보 왜곡 및 단순 코드 복제로 인한 사고의 외주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기술적 편의성에 매몰되지 않고 분석 결과를 학습자가 직접 검증하고 교육적 가치를 도출하는 '비판적 리터러시'와 교수자의 고차원적 상호작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4.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및 및 발전 방향

가. 교수법 커뮤니티 운영의 성과

- 다학제적 AI 교수법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상담, 진로, 통계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교과목 교수진이 협력하여, AI를 '교정적 피드백 제공자(상담)', '의사결정 보조자(진로)', '기술적 디버깅 튜터(통계)'로 다양하게 변주하여 적용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도출함.
- 학습자 심리적 장벽을 완화함. 초보 상담자가 느끼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나 통계 초보자가 겪는 프로그래밍 에러에 대한 공포를 AI와의 1:1 상호작용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학습자가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며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

- 개별화 교육의 실무적 대안이 될 수 있음. 교수자 1인이 다수의 학생을 밀착 지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AI를 활용해 개별 학생의 수준과 오류 유형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나. 교수법 커뮤니티의 한계와 극복 방안

- AI 할루시네이션 및 결과의 편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허위성이나 편향된 진로 조언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AI 답변 비판적 검토 및 최종 검증 절차’를 교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함.
- 사고의 외주화 및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AI가 생성한 상담 문구나 분석 코드를 무분별하게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과물뿐 아니라 AI와 주고받은 프롬프트 과정 및 학습자의 성찰 일지를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함.

다. 후속 활동 계획

○ 전공별 AI 교수법 표준 매뉴얼 제작 필요. 본 커뮤니티에서 검증된 사례(상담 챗봇 활용법, 진로 의사결정 단계별 상담 가이드라인, R 프로그래밍 프롬프트 가이드 등)를 체계화하여 교육학부 내 타 교과목 교수 및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지식을 공유함.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연계된 SM-BL 교과목 고도화 필요. 2026-1학기 ’교육통계및연구법’ 등 실제 적용 교과목에서 AI 활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기말 학생 만족도 및 학습 성취도 분석을 통해 AI 통합형 수업 모델을 정교하게 고도화함.

○ 미래 예비교사의 AI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장 필요. 대학 강의실에서의 경험이 향후 초·중등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하이러닝 등)과 직결되도록, 교직 과목 전반에 AI 도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예비교사들의 실무적 디지털 리터러시를 선제적으로 확보함.

참고문헌

김진희, 김위정, 김호영, 김준엽, 박종임, 최숙기(2025).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시범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도입 지원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은주, 장재홍, 권회림, 구예리(2024)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을 위한 AI 활용 교수법 메타 연구

융합인문학을 위한 교수법 메타 연구팀

구자황 기초교양학부

박승억 기초교양학부

이승훈 기초교양학부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130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130
나. 팀 구성 및 특징 ····· 131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 134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 134
나. 주요 활동 내용 ····· 135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140
가. 주요 성과 및 활동의 핵심 강점 ····· 140
나.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 ····· 144
다. 기존 교수법 대비 차별성 ····· 149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 151
가. 수업· 교과목· 연구 적용 방안 ····· 151
나. 후속 활동 계획 ····· 156

5. 기타사항 ····· 158
가. 건의사항 및 제언 ····· 158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이 보고서는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이 처한 구조적 위축의 국면과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이 촉발한 학습 환경의 급변을 동시적 조건으로 전제하고, 교양교육 교수학습의 설계 원리를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학 교육 현장은 학습자의 정보 접근 방식, 글쓰기 수행 방식, 토론과 협업의 매개 방식이 AI 기술과 결합되면서 '학습의 과정' 자체가 재구성되는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교수자가 수업에 특정 도구를 도입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수업 목표, 활동 구조, 평가 준거, 학문적 정직성 규범, 그리고 학습자 행위성의 조건을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교육학적 과제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커뮤니티는 AI 활용을 기술적 숙련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교양교육이 지향해 온 비판적 사고, 근거 기반 의사소통, 공적 토론의 윤리, 학술적 글쓰기의 규범을 AI 시대의 조건에서 어떻게 보존·강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었다.

본 커뮤니티의 직접적 목적은 문학·철학·사회학 분과에서 AI 관련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축적되고 있는 개념, 이론, 교수학습 사례를 논문 및 학술 자료의 형태로 집적하고, 이를 메타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교양교육에 적용 가능한 교수법 구성 요소를 도출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메타 연구는 '사례의 나열'이나 '도구 사용법의 안내'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무엇을 교양교육의 성취로 규정할 것인가, 어떤 활동이 학습의 질을 높이는가, AI의 개입을 어떤 규범과 절차로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과별 논의의 교집합을 추출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범주화하며, 확산 가능한 설계 원리로 정련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별 수업의 성공담을 축적하기보다, 교양교육 차원에서 재사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델을 탐색하고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나 자료를 구안하려는 것이다.

본 커뮤니티는 최근 본교에서 진행된 대표교수(구자황)의 교과·비교과·교수법 개발 성과를 중요한 참조 기반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비교과 영역에서의 '독서토론 운영 경험'*, 'AI 융합교과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수업 목표·활동·평가의 정렬 경험, 그

* 'AI와 함께하는 숙명독서토론'(2025년 비교과 개발 결과 보고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AI 글쓰기 활용 전략과 실습'(2026년 AI 융합교과 개발 결과 보고서, 순헌칼리지/교무처)

리고 기존 교양 수업에 AI 기반 스캐폴딩을 접목하여 과정 중심 평가와 책임 있는 인간-AI 협업 규범을 설계한 ‘AI 기반 독서 문제 해결 교수법 혁신’* 경험은, 본 커뮤니티가 ‘현장 실천에 근거한 메타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실증적 토대이다. 이러한 연계는 커뮤니티 활동이 개념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업 설계 문서, 학습자료, 루브릭, 운영 매뉴얼과 같은 구체적 결과물로 환원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커뮤니티는 대학 차원의 확산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필요성이 크다. 특히 여러 분반으로 운영되는 교양필수 교과는 분반 간 학습 경험의 편차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으며, AI 시대에는 과제 수행 방식과 평가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교수자·학습자 모두가 혼란을 겪기 쉽다. 이 보고서는 교양필수 교과의 ‘학습 모듈 균질화’와 ‘책임 있는 AI 활용 규범의 표준화’를 동시에 지향하며, 그 결과물을 교수학습센터, 순헌칼리지, 대학혁신단 등 관련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대학 차원의 교수학습 혁신 자원으로 환류하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한다.

나. 팀 구성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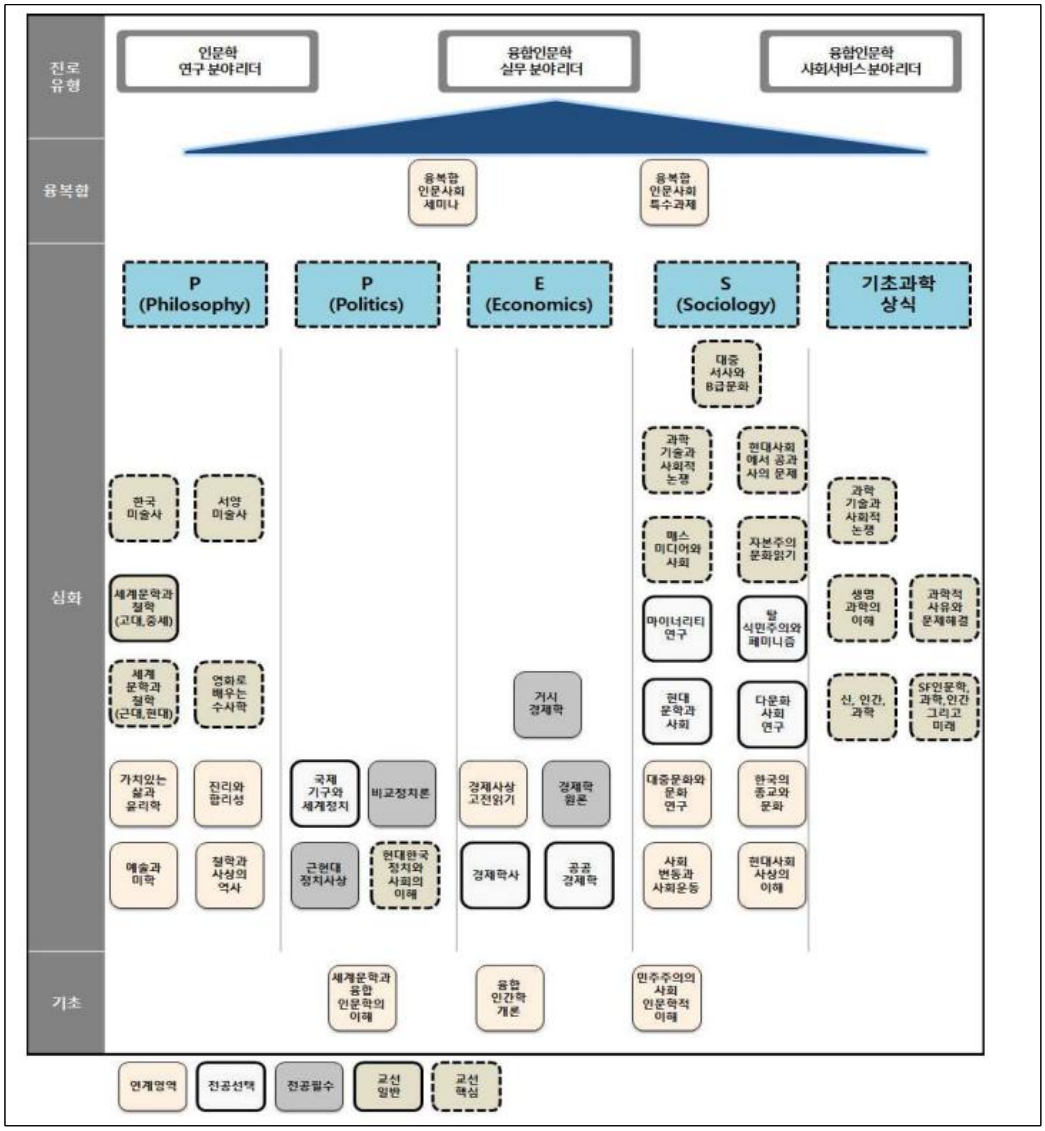
본 커뮤니티는 기초교양학부 소속 3인의 교원이 참여하는 소규모 협력 체제로 운영되며, 대표교수 1인과 참여교수 2인으로 구성된다. 대표교수는 세미나 운영의 총괄, 활동의 진행 관리, 결과보고서의 구조화 및 성과 정리와 같은 ‘총괄 및 보고’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교수들은 각자의 전공 분과에 기반하여 AI 관련 교수법 선행연구와 교육 사례를 조사·선별하고, 핵심 논점을 분석하여 세미나 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은 커뮤니티 활동이 단순한 의견 교환에 머무르지 않고, 검토 자료의 체계적 축적과 분석의 정교화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 구조이다.

본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과적 전문성을 ‘교양교육의 공통 언어’로 번역하는 협력 구조에 있다. 문학 영역은 AI 활용 글쓰기 및 콘텐츠 생산·수용의 변화, 텍스트 기반 수행의 재구성, 표현과 저작의 규범 문제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의 읽기·쓰기 교수법을 재정의하는 데 기여한다. 철학 영역은 AI 윤리, 인간성 및 책임 개념, 규범적 판단의 조건을 바탕으로 수업 설계에서 요구되는 원칙과 한계를 명료화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 사회학 영역은 AI가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 세대·계층의 격차, 공론장과 민주주의의 변형을 분석함으로써 교양교육이 다루어야 할 공적 쟁점과 토론 설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 ‘AI 기반 독서 문제 해결 및 AI를 접목한 독서 역량 계발’(2025 교수법 혁신 공모 교수법 개발 결과 보고서, 교수학습센터)

이러한 분과 결합은 AI 시대 교양교육이 기술 담론에 편중되거나 선언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고, 개념·규범·사회적 맥락·수행 설계를 함께 포괄하는 통합적 교수법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3인의 기초교양학부 교원은 <순헌융합인문학 연계전공>*에서 기초 과목군(세계문학과 융합인문학의 이해-구자황, 융합 인간학 개론-박승억, 민주주의 사회 인문학의 이해-이승훈)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계전공의 기획 및 운영을 함께 하면서 메타 연구의 가능성 및 AI 시대의 융합 인문학에 대한 탐색을 이어왔다.



<순헌융합인문학 연계전공 교과목 체계도>

* '순헌융합인문학 연계전공'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철학·정치·경제 융합전공(PPE·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을 기초로 한국적 현실에 맞게 '사회학(Society)'을 추가해 숙명여대가 만든 인문학 기반 연계전공이다. 영국의 PPE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권석하, 「총리의 산실 옥스퍼드 PPE는 왜 '위대한' 학과가 됐나」, 『주간조선』, 2022.08.07.)

또한 본 커뮤니티는 ‘메타 연구’라는 방법론적 자의식을 분명히 갖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커뮤니티의 세미나는 지정도서 및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의 축을 형성하되, 최종적으로는 분과별 문헌을 동일한 분석 준거로 범주화하여, 공통 원리와 구성 요소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도록 설계하였다. 예컨대 AI 활용 교수법을 논할 때에도 도구 목록의 비교가 아니라, 인간 검증이 개입되는 절차의 설계, 학습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식, 과정 중심 평가 준거의 정교화, 그리고 학습자 행위성을 강화하는 스캐폴딩의 조건을 핵심 분석 범주로 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본교가 추진하는 AI/SW 특성화의 방향성과 맞으면서도, 교양교육 고유의 목표인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의사소통 역량을 중심에 두는 균형점을 제공한다.

요컨대 본 커뮤니티는 분과 학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집적과 메타 분석을 통해, 교양교육 교수법의 설계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교과 운영의 모듈과 자료로 환원하려는 목적 지향적 협력체이다. 이미 3인의 공동연구자들은 우리 시대 인문정신문화의 주요 테마를 ‘교양교육의 공통 언어’로 연구한 협력 경험이 있다. 이러한 구성은 활동의 필요성과 기대 성과를 동시에 뒷받침하며, 향후 교양필수 교과의 질 관리와 대학 차원의 확산에 기반을 제공한다.

<3인의 공동 연구 경험 사례(2023)>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본 커뮤니티 활동은 교수학습센터의 ‘교수법 커뮤니티’ 운영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단계부터 주제의 이론적 토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사전 논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교수법 커뮤니티의 공식 운영 기간은 2025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로 제시되어 있으나, 최근까지 논의를 주고받았으며 활동 과정에서 중간 간담회(2025년 11월 26일, 생략)와 최종 간담회(2026년 2월 3일, 예정)를 통해 진행 현황 공유와 성과 확산 가능성 최종 마무리한다.

커뮤니티 모임은 대면 세미나를 2회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세미나보다는 소속 학부의 연관 회의, 소속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및 기획위원회의 전후 티타임을 주로 활용하였다. 1차 회의는 2025년 9월 18일, 2차는 2025년 10월 2일에 각각 진행되었으며, 이상의 내용을 중간 점검하였는데,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보고한 바 있다.

<중간 운영 현황>

1. 현재까지 활동 현황
  - 모임 진행: 1차 25.09.18(목) 오후 6시, 2차 25.10.02.(목) 오후 6시
  - 논의 주제: 지정도서 세미나(1차-나오미 배런 『쓰기의 미래』, 2차-이션 몰릭, 『듀얼 브레인』) 및 교수법 선행연구 목록 추천
  - 주요 활동 내용:
    (1) 나오미 배런의 핵심 개념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를 2026학년도 교필 개편 과목 <인공지능시대의 사고와 의사소통>에서 핵심 원칙으로 제안할 것.
    (2) 이션 몰릭(Ethan Mollick)과 아짐 아자르(Azeem Azhar)의 대담 영상(「How to unleash the power of AI, with Ethan Mollick」, https://youtu.be/QXUHkjX9XfI?si=CMB2SH5GgO4PnuJu)을 2026학년도 교필 개편 과목 <인공지능시대의 사고와 의사소통>에서 학습자료로 추천할 것.
    (3) 2024년 아짐 아자르의 번역 신간 『2040 위대한 격차』(청림출판)에서 강조한 ‘기하급수적 기술’ 개념을 2006년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 개념과 함께 교수법 혁신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으로 삼을 것.

그러나 향후 활동 계획으로 예정했던 3차(2025년 11월 27일)와 4차(2025년 12월 18일) 모임은 티타임으로 축소 운영되었다.

운영 방법의 핵심은 첫째, 지정도서 및 핵심 자료를 공통 텍스트로 설정하여 논의의 기준점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각 분과(문학・철학・사회학)가 담당 영역의 선행연구와 교수학습 사례를 탐색해 목록을 교류하고, 커뮤니티 전체 토의에서 이를 '교양교육의 공통 언어'로 번역・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셋째, 논의 결과가 실제 교양필수 교과의 모듈 개선과 수업자료 제작으로 환원되도록, 세미나 산출물을 '지문 선정-플립러닝 퀴즈 구성-교수학습 준거 정리-활용 시나리오 작성'의 결과물 체계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공모 안내문이 요구하는 활동 내역의 구체성 및 성과 활용 가능성을 보고서 수준에서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며, 커뮤니티 활동을 재현 가능한 교수학습 설계 과정으로 문서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장치이다.

나. 주요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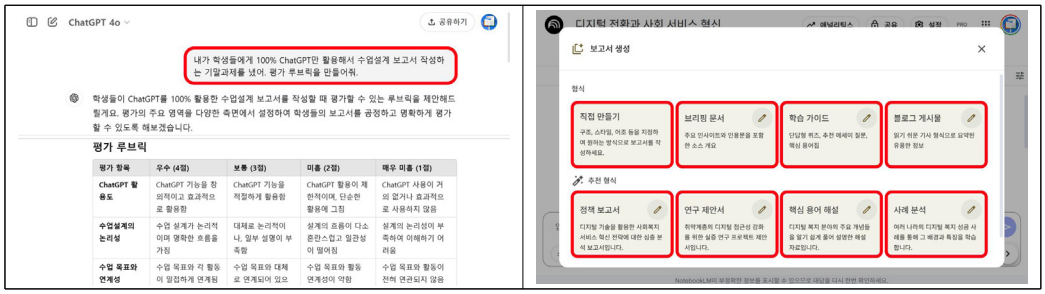
본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은 'AI 활용 교수법'을 기술 적용의 수준에서 다루기보다, 교양교육의 교수학습 설계 원리와 규범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의 위기와 AI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라는 이중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AI 관련 교육・연구가 활발하게 축적되는 분과로 문학・철학・사회학을 설정하여, 각 분과에서 산출된 개념・이론・지식을 논문 형태로 집적한 뒤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을 활동의 기본 설계로 제시하였다.

세미나 운영의 구조는 문학(AI 활용 글쓰기 및 콘텐츠 관련 교양교육), 철학(AI 윤리 및 인간성 관련 교양교육), 사회학(AI로 인한 사회적 갈등・세대・민주주의 관련 교양교육)으로 회차별 논의 축을 설정하고, 교수법・프로젝트・효과성 논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였다. 공통 텍스트 준거 마련을 위해 두 개의 워크숍을 공통으로 참여하고, 배포된 자료를 재검토하면서 기본 시각 및 공통 언어 마련을 위한 AI 활용 교수법 분석을 진행하였다.

홍영일 교수의 워크숍(2026.01.07. 교수학습센터)은 생성형 AI를 '평가와 피드백'의 실천적 도구로 위치시키고, 특히 ChatGPT와 NotebookLM의 작동 원리 차이를 이해한 뒤 이를 교수자의 평가 업무에 재배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ChatGPT가 언어적으로 "말을 지어내고, 상상하고, 추론" 하는 능력을 지닌 반면, 사실성 차원에서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NotebookLM을 ‘내가 제공한 소스 범위에서만 요약·정리’ 하는 도구로 설명했다. 다만 홍영일 교수는 두 도구를 대립시키기보다, ChatGPT를 ‘대화·생성·추론 중심’의 피드백 설계 엔진으로, NotebookLM을 ‘근거(소스) 기반의 요약·분류·재구성 엔진’으로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관점에 있다. 더 나아가 NotebookLM이 소스 목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메모 생성과 마인드맵,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등 수업 자료의 재매개를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평가 이후의 학습 지원(피드백-재학습-형성평가)까지 연결되는 도구 생태계를 제안한다.

AI 활용 교수법 차원에서 이 워크숍이 제공하는 직접적 시사점은 ‘평가 루브릭의 정교화’와 ‘근거 기반 피드백 산출’의 결합에 있다. 첫째, 교수자는 ChatGPT를 활용해 과제 목표와 성취기준을 언어화하고(성취수준 기술어, 감점·가점 규칙, 예시 답안의 특성 등), 이를 기반으로 루브릭 초안을 신속히 생성한 뒤, 동일 과제에 대한 모의 채점과 피드백 문장 뱅크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그 결과물을 NotebookLM에 탑재하고(과제 안내문, 수업 자료, 예시 답안, 학생 제출물 등 ‘소스’ 중심 구성), NotebookLM이 소스 범위 내에서 요약·분류하도록 함으로써 피드백의 근거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NotebookLM의 마인드맵·퀴즈·플래시카드·슬라이드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교수자 피드백 → 학습자 재학습 자료 → 형성평가 문항’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피드백을 ‘사후 통지’가 아니라 ‘학습 설계의 일부’로 전환할 수 있다. 넷째, 워크숍에서 제시된 ‘1대1 비대면 교수법 컨설팅 보고서’를 단시간에 작성하는 사례는, 교수자 공동체 내부에서 동료 수업코칭 기록을 표준화하고 확산하는 데 곧바로 전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은 ChatGPT의 생성적 장점과 NotebookLM의 소스 기반 제약을 ‘검증 장치’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AI 활용의 교육적·윤리적 기준(근거 제시, 환각 통제, 책임 있는 피드백)을 보고서 본문에 설득력 있게 반영하는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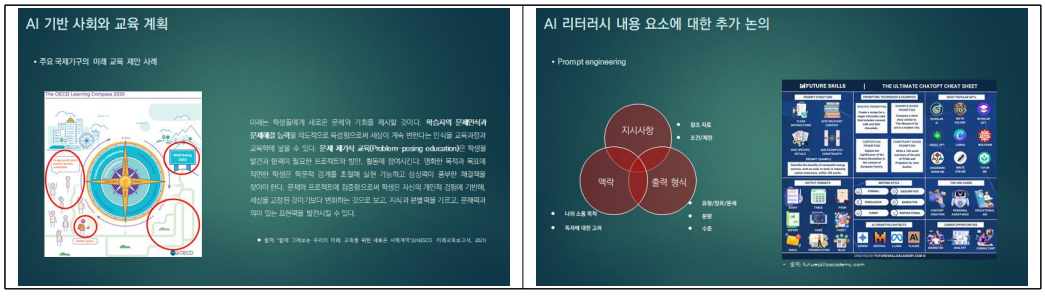
<AI를 활용한 평가와 피드백(홍영일, 2026.01.07.)>

옥현진 교수의 워크숍(2026.01.09. 순헌칼리지/기초교양학부)은 AI가 ‘도구’의 차원을 넘어 비인간 행위 주체로서 사회적 관계, 지식 유통, 교육 제도 전반을 재배열하는 조건이 되었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대학교양교육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학습 경험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플랫폼 기반 개인화가 사회적 원자화와 집단극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진단, 고립·소외와 AI 의존, 직업 세계 및 강의실의 구조적 변화 등을 사례와 인용을 통해 제시하면서, 교양교육이 ‘가능미래’의 추적을 넘어 ‘선호미래’를 구성하는 규범적 논의와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국제기구 및 해외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AI 리터러시를 기술·기능·태도의 복합 역량으로 정의하고, 대학교육 맥락에서 이를 교수학습 설계와 평가 체계로 번역하는 실천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AI 활용법 안내가 아니라 교양교육의 교육과정-평가-거버넌스 논의를 잇는 ‘개념적 안내도’로 평가하였다.

이 워크숍에서 교수자가 직접 인용·전환해 활용할 만한 핵심은 ‘AI 리터러시’를 교과 내용의 목록이 아니라 학습자가 AI와 맺는 관계 양식의 층위로 구조화했다는 점이다. 제공된 관련 해외자료는 AI 리터러시를 “AI의 영향을 받는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식, 지속 가능한 기능, 그리고 미래 지향적 태도”로 개념화하고, 이를 ‘AI와의 상호작용(engaging)-AI를 활용한 창작(creating)-AI 관리(managing)-AI 설계(designing)’의 네 구성 요소로 세분한다. 이 구성은 대학 교양의 교수설계에서 성취기준을 정교화하는 데 곧바로 쓰일 수 있다. 예컨대 교양 글쓰기·독서 수업에서는 ‘상호작용’ 영역을 사실성·관련성 평가와 출처 점검 훈련으로 구체화하고, ‘창작’ 영역을 프롬프트-피드백을 통한 초안 생성과 재작성 과정으로 운영하되 저작권·출처 표기·공정성 점검을 필수 절차로 포함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관리’ 영역은 정보 정리·요약·비교표 작성 등 구조화 과업을 AI에 위임하고 인간은 판단·해석·가치결정에 집중하도록 과업을 분업하는 수업 설계로 연결될 수 있으며, ‘설계’ 영역은 데이터·설계 선택이 공정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소규모 실습으로 변환될 수 있다.

교수법 차원의 직접 적용 포인트는 평가와 피드백의 재설계에 있다. 워크숍에서 옥현진 교수는 ‘문제 정의’가 여전히 인간의 몫이며, 어떤 문제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결정하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논지를 강조한다. 이는 AI 활용 수업에서 평가의 초점을 ‘정답 산출’이 아니라 질문의 질, 탐구 전략의 타당성, 자료의 신뢰도와 최신성, 종합의 수준으로 이동시키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자료에는 질문의 우수성, 탐구 과정의 우수성, 탐구

결과의 우수성으로 구성된 평가 준거가 제시되어 있어, 교수자는 이를 루브릭의 골격으로 차용해 과제 안내문과 피드백 문장을 표준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지시사항-맥락-출력 형식'과 목적·독자·참조 자료·조건/제한·문체·분량·수준 등의 요소로 분해한 틀을 활용하면, 학생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교수자에게는 "어떤 입력이 어떤 산출을 낳는가"를 점검하는 피드백 언어를 제공할 수 있다. 숙명여대의 경우, <AI FactChat>과 같은 캠퍼스 인프라를 적용할 때에는, 동일 과제를 다수의 검색 기반 응답과 범용 LLM(대화 생성 기반 응답)에서 각각 수행하게 한 뒤, 결과의 차이를 '신뢰도·출처·편향·환각 가능성'의 관점에서 비교·성찰시키는 활동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효하며, 이는 자료가 강조하는 '상호작용'과 '관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영 전략이 된다.



<AI 기반 사회와 대학 교양교육의 미래(옥현진, 2026.01.09.)>

이상의 구조와 논의를 거친 본 커뮤니티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논의가 '교양교육의 언어'로 문제의식을 수렴하기 위한 텍스트 선정을 우선하였다는 점이다. 1차 세미나에서는 나오미 배런(Naomi S. Baron)의 저작을 중심으로, AI 시대 글쓰기 수행에서 인간의 판단과 검증이 어디에, 어떤 절차로 개입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2차 세미나에서는 이션 몰릭(Eshan Malik)의 저작을 중심으로 인간-AI 협업의 조건과 학습 설계의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은 분과별 개별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공통 개념'을 확보하여 이후의 문헌 리뷰와 설계 논의가 동일한 분석 준거 위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로 기능하였다.

둘째, 논의가 '즉시 적용 가능한 교양 교과 개선'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중간 운영 현황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는 나오미 배런(Naomi S. Baron)의 핵심 개념인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를 2026학년도 교양필수 개편 과목인 <인공지능 시대의 사고와 의사소통(구. 디지털 시대의 사고와 의사소통)>의 핵심 원칙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는 AI 활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단순 규정이 아니라, 수업 운영과 평가에서 인간의 책임·검증·판단이 개입되는 지점을 원칙 수준에서 명료화한 것으로서, 향후 교양필수 교과의 분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제 수행 방식의 편차와 평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의 실천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교수학습 자료의 구체적 구성으로 논의가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는 이션 몰릭(Eshan Malik)과 아짐 아자르(Azeem Azhar)의 '대담 영상'*을 <인공지능시대의 사고와 의사소통>의 학습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아짐 아자르가 제시한 '기하급수적 기술' 개념을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 개념과 연결하여 교수법 혁신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커뮤니티의 활동이 추상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될 텍스트와 개념을 선정하고, 그 교육적 의미를 이론적 맥락 속에서 정당화하는 수준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커뮤니티 논의가 결과물 생산 중심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원칙 수립이다. 3차와 4차 모임에서는 선정된 도서 가운데 학습자료로 활용할 지문을 선정하고, 플립러닝을 위한 공통 교안을 구성하며, 문학·철학·사회학 분과별 교수법 논문 목록을 정리하였다. 이는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활동 내역'을 단순 회의 일지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 선정 근거, 분석 준거, 산출물 구성 원리, 수업 적용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는 '교수학습 설계의 문서화'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커뮤니티는 기존에 수행된 교과·비교과·교수법 개발 경험을 사례 자원으로 활용하여, 문헌 기반의 메타 연구가 현장 적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내부 환류를 병행하였다. 비교과 영역의 독서토론 운영 경험, AI 융합교과 개발 과정에서의 설계 논리, 그리고 기존 교양 수업에 AI 기반 스캐폴딩을 접목한 교수법 혁신의 운영·평가 원리는 커뮤니티 논의에서 '사례 검증의 준거'로 기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과별 이론 논의가 교양교육의 실천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이 촉진되었다.

---

* 이션 몰릭(Ethan Mollick), 아짐 아자르(Azeem Azhar), "How to unleash the power of AI, with Ethan Mollick", https://youtu.be/QXUHkjX9XfI?si=CMB2SH5GgO4PnuJu)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가. 주요 성과 및 활동의 핵심 강점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핵심 성과는 첫째, AI 시대 교양교육 교수법을 ‘도구의 도입’이 아니라 ‘교수학습 체제의 재설계’로 규정하고, 그 재설계의 구성 요소를 분과 간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정련했다는 점에 있다. 커뮤니티는 생성형 AI를 수업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기능적 효율의 관점에서 처리하지 않고, 학습 목표의 재정의, 학습 활동의 구조화, 평가 준거의 재구성, 학문적 정직성과 책임 규범의 정착, 그리고 수업 운영 인프라의 표준화까지 포괄하는 과제로 전환하였다. 이 접근은 AI 활용 교수법 논의가 흔히 범하는 ‘서비스 비교’나 ‘프롬프트 팁 공유’의 수준을 넘어, 교양교육이 추구해 온 비판적 사고와 근거 기반 의사소통을 AI 시대 조건에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강점을 지닌다.

둘째, 본 커뮤니티는 문학·철학·사회학이라는 분과적 전문성을 통해 AI 시대 교양교육의 쟁점을 다층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교양교육의 공통 언어로 번역·통합하는 협력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 문학 분과는 AI 활용 글쓰기와 콘텐츠 생산·수용의 변화를 ‘수행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읽기·쓰기 교수법의 변형 지점을 제시하였다. 철학 분과는 책임, 인간성, 규범적 판단의 조건을 중심으로 AI 활용의 윤리적·교육적 기준을 개념적으로 명료화하였다. 사회학 분과는 AI가 야기하는 불평등, 갈등, 공론장 변형의 맥락을 분석하여 교양교육이 다루어야 할 공적 쟁점과 토론 설계의 방향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분과 간 결합은 교양교육의 AI 담론이 기술결정론이나 도덕주의적 선언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개념·규범·사회적 맥락·수행 설계를 동시에 담아내는 ‘융합인문학적 교수법 논의’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이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교수법 논의의 거점으로 수렴된 주요 텍스트의 활용 방안은 아래와 같다.

[문학/글쓰기 분야 추천 텍스트]

연구질문 1. 인공지능에 의한 글쓰기 자동화가 인간의 성찰적 사유 및 인지적 정교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해설: 저자 나오미 배런은 생성형 AI가 글쓰기 과정을 고도로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언어를 조탁하며 겪는 '지적 노고'를 생략하게 만든다고 진단한다. 글쓰기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필자의 사유를 확장하고 논리를 정교화하는 성찰적 도구이다. 따라서 본 질문은 AI가 제공하는 편리함이 인간 고유의 심층적 사고 능력을 퇴화시킬 위험성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역할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AI 활용 교수법: 학생이 작성한 에세이 초안을 <AI FactChat>에 입력한 후, AI에 해당 논증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거나 필자의 주장에 반하는 강력한 반론 시나리오를 생성하도록 요청한다. 학생은 AI가 제기한 반론을 검토하여 자신의 논리를 보완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AI를 단순한 '대필자'가 아닌, 학습자의 사유를 자극하고 인지적 부하를 적절히 유도하는 '비판적 대화 파트너'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연구질문 2. 인간과 AI의 협업을 통한 텍스트 생산에서 '저자성(Authorship)'의 재정의와 편집적 주체성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 해설: 생성형 AI와의 협업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단어의 배열이나 문장 생성 능력보다, AI가 산출한 방대한 결과물 중 무엇을 채택하고 어떻게 재조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편집적 통찰력(Curation)'이 저자성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한다. 이 질문은 전통적인 '독창성'의 개념을 넘어, 인간이 기술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자성을 학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한다.

• AI 활용 교수법: 최종 결과물인 에세이와 함께 학생이 AI와 소통한 모든 '프롬프트 이력(Prompt History)'을 제출하게 한다. 교수는 최종 텍스트뿐만 아니라, 학생이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으며 AI의 답변 중 특정 부분을 왜 삭제하거나 수정했는지에 대한 '메타 인지적 근거'를 평가한다. 이는 평가의 중심을 결과물에서 AI를 지휘하고 정보를 선별하는 논리적 과정으로 전환하는 교수법이다.

출처: 나오미 배런, 배동근 옮김, 엄기호 해제, 『쓰기의 미래』, 북트리거, 2025.

[철학/기술 분야 추천 텍스트]

연구질문 1. 인간과 AI의 지능적 결합 모델인 ‘켄타우로스(Centaur)’와 ‘사이보그(Cyborg)’ 전략이 고등교육의 학습 전이 및 지식 습득 과정에 미치는 질적 차이는 무엇인가?

• 해설: 이션 몰릭은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는 ‘켄타우로스’ 방식과 경계 없이 융합되는 ‘사이보그’ 방식이 그것이다. 대학 교육의 맥락에서 이 질문은 학습자가 지식을 습득할 때 AI를 외부의 도구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인지적 확장체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론적 선택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문제를 넘어, 학습자의 지적 정체성과 비판적 통제권이 협업 모델에 따라 어떻게 변용되는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AI 활용 교수법: 학생들에게 특정 과제를 부여한 후, 의도적으로 켄타우로스 방식(예: 개요는 인간이, 자료 조사는 AI가 담당)과 사이보그 방식(예: 실시간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장 단위로 협업)을 모두 경험하게 한다. 이후 <AI FactChat>을 통해 각 방식에서 나타난 결과물의 논리적 일관성과 학습자가 느낀 ‘지적 주도성’의 차이를 성찰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AI 협업 모델을 학술적으로 정립하도록 유도한다.

연구질문 2. AI가 ‘평균적인 수행 능력’을 상향 평준화하는 시대에, 인간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특이점(Uniqueness)’으로서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 해설: 저자는 AI가 하위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보편적인 지식 산출보다 AI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 즉 맥락적 직관, 가치 편향에 대한 윤리적 판단, 독창적인 문제 설정 능력이 인간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 본 질문은 AI 지능이 범용화된 사회에서 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고차원적 사고 역량’의 실체를 재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 AI 활용 교수법: AI가 정답을 내놓기 어려운 복합적인 지역사회 문제나 윤리적 딜레마를 과제로 제시한다. 학생들은 <AI FactChat>을 활용하여 표준적인 해결책을 먼저 도출한 뒤, 해당 답변이 지닌 ‘표준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후 AI의 데이터 학습 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특수한 사례나 인간적 가치를 결합하여 결과물을 고도화한다. 이는 AI를 ‘기준점(Baseline)’으로 삼되, 이를 넘어선 인간만의 창의적 대안을 도출하는 훈련이다.

출처: 이션 몰릭, 신동숙 옮김, 『듀얼 브레인』, 상상스퀘어, 2022.

[사회학/시민교양 분야 추천 텍스트]

연구질문 1. 디지털 기술에 의한 '비대면 접촉의 과잉'이 실제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역설적 영향과 대학 내 사회적 자본의 재구성 방안은 무엇인가?

• 해설: 노리나 허츠는 기술적으로는 초연결되어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현대 사회를 '고립의 시대'로 규정한다. 특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매개 소통이 인간 간의 예측 불가능한 '우연한 만남'과 '공감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질문은 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습자들이 AI 및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연대와 협력을 회복하기 위한 교양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논의한다.

• AI 활용 교수법: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 소통의 양상을 익명 데이터화한 후, <AI FactChat>을 통해 현재 소통 구조의 편중성이나 고립 가능성을 분석하게 한다. AI가 제시한 '사회적 단절의 징후'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물리적 접촉과 아날로그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교내 활동이나 정책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는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이 초래한 부작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비판적 실천 교육이다.

연구질문 2.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와 AI 동반자의 등장이 인간의 공감 능력 및 타자 지향적 시민성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가?

• 해설: 저자는 인간의 외로움을 상품화하는 시장 권력과 감정적 빈자리를 채우는 AI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생략한 채, 개인의 취향에만 부합하는 AI와의 정서적 교류는 타자에 대한 포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질문은 AI 기술이 감정의 영역까지 침투하는 시대에,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시민적 주체성'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를 탐구한다.

• AI 활용 교수법: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AI FactChat>과 심층 대화를 나누게 한 뒤, AI가 보여주는 '무조건적 수용'이나 '알고리즘적 친절함'이 학습자의 기존 편견을 어떻게 강화(Echo Chamber)하는지 분석하게 한다. 이후 AI와의 대화 기록을 타 학생들의 비판적 피드백과 대조하며, 기술이 제공하는 정서적 편안함 뒤에 숨은 '사유의 폐쇄성'을 성찰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는 AI 시대의 인간 소외 문제를 시민 리터러시 관점에서 다루는 혁신적 시도이다.

출처: 노리나 허츠, 홍정인 옮김, 『고립의 시대』, 웅진지식하우스, 2021.

셋째, 커뮤니티 논의가 실제 교과 운영의 개선으로 즉시 환류될 수 있는 수준까지 진전되었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된다. 커뮤니티는 ‘human in the loop’와 같은 핵심 원칙을 교양필수 교과의 운영 원리로 채택하는 방안을 합의하고, 이 원칙이 수업 절차와 평가 준거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논의의 축을 형성하였다. 또한 이션 몰릭과 아짐 아자르의 대담 영상, ‘기하급수적 기술’과 ‘특이점’의 연결과 같은 학습자료 구성을 통해, AI 시대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개념적 배경을 학생 학습 모듈로 번역하는 작업을 착수하였다. 이는 커뮤니티의 성과가 학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교양필수 교과의 분반 운영에서 요구되는 모듈 균질화와 학습 경험의 표준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 강점이다.

나.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

본 커뮤니티의 결과물은 단일 문서가 아니라, 교수법 모델과 운영 패키지로 구성된 복합 산출물의 형태로 정리된다.

첫째, 교수법 메타 모델의 초안이 도출되었다. 이 모델은 AI 시대 교양교육 교수법을 ‘학습 목표의 재정의, 학습 활동의 구조화, 평가 준거의 재구성, 윤리·책임 규범의 제도화, 운영 인프라의 표준화’라는 다섯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각 요소가 상호 정렬되어야 한다는 설계 원리를 제시한다. 특히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 원칙은 이 모델의 규범 축으로 기능하며, AI 활용이 학습자의 수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수업 절차와 평가 체제에서 인간의 검증·판단·책임이 개입되는 지점을 명료화하는 기준으로 자리한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AI와 구분되는 인간만의 특질이 무엇인지’에서 ‘글쓰기를 통해 인간은 AI와 어떤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이 윤리적인가’라는 질문으로 말이다. 여기서 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AI에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AI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나 자신에게 윤리적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AI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도구적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철자법에서부터 문법을 거쳐 표현까지, 아예 문장과 글 전체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역설에 빠지게 한다. 저자도 거론한 것처럼 철저히 도구로 활용하지만, 아마도 그 주인은 노예인 AI가 시키는 대로 철자와 표현법을 바꿀 것이다. 가까운 미래를 ‘in the near future’가 아닌, 단순한 표현이 더 낫다는 추천을 받은 뒤 ‘soon’으로 바꿔 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자기만의 표현, 문체를 잃어 갈 것이다. 이것은 AI에도 인간 자신에게도 윤리적이지 않다. 자신의 고유함을 고양하기는커녕

상대에 융해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휴먼스인더루프(humans in the loop)’**이다. **AI를 통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맺자**는 제안이다. AI가 인간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AI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한쪽을 도구화할 필요가 없다. AI의 도움으로 대응 가능한 여러 표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삶이 담긴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추천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나아가 그 선택을 하면서 과연 그 표현이나 문장이 내 삶의 결과나 느낌을 잘 담아내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 AI의 제안이 최종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이 담긴 표현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면 되는 것이다. 거꾸로 이런 과정은 기계적 학습에서 ‘최적화된’ 답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AI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AI와의 연합으로 글쓰기를 하는 이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을 두려워하며 고유성에 고립되어서도, 고유성을 잃고 연합에 융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나오미 배런, 배동근 옮김, 엄기호 해제,『쓰기의 미래』, 북트리거, 2025, 546~549쪽.>

둘째, 선행연구 집적과 분석을 위한 문헌 목록 및 분석 준거틀이 산출되었다. 문학·철학·사회학 각 분과는 AI 시대 교양교육과 관련된 핵심 논문 및 학술 자료를 목록화하고, 이를 커뮤니티 공통 준거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준거틀은 자료의 핵심 주장 요약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함의가 ‘수업 목표, 활동 설계, 평가 방식, 윤리 기준, 운영 조건’ 가운데 어디에 대응되는지까지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향후 교과 적용과 확산을 위한 근거 자료로 기능한다.

셋째, 교양 교과에 즉시 적용 가능한 학습 모듈 시안이 도출되었다. 이는 지정도서 또는 핵심 자료의 지문 선정, 플립러닝 퀴즈 구성, 토론 질문 및 퍼실리테이션 질문 세트, 수행과제의 단계화, 과정 중심 평가 준거 제시로 구성되는 모듈형 결과물이다. 특히 이 모듈은 AI 시대 변화에 대한 개념적 배경을 학습자가 이해하도록 돕는 ‘개념-사례-수행’의 구조를 갖추며, 학생이 AI를 활용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의 대상이 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활동 결과로 나온 <예문>* 및 교수법 활용 가이드는 아래와 같다.

* 교수학습자료로 사용할 <예문>은 원 출처가 연구 논문임을 감안하여 논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부생이 있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윤문(潤文)을 거쳐 구성하였다.

[예문 1]

대학에서의 공부, ‘정답’이 아닌 ‘생산적 실패’를 향하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공부란 여전히 ‘실수하지 않는 것’ 혹은 ‘빠르게 정답을 맞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양 교육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산적인 실패’를 권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실패’는 단순한 오답이나 탈락을 의미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공간, 특히 교양교육의 장에서 경험하는 실패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득 없는 좌절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생산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AI)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내놓는 시대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역설적으로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부딪혀보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만의 논리를 세워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안전한 길만 걷는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안전한 실험실로서의 교양 수업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타인이 정해준 정답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길을 찾다가 기꺼이 넘어질 것인가?” 성공의 경험만큼이나 값진 것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바로 이 ‘생산적 실패’를 반복하며, 자신만의 지적 자전축(自轉軸)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교수법 활용 가이드 : 본 지문은 입시 위주의 ‘정답 찾기’에 길들여진 신입생들에게 대학 공부의 본질적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이나 강의의 입문 단계에서 첫 번째 읽기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이 지문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생산적 실패’라는 키워드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독려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수업 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한 생산적 실패’에 대한 성찰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AI 시대에 인간에게 실패가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한 비판적 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문의 논지를 파악하는 독서 퀴즈(빈칸 넣기)나 기초 문해력 평가 지문으로 구성함으로써 수업 전반의 평가 철학인 ‘과정 중심 평가’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도입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구자황, 「교양교육의 미래, 연구소라는 문제 설정」, 『전환기 대학 교양교육의 재설계』, 역락, 2025.12.

[예문 2]

디지털 시대의 도구, 우리의 사유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는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펼치기보다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매체(미디어)가 달라지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식인 '사유 양식'도 함께 변화할까요?

과거 활자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선형적인 텍스트를 읽으며 깊이 있게 집중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날의 디지털 매체는 우리에게 방대한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하지만, 때로는 파편화된 정보를 단편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디어 학자들의 진단처럼, 매체는 단순히 정보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인지 체계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매체가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나의 사유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민 교양'입니다.

다양한 양식의 텍스트가 쏟아지는 오늘날, 여러분은 정보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수동적인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요, 아니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나아갈 것인가요?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공부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면서도, 나만의 비판적 사고력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교수법 활용 가이드 : 본 지문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신입생들에게 당연하게 여겼던 미디어 활용 습관을 학문적·비판적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적 도구이다. 미디어의 변화가 인간의 인지적 변화와 사유 양식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핵심 논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태도를 객관화하도록 돕는다. 수업 안에서는 이를 활용해 '종이책 독서와 영상 매체 시청의 사고 과정 차이'에 대해 비교 토론하거나,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적인 사유를 방해하는 요소'를 브레인스토밍하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매체 비평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도입부 자료로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태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해보게 하는 에세이 과제 지문(혹은 빈칸 넣기)으로 구성하기에 적합하다.

출처: 박승억, 「디지털 시대의 사고력과 시민 교양」, 『사고와 표현』 제18권 제1호, 사고와표현학회, 2025.4.

[예문 3]

개인의 섬을 넘어,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향하여

흔히 대학 교양 교육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교육의 방식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우리들의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대학생은 교양 수업을 단순히 취업을 위한 전공의 보조 수단이나, 학점을 따기 쉬운 과목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적과 스펙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타인과 연결되기보다 홀로 고립된 ‘원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개인의 고립화’가 심해질수록 우리 사회가 갈등과 혐오에 취약해진다고 경고합니다. 서로가 공유하는 ‘공통의 세계’가 사라진 자리에는, 타인을 적으로 돌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극단적인 주장들이 쉽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교양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파편화된 개인들이 다시 만나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통의 장’을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나만의 이익을 챙기는 공부에서 벗어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갱신(更新)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이제 ‘나’라는 좁은 섬에서 벗어나 ‘우리’가 함께 발 딛고 서 있는 세계를 바라봅시다. 교양교육은 여러분이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해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수법 활용 가이드 : 본 지문은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에 익숙해진 신입생들에게 ‘교양 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일깨우는 비판적 읽기 자료이다. 개인의 원자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통의 세계’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수업 안에서는 이를 활용해 ‘내가 생각하는 대학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전공 지식 이외에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공통의 가치’가 무엇인지 리스트를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비판적 시민으로서 교양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정립해보는 성찰 저널 쓰기 지문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출처: 이승훈, 「교양교육의 위기와 과제: S 대학 연계전공 ‘순헌융합인문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공공사회학회, 2025.5.

넷째,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운영 가이드와 템플릿이 결과물로 정리된다. 여기에는 AI 사용의 목적과 범위, 사실 검증과 교차 확인 절차, AI 사용 표기 방식,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유해야 할 최소 규범이 포함된다. 이 가이드는 단순한 규정집이 아니라, 교과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판단 지점을 사전에 유형화하고, 평가 준거와 연결해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기능한다.

끝으로, 본 커뮤니티는 기존에 수행된 교과·비교과·교수법 개발 성과에서 축적된 자료를 '사례 기반 근거'로 재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비교과 독서토론 운영 경험은 토론 설계와 참여 촉진의 실천적 근거로, AI 융합교과 개발 경험은 학습 목표와 평가 정렬의 근거로, AI 기반 독서 문제 해결 교수법 혁신 경험은 과정 중심 피드백과 학습 규범 설계의 근거로 결합될 수 있다. 이 결합은 커뮤니티 성과가 추상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업 설계 문서와 학습 자료, 평가 도구로 환원되는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물의 성격을 지닌다.

다. 기존 교수법(또는 교수법 커뮤니티 운영) 대비 차별성

본 커뮤니티의 차별성은 첫째, '교수법 개발'의 의미를 특정 수업기법의 발굴로 협소화하지 않고, AI 시대 교양교육의 교수학습 원리와 규범을 메타 수준에서 도출하는 연구-설계형 커뮤니티로 설정했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인 교수법 커뮤니티가 개별 교원의 우수 사례 공유에 집중할 때, 본 커뮤니티는 분과별 선행연구와 교육 사례를 집적하고 이를 동일한 분석 준거로 범주화하여 공통 원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성과는 '사례의 다양성'이 아니라 '확산 가능한 설계 원리'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성과 활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특히 유의미하다.

둘째, 본 커뮤니티는 AI 활용을 둘러싼 교육적 쟁점을 '학습자 수행의 질 관리'라는 관점에서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수업 현장의 핵심 문제는 학생 참여의 유무가 아니라 참여의 방식과 수행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있다. 본 커뮤니티는 이 지점을 '과정 중심 평가'와 '책임 있는 협업 규범'의 결합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학생이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이 학습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검증 절차와 사용 표기 규칙을 활동 설계와 평가 준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단순히 AI 사용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적 접근과

구별되며, 학습자의 행위성과 학문적 정직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교수학습 설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셋째, 본 커뮤니티는 교내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제 위에서 교수법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운영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 외부 서비스에 대한 산발적 의존은 접근성의 형평성과 수업 운영의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본교가 제공하는 AI 플랫폼(AI FactChat, https://sookmyung.factchat.bot/dashboard/chat/10967)과 기존에 개발된 교과·비교과 성과를 기반으로 교수학습 모듈을 구성하면, 교수자 간 운영 원칙의 공유와 분반 간 학습 조건의 균질화가 가능해진다. 본 커뮤니티는 이러한 제도적 조건을 교수법 논의의 주변 요소로 두지 않고, 교육적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변수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가. 수업·교과목·연구 적용 방안

본 커뮤니티 성과의 활용은 “교양필수 교과의 모듈 표준화”를 1차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양필수 교과는 다분반 운영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교수자별 운영 편차가 학습 경험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기 쉽고, 특히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는 과제 수행 방식과 평가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학습자 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커뮤니티가 도출한 핵심 원칙인 ‘human in the loop’을 교양필수 과목의 운영 규범으로 명시하고, 해당 원칙이 수업 절차와 평가 준거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공통 모듈”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확산의 출발점이 된다. 이 공통 모듈은 AI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핵심 개념 학습, 자료의 신뢰성 점검과 교차 검증 절차, AI 사용 표기와 학문적 정직성 규범, 토론 퍼실리테이션 질문 세트, 과정 중심 루브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분반 운영에서 교수자가 최소한으로 공유해야 할 ‘운영 패키지’로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과목 단위 확산은 커뮤니티 성과를 “기존 실천 성과와 결합한 연계 모델”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청춘 독서론 강의>는 독서, 토론, 글쓰기, 포트폴리오의 연계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커뮤니티 결과물을 수업 설계의 상위 준거로 적용하여 책임 있는 인간-AI 협업 규범과 과정 중심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커뮤니티가 제시한 원칙은 단순히 AI 사용을 허용하는 운영 지침이 아니라, 독서 수행에서 질문 설계, 근거 점검, 토론의 논증 구조, 수정 이력 기록을 평가 준거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의 질 관리’를 제도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제4회 숙명독서토론대회> 취지문은 분석하여 독서-토론-글쓰기로 연계된 수업을 구성을 위한 교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회 취지문

<주제>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가?

과학과 기술의 브레이크 없는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생명공학 분야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슈퍼 AI의 개발이나 질병, 노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스스로 생명을 설계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생명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편집하고 디자인하여 타고난 신체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최초의 작품이 메리 셸리(Mary Wollstonecraft Shelley)가 쓴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이다.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 영국에서 출간된 최초의 SF 소설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가 창조한 존재의 비극적 운명을 다루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이 갖는 유한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자 했으나, 그 결과 생명을 갖게 된 피조물은 괴물 형상으로 인해 인간들의 외면 속에서 외로움, 절망과 분노를 키우며 복수를 시도하게 된다. 인간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상황으로 인해 프랑켄슈타인 자신과 주변인들이 고통을 겪고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창조 욕망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의 양상을 조명하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공포 소설이 아니라 과학과 윤리, 인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무분별한 과학적 탐구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창조된 존재가 윤리적으로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이끈다. 인간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의 고독과 분노는 현대 사회 기술이 만든 다양한 존재들의 정체성과 권리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킨다. 유전자 조작 기술,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과 같은 기술 변화가 야기할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우리가 창조한 존재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포용의 문제를 상기시킨다. 이 소설은 이처럼 급속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게 하며 기술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미래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제4회 숙명독서토론대회는 『프랑켄슈타인』을 지정도서로 하여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인간이 갖는 창조에 대한 욕망과 그 책임에 대해 깊게 사고해 보는 과정에서 과학적 발전과 윤리적 문제를 성찰하고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 독서토론대회는 독서를 통한 분석력과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며, 토론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경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제4회 숙명독서토론대회 참가를 통해 많은 숙명인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정독하며 인간이 창조자로서 가지는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는 가운데, 현대 사회의 과학과 윤리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서-토론-글쓰기 연계를 위한 AI 교안(예시)>

구분	1차시: 취지문 분석 기반 쟁점 구조화·질문 설계	2차시: 구조화 토론 수행·논증적 글쓰기·수정 이력
수업 주제	취지문 읽기에서 논제 재구성, 토론 질문 설계	토론을 글쓰기 초안으로 전환, 피드백 기반 수정
핵심 목표	논제의 판단 기준 설정, 쟁점 구조 만들기, 질문의 질 제고	주장-근거-반론-재반박 구조 유지, 글쓰기 논증화, 과정 성취 가시화
독서 활동	취지문 근거 중심 읽기(핵심 어휘·논리 연결 표시) 주장 요약 1문장 작성(사실 요약 금지)	토론 직후 논증 캡처(강한 주장 1, 약점 1, 근거 공백 1)
토론 활동	논제 재서술(조건·기준 포함) 질문 3종 설계(해석·규범·적용) 미니 토론 리허설(주장·근거·반론·재반박)	구조화 토론(역할 분담: 주장·근거·반론·정리) 질문 2개 선택(규범 1, 적용 1 권장) 교수자 1회 개입(근거 적합성 점검)

글쓰기 활동	토론용 질문 설계 기록지 작성(요약・논제・질문・근거)	논증적 초안 작성(기준 선언-텍스트 근거-반론 처리-결론) 수정 반영본 작성(피드백 근거 제시)
AI 활용(원칙)	human in the loop 준수 AI는 반론 후보・개념 확인 지원, 채택・판단은 학생 책임	AI는 구조 점검・약점 진단 지원, 문장 대필 금지 채택・배제 이유를 학생이 재서술
AI 활용(도구/활동)	FactChat 등: 개념・사례 정의 확인, 출처 교차 점검 ChatGPT류: 반론 가능성 점검, 논증 빈틈 탐색	NotebookLM류: 소스 기반 요약・구조화(목차/논증 흐름 중심) ChatGPT류: 논리 약점・근거 부족 진단, 개선안 검토
학습의 질 관리 요소	질문 설계 수준, 근거 점검 절차, 논증 구조 초안화, AI 사용 로그	논증 구조 유지, 반론 처리 성실성, 과정 중심 피드백 반영, 수정 이력 투명성
산출물(포트폴리오)	질문 설계 기록지 AI 사용 로그(프롬프트・응답・내 판단 수정)	토론 논증 캡처 글쓰기 초안・수정본 수정 이력(채택/배제 근거) + AI 사용 로그
평가 준거(요약)	논제 재서술의 명료성, 질문 3종의 타당성, 근거 적합성・출처 투명성	논증 구조 완결성, 근거 충실성, 반론・재반박의 논리성, 수정 이력의 설득력

둘째, <AI 글쓰기 활용 전략과 실습>과 같은 AI 융합교과 개발 경험은 커뮤니티 성과가 "AI 리터러시 기반 교양교과 설계"로 구현되는 구체적 경로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의 메타 모델을 교과목 개발의 체크리스트로 적용하면, 수업 목표와 활동, 평가, 윤리 규범, 인프라 조건이 정렬된 설계인지 점검할 수 있으며, 교과목 개발 결과보고서가 요구하는 논리성・구체성을 강화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주장이 있는 칼럼을 읽고, 반대 입장의 칼럼을 쓰기 위한 개요(안)을 제시한 뒤 학생이 분석 후 피드백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쓴 학생 칼럼을 <숙대신보> 등 현실 매체에 제출하는 실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얼굴에서 음성・문자로-우리 관계의 진화

불쑥 찾아뵈어서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어졌다. 특별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리 전화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 대신 이제 우리는 불쑥 전화 드려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내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편하실 때 잠시 통화하고 싶습니다. 언제 전화 드리면 좋을까요. 어제만 해도 나는 이런 문자를 두세 사람에게 보냈고 또 두세 사람에게 받았다. 얼굴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글자로, 우리는 축소돼 왔다. 이것은 진화일까?

원래 당신은 하나의 '얼굴'이었다. 적어도 전화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랬다. 걸어가서 기다리지 않으면 당신을 만날 수 없었다. 당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 당신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선을 감당해내는 일이다. 그리고 표정이 머금고 있는 의미를 해독하는 일이다. 나와 당신이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 일은 만만찮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이다. 이때 당신은, 내가 잘 알지 못하므로 그만큼 부담스러운, 타인이다. 현대 인문학에서는 흔히 '타자(他者)'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하자. 이때의 당신

은 ‘얼굴-타자’ 다.

전화가 발명된 이후에 당신은 하나의 ‘음성’ 이 되었다. 이 문명의 이기 덕분에 우리가 덜 수 있게 된 것은 걸어가고 기다리는 수고만이 아니다. 당신의 시선을 견뎌내고 표정을 읽어내야 하는 노역을 얼마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 더 중대한 변화였던 것은 아닌지. 전화 속의 당신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지도 않는, 그저 하나의 음성일 뿐인 존재다. 이를 ‘음성-타자’ 라고 하자. 얼굴-타자보다 음성-타자가 더 편안하다. 전화는 만날 수 없는 고통을 덜어주는 기계이지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되어주는 기계이기도 하다.

휴대폰 덕분에 당신은 마침내 ‘글자’ 가 되었다. 물론 문자 메시지는 편리하다. 그런데 그 편리함 중에서는 심리적 편리함의 비중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통화보다 오히려 문자를 더 많이 이용하는 시대/세대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얼굴은커녕 음성조차 갖고 있지 않은 글자로서의 타자, 즉 ‘글자-타자’ 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는, 이후의 통화와 그 이후의 대면을 위한 준비 작업일 때도 있지만, 더 은밀하게는, 모든 일이 이 문자의 층위에서 다 해결되면 좋겠다는 소망의 매체이기도 하다.

얼굴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글자로, 당신은 축소 조정돼 왔다. 그러면서 당신은 쉬워졌다. 이 변화의 와중에 당신이 뭔가를 점점 잃어왔기 때문이다.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하면서 느끼게 되는 바로 그것, 그 ‘다름’ 말이다. 철학 책에 자주 나오는 용어대로라면, 타자의 타자성(他者性, otherness) 말이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타자의 타자성을 본의 아니게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온 것처럼 보인다. 이제 나는 당신을 만날 필요가 없다. 음성조차 듣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라는 글자와 대화를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타자의 타자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글자-타자로만 만나면서 편안해할 때 당신도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결별선언과 해고통지를 문자 메시지로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 그의 불행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글자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화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전화를 기다리면서, 나는 한다.

(신형철, 『경향신문』, 2013.1.17.)

[반론 개요]

얼굴에서 음성·문자로-관계의 진화와 선택권 확장

. 얼굴→음성→문자를 ‘타자성 축소’ 로만 해석하는 것은 매체결정론적 단순화
. 핵심 변화는 타자의 소거가 아니라 접속·거리·시간을 조절하는 관계의 가능성 확대
. 문자는 심리적 회피가 아니라 경계 설정, 숙고, 메타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함
. 대면의 직접성은 때로 위계·압박을 강화하므로, 윤리는 ‘얼굴’ 이 아니라 절차에서 성립
. 텍스트 기반 소통은 기록성으로 인해 책임을 명료화하고, 논점을 구조화하는 효과가 큼

. 문제의 본질은 문자 자체가 아니라 문자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계 윤리의 붕괴’
. 해법은 “대면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사안별 매체 선택 원칙과 커뮤니케이션 규범의 표준화
. 결론은 “축소냐 진화냐”가 아니라 “새 매체 환경에서 타자에게 책임 있게 응답하는 관계 리터러시의 성숙”

셋째, 비교과 영역의 독서토론대회 운영 경험은 교실 밖 학습의 장에서 AI 활용 규범과 토론 설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사례로 기능한다. 커뮤니티 성과를 비교과 운영 매뉴얼과 접속시키면, 교과와 비교과가 “독서-토론-글쓰기-AI 리터러시”라는 공통 역량 축을 공유하는 통합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과 프로그램 가운데 숙명독서토론대회의 지정도서를 분석하여, 선정 이유와 특장점 등을 분석한 후, 가장 읽고 싶은, 독서 후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는 비교 역량을 구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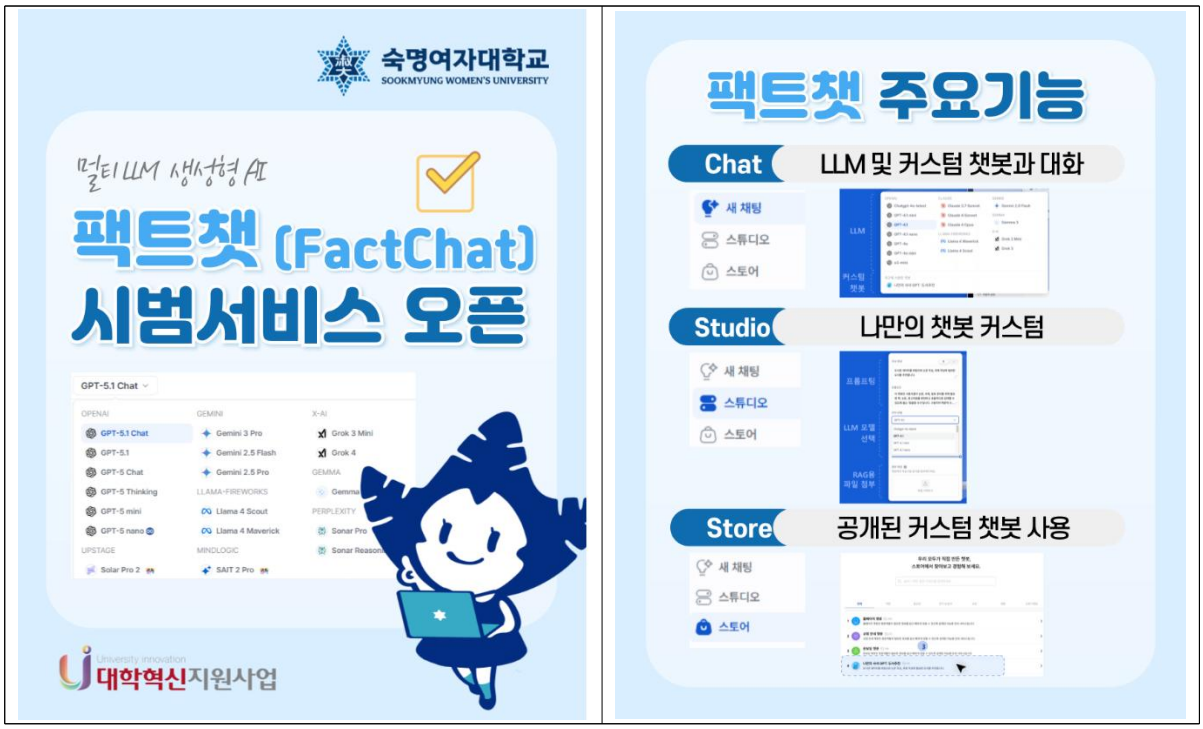
<숙명독서토론대회 지정도서 예시>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연구 적용 방안은 커뮤니티 산출물을 단발성 결과보고서로 소진하지 않고, 교양교육 혁신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전환하는 데 있다. 본 커뮤니티는 분과별 선행연구를 집적하고 공통 준거로 범주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해당 범주화 결과를 토대로 ‘AI 시대 교양교육 교수학습 설계 원리’에 관한 메타 리뷰 논문, 또는 교양필수 과목 모듈 표준화의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교내에서 진행된 교과·비교과·교수법 개발의 성과를 동일한 준거로 재분석하면, 본교의 교육혁신 사례를 단순 소개가 아니라 “원리 중심의 사례집”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 확산 요구와도 정합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성과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내 디지털 학습 인프라와의 결합이 전제

되어야 한다. 특히 교내 생성형 AI 플랫폼인 <AI FactChat>을 공통 기반으로 설정하면, 외부 서비스 의존으로 인한 접근성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수업 운영 조건을 통일하여 평가 준거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AI FactChat>의 다중 모델 활용 기능과 맞춤 챗봇 제작 기능은 커뮤니티 성과를 '교수자 설계 스캐폴딩의 디지털 구현'으로 환원하는 경로를 제공하므로, 교양필수 공통 모듈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후속 활동 계획

후속 활동 계획은 잔여 세미나를 통한 '성과의 완결'과 결과물 패키지의 '표준화·배포'를 중심으로 단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커뮤니티의 후속 모임에서는 분과별 선행연구 목록을 확장하고, 각 문헌을 공통 준거에 따라 요약·분류하는 작업을 완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분과별 논의가 교양교육 설계로 환원되도록, 각 문헌이 수업 목표, 활동 설계, 평가 준거, 윤리 규범, 운영 인프라 가운데 어느 요소에 직접 기여하는지를 명시하는 방식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 절차는 커뮤니티 산출물의 학술적 신뢰성과 재사용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다음 단계는 교양필수 교과 적용을 위한 모듈 시안의 구체화이다. 지정도서 또는 핵심

자료에서 학습 효과가 높은 지문을 선정하고, 지문 이해를 확인하는 플립러닝 퀴즈를 구성하며, 토론 질문과 퍼실리테이션 질문 세트를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모듈은 단순 학습자료 묶음이 아니라, '원칙-절차-평가'가 결합된 설계 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human in the loop' 원칙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활동 절차로 구현되는지, AI의 개입 범위와 인간 검증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표기되고 기록되는지, 과정 중심 루브릭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시범 적용과 환류이다. 커뮤니티 결과물을 2026학년도 교양필수 교과 또는 관련 교과의 일부 주차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자 반응과 수행 결과를 정성적으로 점검하고, 교수자의 운영 부담과 평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성과 평가는 성취의 단일 지표로 환원하기보다, 토론의 논증 구조 개선, 근거 검증 수행의 충실도, AI 사용 표기의 성실성, 초안-피드백-수정의 환류 실현 여부와 같은 '과정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범 적용 결과는 모듈의 수정·보완 근거로 반영되어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적용 가능한 '버전'으로 고도화되는 방식으로 완결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패키지화와 확산 체계 구축이다. 최종 결과물은 첫째, 교수법 메타 모델 문서, 둘째, 분과별 문헌 목록과 분석표, 셋째, 교양필수 공통 모듈(지문·퀴즈·토론 설계·루브릭·운영 가이드), 넷째, 책임 있는 AI 활용 규범 및 표기 템플릿, 다섯째, 적용 사례(교과·비교과·교수법 개발 성과의 연결 지도)로 구성된 부록 패키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패키지는 교수학습센터와 순헌칼리지, 대학혁신지원단을 통해 공유되며, 필요 시 교양교육 관련 교내 워크숍에서 사례 발표와 함께 확산을 추진할 수 있다. 확산은 자료 배포로 종료되는 방식이 아니라, 교과목 설계 컨설팅, 루브릭 적용 연수, AI 활용 윤리 기준 안내와 같은 후속 지원이 결합될 때 실효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커뮤니티는 결과보고서의 결론에서 "확산을 위한 최소 지원 요건"을 함께 제안하고, 대학 차원의 지원 체계가 결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후속 계획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 커뮤니티의 후속 계획은 문헌 기반 메타 분석의 완결, 교양필수 모듈의 구체화, 시범 적용과 환류, 결과물 패키지의 표준화와 확산 지원 체계 제안이라는 네 단계로 구조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화는 활동 성과를 실제 교육혁신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로가 된다.

5. 기타사항

가. 건의사항 및 제언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성과가 일회성 사례로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책임 있는 AI 활용(Responsible AI Use)”의 운영 원칙을 교양교육의 교수학습 체제 안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 활용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으로 관리하기보다, 수업 목표와 활동 구조, 평가 준거, 학문적 정직성, 학습자 데이터의 보호와 같은 교육학적·윤리적 요소가 정렬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교는 교양필수 교과를 중심으로 ‘human in the loop’ 원칙을 공식화하고, 과제 유형별로 AI 개입 범위와 인간 검증 책임이 어떻게 분기되는지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은 규정의 나열이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판단 지점을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 처리 방식과 평가 준거를 연결해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수업 운영의 통제 가능성과 평가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확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교수자 지원 체계가 단순 연수 제공(워크숍 제공, 교수법 커뮤니티 장려 등)을 넘어 “설계 지원과 품질 관리”로 확장되어야 한다. AI 시대의 교수학습 혁신은 개별 교수자의 도구 숙련에만 의존하기 어렵고, 수업 설계 문서의 정렬 점검, 루브릭의 정교화, 과제 설계의 난이도 및 공정성 검증, 학습자 과제물의 AI 사용 표기와 검증 절차의 표준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설계 역량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교수학습센터와 순헌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 대학혁신지원단이 협력하여 교양필수 공통 모듈의 개발·배포·개선에 대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교수자에게는 모듈을 “활용 가능한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제공 단위는 강의자료 묶음이 아니라, 학습 목표, 핵심 개념, 활동 절차, 과제 설명문, 평가 루브릭, AI 사용 표기 템플릿, 사실 검증 체크리스트가 통합된 운영 패키지여야 한다. 이러한 패키지화는 분반 간 학습 경험의 균질화를 가능하게 하며, 교수자 간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육적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의 활용은 선택적 편의가 아니라 확산의 전제 조건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외부 상용 LLM에 대한 산발적 의존은 접근성의 형평성과 수업 운영의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저작권, 데이터 이동의 문제를 수업 단위에서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본교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AI FactChat>과 같은 교내 플랫폼을 교양교육의 기본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되, 그 활용 방식은 '질문 응답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교수학습 스캐폴딩의 구현 환경'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양 필수 교과의 공통 모듈에 맞춰 맞춤형 챗봇을 설계하고, 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검증 절차와 사용 표기 원칙을 챗봇 응답 구조 안에 내장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개인적 사용 시간 및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이는 학생이 AI를 사용하더라도 학습자의 판단과 책임이 과정의 중심에 남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며, 동시에 교수자에게는 반복 안내 부담을 줄이는 운영적 효율을 제공한다.

넷째, 학습자 측면의 지원은 'AI 사용 역량'이 아니라 'AI 시대의 학술적 수행 역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생성형 AI의 보급은 학생들의 과제 생산을 쉽게 만들었으나, 그 결과 학습자는 사실 검증, 근거의 적합성 판단, 논증의 일관성 확보, 인용 윤리 준수, 저작 책임의 이해와 같은 고차적 수행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AI 활용을 전제로 하되, 정보 선별과 검증, 논증 구성, 수정 이력 관리, 표기와 인용의 규범을 학습 과정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교수법을 재배치해야 한다. 본 커뮤니티가 제안한 원칙과 모듈은 바로 이 지점을 목표로 하며, 향후에는 학습자 오리엔테이션, 공통 학습자료, 예시 과제물(좋은 사례와 문제 사례)을 포함한 학습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의 학문적 정직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학습 과정의 명시적 성취로 재구성하는 접근이다.

다섯째,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평가 및 환류의 기준이 정교화되어야 한다. AI 활용 교수법의 성과는 단일 지표로 측정하기 어렵고, 특히 교양교육의 핵심 성취는 수행의 과정과 학습자의 판단 능력에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학 차원에서는 토론의 논증 구조 개선, 근거 검증 수행의 충실도, 초안-피드백-수정의 환류 실현 여부, AI 사용 표기의 성실성과 메타인지적 성찰의 수준과 같은 과정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의 준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 지표는 교수자 간 평가 기준을 공유하는 데에도 유효하며, 분반 간 학습 경험의 품질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 나아가 교양교육연구소와 연계하여 기반연구 또는 메타 리뷰 연구로 확장하면, 본교의 교수학습 혁신을 외부에 설명 가능한 학술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커뮤니티는 향후 후속 커뮤니티 또는 워킹그룹으로의 연속성을 제안한다. AI 시대의 교수학습 혁신은 단기간에 완결되는 과제가 아니라, 기술·사회·규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교육 체제의 과제이다. 따라서 본교는 교수법

커뮤니티를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보다, 교양필수 교과를 중심으로 공통 모듈의 버전 관리와 사례 축적, 윤리 기준의 업데이트, 인프라 활용의 고도화를 담당하는 상설 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속성은 커뮤니티 성과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단기 성과로만 남기지 않고, 교양교육의 장기적 질 관리 체제 속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하는 경로가 될 것이다.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AI와 신화로 보는
미래 문화 콘텐츠 개발 교수법 연구

AI신미콘팀

표정옥 기초교양학부

박영민 융합학부

윤희정 기초교양학부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164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164
나. 팀 구성 및 특징 ····· 165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 166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 166
나. 주요 활동 내용 ····· 166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167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 ····· 167
나. 기대 효과 및 한계 ····· 185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 186
가. 수업· 교과목· 연구 적용 방안 ····· 186
나. 후속 활동 계획 ····· 186

5. 기타사항 ····· 187
가. 건의사항 및 제언 ····· 187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① AI ·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인문학 교수법 개선의 필요성

최근 대학 교육 환경은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기술의 확산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인문학 수업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교수법 모델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신화 · 문학 · 문화 콘텐츠와 같은 인문학 주제는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도구 활용의 난이도와 교수자의 부담으로 인해 시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문학 수업 사례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기술 중심이 아닌 학습 경험 중심의 교수법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② 프로젝트 기반 · 디자인씽킹 수업 운영에 대한 공동 성찰 필요

지난 학기 수업은 디자인씽킹 기반 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은 문제 정의부터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개발, 결과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중심 수업 특성상 팀별 이해도 차이, 과제 수행 부담, 협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교수자의 경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수자 간 공동 성찰과 수업 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하였다.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프로젝트 수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가능성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인 단계 설계와 피드백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③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를 위한 교수자 협력 필요성

AI · 메타버스 기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차이가 학습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수업 운영 과정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CoSpaces 및 AI 도구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프로젝트 몰입도와 결과물 완성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간 협력을 통해 기초 도구 학습 단계 강화, 안내 자료 보완, 단계별 실습 구조 설계 등이 필요하다.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학생들의 기술 격차를 수업 설계 차원에서

완화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수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④ 수업 성과의 체계적 정리와 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 필요

AI와 신화를 융합한 수업은 단발성 시도로 끝나기보다, 교수법 모델로 정리되어 다른 교과목과 교육 현장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학생 결과물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축적되기 어렵다. 이에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지난 학기 수업 운영 경험과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교수법 사례로 정리하여 향후 교양·전공 수업 및 교수 연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 팀 구성 및 특징

① 인문학·기술·교수설계를 아우르는 다학제 협력 구조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신화·문학 등 인문학적 콘텐츠 해석을 담당하는 교수, AI·메타버스 기반 기술 구현을 지도하는 교수, 디자인씽킹과 프로젝트 수업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참여한 다학제 협력 구조로 구성되었다. 각 교수는 단순히 역할을 분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업 기획 단계부터 실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를 통해 인문학적 깊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 교육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정 전공이나 기술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잡힌 교수법 개발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팀 구성은 AI·메타버스 융합 수업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실제 수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실천 중심 교수 공동체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또 다른 특징은 이론 중심 논의가 아닌, 실제 수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 중심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팀 구성원들은 지난 학기 수업에서 사용한 강의 자료, 과제 설계, 학생 피드백,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디자인씽킹 기반 프로젝트 수업과 AI·메타버스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교수법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천 중심 협력은 교수법 커뮤니티가 형식적 모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였다.

③ 교수자 간 상호 보완적 역할 수행과 공동 성찰 구조

본 팀은 각 교수의 전문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동 성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인문학 교수는 프로젝트의 서사적 완성도와 문화적 의미를 점검하고, 기술 담당 교수는 구현 과정의 현실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교수설계 담당 교수는 학습자의 참여도와 협업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역할 수행은 프로젝트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을 방지하고, 수업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 결과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개인 교수법의 나열이 아닌, 공동의 교육적 판단과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적 팀 구조를 형성하였다.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1차 오프라인 모임
2차 줌회의
3차 줌회의

나. 주요 활동 내용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대면 모임과 온라인 ZOOM 모임을 병행하여 운영되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전 학기 수업 운영 결과와 학생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ZOOM 모임을 통해 일정 조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2026년 7월 융합교과목 개발 및 운영을 주제로 한 논문 발간을 목표로, 각 교수의 수업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커뮤니티에서는 전 학기 수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다음 학기 수업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26-1학기 수업 운영과

연구를 연계하기 위해 설문조사 도구, 학습자 인식 조사 문항, 프로젝트 평가 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마련하였다.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

■ 교수자1. 표정옥 수업 기획과 연관 성과

① 테마 1: 신화 서사 이해 × 생성형 AI 기반 텍스트 생성

표정옥 교수의 수업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용, 도깨비, 영웅, 속임수 신화 등 전통 서사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사의 구조, 상징, 인물 유형을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박영민 교수의 생성형 AI 텍스트 생성 논의와 연계하여, 학생들은 신화 서사의 핵심 요소를 프롬프트로 구조화하고 AI를 활용해 새로운 서사 변주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해석과 AI의 생성 결과를 비교·분석하며, 서사 창작에서 인간 사고의 역할과 AI 활용의 한계를 성찰하도록 설계한다.

② 테마 2: 비교신화 분석 × 데이터 기반 패턴 인식

표정옥 교수는 한국·중국·베트남·일본 신화를 비교하며 문화권별 신화 패턴과 차이를 분석하는 수업을 운영한다. 이러한 비교신화 분석은 박영민 교수의 데이터 분석 및 패턴 인식 개념과 연동된다. 학생들은 신화의 반복 구조, 등장 인물 유형, 갈등 해결 방식 등을 범주화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AI 도구로 시각화하거나 분류해본다. 이 과정은 인문학적 해석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며, 융합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테마 3: 신화 상상력 × 메타버스·AI 융합 구현

표정옥 교수의 수업에서는 신화 속 공간과 존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상상력 교육이 핵심이다. 이는 박영민 교수의 AI 도구 활용 및 메타버스 기술 논의와 결합되어, 코스페이시스(Cospaces) 기반 프로젝트로 확장된다. 학생들은 신화 속 장면을 3D 공간으로 구현하고, 간단한 AI 요소나 인터랙션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추상적인 신화 상상력이 디지털 공간에서 구체화되는 경험을 제공하며, 인문 콘텐츠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학습하도록 설계한다.

④ 테마 4: 인간 중심 가치 성찰 × AI 윤리와 비판적 활용

표정옥 교수의 신화 수업은 영웅성, 권력, 희생, 공동체 윤리 등 인간 중심의 가치 성찰을 강조한다. 이 주제는 박영민 교수의 AI 활용 윤리, 생성형 AI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학생들은 신화 속 인간 선택과 현대 AI 의사결정을 비교하며,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 왜 중요한지 토론한다. 이를 통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 가치에 기반해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 교수자2. 박영민 수업 기획과 연관 성과

코스페이시스 에듀(CoSpaces Edu)에서 AI를 접목하는 방법은 크게 **외부 AI 툴을 활용한 에셋(자원) 생성**과 **교육적 활용 시나리오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코스페이시스 플랫폼 자체에 복잡한 AI 모델이 직접 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AI 도구들과 결합(App Smashing)하여 매우 강력한 학습 도구로 변모시킬 수 있다. 주요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 공간 에셋 제작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AI를 통해 3D 배경, 텍스트, 음성 등을 생성하여 코스페이시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 **Skybox AI (Blockade Labs)**: AI를 이용해 360도 전경 이미지를 생성한 후, 코스페이시스의 배경(Environment)으로 업로드하여 초현실적인 가상 공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ChatGPT (텍스트 및 스토리)**: 월드 구성에 필요한 스토리텔링, 캐릭터 대사, 퀴즈 문항을 ChatGPT로 작성합니다. 또한, 코블록스(CoBlocks) 코딩 중 논리적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를 받는 데 유용합니다.
- **ElevenLabs / AI 보이스**: 텍스트를 고품질 AI 음성으로 변환하여 코스페이시스 속 캐릭터의 목소리나 안내 방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코딩 교육과 AI 개념의 결합
코스페이시스의 블록 코딩 시스템인 코블록스(CoBlocks)를 통해 AI의 원리를 간접

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AI 비서/챗봇 시뮬레이션**: 변수와 조건문(if-then)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가상 AI 캐릭터를 직접 설계해 봄으로써 '알고리즘'과 '의사결정 트리'를 학습합니다.
- **경로 및 감지 시스템**: 오브젝트가 특정 대상을 인식하고 추적하거나 피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의 AI 센싱 원리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3. 물리 엔진과 AI 시뮬레이션

- **물리 법칙 적용**: 코스페이시스의 물리 엔진을 활성화하고 중력, 마찰력 등을 부여하여 AI 로봇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지 실험하는 가상 실험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트윈 구축**: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코스페이시스 내 가상 모델로 시각화하여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활용합니다.
- **활용 예시 요약**

구분	활용 AI 도구	코스페이시스 적용 방법
배경 생성	Blockade Labs	360도 AI 파노라마 이미지를 배경으로 업로드
콘텐츠 기획	ChatGPT	스토리텔링, 퀴즈 생성, 코딩 오류 상담
멀티미디어	ElevenLabs, Midjourney	AI 음성 파일 및 커스텀 이미지 아이템 업로드
논리 학습	CoBlocks	조건문을 활용한 AI 에이전트 행동 로직 설계

AI 도구인 Skybox AI(Blockade Labs)에서 생성한 360도 이미지를 코스페이시스 에듀(CoSpaces Edu)의 배경으로 적용하는 방법

1단계: Skybox AI에서 360도 배경 생성하기

- 먼저 가상 공간의 바탕이 될 고품질의 360도 이미지를 생성한다.
- Skybox AI 사이트에 접속한다.
- **Prompt(프롬프트)** 입력창에 만들고 싶은 배경의 설명을 영어로 입력한다. (예: Cyberpunk city with neon lights, raining night)
- Style(스타일)을 선택한다. (Digital Painting, Sci-fi, Realistic 등 원하는 분위기 선택)
- **Generate** 버튼을 누르면 약 30초 내외로 360도 이미지가 생성된다.
- 화면의 **Download**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한다. (기본적으로 JPG 또는 PNG 형태의 **Equirectangular(장방형)** 포맷으로 저장된다.)

2단계: 코스페이시스에서 장면 설정하기

- 이미지를 불러오기 전, 코스페이시스 내에서 배경을 수용할 준비를 한다.
- 코스페이시스 에듀에 로그인한 뒤 [코스페이시스 만들기]를 클릭한다.
- **[3D 환경]** 또는 **[360도 이미지]** 장면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한다.
- **3D 환경**: 바닥 그리드가 있어 오브젝트 배치가 쉽지만, 배경 이미지가 구 형태로 둘러싸인다.
- **360도 이미지**: 완전히 몰입감 있는 배경 위주 공간을 만들 때 유리하다.
- 하단 메뉴의 **[배경]** 탭을 클릭한 뒤, **[수정]** 버튼을 누른다.

3단계: AI 생성 이미지 업로드 및 적용

- 이제 다운로드한 AI 이미지를 실제 배경으로 입히는 단계이다.
- 왼쪽 하단의 **[업로드]** 메뉴를 클릭한다.
- **[이미지]**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저장해둔 Skybox AI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파일을 찾아 업로드한다.
- 업로드된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하단 **[배경]** 메뉴의 **[사용자 정의]** 옵션을 통해 업로드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지정한다.
- **주의**: 일반 이미지로 배치하면 평면으로 뜨지만, **[배경 > 수정 > 이미지 업로드]** 경로를 통해 설정해야 전체 공간을 감싸는 360도 배경이 된다.

발전시킬 내용

- **해상도 확인**: Skybox AI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본 해상도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더 선명한 화질을 원한다면 유료 플랜의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활용할 수 있다.
- **오브젝트 일체감**: 배경이 '사이버펑크 도시'라면 코스페이시스 라이브러리에서도 현대적인 건물이나 로봇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이질감을 줄여보는 것도 필요하다.
- **멀티 장면 활용**: 1번 장면은 'AI가 만든 숲', 2번 장면은 'AI가 만든 동굴'로 설정하고 코딩을 통해 장면 이동 기능을 넣으면 멋진 VR 투어를 완성할 수 있다.

코스페이시스에서 **장면 전환(Scene Transition)** 코딩은 사용자가 특정 물체를 클릭하거나, 특정 위치에 도달했을 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스토리텔링'이나 '게임'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다.

1단계: 여러 개의 장면(Scene) 만들기

- 장면 전환을 하려면 당연히 이동할 '다음 장소'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화면 왼쪽 상단의 **장면 아이콘**(사각형 모양)을 클릭한다.
- [+ 장면 추가]를 눌러 새로운 장면을 만든다. (예: '장면 1'은 시작 지점, '장면 2'는 도착 지점)
- 각 장면의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로비', '숲', '우주' 등으로 변경한다.

2단계: 코블록스(CoBlocks) 코딩하기

-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코드 작성
- 장면 1에서 클릭할 오브젝트(예: 문, 화살표, 캐릭터 등)를 배치한다.
- 오브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코드] > [코블록스에서 사용]** 스위치를 켠다. (이걸 켜야 코딩 창에 이름이 뜬다.)
- 오른쪽 상단의 **[코드]** 버튼을 눌러 코블록스 창을 연다.
- 다음과 같이 블록을 조립합니다.

  [작성할 코드 예시]

  이벤트 탭: [아이템] 을(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온다.

  제어 탭: [장면 2]로 이동하기 블록을 위 블록 안에 넣는다.

  완성된 모양: [문] 을(를) 클릭했을 때 -> [숲] 장면으로 이동하기

3단계: 다양한 방식의 장면 전환 조건

클릭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장면을 넘길 수 있다.

① 특정 위치에 도착했을 때 (충돌 감지)

- 캐릭터가 길 끝에 닿으면 자동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방식
- **코드:**[플레이어] 가 [도착점] 에 충돌했을 때 ->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기

② 퀴즈를 맞혔을 때

- 정답을 입력하면 보상으로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방식다.
- **코드:**[질문] 에 대한 대답이 [정답] 이라면 -> [성공] 장면으로 이동하기

③ 일정 시간이 지난 후

- 인트로 영상을 보여준 뒤 자동으로 메인 화면으로 넘길 때 사용.
- **코드:**[5] 초 기다리기 -> [메인] 장면으로 이동하기

장면 전환 시 주의사항

- **코딩 활성화**: 이동 버튼으로 쓸 오브젝트의 **'코블록스에서 사용'** 옵션이 꺼져 있으면 코드 블록에서 해당 아이템을 선택할 수 없다.
- **카메라 위치**: 장면이 바뀌면 카메라는 해당 장면의 설정된 위치에서 시작한. 각 장면마다 카메라의 각도와 위치가 적절한지 미리 확인한다.
- 코스페이시스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하면 작품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진다. 화면 전환 효과(Fade)는 몰입감을 높여주고, **변수 유지**는 여러 스테이지로 구성된 게임을 만드는 핵심이다.

1. 장면 전환 효과 만들기 (페이드 인/아웃)

코스페이시스에는 공식적인 '페이드' 버튼이 따로 없으므로, **검은색 패널**을 카메라 앞에 배치하여 구현합니다.

설정 단계

- **아이템 배치**: [라이브러리] > [만들기]에서 **'평면(Panel)'** 오브젝트를 가져와 카메라 바로 앞을 완전히 가리도록 크게 키웁니다.
- **색상 설정**: 패널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코드] >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켭니다.
- **초기 상태**: 처음에는 앞이 보여야 하므로, 패널의 **투명도**를 0%로 설정해 둡니다.

코딩 단계 (장면 전환 시)

- [패널] 의 투명도를 [100]%로 [1]초 동안 변경하기 (화면이 점점 어두워짐)
- [1]초 기다리기
-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기

2. 장면 이동 시 점수(변수) 유지하기

일반적인 변수는 장면이 바뀌면 초기화됩니다. 하지만 **'전역 변수(Global Variable)'**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장면에서 점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방법: 전역 변수 설정

- **변수 생성**: [변수] 탭에서 [점수] 변수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 **전역 설정**: 변수 이름 옆의 설정(톱니바퀴)이나 드롭다운을 통해 [전역(Global/All Scenes)]으로 범위를 변경합니다. (지구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점수 사용**: *
  장면 1: 적을 물리치면 [점수] 를 [1]만큼 변경합니다.
  장면 2: 이동 후 텍스트 보드 등에 [점수] 를 문자열로 표시하도록 코딩하면 이전 장면에서 얻은 점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응용: AI를 활용한 보이스 오버 추가

장면이 전환될 때 위에서 언급했던 **AI 음성(ElevenLabs 등)**을 결합하면 완벽합니다.

- **효과**: 화면이 어두워지며 장면이 바뀔 때, AI가 생성한 나레이션("다음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이 나오도록 설정해 보세요.
- **방법**: 업로드한 소리 파일을 [장면 이동] 블록 바로 직전에 [소리]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정리된 코딩 흐름 (예시)

1. (이벤트) [포털]을 클릭했을 때
2. **[점수]** 전역 변수에 100점 추가
3. AI 나레이션 **[안내 음성]** 재생
4. **[검은 패널]** 투명도 100%로 변경 (1초간)
5. [다음 장면]으로 이동

코스페이시스 배경에 어울리는 AI 음성을 넣어 생동감을 불어넣는 과정은 크게

[음성 생성] - [파일 변환] - [코스페이시스 삽입]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가장 퀄리티가 높은 ElevenLabs(일레븐랩스)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단계: AI 음성 생성하기 (ElevenLabs 활용)

현재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와 영어 목소리를 제공하는 도구이다.

- ElevenLabs에 접속한다.
- Speech Synthesis 메뉴에서 원하는 목소리 모델(성별, 말투, 연령대 등)을 선택한다.
- **팁**: 배경이 '신비로운 숲'이라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사이버펑크 도시'라면 기계적인 AI 비서 목소리를 고른다.
- 텍스트 창에 캐릭터의 대사나 안내 문구를 입력한다.
- Generate 버튼을 눌러 들어본 후, 만족스럽다면 Download 버튼(화살표 아이콘)을 눌러 저장한다. (기본 파일 형식 : MP3)

2단계: 코스페이시스에 음성 업로드하기

코스페이시스는 MP3 파일을 지원하므로 별도의 변환 없이 바로 업로드 가능하다.
코스페이시스 하단 메뉴에서 [업로드]를 클릭한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소리]를 선택한다.
다운로드한 AI 음성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한다.

3단계: 상황에 맞게 코딩으로 배치하기

단순히 소리를 재생하는 것을 넘어, 상황에 맞춰 들리게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① 장면이 시작될 때 배경음/안내 방송으로 나오게 하기

- 장면에 입장하자마자 분위기를 잡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 **코블록스:**[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 [업로드한 소리] 재생하기
- *주의:* 배경 음악처럼 계속 나오게 하려면 [루프(무한 반복)] 블록 안에 넣으세요.

② 특정 아이템 근처에 갔을 때 소리나게 하기 (공간 오디오)

- 캐릭터 근처로 다가가면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여 현실감을 높입니다.
- **설정**: 아이템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코드] > **[코블록스에서 사용]** 활성화.
- **코블록스:**[플레이어] 가 [캐릭터] 에 가까워질 때 → [캐릭터] 가 [AI 음성] 말하기 (또는 재생하기)

③ 클릭했을 때 대사 나오기

- **코블록스**:[캐릭터] 를 클릭했을 때 → [AI 음성] 소리 재생하고 기다리기

AI 음성 활용 방법

- **배경 소음(Ambient) 결합**: AI 목소리만 나오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에서 '바람 소리', '도시 소음' 같은 효과음을 함께 깔아주면 훨씬 몰입감이 높아집니다.
- **말하는 입 모양**: 코스페이시스 캐릭터에게 소리를 재생할 때, [캐릭터] 가 "안녕!" 이라고 말하기 블록을 함께 사용하면 말풍선과 음성이 동시에 나와 교육 효과가 좋습니다.
- **다국어 교육**: 같은 대사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AI 음성으로 각각 만들어 배치하면 외국어 학습 월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화 프로젝트 예시 : 「하늘이 내려온 자리」 – 한국 건국·창조 신화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한국 신화의 원형 서사인 환웅의 강림과 단군 건국 신화를 현대적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와 인공지능(AI)을 통해 재해석한 체험형 문화 콘텐츠이다. 기존의 단군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땅 위에 질서를 세우고 나라를 연다"는 결과 중심적 구조를 가지며, 서사적 과정의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로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전통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법을 도입하였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서 출발한다.

"하늘이 내려와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중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사용자는 환웅을 따르는 천상의 존재, 혹은 새로운 인간 세상의 질서를 준비하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하늘, 땅, 인간 사이의 조화를 시험하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택은 단순한 서사 분기(Branching Narrative)가 아니라, '창조의 자격'을 증명하는 누적 과정으로 설계된다. 이는 사용자가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창출하는

인터랙티브 내러티브(Interactive Narrative) 경험을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의 기술적 핵심은 메타버스 플랫폼 '코스페이시스 에듀(CoSpaces Edu)'와 생성형 AI의 융합에 있다. 코스페이시스는 블록 코딩(코블록스)을 통해 상태(state) 변수, 전역 변수(Global Variable), 장면 전환, 확률 기반 이벤트 등을 구현하여 AI와 유사한 논리적 판단 구조를 시뮬레이션한다. 동시에, 생성형 AI는 신화적 문체의 내레이션, 신의 음성, 계시 문장, 결말 서사 등을 생성하는 창작 도구로 활용되어 콘텐츠의 깊이와 몰입감을 더한다. 이를 통해 본 프로젝트는 전통문화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탐색하고, 역사·문화·기술 융합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6주차 단계 – 한국 창조·건국 신화의 구조적 재해석

6주차에서는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는 단군 신화를 분석하고, 이를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인터랙티브 서사 구조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의 재현을 넘어, 사용자의 선택이 서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적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다.

가. 신화 선택과 해석 방향

본 프로젝트는 단군 신화의 다음과 같은 핵심 서사 요소에 주목하여 해석의 방향을 설정했다.

- **하늘(천상)과 땅(지상)의 분리된 세계**: 두 세계의 이질성과 연결 가능성을 공간적으로 구현.
- **환웅의 강림이라는 '창조적 사건'** :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 이벤트.
- **인간 세계를 다스릴 자격에 대한 시험**: 곰과 호랑이의 시련을 '자격 검증'의 과정으로 확장.
- **곰과 호랑이의 대비(인내와 욕망)**: '규율'과 '충동'이라는 상징적 가치로 치환하여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
- **새로운 질서(고조선)의 탄생**: 플레이어의 선택이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

전통 설화에서는 곰(웅녀)만이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여 인간이 되지만, 본 프로젝트는 이 구조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 세상의 주체가 될 자격을 갖추는가?"** 라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단군 건국을 '결정된 결과'가 아닌, 수많은 선택과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체험

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 웹툰 등에서 웅녀의 서사에 주목하는 현대적 재해석 경향과도 맥을 같이하며, 사용자에게 신화에 대한 다각적 사고를 유도한다.

나. 장면(Scene) 분해

신화의 서사 구조는 사용자의 경험 흐름에 따라 총 5개의 핵심 메타버스 장면(Scene)으로 분해되었다. 각 장면은 코스페이시스의 독립된 공간으로 제작되며, 장면 전환 기능을 통해 연결된다.

1) **장면 1 - 천상(天上)의 세계**: 환웅이 강림하기 전, 질서와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추상적 공간. 플레이어는 이곳에서 '왜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받으며 프로젝트의 서사를 시작한다.
2) **장면 2 - 태백산 신단수(神壇樹)**: 하늘과 땅이 만나는 중간 세계이자 신성 공간. 환웅이 강림한 후, 인간 세상을 어떤 원칙(힘 또는 조화)으로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이 주어진다.
3) **장면 3 - 시험의 동굴**: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확장한 시련의 공간. 어둡고 폐쇄된 동굴 안에서 플레이어는 인내와 욕망, 규칙과 충동 사이에서 반복적인 선택을 경험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4) **장면 4 - 인간 세상의 문**: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새로운 질서를 열 수 있는 거대한 문 앞에 서게 되는 공간. 이곳에서 하늘은 플레이어가 누적한 '창조의 자격'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5) **장면 5 - 건국과 창조의 결말**: 플레이어의 선택과 누적된 변수 값에 따라 '조화로운 건국' 또는 '불완전한 창조'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결말 공간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여정의 결과를 확인한다.

다. 2-3. state 구조 설계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장면을 고유한 상태(state) 값으로 정의했다. 이 'state' 변수는 코스페이시스 내에서 모든 상호작용과 이벤트 발생의 핵심 조건으로 작동하는 제어 변수이다.

State 값	장면 명칭	주요 기능
0	천상	프로젝트 시작, 초기 변수 설정
1	태백산 신단수	핵심 가치관 선택, '조화' 변수 초기 영향
2	시험의 동굴	반복적 선택을 통한 '규율' 및 '욕망' 변수 누적
3	인간 세상의 문	최종 '조화' 변수 계산 및 엔딩 분기 판정
99	건국의 결말	결과에 따른 최종 공간 및 서사 출력

라. 2-4. 핵심 변수 설계

사용자의 선택을 정량적으로 추적하고 최종 결말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변수를 설계했다. 코스페이시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변수는 장면이 전환되어도 값이 유지되도록 **전역 변수(Global Variable)**로 설정하였다.

- state (정수형): 현재 플레이어가 위치한 장면을 나타내는 상태 변수. (예: 0, 1, 2, 3, 99)
- harmony (정수형, 0~100): 조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최종 판정 변수. 높을수록 긍정적 결말에 가까워진다.
- discipline (정수형, 0~100): 규율과 인내를 지키는 선택을 할 때마다 증가하는 변수.
- desire (정수형, 0~100): 욕망과 충동에 따르는 선택을 할 때마다 증가하는 변수.

이 변수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harmony‘ 변수는 ‘discipline‘ 값이 높고 ‘desire‘ 값이 낮을수록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사용자의 도덕적, 이성적 판단을 최종 결과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코스페이시스의 ’코블록스’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선언하고, 특정 이벤트에 따라 값을 변경하는 로직을 구현한다.

3. 7주차 단계 - AI로 신화적 콘텐츠 생성

7주차에는 프로젝트의 서사적 깊이와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핵심 텍스트 콘텐츠를 제작했다. AI는 단순한 정보 생성 도구가 아닌, 신화적 분위기와 장엄한 어조를 구현하는 창작 파트너로서 기능했다.

가. AI 활용 목표

AI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

- **하늘의 계시 (내레이션)**: 각 장면의 시작과 끝에서 세계관과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 내레이션 스크립트.
- **환웅의 독백**: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환웅이 내면의 고뇌나 결심을 드러내는 텍스트.
- **시험을 알리는 신의 음성**: ’시험의 동굴’ 등 특정 구간에서 플레이어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짧고 강렬한 문장.
- **건국의 의미를 설명하는 결말 서사**: 최종 엔딩 장면에서 플레이어의 여정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서사.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확히 하여 원하는 결과물의 톤앤매너를 유지했다. 이는 EBS 다큐멘터리 <위대한 인도>에서 AI를 활용해 역사적 인물과 신을 복원한 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방식이다.

프롬프트 조건 예시:
- 역할: 고대 한국 신화의 서술자
- 스타일: 한국 고대 신화 문체, 삼국유사와 유사한 간결하고 상징적인 표현
- 어조: 장엄하지만 감정을 절제한 어조
- 형식: 짧고 운율감이 느껴지는 문장
- 금지 사항: 현대적 단어, 설명적인 문장 배제

생성된 텍스트는 Text-to-Speech(TTS) AI 기술(예: 클로바 더빙, HeyGen 등)을 통해 신비로운 음성으로 변환되어 코스페이시스 프로젝트에 오디오 파일로 삽입되었다.

나. AI 생성 콘텐츠 예시 (편집 후)

AI가 생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서사 흐름에 맞게 편집 및 수정한 최종 콘텐츠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장면 1 (천상) - 하늘의 음성**: "땅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나, *내려가는 자가 그 준비가 될 것이다.*"
- **장면 2 (신단수) - 환웅의 독백**: "힘이 아닌 질서로, *공포가 아닌 조화로 다스리려 한다.*"
- **장면 4 (인간 세상의 문) - 마지막 계시**: "세우는 것은 하루지만, *지키는 것은 세월이다.*"

다. 결말 문장 (2종)

플레이어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에 따라 제시되는 두 가지 결말의 핵심 서사 문장 또한 AI를 통해 생성되었다.

- **엔딩 A - 조화로운 건국 (harmony ≥ 60)**: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의 질서를 이루었다.*"
- **엔딩 B - 불완전한 창조 (harmony < 60)**:
  "나라는 세워졌으나, *조화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4. 8주차 단계 - 코스페이시스 구현

8주차에는 6주차에 설계한 구조와 7주차에 생성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코스페이시스 플랫폼에서 실제 메타버스 공간과 상호작용을 구현했다. 이 단계는 아이디어를 시각적, 기능적으로 구체화하는 핵심 과정이다.

가. 공간 구성

각 장면의 특징을 살려 코스페이시스의 라이브러리 오브젝트, 3D 모델 업로드, 배경 설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간을 구성했다. 코스페이시스는 기본적으로 16가지의 다양한 배경 환경을 제공하며, 외부 3D 모델(Poly Pizza, Tinkercad 등에서 제작)을 업로드할 수 있어 창의적인 공간 조형이 가능하다.

- **장면 1 (천상)**: '우주' 또는 '밤하늘' 배경을 사용하고, 구름과 빛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비현실적이고 신성한 분위기를 연출. 배경음악으로는 고요하고 명상적인 음악을 사용.
- **장면 2 (태백산 신단수)**: '숲' 배경에 라이브러리의 거대한 나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주변에 제단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신성한 공간임을 강조.
- **장면 3 (동굴)**: '건물 만들기' 기능으로 어둡고 좁은 동굴 내부를 제작.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 갇혀 있는 느낌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 조명을 최소화하여 긴장감을 조성.
- **장면 4 (인간 세상의 문)**: 거대한 문 오브젝트를 중앙에 배치하고,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는 효과를 주어 기대감과 신비감을 극대화.
- **장면 5 (건국 공간)**: 엔딩에 따라 공간이 극명하게 대비되도록 설계. '조화로운 건국'은 밝은 평야와 풍요로운 자연환경으로, '불완전한 창조'는 안개가 자욱하고 채도가 낮은 흐릿한 도시의 모습으로 구현.

나. 기본 상호작용 구조

사용자 경험의 핵심인 상호작용은 코스페이시스의 블록 코딩 기능인 '코블록스(CoBlocks)'를 사용하여 구현했다. 모든 코드는 **이벤트 → 조건 → 행동**의 직관적인 구조로 설계하여 복잡성을 낮추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했다.

- **오브젝트 클릭 → 내레이션 출력**: 사용자가 특정 오브젝트(예: 신단수, 제단)를 클릭하면(이벤트), 해당 장면에 맞는 AI 생성 내레이션 오디오가 재생(행동)된다.
- **선택 버튼 → 변수 값 변경**: 화면에 제시된 선택지 버튼(예: '기다린다', '뛰쳐나간다')을 클릭하면(이벤트), 'discipline' 또는 'desire' 변수 값이 증가(행동)한다.

- **일정 조건 만족 → ‘harmony‘ 변수 재계산**: 특정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이벤트), ‘discipline‘과 ‘desire‘의 현재 값을 바탕으로 ‘harmony‘ 변수를 재계산(행동)한다.
- **‘state‘ 변경 → 장면 전환**: 특정 미션을 완료하면(이벤트), ‘state‘ 변수 값을 변경하고(행동1) 해당 ‘state‘ 값에 연결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행동2)시킨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사용자의 모든 행동이 서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게임적 몰입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5. 9주차 단계 - AI처럼 보이는 고도화

9주차에는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도록 로직을 고도화했다. 이는 코스페이시스의 코블록스 기능만으로 AI와 같은 동적인 경험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다.

가. 누적 변수 기반 판단

사용자의 선택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서사에 반영하기 위해, 변수 값을 동적으로 계산하는 로직을 추가했다. 이는 사용자의 성향을 시스템이 ’판단’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 **선택에 따른 가중치 부여**: ’규칙을 지키는 선택’ 시 ‘discipline‘ 변수에 +10, ’조급하고 충동적인 선택’ 시 ‘desire‘ 변수에 +10을 부여한다.
- **‘harmony‘ 변수 동적 재계산**: ’시험의 동굴’에서 특정 구간(예: 3개의 방)을 통과할 때마다, ‘harmony = harmony + (discipline - desire)‘와 같은 공식으로 ‘harmony‘ 값을 재계산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이 ’조화’의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러한 누적 및 재계산 구조는 사용자가 일관된 성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며, 서사의 개연성을 강화한다.

나. 확률 기반 사건

정해진 시나리오만으로는 사용자가 쉽게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기 위해, 코스페이시스의 ’rando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확률 기반의 무작위 사건을 구현했다. 특히 ’시험의 동굴’(state 2)에서 이 기능이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시험의 동굴' 무작위 이벤트 로직 (코블록스 의사코드):

```
WHEN 동굴의 새 방에 진입하면:
변수 'randomNumber'를 1에서 10 사이의 무작위 정수로 설정
IF 'randomNumber' ≤ 5 (50% 확률):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
ELSE IF 'randomNumber' ≤ 8 (30% 확률):
하늘의 경고 음성("인내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리라") 재생
ELSE (20% 확률):
유혹의 메시지("밖에는 풍요로운 세상이 기다린다") 텍스트로 표시
```

이러한 확률적 요소는 플레이할 때마다 다른 경험을 제공하여 반복 플레이 가치를 높이고, 마치 시스템이 플레이어의 상황을 지켜보며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다. 엔딩 분기 조건

프로젝트의 최종 결말은 '인간 세상의 문'(state 3)에서 'harmony' 변수의 최종 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분기 조건은 사용자의 모든 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 **조건**: 'harmony' 변수 값이 60 이상일 경우 ('harmony' ≥ 60)
- **결과**: 엔딩 A ('조화로운 건국') 장면으로 전환. 밝고 희망적인 공간에서 긍정적 결말 서사를 제시한다.
- **조건**: 'harmony' 변수 값이 60 미만일 경우 ('harmony' < 60)
- **결과**: 엔딩 B ('불완전한 창조') 장면으로 전환. 어둡고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성찰을 유도하는 결말 서사를 제시한다.

엔딩 분기는 단순히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 공간의 밝기, 배경음악, 색감, 등장하는 오브젝트 등 모든 시청각적 요소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감각적으로 체험하도록 설계되었다.

6. 최종 완성본의 교육적·문화적 의미

본 프로젝트 「하늘이 내려온 자리」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전통문화 콘텐츠의 현대적 계승과 융합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종 완성본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

1) **체험형 서사로의 신화 재해석**: 고정된 텍스트로 존재하던 건국 신화를 사용자의 선택이 결과를 바꾸는 인터랙티브 서사로 재창조함으로써, 신화에 대한 학습자의 몰입과 주체적 해석을 유도한다. 이는 수동적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신화적 사고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내면화하는 능동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2) **AI의 창의적 활용 모델 제시**: AI를 정보 검색이나 자동화 도구가 아닌, 신화적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표현 도구'이자 '창작 파트너'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
3) **추상적 프로그래밍 개념의 시각화**: 코스페이시스를 통해 변수, 조건문, 반복, 확률 등 추상적인 코딩 개념을 '선택', '누적', '판단'이라는 구체적인 서사 구조로 시각화했다. 이는 비전공자나 코딩 초심자들이 프로그래밍의 논리적 사고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4) **역사・문화・기술 융합형 콘텐츠 제작 경험**: 본 프로젝트는 기획(신화 분석)부터 개발(코스페이시스, AI),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역사, 문화 콘텐츠, 첨단 기술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메타버스와 AI라는 새로운 기술 언어를 통해 우리의 고유한 신화가 어떻게 현대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프로젝트 사례이다. 이는 전통문화가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확장될 수 있는 살아있는 콘텐츠임을 증명하며, 향후 유사한 디지털 문화유산 프로젝트의 기획 및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수자3. 윤희정 수업 기획과 연관 성과-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설계 연구(교수자 1・2 연계)

① 공감(Empathize): 신화적 인간 이해 × 학습자 경험 분석 설계

디자인씽킹의 출발점인 '공감' 단계에서는 교수자 1의 신화 강의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 질문, 선택, 갈등 구조를 이해하도록 설계한다. 신화 속 인물과 상황을 현대 학습자의 삶과 연결함으로써, 학습자가 감정적・인지적으로 주제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교수자 2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학습자 반응과 경험을 관찰・기록하고, AI 도구를 활용해 학습자의 참여 양상, 흥미 요소, 이해 수준을

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씽킹의 공감 단계가 단순한 감정 이입을 넘어, 학습자 경험 데이터를 토대로 한 교육 설계의 출발점이 되도록 연구한다.

② 문제 정의(Define): 신화 해석의 질문화 × 기술 구현 과제 전환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교수자 1의 비교신화·서사 분석 수업을 통해 도출된 핵심 질문을 교육적 문제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왜 영웅은 시련을 겪는가', '권력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와 같은 신화적 질문을 학습 과제로 재구성한다. 교수자 2는 이러한 질문을 디지털 콘텐츠 구현 과제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명확한 프로젝트 목표로 구체화한다. 이 단계의 연구 초점은 인문학적 질문이 추상적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기반 수행 과제로 전환되는 설계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③ 아이디어 도출·프로토타입(Ideate & Prototype): 인문 상상력 × AI·메타버스 구현

아이디어 도출과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교수자 1의 신화적 상상력 교육과 교수자 2의 AI·메타버스 구현 수업이 본격적으로 결합된다. 학생들은 신화 서사를 재해석해 새로운 이야기 구조나 메시지를 구상하고, 이를 AI 생성 도구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시각적·공간적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한다. 본 연구 설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 전환, 협업 방식, 도구 활용 전략을 분석하여, 디자인씽킹이 창의적 사고와 기술 활용을 동시에 촉진하는 교육 모델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한다.

④ 테스트·성찰(Test & Reflect): 결과물 평가 × 인간 중심 가치 재확인

마지막 테스트 및 성찰 단계에서는 완성된 콘텐츠의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신화적 의미와 인간 중심 가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평가한다. 교수자 2는 구현 결과물의 기능성과 사용자 경험을 점검하고, 교수자 1은 신화 해석의 깊이와 메시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학생들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성찰하며, AI와 기술이 인간 사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게 된다. 본 설계 연구는 이러한 성찰 과정이 디자인씽킹 교육의 핵심 성과로 작동함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나. 기대 효과 및 한계

① 기대 효과: 인문학·AI 융합 수업을 위한 실천적 교수법 모델 구축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신화와 인문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AI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융합 수업의 실천적 교수법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교수자 간 협업을 통해 이론 중심 강의, 기술 실습, 디자인씽킹 기반 프로젝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단편적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과 차별화되는 성과이다. 특히 학생들은 신화를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재해석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구현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 모델은 향후 교양 및 전공 수업으로 확장 가능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② 기대 효과: 학생 주도적 학습과 협업 역량 강화

디자인씽킹 기반 수업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사고하는 경험을 하였다.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구현, 성찰의 단계가 명확히 제시되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팀 단위 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AI·메타버스 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며 협력하는 학습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는 단순한 결과물 중심 수업을 넘어, 학습 과정 자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효과로 이어졌다.

③ 한계: 기술 격차와 수업 부담에 대한 지속적 보완 필요

반면, AI·메타버스 기반 수업의 특성상 학생 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차이가 학습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도 확인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도구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젝트 초반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고, 프로젝트 중심 수업으로 인한 시간·노력 부담이 발생하였다. 또한 교수자 입장에서도 수업 준비와 피드백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도구 학습을 위한 단계적 지원, 학습 자료의 표준화, 교수자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교수법 개선 과제로 남는다.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가. 수업・교과목・연구 적용 방안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가장 핵심적인 적용 방안은 2026년 7월호 학술지에 「AI와 신화를 활용한 융합교과목 개발 및 운영 사례 연구」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수업 운영 성과를 교육학적 연구 결과로 체계화하는 데 있다. 지난 학기 수업에서 축적된 강의 설계, 디자인씽킹 기반 프로젝트 운영 과정, 학생 피드백과 결과물은 단순한 수업 사례를 넘어, 인문학과 AI 융합 교육의 실증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교수자 1의 신화・인문학 중심 수업 설계와 교수자 2의 AI・기술 구현 중심 수업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연동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수업 설계・학습자 경험・성과 분석의 측면에서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첫째, AI・메타버스 기반 융합교과목의 설계 원리와 단계적 운영 구조를 제시하고, 둘째, 디자인씽킹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업이 학습자의 창의성・문제 해결력・협업 역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6-1학기 수업 운영 과정에서 설문 조사, 학습자 성찰 보고서, 프로젝트 결과물 분석 등 다양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정량・정성 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수업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이자, 교수학습 연구로서의 학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본 연구 성과는 해당 교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교양 및 융합 전공 교과목에 적용 가능한 교수법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 논문에 정리된 수업 설계 원리와 운영 전략은 교수 연수, 교수법 워크숍,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AI・인문학 융합 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타 교과의 참고 모델로 기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단기적 수업 개선을 넘어, 대학 차원의 교육 혁신과 교수법 연구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후속 활동 계획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후속 활동으로는 수업을 통해 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문화 콘텐츠 결과물을 선별하여 대외 공모전에 출품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2026-1학기 수업 운영 과정에서 완성도와 교육적 의미가 우수한 학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수자 공동 피드백과 보완 과정을 거쳐 공모전 제출용 결과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성과를 실제 사회적 평가의 장에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수업 결과물의 외부 검증을 통해 교육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다. 또한 공모전 출품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획서 작성, 발표 자료 구성, 저작권 및 AI 활용 윤리 검토 등을 수업과 연계함으로써, 학습 경험을 실무 역량으로 확장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후속 활동은 수업 성과의 확산과 함께 대학의 교육 혁신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기타사항

가. 건의사항 및 제언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교육혁신원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며,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다. 본 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해 준 교육혁신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이러한 교수법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 실습교과목 개선 및 생성형 AI 활용 방안 모색

AI융합교육

김유경 첨단공학부

유평준 교육공학과

김덕중 교육공학과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192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192

나. 팀 구성 및 특징 ····· 193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 193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 193

나. 주요 활동 내용 ····· 194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195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1: AI융합교육전공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195

나. 주요 성과 및 결과물2: 실습 교과목 개선 방안 ····· 209

다. 주요 성과 및 결과물3: 실습교과목에서 AI 활용 방안 ····· 211

라. 주요 성과 및 결과물4: 파이썬 응용 실습교과에서 생성형AI 활용방안 · 213

마. 기대 효과 및 한계 ····· 215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 217

가. 수업· 교과목· 연구 적용 방안 ····· 217

나. 후속 활동 계획 ····· 218

5. 기타사항 ····· 219

가. 건의사항 및 제언 ····· 219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서울시교육청과의 AI융합교육전공 협약 종료 이후(2026학년도 2학기)를 대비하여,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방안을 재구성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 종료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전공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습교과목 중심의 개선 방안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신입생 모집 대상의 변화, 모집 방법 및 시기의 다변화(매 학기 모집 체계), 학습자 구성의 이질성 확대 등 다양한 외부·내부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육과정 및 실습교과목 운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커뮤니티는 전공 차원의 교육과정 구조와 교과목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GPT-5를 비롯한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은 전공 교육의 방향성과 교과목 로드맵, 수업 운영 방식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수자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적·윤리적 쟁점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커뮤니티는 생성형 AI가 AI융합교육전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공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과목 대부분이 실습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본 활동의 중요한 배경이다. 실습 중심 교과목에서는 생성형 AI의 활용 방식이 학습 효과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도구 활용을 넘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교수법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커뮤니티는 실습교과목에서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활용 수업 운영 전략을 연구하고, 교수자의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은 교수자의 수업 설계와 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수법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AI융합교육전공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성형 AI를 수업 운영 전략과 실습 모델로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과과정 운영과

수업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나. 팀 구성 및 특징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다음의 3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구성원의 전문성과 커뮤니티에서의 역할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수법 커뮤니티 구성원(참여 교원)의 전문성과 역할

이름	전문 분야	역할
김유경	컴퓨터공학	생성형 AI 테크놀로지 트렌드 및 이슈를 반영하여, 본인이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습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재구성 [실습교과목의 개선 방안(교수법 등) 반영]
유평준	교육공학	생성형 AI 테크놀로지 트렌드 및 이슈, 교과목 운영 현황 및 대학원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 교육과정 및 교과목 재구성
김덕중	교육컨설팅	생성형 AI 테크놀로지 트렌드 및 이슈를 반영하여, 본인이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습 수업의 강의계획서 재구성 [실습교과목의 개선 방안(교수법 등) 반영]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회의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하였다. 전체 활동 기간 동안 총 4회의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초기 방향 설정부터 주요 이슈 도출, 결과물 공유에 이르기까지 회차별 목적에 따라 모임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였다. 먼저 1차 모임은 kick-off 미팅으로 진행하여 교수법 커뮤니티의 운영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 전체 활동 일정 및 역할 분담 등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2차와 3차 모임은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와 오프라인 미팅 형식으로 진행하여,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육과정 및 실습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물 도출 및 공유를 위한 회의를 Zoom 기반으로 진행하여,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공유하고 최종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교수진의 일정과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 (1차) kick-off 미팅: 교수법 커뮤니티 운영 방안 도출
- (2차) zoom 회의: 교육과정 및 실습 교과목 이슈 도출
- (3차) 오프라인 미팅: 대학원생 대상 요구사항 조사 및 교수진 요구사항 수집
- (4차) zoom 회의: 결과물 도출 및 공유 회의

나. 주요 활동 내용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생성형 AI 테크놀로지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육과정 및 실습교과목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교과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과 이슈를 공유하고, 대학원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회의 중심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각 구성원의 전문성과 역할에 따라 개별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도모하였다. 구성원들은 회의에서 도출된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자료 조사, 사례 정리, 수업 설계안 작성 등 개별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후속 회의를 통해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협업 과정을 통해 교수법 커뮤니티는 전공 교육과정 및 실습교과목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내역

모임차수	모임일정	차수별 학습활동 계획
1차	10/17 (금)	○ [온라인회의] 가. 참여자: 대표교수 및 참여교수(3인) 나. 팀 액션 플랜 수립 다. 팀 구성원 역할 정립

2차	11/13 (목)	○ [온라인회의] 가. 참여자: 대표교수 및 참여교수(3인) 나. 교육과정/교과목 이슈 공유(교강사진 의견 수렴) 다. 담당 실습교과목 이슈 공유(교강사진 의견 수렴)
3차	12/8 (월) 12/10 (수)	○ [오프라인미팅] 가. 참여자: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각 기수별 대학원생 [3기(15명), 4기(9명) 약 24명 내외] 나. 대학원생 대상 요구 조사 (교육과정 및 실습교과목 운영 방안)
4차	1/7 (수)	○ [온라인zoom회의] 가. 참여자: 대표교수 및 참여교수(3인) 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관련 이슈 분석 (2026년 2학기 개선방향 도출) 다. 실습 수업 이슈 분석 (2026년 2학기 실습 수업 개선 방향 도출) 라. 결과물 도출 및 공유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1 : AI융합교육전공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이 직면한 정책적·교육적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 및 실습교과목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이 직면한 이슈

□ 정부의 현직교원 AI융합교육장학금 지원 사업 연장(대학원 진학 시)

- 교육부는 2025년 2학기 입학생(9월 입학자, 숙명여자대학교 AI융합교육전공 재학생 기준 3기)을 마지막으로 현직 교원이 전국 대학의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에 진학할 시 제공하던 장학금 지원 사업(최대 200만원)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말 정부의 AI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장학금 지속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계약학과 운영도 자동 연장되었다.

-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은 서울시교육청과의 MOU를 체결하고 계약학과 형식으로 현직 교원의 AI융합교육관련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직 교원 선발 및 배정, 숙명여자대학교는 AI융합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은 2022년 2학기(9월) 신설되어, 1기 대학원생 총 7인이 입학했고, 이 중 5인이 교육학석사학위를 수여받고 2023년 2월 졸업하였다. (학위과제 졸업 4인, 학위논문 졸업 1인).

□ 서울시 교육청 계약학과 연장 운영(2026년 ~)

-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은 2026년 2학기 기준으로 현직교원의 대학원 진학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라 현직 교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을 모집·선발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AI관련 대학원 지원 연장 계획으로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한 계약학과를 연장 운영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현직 교원 재교육을 중심으로 한 기존 운영 체계를 유지 및 고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지원사업 지원 종료 이후, 계약학과 미 운영(자연 소멸) 시 학기 단위 대학원생 선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체계의 점진적인 전환이 불가피하였으나, 정부지원사업의 연장으로 인한 서울시 교육청과의 계약학과 운영으로 인해 기존의 연간 단위 대학원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계약학과 연장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

- 계약학과 및 현직 교원 대학원 지원 사업 연장 전, 현직교원 외 일반인까지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편을 염두하고 학기 단위의 교과목 편성 계획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계약학과 연장에 따라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보완 등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 계열화된 교육과정, 교과목 운영의 장점과 한계성 공존 및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우리 대학은 현직교원의 요구와 AI융합교육 관련 전문성 함양을 위해 AI 프로그래밍 역량 실습 및 교과교육 연계 AI융합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단위로 학기별로 순차적으로 실습 내용을 강화하는 계열화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 이의 장점은 대학원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기별 목표 및 핵심역량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과 최종적으로 대학원 졸업 시 최종 목표인 AI융합교육 통합 역량을 함양하는 명확한 구조와 계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구조는 학기별 목표와 핵심 역량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선행 역량 미흡 시 후속 교과목 학습에 연쇄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에서 관련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마스터하여 학기별, 교과목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대학원 학위논문/학위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육과정, 교과목, 실습교과목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2022년 2학기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 신설 이후, AI프로그래밍 역량, 교과 연계 AI융합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대학원생들은 AI프로그래밍 등 실질적인 AI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교과목 운영 및 담당 교수진의 충실한 피드백과 현직교원의 맞춤형 교과 운영에 높은 만족도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을 위한 이슈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교과목 학습 내용 및 실습 과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도 이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 이는 교과목 편성 및 운영에서 나아가 관련 역량을 보유한 교 강사진 초빙, 기존 교강사진의 지속적인 AI역량 강화, 교과 내 학습내용 및 실습 과제 질 관리, 학습자 수준 차이에 대응한 교수 전략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 계열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한계 극복 운영 방안 도출 필요

- 앞서 기술한 계열화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의 장점을 살리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계열화 구조화된 교육과정의 경우는 다음 단계 교과목 운영시 이전 단계 교과목에서 목표로 하는 스킬 셋(skill set)의 마스터 및 핵심 역량 구축이 필수적이다. 순차적 실습 내용을 강화하면서 최종 학위과제(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각 단계별 스킬 셋 및 핵심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 및 코칭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학습부진자 대처 방안, 관련 핵심 역량 미 개발 시 보충 학습을 위한 학습 자원 및 코칭, 스캐폴딩 체계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 마스터한 학습자에게는 심화 학습을 위한 방안, 학습자원 지원 체계, 심화 스캐폴딩 및 코칭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실습 교과목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 이슈 도출 및 대안 마련 필요

현황 분석 결과, 실습 교과목 운영 단계에서 몇가지 핵심 이슈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때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대학원생 간 AI 역량 수준의 편차 : 교과교육 전공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자 특성상 프로그래밍 경험의 차이가 크며, 이는 실습 진도 조절과 수업 몰입도 유지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 맞춤형 학습을 위한 전략과 보충, 심화 학습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
- 계열화된 교육과정 구조의 한계 : 이전 단계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핵심 스킬 셋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할 경우, 이후 교과목과 최종 학위과제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공무로 인한 결석 등 수업 미 참여 사유 발생 시, 수업 진도 조절 및 수준 차이로 인한 수업 분위기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실습 과제 및 학습 내용의 지속적 질 관리 필요성 : AI 통계,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심화 영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신 AI 트렌드를 반영한 실습 과제 업데이트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 교육 방법 측면의 요구 다양성 : 대학원생들은 통계 및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경우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반면, 과도한 대면 수업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 유연한 수업 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교강사 의견으로는 교육과정이 실질적인 아웃풋을 내는 실습과정으로 구성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실습 과정의 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내용 측면에서 통계 분석/데이터사이언스/교과융합수업(기계학습, 인공신경망, 시각화, 비지도학습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교과목 및 교육과정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실습교과목 운영 개선 방안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교수법 커뮤니티는 ADDIE 모형에 근거하여 실습교과목 운영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교수자 요구, 대학원생 요구, 교육과정 구조, 실습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습 산출물 및 포트폴리오 공유 공간 구축, 유료 AI 도구 및 API 확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생성형 AI 발전에 따른 프로그래밍 교과목의 운영 방향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Gagné의 수업사태 이론, Keller의 ARCS 동기설계 전략, 인지부하이론을 기반으로 실습교과목 맞춤형 교수 설계 원리를 도출한다. 특히 최종 산출물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별 실습 로드맵을 제공하는 '전체-부분 연계 실습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발 및 실행 단계에서는 교과목 단위 포트폴리오 완성 체계 마련, 실습 내용의 교과교육 및 교육현장 연계 강화, 동료 학습과 코칭을 포함한 상호작용 전략을 제안한다. 또한 졸업생과 재학생의 프로젝트 산출물을 공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공유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연계한 평가 전략을 수립한다.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는 정확성, 최신성, 창의성을 중심으로 루브릭 기반 평가를 실시하고, 학습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한다.

A. 분석

A.1 교수자 요구 분석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교과목 운영 과정에서 교수자가 인식하는 주요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습 산출물 관리, AI 실습 환경 구축, 프로그래밍 교과목 운영 방향, 실습교과목 질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가 도출되었다.

□ 실습 산출물 및 포트폴리오 공유 공간 구축의 필요성

실습교과목 특성상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실습 아웃풋과 프로젝트 결과물을 생성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동일 교과목을 수강한 이전 기수 및 동기들의 실습 산출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기존 산출물의 개선·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고, 유사 사례의 반복

개발을 방지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전공 차원의 실습 산출물 및 포트폴리오 공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 AI 실습을 위한 유료 AI 도구 및 API 확보의 필요성

실습교과목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과제 수행과 실습 활동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료 AI 도구 및 API 사용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대학원생은 유료 도구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 실습 진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습 산출물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학기 시작 단계에서 유료 AI 도구 및 API 확보에 대한 명확한 지침(예: 필수 구매 항목 안내)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학교 및 AI융합교육전공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실험·실습비 등) 구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 생성형 AI 도구 발전에 따른 프로그래밍 교과목 운영 방향 재정립의 필요성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래밍 도구들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파이썬 기초 및 파이썬 응용 등 프로그래밍 언어 중심 교과목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AI융합교육전공 대학원생 다수가 어문계열 및 사회과학계열을 포함한 교과교육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래밍 경험과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프로그래밍 실습 교과목에 대한 진입 장벽과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복잡한 프로그래밍보다는 최신 AI 도구를 활용한 기초 수준의 실습과 적용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대학원생들의 요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화(advanced) 프로그래밍 교육과 AI 도구 활용 중심 교육 간의 균형 있는 교과목 운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도출되었다.

□ 실습교과목 및 실습 과제의 질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

현재 AI융합교육전공의 실습교과목은 실질적인 산출물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계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시각화, 비지도학습 등 다양한 AI 및 교과융합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습 과제의 난이도 조정, 최신 기술 반영 여부 점검, 산출물 평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 등 체계적인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합하면, 교수자 요구 분석 결과는 AI융합교육전공의 실습교과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체계의 고도화와 지원 기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이후 설계 단계에서 실습교과목 개선 방향과

교수·학습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2 대학원생 요구 분석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측면에서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주요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성형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과 내용 확장과 학습 몰입도를 고려한 수업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교육내용 측면의 요구

-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교과 내용의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학원생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저작권, 데이터 편향, 책임성 등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활용 윤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의 추가가 요구되었다.
- 또한 기존 프로그래밍 중심 교과목을 확장한 ‘ Python + α’ 형태의 교과 내용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파이썬 문법 학습을 넘어, 데이터 분석, 자동화, 생성형 AI 연계 활용 등 실습 응용 영역을 포함하는 심화 학습에 대한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머신러닝 등 보다 심화된 AI 교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으며, AI 활용 통계 분석, AI 기반 연구방법론, AI 데이터 분석 등 연구 및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심화 교과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교육방법 측면의 요구

대학원생들은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나 Zoom 기반 실시간 수업에 비해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면 수업이 학습 집중도와 상호작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주당 2회 이상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즉,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대면 수업을 선호하지만, 직무 병행 및 개인 일정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대면 수업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반된 요구가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수업 운영 방식 설계 시 대면 수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대학원생 요구 분석 결과는 AI융합교육전공 교육과정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심화·확장을, 방법적 측면에서는 대면 중심이되 유연한 수업 운영 방식을 동시에 요구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이후 설계 단계에서 교과목 구성 및 수업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3 교수자 분석

본 교수법 커뮤니티에 참여한 교수진은 소프트웨어공학, 교육공학 등 AI융합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학제적 전공 배경을 지닌 교수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수진 구성은 AI융합교육전공의 학문적 특성과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수자들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과 교수법의 개편 및 개선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AI 도구와 교수·학습 방식의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교수진은 매 학기 담당 교과목 운영 과정에서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에 걸쳐 대학원생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목 내용과 수업 운영 방식을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 수렴 활동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한 교과목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AI융합교육전공 교수진은 다학제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을 실제 교과목 운영에 적용·확산할 수 있는 실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4 실습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실습 과제 분석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실습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구조를 분석하여, 실습 수업 운영의 특성과 개선 필요 요소를 도출하였다.

AI융합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AI융합교육에 대한 기초적 이해 → 프로그래밍 언어 역량 개발 → 교과교육 연계 AI융합교육 학위과제(프로젝트) 수행으로 이어지는 구조화되고 계열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열화된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AI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장점을 지닌다. 특히 기초 개념 습득 이후 프로그래밍 실습과 교과교육 연계 프로젝트로 확장되는 흐름은 AI융합교육전공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로 평가된다.

반면, 계열화·구조화된 교육과정은 일정 부분 한계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원생이 선행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경우,

이후 교과목 학습과 실습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휴학 발생 시 교육과정 이수 흐름이 단절되면서, 계열화된 구조로 인해 교과목 선택 및 학습 경로에 경직성이 발생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원생에게는 1년 단위 휴학을 권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제기되었다.

실습 과제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교과목이 실제 산출물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AI 통계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시각화, 비지도학습 등 다양한 AI 및 교과융합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습 과제의 난이도 조정, 최신 기술 반영 여부 점검, 교과목 간 실습 내용 연계성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A.5 학습환경 분석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AI융합교육전공의 실습 수업 운영을 지원하는 학습환경을 AI 실습 환경과 AI 실습 도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AI 실습 환경 측면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교내 PC 실습실을 활용하여 실습 수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규모가 약 8명에서 1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실습 공간은 인원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PC 실습실의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환경 또한 AI 관련 실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AI 실습 도구 측면에서는 교강사진 요구 분석과 중복되는 사항이 확인되었다. 교과목 내 AI 실습 및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생성형 AI 도구 및 각종 AI 관련 유료 API의 구입과 확보가 필수적이나, 일부 대학원생은 유료 도구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실습 진행의 원활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습 산출물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기 시작 단계에서 유료 AI 도구 및 API 확보에 대한 명확한 지침(예: 필수 구매 항목 안내)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학교 및 AI융합교육전공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실험·실습비 등 재원 마련을 통해, 대학원생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실습 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AI융합교육전공의 물리적 실습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AI 실습 도구 및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향후 실습교과목 설계 및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B. 설계

B.1 실습교과목 맞춤형 교수 설계 원리 및 전략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교수자·학습자 요구와 교육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습교과목에 적합한 교수 설계 원리와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Gagné의 수업사태 9단계(Instructional 9 Events), Keller의 ARCS 동기설계 전략, 인지부하 이론(Cognitive Load Theory)을 이론적 기초로 검토·적용하였다 (<표 3> 참조).

<표 3> 실습교과목 맞춤형 교수 설계 원리 및 전략 개요

원리	세부 내용
Gagne ‘s 9 instructional events	주의획득 수업목표 제시 선수학습 활성화 자극 제시 학습안내 제시 수행 유도 피드백 제공 수행 평가 파지와 전이 촉진
Keller’ s ARCS 전략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Mayer’ s 인지 부하 감소 전략	일관성의 원리 신호주기 워리 중복회피 원리 근접성의 원리 분절의 원리 사전훈련의 원리 다중양식의 원리 텍스트/사운드/이미지/애니메이션 사용 원리 개인화의 원리 목소리 원리

B.2 실습교과목 운영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수 학습 실행 전략

□ 전체와 부분을 연계한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실습 구조 설계 : 명확한 실습 과제 최종 아웃풋 제시 및 실습 과제 완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현재 실습교과목에서는 개별 프로그래밍 실습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가 전체 학습 목표와 자신의 학습 위치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기 초에 교과목 내 최종 실습 산출물(예: 웹앱 또는 서비스 형태의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연함으로써, 학습자가 궁극적인 학습 목표를 먼저 인식하도록 설계한다.

이후 최종 산출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각 요소와 단계를 구조화하여, 대학원생이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실습이 최종 산출물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 실습 역시 최종 분석 대상 데이터셋을 먼저 제시한 후, 분석 원리와 기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전체와 부분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방향 상실을 방지하고, 학습 통제권과 자기효능감을 제고하고자 한다.

□ 교과목 단위 포트폴리오 완성 체계 마련

각 실습교과목이 개별 과제 수행에 그치지 않고, 한 교과목 내에서 대학원생의 프로젝트 산출물이 완성되어 포트폴리오로 축적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은 교과목 종료 시점에 가시적인 성취 결과물을 확보하게 되며, 이러한 성취 경험은 학습 동기와 자기효능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실습내용의 교과 연계/실생활 연계 강화

실습 과정에서 학습자는 현재 배우는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분석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며,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습 내용이 초등·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영역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실제 교육 현장 및 실생활 문제 해결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습 내용의 현장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벤치마킹을 위한 구체적인 산출물(포트폴리오) 공유 사이트 구축

경기도교육청의 EDUDOCS와 같은 교외 프로젝트 공유 사례를 참고하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을 분석하고 참고하는 과정에서 모델링 효과를 창출하고, 동료 학습 기반의 아이디어 확산을 촉진하고자 한다.

□ AX/AI 트렌드 및 이슈 분석을 위한 질 관리 체계 마련

최신 AI 트렌드와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강 및 세미나를 통해 최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전문가 및 현직 교사를 초청하여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블록 코딩과 텍스트 코딩의 연계를 포함한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여,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B.3 상호작용전략 및 실습 운영 전략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실습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자-대학원생 간 상호작용 전략과 실습 운영 전략을 함께 설계하였다.

□ 교수자-대학원생 간 상호작용 및 실습 운영 전략

수업 중 대학원생의 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 단계별 맞춤형 코칭을 제공한다.

- [모델링 전략]
  - 각 실습 단계 별 교수자의 시연(rehearsal) 및 모델링(modeling) 실행
- [피드백전략]
  - 실습 중 즉각적이고 짧은 피드백 제공
  - 실습 중 잘못된 프로그래밍, 오류가 누적되면 바로 교정적 피드백 제시
  - 즉각적, 구체적, 정확한 피드백 제공
- [실행 전략]
  -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실행 전략 설계 (표 4 참조)

〈표 4〉 수업 전, 중, 후 실습 단계 별 실행 전략

단계	세부내용	관련 자료
실습 전	실습 내용 예습을 위한 사전 학습자료 제시	• 강의록 • 동영상(마이크로 러닝, 숏폼 콘텐츠 등) • 미니 실습 과제
실습 중	실습 실행을 위한 매뉴얼 및 교수학습자료 공유	• 강의록 • 실습 매뉴얼 • 실습 체크리스트
실습 후	실습 내용 전이 및 심화학습을 위한 맞춤형 과제 제시	• 미니 실습과제(보충/심화과제) • 성찰일지 작성(실습 후기, 깨달은점, 어려운 점, 개선사항 등)

□ 대학원생-대학원생 간 상호작용 및 실습 운영 전략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실습교과목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자 중심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간 상호작용과 대학원생-학습내용 간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실습 운영 전략을 함께 설계하였다.

- 동료 코칭/멘토링을 통한 동료학습(peer learning) 구조

  실습 수업 중에는 대학원생을 2인 1팀으로 구성하여(pair team), 실습 수행 과정에서 서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학습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페어 학습 구조는 실습 중 발생하는 오류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습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원생을 팀별 리더로 지정하여, 동료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피드백에서 벗어나, 동료 간 상호 피드백과 협력적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동료 실습 산출물 공유 체계 구축

  졸업생 및 재학생의 실습 과제 결과물과 프로젝트 산출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러한 공유 공간은 대학원생이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료 학습자의 모델링 효과를 창출하고 실습 과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원생 COP 활동 활성화

  주말/야간 스터디 모임(서울대 사례)를 활용한 자발적 스터디 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실습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습 역량의 심화와 학습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대학원생-학습내용 간 상호작용 전략

- 보충/심화 학습 자료 제공 :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상황을 고려한 보충·심화 학습 자료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각 주차별 수업 내용에 대해 기본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 자료와, 심화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를 위한 확장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때 학습 자료는 텍스트 중심 자료뿐만 아니라 오디오, 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여 학습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수업 결손 메이크업 채널 제공 : 불가피한 사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원생

이나 학습 부진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업 결손 메이크업 채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실습 수업과 주요 학습 내용을 상시 녹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와 상황에 맞추어 반복 학습과 보충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전략은 실습교과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자의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4 인터페이스전략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실습교과목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인터페이스 전략을 설계하였다. 학습자의 접근성과 학습 지속성을 고려하여 비실시간・실시간・대면 수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략

- 비실시간 도구와 실시간 도구를 병행하여 활용한다. 비실시간 도구로는 LMS(스노우보드)를 중심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강의 자료, 실습 과제, 공지사항, Q&A 게시판, 참고 자료실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비실시간 환경에서도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실습 수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 실시간 온라인 도구로는 Zoom과 카카오톡을 활용한다. Zoom은 실시간 비대면 수업과 보충 설명, 실습 질의응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카카오톡은 긴급 공지 전달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 채널로 활용한다. 이러한 실시간 도구의 병행 활용은 학습자의 접근성과 응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오프라인 인터페이스 전략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하되, 하이브리드 수업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 오프라인 대면 수업과 실시간 Zoom 수업을 병행하여, 대면 수업 참여가 어려운 대학원생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수업 참여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오프라인 대면 수업은 Zoom으로 녹화하여 스노우보드에 업로드함으로써, 학습자의 복습과 수업 결손 보완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인터페이스 전략은 학습자의 학습 몰입도와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실습 수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5 평가전략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실습교과목의 학습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단평가-형성평가-총괄평가로 이어지는 다단계 평가 전략을 설계하였다. 각 평가 단계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진단평가

새로운 실습 주제나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 대학원생의 사전 지식과 선행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출발 수준을 파악하고, 수업 시작 전 실습 과제에 대한 시연(rehearsal)을 통해 학습 목표와 수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한다.

□ 형성평가

최종 학습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 중심 평가로 운영한다. 수업 중 및 학기 중 대학원생의 실습 수행 과정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실습 내용과 과제 난이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 또한 실습 과제 산출물에 대한 중간 시연(rehearsal)을 통해 학습자의 현재 수행 수준을 점검하고, 시연 이후에는 맞춤형 학습 활동과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총괄평가 : 최종 산출물에 대한 완성도 평가

교과목 종료 시점에 최종 프로젝트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프로젝트 산출물의 정확성(완성도), 최신성, 창의성을 중심으로 설정하며, 각 평가 영역에 대해 명확한 루브릭을 설계·개발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실습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학원생의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평가 전략은 실습 과정과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주요 성과 및 결과물2 : 실습 교과목 개선 방안

실습수업을 개선한다는 건 단순히 커리큘럼을 손보는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는 학생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도구로, 어떤 맥락 안에서 실습을 하느냐를 다시 설계하는 일에 가깝다. 특히 AI 활용이 일상화된 지금의 실습수업에서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요소들이 오히려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점에서 몇 가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AI 유료 툴 사용에 대한 사전 공지와 표준화된 툴 사용 원칙 수립

현재 실습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알고 있거나 접근 가능한 AI 툴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습 환경 자체가 지나치게 불균등해진다. 어떤 학생은 고성능 유료 툴을 사용하고, 어떤 학생은 무료 버전에 의존하면서 결과물의 수준 차이가 실습 역량이 아니라 '툴 접근성'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실습의 목적이 흐려지고, 평가 또한 공정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수업 시작 전, AI 유료 툴 사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공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업에서 사용할 AI 툴을 표준화해 동일한 도구, 동일한 조건에서 실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어떤 툴을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과 사고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강의자 입장에서도 학생 간 결과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피드백의 초점이 도구가 아니라 사고력과 실행력으로 이동하게 된다. AI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해외 사례: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이 대학에서는 AI 기반 실습 과목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미리 정해 놓고, 학생 전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한 뒤 리소스를 공유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코드 보조 등 특정 기능은 학교가 라이선스한 툴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도구 격차가 줄고, 강의자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입력(prompt)를 넣었는지 비교하면서 코칭이 가능해졌다.
해외 사례: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공학 실습 중심 과목에서는 AI 설계 보조 툴의 사용을 공식화했다. 수업 초반에 공통 툴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과제 제출 규격을 통일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툴 테스트' 대신 '설계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었고, 평가도 보다 구조화되었다.

□ 기수별 과제 및 실습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 또는 플랫폼 도입

현재 대부분의 실습수업에서 과제와 결과물은 제출로 끝난다. 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물은 사실상 사라지고, 다음 기수는 또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이는 학습 자산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이며, 교육 효율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기수별로 만들어진 과제와 실습 결과는 단순한 개인 산출물이 아니라, 교육 과정 전체의 집단 지식이다.

기수별 결과물을 모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후속 기수 학생들은 이전 기수의 과제를 참고하면서 기대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접근 방식과 표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잘된 사례' 뿐 아니라 '어려웠던 사례', '의도는 좋았지만 완성도가 낮았던 사례'까지 함께 공유된다면 실습의 현실성이 훨씬 높아진다. 실습이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시도와 개선의 과정이라는 인식도 강화된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과물이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다음 기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평가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든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기수 간 단절된 수업이 아니라, 축적되고 진화하는 실습수업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 해외 사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 OCW
> MIT는 오픈코스웨어(OCW) 플랫폼을 통해 강의 노트, 과제, 실습문제, 심지어 해답까지 공개한다. 실습 결과물 자체를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피드백까지 남기진 않지만, 과거의 다양한 케이스를 누구나 참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적된 실습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 접근은 학생들이 단지 하나의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해법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종합해 보면, 실습수업 개선의 핵심은 개인의 역량이나 열정에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AI 툴 사용은 명확한 기준과 공지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고, 실습 결과물은 개인 단위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자산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이런 구조가 마련될 때 실습수업은 매번 새로 시작하는 반복이 아니라, 이전 기수의 성과 위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학습 경험이 된다. 결국 실습수업의 질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어떤 구조에서 배우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 주요 성과 및 결과물3 : 실습교과목에서 AI 활용 방안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세 번째 주요 성과는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실습교과목에 적합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수업 설계・운영・평가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행 모델로 도출한 것이다. 단순히 AI 도구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습교과목의 학습 구조와 학습자 경험을 재설계하는 방향에서 AI 활용의

원칙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첫째, 실습 설계 단계에서의 AI 활용 방안이다. 생성형 AI는 실습과제의 최종 산출물과 요구 수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된다. 학기 초, 교수자는 AI를 활용해 예시 산출물, 프로젝트 구조, 요구 기능 목록을 시각화하거나 시연함으로써 학습자가 전체 실습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개별 실습 활동이 최종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식하게 되며, 실습 과정에서의 방향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AI는 '답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제 구조를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데 기여하는 설계 보조 도구로 기능한다.

둘째, 실습 수행 단계에서의 AI 활용 방안이다. 실습 중 생성형 AI는 코드 작성, 데이터 분석, 모델 설계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참고 예시를 제공하는 코칭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프로그래밍 경험이 부족한 대학원생에게는 문법 오류 수정, 코드 구조 설명, 단계별 접근 전략 제시 등을 통해 학습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AI의 출력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AI 활용 과정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전략이 드러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AI는 학습자의 대체자가 아니라, 사고를 확장시키는 학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셋째, 실습 결과 정리 및 성찰 단계에서의 AI 활용 방안이다. 실습 종료 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대한 자기 점검, 개선 방향 도출, 성찰 보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정리하거나, 동일 과제의 다른 접근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결과 제출을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실습 경험을 구조화하고 메타인지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넷째,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서의 AI 활용 방안이다. 교수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평가 루브릭 초안을 설계하거나, 학생 산출물에 대한 1차 피드백 포인트를 정리함으로써 보다 일관되고 신속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는 평가의 자동화를 의미하기보다는, 교수자의 전문적 판단을 보조하는 지원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종 평가는 교수자가 직접 수행하되, AI를 활용한 사전 분석을 통해 피드백의 질과 밀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종합하면, 본 커뮤니티에서 도출한 실습교과목의 AI 활용 방안은 생성형 AI를 ‘편의 도구’나 ‘결과 생성기’로 사용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실습 설계-수행-성찰-평가 전 과정에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교육적 활용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실습교과목의 질 관리와 학습자 역량 격차 완화, 그리고 AI 시대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식 정립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주요 성과 및 결과물4 : 파이썬 응용 실습 교과목에서 생성형 AI 활용 방안

최근 생성형 AI 기술(Generative AI)의 발달로, 학생들의 코딩 학습 효율 향상과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습교과목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교육적 장점

-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학생이 작성한 코드의 오류를 실시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 맞춤형 학습: 학생 수준에 따라 난이도 조정, 개인화된 연습문제 제공
- 실습 지원: 예제 코드, 데이터셋, 실습 과제 등 학습 자료 자동 생성
- 학습 동기 향상: 반복적인 코딩 작업에 AI를 활용하여 흥미 유발

□ 실습 교과목에서의 활용 전략

- 코드 생성 및 디버깅 - 학생이 작성한 코드의 오류를 AI가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 (예: 리스트 합계 함수 작성에서 잘못된 반복문 수정, 효율적 리스트 구조 제안)
- 맞춤형 실습 과제 - 학생 수준에 맞춘 과제 생성 (초급, 중급, 고급)이 가능. AI가 예제 코드 및 힌트 제공함으로써 단계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실습 데이터셋 생성 - AI가 CSV, 텍스트, 간단 이미지 데이터셋 자동 생성 - 학생은 데이터 처리, 분석, 시각화 실습 가능
- 프로젝트 및 학습 지원 - AI가 프로젝트 주제 아이디어 제시(학생 코드를 리뷰하고 개선 방법 안내), 학습 가이드, 단계별 튜토리얼 제공

□ 파이썬 응용 교과목의 실습수업 설계안

이를 기반으로 파이썬 응용 실습교과목에 대해 생성형 AI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수업 설계안(초안)을 개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설계안은 ChatGPT, Gemini, Claude 등 생성형 AI를 단순한 코드 자동 생성 도구가 아닌, 문제 이해·해결 전략 수립·

디버깅・리팩토링・성찰을 지원하는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하도록 구조화하였다.

특히 본 성과는 AI 활용의 교육적 효과를 실습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파이썬 응용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처리, 웹 크롤링, 자동화,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실습 활동을 중심으로, AI 활용이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학습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업 흐름을 설계하였다.

개발된 설계안은 실습 수업을 문제 분석-AI 기반 설계 지원-구현-검증 및 디버깅-리팩토링-성찰의 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 허용 가능한 AI 활용 범위와 학습자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AI 활용 과정을 기록・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결과물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AI 시대의 실습교과목에서 교수자의 역할과 학습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생성형 AI를 효과적인 학습 파트너로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설계안은 향후 파이썬 응용 교과목뿐만 아니라 유사한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실습 교과목으로 확장 적용이 가능한 기초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파이썬 응용 교과목 AI활용 실습 수업 설계안

교과목개요	◆ 교과목명: 파이썬 응용 ◆ 수업유형: 실습 중심 교과목 ◆ 대상: 파이썬 기초 문법 및 기본 자료구조 이수자 ◆ 주요 내용: 데이터 처리, 웹 크롤링, 자동화,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 활용 AI 도구: 생성형 AI(예: ChatGPT, Gemini, Claude 등)
수업설계목적	◆ 본 수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문제 해결 역량과 실습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I를 단순한 코드 생성 도구가 아닌, 문제 이해・해결 전략 수립・디버깅・리팩토링・성찰을 지원하는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실습교과목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학습목표	◆ 학습자는 본 교과목을 통해 다음의 역량을 함양한다. ◆ 실습 과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 단위로 분해할 수 있다. ◆ AI의 도움을 받아 해결 전략을 수립하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 오류 메시지를 해석하고 디버깅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 코드의 가독성과 구조를 고려하여 리팩토링을 수행할 수 있다. ◆ AI 활용 과정을 기록하고 성찰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한다.

AI 활용 원칙	◆ AI는 정답 제공 도구가 아닌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한다. ◆ AI의 출력 결과는 반드시 학습자가 검증하고 수정한다. ◆ AI 활용 과정은 기록·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과제 전체를 AI 결과물로 대체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실습수업 운영흐름 표준모델	1. 문제 제시 및 요구사항 분석 ◆ 입력·출력 조건, 제약 사항, 평가 기준 제시 2. AI 기반 설계 지원 ◆ 해결 전략,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AI 질의 ◆ AI 응답에 대한 검토 및 설계안 확정 3. 구현 단계 ◆ 핵심 기능부터 단계적 구현 ◆ 부분 코드, 함수 단위로 AI 활용 가능 4. 검증 및 디버깅 ◆ 테스트케이스 실행 및 오류 재현 ◆ AI를 활용한 오류 원인 분석 후 직접 수정 5. 리팩토링 및 문서화 ◆ 코드 구조 개선, 주석 추가, README 작성 6. 결과 제출 및 성찰 ◆ 최종 코드, AI 활용 로그, 성찰 보고서 제출
기대 효과	본 설계안을 통해 학습자는 실습 과정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오류 해결 및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AI 활용 과정을 명시적으로 기록·성찰함으로써 결과 중심 학습을 넘어 과정 중심 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 기대 효과 및 한계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을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와 생성형 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습교과목 중심의 교수·학습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공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직접적인 효과로서, 생성형 AI 활용 교수법을 실습교과목에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과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전공 차원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효과로서, AI융합교육전공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진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래포를 형성할 수 있다.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매개로 교수진 간 경험과 전문성이 공유됨으로써, 개별 교과목 단위의 개선을 넘어 전공 차원의 교육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AI융합교육전공은 소프트웨어공학, 교육공학,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전공 특성을 지닌다. 본 활동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교수진이 협력하여 전공 교육과정을 재점검하고, 실습교과목의 교수법 및 운영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교수자 측면의 기대 효과로는 첫째, 생성형 AI 활용 수업 사례와 교수법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교과목 운영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둘째, 실습교과목에 적용 가능한 수업 운영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수자의 수업 설계 역량과 운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생성형 AI 기반 교수법의 장점과 한계, 윤리적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책임 있는 AI 활용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학생 측면의 기대 효과로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및 문제 해결 능력의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팀 프로젝트 중심의 실습 수업을 통해 AI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과 실행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실제 교육·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아울러 AI 활용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에 적합한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적·제도적 측면에서는 AI융합교육전공 교과목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행 중심의 수업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전공 교육과정 개선 및 AI 활용 교수법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본 활동은 설계안 개발과 교수법 논의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수업 적용을 통한 학습 성과의 실증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 AI 활용 역량 차이에 따라 교육 효과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정 중심 평가 도입에 따른 교수자의 평가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실제 교과 운영을 통한 적용 사례 축적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가. 수업・교과목・연구 적용 방안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비롯한 최신 AI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과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주요 활용 방안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공 교육의 최신성, 실천성,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생성형 AI 등 최신 AI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교육과정 전반과 실습교과목 운영 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교과목 간 내용 중복 및 연계성을 분석하고, AI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목과 실습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실습 수업 중심의 교수・학습 개선 방안 도출을 주요 목표로 한다. 파이썬 응용을 비롯한 실습교과목에서 생성형 AI를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모델과 운영 전략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실습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대학원생의 학습 만족도와 교육 경험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시기별로는 단기・중장기 단계적 적용 전략을 설정한다. 단기적으로는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도출된 AI 활용 수업 모델과 실습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여, 2026학년도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 교과목 운영에 시범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개선점을 점검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피드백을 수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성형 AI 기반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AI융합교육 분야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융합교육 교수・학습 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성과를 교원양성 과정 및 타 학문 분야로 확산함으로써, 대학 차원의 AI 기반 교수법 혁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도출된 성과는 일회성 결과에 그치지 않고,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 전반의 교수・학습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확산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교수자 대상 성과 공유 및 확산 체계를 마련한다.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개발된 AI 활용 실습 수업 설계안, 평가 루브릭, AI 활용 로그 양식 등 주요 산출물을 전공 교수진과 공유함으로써, 개별 교과목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법 자료로 확산한다.

이를 통해 특정 교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공 내 다양한 실습교과목에서 생성형 AI 활용 수업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수업 적용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이다.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를 실제 교과목에 시범 적용한 후, 교수자 및 학습자의 피드백을 수집·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 실습 참여도, AI 활용 경험에 대한 성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업 설계안과 운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환류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성과의 문서화 및 자료 축적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추진한다.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결과와 수업 적용 사례를 문서화하여 전공 차원의 교수학습 자료로 축적함으로써, 향후 신규 교수자 또는 후속 교과목 운영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교수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교수법을 조직 차원의 교육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성과 확산의 범위 확대를 도모한다. 전공 내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양성과정, 유사 융합전공, 타 학문 분야 실습교과목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교내 교수학습지원 부서와 연계하여 워크숍, 사례 공유 세미나 등의 형태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수법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순환 구조 형성이다. 성과 확산 → 수업 적용 → 피드백 수집 → 개선안 도출 → 재확산의 순환 구조를 통해 교수법 커뮤니티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수·학습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의 실습교과목이 변화하는 AI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후속 활동 계획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 개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활동을 계획하고자 한다.

첫째, 실습교과목 대상 AI 활용 수업 모델의 단계적 확산이다. 본 활동에서 정리한 AI 활용 방안을 특정 교과목에 시범 적용한 후, 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대학원 내 유사 실습교과목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과목 특성에 따른 AI 활용 수준과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공통 적용 가능한 기본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AI 활용 수업 사례 공유 및 교수자 간 협력 강화이다. 실습교과목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수업 설계 사례, 과제 예시, 평가 방식 등을 정리하여 교수자 간 공유 자료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 교수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AI 활용 수업을 공동의 교육

자산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교수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학습자 관점의 효과 분석 및 피드백 반영이다. AI를 활용한 실습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성찰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학습 몰입도, 이해도, 자기주도성 변화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차년도 수업 설계 및 교수법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실증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넷째, AI 활용 교수법의 제도적 연계 가능성 검토이다.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내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교수법 워크숍, 신규 교원 연수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AI 기반 교수법의 지속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5. 기타사항

가. 건의사항 및 제언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확인된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AI 활용 수업을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다. 현재 생성형 AI 활용은 교수자 개인의 판단과 역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교과목 간 활용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활용의 범위, 윤리적 고려 사항, 학습자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수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지원 확대이다. 실습교과목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구 사용법을 넘어, 교육적 활용 설계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단기 특강 중심의 연수보다는 실습 중심 워크숍, 사례 공유형 연수 등 실질적인 교수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한다.

셋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의 지속적 운영 지원이다. 본 활동을 통해 교수자 간 논의와 협력이 실질적인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도 교수법 커뮤니티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개선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이어지기를 제언한다.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예비교사를 위한 SEL 교육과정 적용방안 탐색

SEL 미래교사연구회

김유미 유아교육전공

최서윤 상담교육전공

박가나 일반사회교육전공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224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224
나. 팀 구성 및 특징 ····· 225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 226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 226
나. 주요 활동 내용 ····· 227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229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 ····· 229
나. 기대 효과 및 한계 ····· 235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 236
가. 수업· 교과목· 연구 적용 방안 ····· 236
나. 후속 활동 계획 ····· 243

5. 기타사항 ····· 244
가. 건의사항 및 제언 ····· 244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정서학습(Social-Emotional Learning, SEL)은 학생의 정서 이해·조절, 공감과 관계 형성,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 삶의 핵심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으로, 학생의 마음건강과 관계 갈등,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한 예방적 지원의 핵심 기반이 됨

○ 202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학교급별 각 6차시 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차시별 사회정서 핵심역량과 학습목표, 성취기준, 활동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교육현장에서 SEL을 생활화하고, 교과 내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2026년부터 전 학년과 전 학급에 17차시로 확대 예정에 있음

○ 교육부는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선도교사 양성, 학부모·학교관리자 콘텐츠 보급 등을 함께 제시하였음. 이는 SEL을 학생 마음건강 정책의 주요 축으로 강화하여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닌 '보편적 기반 역량 교육'으로 확대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임.

○ 한편, 학생의 위기 및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은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 안팎 자원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 할 필요성이 강조됨.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법(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안은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시도교육청 차원의 계획 수립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 자리할 예정임.

○ SEL 연구회는 이러한 교육정책과 법 제도의 변화 속에서 예비교원 및 현직 교원의 사회정서역량 강화, 교수법, 수업 설계 방안 연구를 위한 교수자 전문학습공동체의 성격으로 구성되었음. 또한, 교육현장에서 SEL을 적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문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SEL 연구회의 활동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지식 영역) SEL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으며, 기본 이론과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 활용에 관한 토의를 진행함
- (전문 기술 영역) 연구회원 각자가 이해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 각 담당의 전공에서 적용 가능한 영역을 토의하며 교수법과 교수요목에 관한 아이디어를 창출함
- (태도 영역) 교육대학원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이 갖추어야 할 사회정서역량 요소와 기본적 태도에 대해 논의함. 더불어 교수자 역량을 함께 점검하며 현시대적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교수자 像에 대해 논의함
- 추후 교과목 개발 및 각 전공 영역에서 SEL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법 및 교과과정의 적용에 대해 통합적으로 논의함

나. 팀 구성 및 특징

◯ 사회정서학습은 학생 대상 교육이외에도 부모교육, 학교 문화개선 및 지역사회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생애적 발달과정을 다루고 있음. 또한 사회정서학습은 해당 문화와 교육적 방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

◯ 교사 양성과정에서도 연령 간, 학제 간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는 실험과 도전이 필요함. 이에 따라 현행 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도전방향을 공유하여 사회정서학습(SEL)을 적용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양성자 모임을 구성하게 됨. 이러한 목적에 동의한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사회교육전공 교수가 함께 모임

◯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구성을 활용하여 각 전공 분야의 강의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교육 대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이를 위해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여 사례 공유 및 비평의 과정을 거치며 실질적인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모임을 가짐

◯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목적: 커뮤니티에 참여한 3인의 각 관심사에 따른 커뮤니티 참여목적과 향후 적용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참여동기와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토론 및 적용방향 모색이 공동으로 이루어짐

교수명	소속	참여목적
김유미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예비 영유아교사 양성교육에서 교사들의 사회정서교육 관심을 환기하고, 영유아교육현장에 재직 중인 교사들과 함께 전공수업 내에서 사회정서교육 실천의 흐름을 다각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함
최서윤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사회정서교육이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정책 흐름 속에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마음건강' 영역은 상담교사의 전문성과 다학제적 협업을 기반으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SEL의 이해와 실제 적용 방법을 공동으로 탐구하고, 학교상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연구회 모임에 참여함
박가나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사회정서교육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에 대해 파악하고, 중등 사회과교육 현장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이를 예비 사회과 교사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함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커뮤니티 모임은 대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 8차례로 이루어졌음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1	2025.10.22. 10:30-2:00	아뜰리에콩포트 효창	교수법 커뮤니티의 목적과 방향 공유. 함께 읽을 자료 선정
2	2025.11.11. 20:00-21:40	zoom	(독서토론) 학생들의 성공적 삶과 사회정서학습
3	2025.11.26. 11:30-13:00	행파교수회관 102호	교수법 커뮤니티 중간 간담회 참여

4	2025.12.02. 14:00-14:30 19:00-20:00	카카오톡	(토론)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사회정서 프로그램 소개 토론, 대만 보인대학교 총장방문단 맞이 준비: 사회정서교육 관련 내용 논의
5	2025.12.15. 14:00-15:30	청파맨션	(독서토론) 사회정서학습 이렇게 한다
6	2025.12.20. 14:00-15:00	카카오톡	(토론) 교육부 대통령 보고자료(12.12) 공유 및 토론
7	2026.01.15. 11:00-14:00	수련교수회관 400호	(워크샵) 학생과 교사를 위한 사회정서교육의 적용(강사: 성진아)
8	2026.01.15. 14:30-15:30	학생회관 the bake	(독서토론) 교사를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모든 것

나. 주요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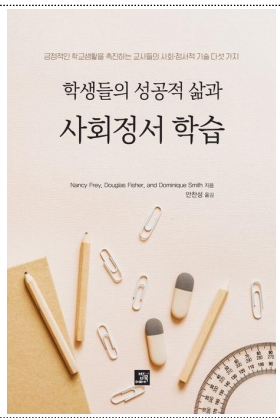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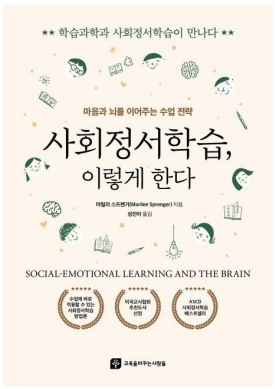
○ 본 커뮤니티에서는 먼저 사회정서학습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업의 기술보다는 해당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함을 공유함. 그리고 교육과정에 적용하더라도 교육의 효과와 성과는 지식교육과는 달리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후성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음을 공유함

○ 본 커뮤니티에서는 교사양성교육에서 SEL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리뷰하고 실제 각자 강의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학습방식과 향후 적용방안을 공유한 후 이에 대한 비평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음

-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오프라인 5회 모임과 온라인 3회 모임을 병행하여 토론 및 수업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모임에서 우리대학 예비교사 양성교육에 적용 가능한 SEL 교육과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교수학습센터 맞춤형 워크샵 지원을 통하여 사회정서학습 전문가인 성진아 박사를 초대하여 관심있는 교수 9인이 함께 사회정서학습 원리와 적용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사양성 대학(원)교육에서 적용가능한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음

○ 사회정서학습 토론을 위한 선정 도서

- 사회정서학습(SEL:Social and Emotional Learning)관련 도서로 3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며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적용할 시사점을 모색함

		
Nancy Frey , Douglas Fisher , Dominique Smith(2021). 학생들의 성공적 삶과 사회정서 학습. 안찬성 역. 밥북.	Marilee Sprenger(2025). 사회정서학습, 이렇게 한다. 성진아 역.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김현수, 최와니, 안정은, 김이슬, 이종필, 김자현, 권주영, 고아라(2025). 교사를 위한 사회정서 학습의 모든 것. 우리학교.

○ 커뮤니티 주요 활동 사진

10/22 첫모임 커뮤니티 방향 설정	11/11 독서모임 Nancy Frey , Douglas Fisher , Dominique Smith(2021). 학생들의 성공적 삶과 사회정서 학습 토론
12/15 독서모임 Marilee Sprenger(2025). 사회정서학습 이렇게 한다 토론	1/15 독서토론 김현수, 최와니, 안정은, 김이슬, 이종필, 김자현, 권주영, 고아라(2025).교사를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모든 것 토론

1/15 맞춤형 워크숍
학생들의 성공적 삶과 사회정서학습 역자 특강(성진아)
사회정서학습에 관심이 있는 교육대학원 교원 9인으로 확대하여 운영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

▣ 학생들의 성공적 삶과 사회정서 학습의 관계 관련 토론 내용

○ Nancy Frey , Douglas Fisher , Dominique Smith(2021). 『학생들의 성공적 삶과 사회정서 학습』은 공식 교육과정으로서 사회정서 학습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정서학습의 원리와 함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정서 학습의 방법을 다루고 있음. 이를 통해 왜 사회정서적 학습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하는지 문제제기하여 더 나은 방향과 방법을 찾도록 함

○ 사회정서적 학습(SEL: Social and Emotional Learing)의 의미 재구성
-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
- 기초학습능력(읽기, 쓰기 및 셈하기)뿐만 아니라 직업적 사고 능력(지식이나 정보를 직업적 업무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고 능력)과 직업인으로서의 자질(헌신, 책임, 신뢰, 성실 등)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사회, 정서적 기술은 뚜렷한 교육목표라기보다 단순한 기술이나 개인적 속성으로 여겨짐. 가르치는 내용만큼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하며,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됨

○ 사회정서학습의 대표적인 체계: CASEL 프레임워크, RULLER 접근법 고찰
- CASEL(인지적 학습 및 사회정서적 학습협회: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 제안한 SEL의 다섯가지 구성 역량

-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신의 감정, 가치, 행동 등을 인지하고 숙고하는 능력
-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 및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문화적 규범을 존중하는 능력
- 대인관계 기술(relationship skills): 주변 사람이나 집단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 자기 관리(self-management): 자기 동기부여, 목표설정, 자기형성, 자기계발, 충동조절, 스트레스 예방 등을 수행하는 능력
- 책임 있는 의사 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능력

그림 CASEL 프레임워크

(시사점)

→ 사회정서학습에서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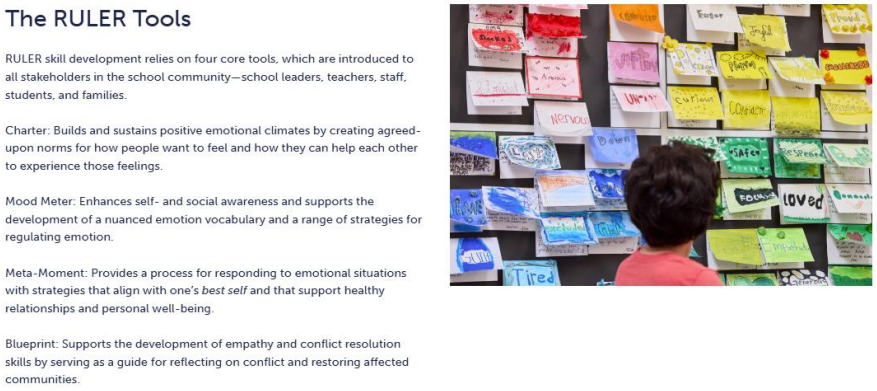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습 표준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

→ 교실(classrooms), 학교(schools), 가정 및 보호자(families & caregivers), 지역사회(communities)의 네 가지 주요 환경 전반에 걸쳐 SEL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체계적인 실행을 강조함

○ RULLER 접근법

- 예일 감성지능센터(Yale Center for Emotional Intelligence) 개발 프로그램
  - Recognizing(인식하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한다.

- Understanding(이해하기):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
- Labeling(명명하기):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는 어휘로 감정을 정확하게 명명한다.
- Expressing(표현하기):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맥락에 맞게 감정을 표현한다.
- Regulating(조절하기):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감정을 조절한다.



The RULER T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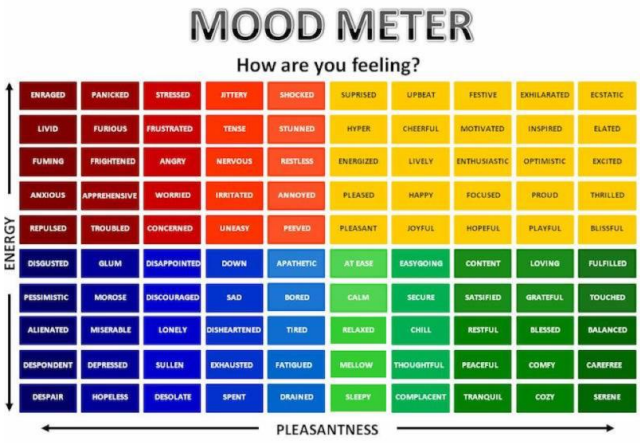
RULER skill development relies on four core tools, which are introduced to all stakeholders in the school community—school leaders, teachers, staff, students, and families.

Charter: Builds and sustains positive emotional climates by creating agreed-upon norms for how people want to feel and how they can help each other to experience those feelings.

Mood Meter: Enhances self- and social awareness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 nuanced emotion vocabulary and a range of strategies for regulating emotion.

Meta-Moment: Provides a process for responding to emotional situations with strategies that align with one's *best self* and that support healthy relationships and personal well-being.

Blueprin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by serving as a guide for reflecting on conflict and restoring affected communities.



출처: RULLER 홈페이지 https://rulerapproach.org/about/what-is-ruler/

(시사점)

→ 사회정서학습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함(차터, 무드미터, 메타모멘트, 블루프린트 등)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감성지능의 원리를 바탕으로 통합적 적용을 도모함

→ 학교 지도자, 교사, 직원, 학생, 가족 등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체계적인 적용을 추구함

→ 감정기술발달, 학업 성과 및 교실 분위기 개선, 주의력 및 학습 문제 감소, 사회성 및 리더십 기술 향상, 불안 및 우울 감소, 스트레스 및 소진 감소, 학교생활 전반에서 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사회정서학습의 적용방향 토론 내용

○『사회정서학습, 이렇게 한다.』Marilee Sprenger(2025) 저. 성진아 역.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사회정서학습과 학습과학의 통합으로 영유아부터 초중등까지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학습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됨

-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교사는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따뜻한 관계를 맺는 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수성,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자기관리, 타인과 협력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계기술이 필수적이다. (일러두기 서문에서 발췌)*

-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면서 학교생활 적응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사회정서학습의 교육철학이자 교사가 학생과 함께 해 나가야 할 교육의 방향성임을 알게 해 주는 책.

- 책의 구성은 ‘관계구축’, ‘공감’,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인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 ‘프로그램보다 교사’의 순서로 연결됨. 뇌과학을 기반으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사회정서학습의 시스템적 사고를 활용하여 학급에 바로 실천 가능한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음.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교실에서 학생들과 적용해 온 자신의 교육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됨.

- SEL 연구회 기간 동안 상담교육전공 재학생 5명과 함께 본 책을 북리딩하는 모임을 추가 운영함(2025. 12. 17. ~ 2026. 1. 14. 사전모임 1회, 북리딩 토크 4회).

참여 학생: 유치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영어) 1명, 교육실무사 1명, 전 고등학교 교사(국어) 1명

- 학생들에게 해 주었어야 했던 것을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
- 아이들과 나누는 활동이 사회정서학습이었는데 미처 몰라서 더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
- 앞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공감하고, 교사로서의 내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안심이 됨
-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에서도 중요한 역량이 된다는 것을 알게됨
-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양육의 지침이 상세하게 되어 있어 배울점이 많았음

▣ 교사를 위한 사회정서학습 토론 내용

○ 최현수, 최와니 등 교육 전문가들이 집필한 『교사를 위한 사회정서학습(SEL)의 모든 것』은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이 왜 필요한지부터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실천 지침서로,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책의 핵심 메시지

SEL은 교육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본기'임. 이 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전, 아이들의 '마음의 문(정서)' 을 먼저 여는 법을 제시하며, 또한 교사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원칙(SAFE)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사회정서학습 이해하기 (이론적 토대)

- 사회정서학습(SEL)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역량과 원칙
- 사회정서학습이란 : SEL의 정의와 교육적 가치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의 습득 과정임을 설명

- 사회정서학습의 현장들 : SEL이 도입된 배경과 전 세계적인 흐름

미국 CASEL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왜 SEL이 단순한 인성 교육을 넘어 공교육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다룸

- 5가지 사회정서역량 톺아보기 : SEL의 5대 핵심 역량 심층 분석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역량이 실제 아이들의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 사회정서학습을 실천할 때 지켜야 할 원칙 : 효과적인 SEL 프로그램을 위한 S.A.F.E 원칙
  - S(Sequenced): 단계적이고 연계된 활동
  - A(Active):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학습
  - F(Focused): 기술 습득에 집중된 시간 할당
  - E(Explicit): 명시적으로 목표를 가르치는 방식

○ 사회정서학습 실천하기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사례)
- 이론을 바탕으로 교실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와 초·중등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 공유
- 사회정서학습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SEL의 효과성 입증.
  SEL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학교 폭력이 감소하며, 심리적 웰빙이 증진된다는 근거를 제시, 또한 교사의 효능감 변화도 확인됨
- 교실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실천하려면 :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창체 시간을 활용한 '명시적 수업'과 일반 교과에 녹여내는 '교과 통합 수업', 학급 문화 전반에 SEL을 적용하는 학급 운영 전략 안내

○ 초등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을 해보니 : 초등 발달 단계에 맞춘 SEL 적용기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놀이와 활동 중심의 SEL이 아이들의 감정 조절과 친구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생한 실천 사례 제시. 초등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름 붙이고(Labeling), 친구들과 안전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데 집중함

○ 중학 국어 수업, 사회정서학습을 만나다 : 교과통합 SEL의 구체적 사례
  국어 교과의 문학 작품 속 인물 이해하기, 공감하며 듣기 등의 활동을 SEL 역량과 연결하여, 지식 전달과 정서 발달이 동시에 일어나는 수업 모델을 제시. 문학 작품 속 인물 마음 읽기, 공감적 경청과 비폭력 대화 실습, 성찰하는 글쓰기 등
○ 사회정서학습으로 시민교육이 가능할까 : SEL의 확장성
  개인의 정서 조절을 넘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는 ‘사회정서적 시민성’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 우리 반 가이드라인(약속) 만들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 취하기 (Perspective-taking), 회복적 서클 (Restorative Circles) 등

○ 위의 사례들은 SEL이 단순히 ‘착해지자’ 는 도덕 교육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익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드는 구체적인 훈련’ 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실 안의 갈등을 통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싶은 교사들을 위한 친절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음

나. 기대 효과 및 한계

○ 교수자들의 협력기반 성찰
- 예비교사의 수업 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이해를 위한 기본 접근인 사회정서교육이 갖는 의미를 공유함
-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교육대학원 전공 및 교직과목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정서학습 수업 방법을 도출함
- 사회정서교육(SEL)은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을 갖춘 예비교사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공유함

○ 최근 정책동향을 반영한 수업계획 마련
- 교육부에서는 2024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학력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할 전망임. 이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초중고에서 사회정서학습이 강화될 전망이므로 예비교사들이 학생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이론적, 실제적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됨.
- 이번 교수법 커뮤니티를 통하여 우리대학의 예비교사 양성과정의 특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커뮤니티 구성원 이외의 교사 양성자에게도 공유하여 확장하는 노력을 도모함

○ 맞춤형 워크샵을 통한 자율모임 확대
- 본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워크샵 기회를 활용하여 사회정서교육 전문가이자 실천가인 성진아 박사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갖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실제적이며 심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 맞춤형 워크샵은 교원양성센터의 홍보 협조로 커뮤니티 구성원 외 교사양성자인 교육대학원 소속 교원의 참여로 확대하였음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가. 수업・교과목・연구 적용 방안

○ 이상과 같은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참여자 3인은 담당 강의에서 사회정서학습과 관련있는 교과목에 대해 교사양성교육에서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각 과목별 구체적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 강의계획에 반영하였음

▣ 교육대학원 공통과목 신규개설 '사회정서교육의 이해와 적용'

(최서윤 교수 담당과목)

- 교과목 개설 목적 :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이 사회정서교육의 기본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학급운영 내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함. 이를 위해, CASEL의 사회정서학습,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UNESCO, OECD 등의 사회정서역량 프레임워크를 비교 분석하여 실천적 교사 역량을 성찰하고 갖추도록 함.

- 본 교과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사회정서학습의 개념과 필요성 이해, 2) 교사와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진단 및 강화 방안 탐구, 3) 학급 및 교과 수업 과정과 사회정서학습의 연결을 위한 교수전략 개발 방안, 4) 학교의 정서적 안전망 과 회복적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역량 함양.

- 본 교과목의 세부 내용 및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임

주차	학습주제 및 내용	비고
1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정서교육의 개요 과목 목표 이해, SEL 개념(국제기구 프레임워크 비교) 및 필요성	SEL이 필요한 이유: 교내 문제상황 사례 예시
2	사회정서역량(SEL) 5요소 이해 CASEL의 5대 역량(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개인 SEL 자기진단 검사 및 분석보고서

3	정서의 이해와 조절 정서의 기능, 감정인식, 감정조절 전략 교사의 감정조절이 학급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감정일기 작성
4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자기개념, 자존감, 목표설정, 스트레스 관리	자기관리 활동요소
5	공감과 사회인식 타인의 감정이해, 공감능력, 관점 취하기 공감적 교사언어, 경청훈련 실습	공감대화 시뮬레이션
6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기술 긍정적 의사소통, 협력, 갈등해결 학급 내 갈등사례에 대한 회복적 대화 기법 적용	회복적 대화 시나리오 작성
7	책임 있는 의사결정 가치판단, 윤리적 의사결정, 사회적 책임 학생자치, 학급의사결정 활동 설계	학급규칙 공동결정 수업 아이디어
8	중간과제 : SEL 기반 수업・활동 설계	
9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이해 4대 핵심역량(자기, 관계, 공동체, 마음건강)의 개념	한국형 사회정서교육과 SEL의 공통점과 차이점
10	교사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 교사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교직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사’란?
11	사회정서교육기반의 학급운영 학급규칙, 칭찬과 격려, 관계중심 학급운영 전략	학급에서 적용 가능한 SEL 활동 계획 초안 작성
12	마음건강과 학생지원 위기학생 지원, 정서행동특성 이해, 상담연계	1차 정서지원자 담임교사의 역할
13	교과수업 속 SEL 통합 국어・사회・미술・체육 등 교과별 SEL 통합사례	SEL요소 적용한 수업계획서 작성하기
14	한국형 사회정서교육과 교과수업의 적용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15	기말과제 : 마음이 건강한 교사가 되기 위한 나의 사회정서역량 성장계획 수립	에세이

▣ 일반사회교육 전공과목 ‘일반사회교육론’ 강의 적용방안

(박가나 교수 담당과목)

○ 일반사회교육론은 사회과 교육의 목표(시민성), 내용, 방법, 평가를 배우는 핵심 과목으로 사회과 교사로서의 역량과 사회과 교육에 사회정서학습의 5가지 핵심 역량을 결합

○ 교육과정 목표와의 연결 : 시민성 교육과 SEL의 연결
- 사회과 교육의 목표인 ’시민성’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초점
- 시민적 자질과 정서 역량 매핑하기 :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확인
  ex) ’좋은 시민’의 자질(예: 관용, 참여, 정의감)과 CASEL의 5대 역량(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
- 사회과에서 가르치는 시민성이 단순히 지식(Knowledge)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정서적 능력(Skill & Attitude)에 기반함을 확인하도록 지도

○ 교수학습방법과 연결: 논쟁 수업(Controversial Issues)과 정서 조절
- 사회과에서는 정치·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논쟁 수업이 필수적, 이때 사회적 이슈를 비판적 사고를 통해 검토하고 이견을 보이는 타인과 자신의 견해를 소통할 때 감정을 조절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
- ‘감정을 다루는’ 논쟁 수업 모형 설계

ex) 예비교사들이 모의 수업을 구상할 때, 찬반 토론 전에 ’감정 신호등(자신의 감정 상태 점검)’ 단계를 넣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재진술(Paraphrasing)’하여 공감을 표현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업설계 지도
- 논리적 반박 기술(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공격적이지 않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술(나 전달법)을 수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실천해보도록 수업 설계

○ 교사 정체성과 연결: 예비교사의 정서적 정체성 확립
- “교사의 SEL“을 적용하여,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도

- 사회과 교사로서의 자서전 쓰기 (정서적 측면)
  ex) 학창 시절 사회 수업에서 느꼈던 긍정적/부정적 감정(지루함, 분노, 깨달음의 기쁨 등)을 회고하고, 나는 어떤 정서적 분위기를 만드는 교사가 되고 싶은지 에세이 작성
- 사회과 수업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한 논의 진행
  ex)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접할 때 무력감(Helplessness)이 아닌 효능감(Efficacy)을 느끼게 하려면 교사는 어떤 정서를 보여줘야 하는가?“ 등의 주제로 토의

○ 비교과 민주시민교육과 연결: 학급경영 및 평가
- 담임으로서 민주적인 학급 운영 방안 모색
- 민주주의는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임을 가르쳐야 하므로, 민주적 제도 뿐 아니라 학급풍토 조성 논의
- 회복적 생활교육과 학급 헌법 만들기
  ex) 처벌 위주의 학급규칙 대신, 관계회복과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는 ’학급 헌법’을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
  ex) 학교 폭력이나 갈등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처벌이 아닌 ’책임 있는 의사결정(SEL 역량)’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 등에 대해 역할극 진행

▣ 교육대학원 공통과목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 이해’ 강의적용 방안

(박가나 교수 담당과목)

○ 예비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징계와 처벌의 관점만으로 보지 않고 ‘교육적 회복’과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연결’과 ‘관계’의 중요성 확인, 교실 내 소외되는 학생(잠재적 피해자)을 조기에 발견하는 감수성 개발을 목적으로 수업 설계

○ 관점의 전환 : 학교폭력과 청소년 (정서에 대한 이해)
- 왜 학교폭력 수업에서 ‘감정’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 예비교사들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서 감정조절이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지도
  ex) 학교폭력 가해/피해 행동 이면에 있는 ‘미충족 욕구’, ‘정서조절 실

패’ 이해, 교과수업보다 우선해야 할 ‘관계맺기의 기술’, ‘생존기술로서의 SEL’ 이해 등

○ SEL 핵심 개념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 5개 핵심역량을 학교폭력 맥락에서 해석해 보도록 지도

자기인식	내가 분노하는 상황과 트리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자기관리	충동을 멈추는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폭력 발생
사회적인식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 부재가 괴롭힘의 근본 원인
관계기술	갈등 상황에서 평화롭게 거절하거나 요청하는 법을 배울 필요
책임있는 의사결정	방관자가 될지, 방어자가 될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 등

○ 평화로운 환경 구축 : 안전한 교실 만들기 활동
- 심리적 안전지대(safe space) 구축하기 : 두려움없는 교실에서만이 아이들이 방어기제를 내려놓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
  ex) 우리반 마음 규칙 만들기 활동(예비교사들이 직접 모둠을 만들어 가상의 학급규칙을 제정해보고 발표해보기) : 단순한 규칙이 아닌 관계의 가치를 담은 약속 만들기.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듣는다’, ‘화가 날때는 잠깐 멈춤을 요청할 수 있다’ 등
  ex) 일상적 연결의 기술(덴마크 ‘클라센스 티드’ 한국형 적용) : 덴마크 학급회의시간을 한국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갈등 해결과 교사의 역할
- 갈등 중재 시뮬레이션: 관계 기술 훈련에 대한 지도
-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해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 ex) 평화적 대화법(i-message) 역할극 지도 등
- 교사의 내면 돌봄 : 교사의 사회정서역량과 관련하여 교사의 안정된 정서가 학폭 예방에서도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
  ex) 예비교사로서 내가 통제하기 힘든 상황과 학생, 그때의 나의 감정 반응 예측해보기 등

○ 과제
- SEL을 전공과목수업에 적용, 학교폭력 예방요소(공감, 경청, 협력 등)을 녹여낸 수업지도안 작성해보기

▣ 유아교육전공 전공과목 ‘유아교육과정’ 강의 적용방안

(김유미 교수 담당과목)

○ 해당 과목에서 사회정서학습 요소를 반영하는 목적:

- 유아교육과정은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유아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다루는 과목임.
- 사회정서교육은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잠재적인 교육과정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교실에서의 사회정서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 그리고 교육부의 사회정서교육 도입으로 인하여 유아교육과정 운영 시 사회정서교육은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함.
- 이에 따라 교사양성교육에서 사회정서학습의 내용과 원리를 고찰하고 적용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이에 따른 수업개요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이 과목은 전통적인 유아교육과정의 의미가 최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이 유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최근 유아교육과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텍스트와 현장사례를 탐색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대두되는 사회정서학습(SEL) 접근을 접목하여 유아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연구자로서의 교사를 실천하며 대안적인 접근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강의 적용방안

- 사회정서학습 원리를 CASEL 프레임워크, RULLER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국내 교육과정에 적용방안을 토론하여 적용방향(안)을 도출함. 해당 과목을 수강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현직교사들이 직접 교실에서 적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2차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여 심도있는 접근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2026-1 강의계획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음

6주차	CASEL 프레임워크의 5개 핵심역량과 누리과정의 연계성, 교실적용방안 토론 → (14주차) 실제 교실 적용 후 시사점 논의
7주차	RULLER 무드미터의 의의 및 영유아적용 방안 토론 → (14주차) 실제 교실 적용 후 시사점 논의
14주차	SEL 적용사례 공유 및 시사점 토론

▣ 유아교육전공 전공과목 ‘유아예술교육’ 강의 적용방안

(김유미 교수 담당과목)

◯ 해당 과목에서 사회정서학습 요소를 반영하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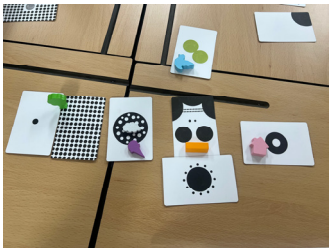
- 유아예술교육에서는 유아예술교육에서 기법중심 교육을 벗어나 영유아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교육적 실천접근을 도모함.
-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사회정서능력을 높이고, 영유아의 사회정서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함

- 이에 따른 수업개요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본 교과목에서는 유아를 위한 예술교육을 단순히 예술표현 기술을 습득하여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최근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유아중심, 놀이 중심의 가치를 실천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유아의 삶과 놀이에 나타나는 예술적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 유아의 문화 창조력, 향유능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유아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유아 사회정서학습(SEL)의 일환으로 예술교육의 가능성과 방향을 논의한다.

◯ 강의 적용방안

교사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실습형 접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 내 활동으로 경험하고, 영유아들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토론하여 개발하고자 함. 이에 따라 2026-1학기 강의계획에 다음과 같이 반영함

활동	활동방법	의의
그림카드를 활용한 감정이야기 나누기 (4주차 강의)		발표자의 경험이야기를 듣고 그림카드와 오브제를 활용하여 청자의 느낌과 발표자에 대한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기 - 비언어적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접근

그림책을 활용한 사회정서 학습 (5주차 강의)		자신이 읽은 그림책을 포장하여 내용을 볼 수 없게 한 후 그림책에 대한 주관적 메시지를 #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수업 중에 포장된 그림책을 공유함. 포장지에 적힌 키워드를 보며 그림책의 내용을 상상한 후 포장지를 뜯어 그림책을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기 - 익숙한 매체인 그림책을 활용하여 상호 이해와 교감을 나누는 기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접근
예술교육으로 접근하는 사회 정서학습 실천 (11주차-13주차)	관심있는 매체에 따라 조를 구성한 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탐구-실행-평가함 - 사회정서학습을 접목한 유아예술교육의 유아교육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교사 효능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접근으로서 의미를 실험해보는 접근	

나. 후속 활동 계획

○ 심화교육 참여: SEE learning 워크숍(26년 2월 2일~10일 예정)
- 미국 EMORY 대학의 사회, 정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인 SEE learning 워크숍에 참여하여 심화된 접근을 모색하고자 함(참여자: 최서윤 교수)
- 연수참여 후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할 예정임

○ 참여교수의 확대 및 정기모임 추진(26년 3월 예정)
- 교사양성자 모임으로 확대하여 교수법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교원모임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대만 보인대학교 총장단 방문(26년 5월 예정)
- 대만 교육부와 보인대학교 총장단 총20여명이 한국의 사회정서교육(K-SEE) 현황을 탐방하고자 방문요청을 받음
- 우리대학 국제협력팀 주관으로 방문단을 맞이하는 준비과정에 있으며, 26년 5월 방문 시 우리대학과 보인대 간 MOU 체결을 통해 향후 대학교육에서 사회정서교육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로 함

- 숙명여대 교사양성교육 과정의 사회정서교육 실천과 적용 과정을 국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2026-1학기 수업 적용 후 공동평가회(2026. 6월 예정)
- 2026-1학기 수업 및 비교과과정에 SEL 교육과정을 적용한 실천사례를 나누고 상호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추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구설계
-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사회정서학습(SEL)의 적용 또는 학교현장에 적용가능한 사회정서학습 활동 사례 연구를 통해 연구논문으로 확장할 계획임

5. 기타사항

가. 건의사항 및 제언

◯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실효성 개선필요: 여러 커뮤니티의 활동을 공유하는 의미는 크지만 짧은 시간에 운영 내용과 고민을 공유하는 제약이 있음

◯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연계: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한 워크샵 지원과 연계하여 본 커뮤니티 주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샵을 가질 수 있었으며,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향후 자율적 커뮤니티 운영을 조력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다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시기에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김현수, 최와니, 안정은, 김이슬, 이종필, 김자현, 권주영, 고아라(2025). 교사를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모든 것. 우리학교.

Nancy Frey , Douglas Fisher , Dominique Smith(2021). 학생들의 성공적 삶과 사회정서 학습. 안찬성 역. 밥북.

Marilee Sprenger(2025). 사회정서학습, 이렇게 한다. 성진아 역.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참고사이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교육칼럼. https://21erick.org/book/16419/.

에듀넷 https://ksee.edunet.net/socioEmoLrnMovRsc/list/597

한국형 사회정서 프로그램 자료(학생마음성장지원):
https://on-maum.or.kr/bbs/board.php?bo_table=files_d&page=1&sod=asc&sop=and&sst=wr_datetime&wr_id=4

학생맞춤통합지원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265

RULLER 홈페이지 https://rulerapproach.org/about/what-is-ruler/

2025학년도 교수법 커뮤니티

약학과 대학원생의 학술적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원 신설교과목 기획 및 고안

미래약학자 학술역량 증진 연구회

김태현 약학부

강교빈 약학부

김세건 약학부

김도희 약학부

김주미 약학부

김형섭 약학부

변준호 약학부

신민욱 약학부

현규환 약학부

【 목 차 】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 250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 250
나. 팀 구성 및 특징 ····· 252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 253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 253
나. 주요 활동 내용(필요 시 사진· 자료 첨부) ····· 253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 259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 ····· 259
나. 기대 효과 ····· 264
다. 예상되는 한계점 ····· 265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 266
가. 수업· 교과목· 연구 적용 방안 ····· 266
나. 후속 활동 계획 ····· 269

1.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개요

가. 활동 목적 및 필요성

우리 대학원은 4단계 BK21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연구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갖춘 연구자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실험 기술과 전공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성과를 학술지 논문과 학회 발표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구실 중심의 지도 구조만으로는, 대학원생들이 실제 논문 투고 및 동료평가(peer review)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역량을 끌어올리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대학원생의 연구성과는 대부분 “논문”이라는 형태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논문을 작성・투고・수정・게재하는 절차에 대한 교육은 개별 연구실이나 지도교수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학생이 실험 과정과 데이터 생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논문 초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구성해 보고, reviewer의 시각에서 논문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며, editor 관점에서 판정을 내려보는 경험은 거의 하지 못한 채 학위를 마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연구의 수준에 비해 논문 작성과 출판 단계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국제 학술지 게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연구자의 핵심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으로 방치되어 온 셈이다.

둘째, 연구가 고도화되고 융합화될수록 학술지 동료평가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성을 검증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peer review이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글쓰기,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 태도는 향후 우리 대학원생들이 연구자・임상의・산업체 연구원・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더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리뷰를 받는 입장”에서만 부분적으로 peer review를 경험하고 있으며, “리뷰를 작성하는 사람”이나 “편집자로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시각은 간접적인 이야기로만 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대학의 연구자들이 국제 학술지의 reviewer・editor로 성장하는 데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BK21 사업이 요구하는 ‘연구력 제고’는 단순히 논문 편수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생산, 논문 작성, 동료평가 대응, 연구윤리 준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수행하는 대학

원생의 역량이 구조적으로 강화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연구력 향상이 가능하다. 즉, “좋은 연구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가 “우수 학술지에 게재된 검증된 성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교육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이 연구 생애 전주기에 걸쳐 활용 가능한 실질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교수법 커뮤니티는,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연구 및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 대학원의 연구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 논문 작성과 투고 과정 전반을 다루는 대학원 신설 교과목을 개발하고, (2) 저자・심사자・편집자 관점을 모두 체험하는 실습형 교육을 설계하며, (3) 전공 특성을 반영한 멀티티칭과 x-based learning(문제・팀 기반 학습, 역할극 등)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참여 교수 9인의 다양한 전공과 저널 심사・편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공/연구분야별 맞춤형 교과목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연구 분야의 실제 학술지・논문 형식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공과 동떨어진 일반론적 글쓰기 강의를 넘어, 각 전공에서 실제 사용하는 저널 가이드라인, 리뷰 기준, 연구윤리 요구사항을 수업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실제 연구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이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한 특징이다.

결국, 교수법 커뮤니티의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신설 교과목 개발”이라는 구체적 산출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학원생들의 논문 작성・투고 역량 강화, 국제 학술지 게재 성과 증대, 공정한 동료평가 문화 확산, 연구윤리 수준 제고라는 연구력 강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 대학은 논문 투고 및 동료평가 교육 분야에서 국내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학원의 브랜드 가치와 BK21 사업 성과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교수법 커뮤니티의 활동 목적과 필요성은 단순한 교과목 신설을 넘어, 우리 대학원이 지향하는 “연구・교육・윤리가 통합된 고급 연구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팀 구성 및 특징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총 9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화학-물리 등을 아우르는 기초 및 중개 약학 연구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전공 스펙트럼을 가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생물학 연관 전공에서 분자·세포 수준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화학·제약학 및 대사체학 분야에서 전임상·중개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등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학술지와 연구 설계, 데이터 형식을 실제 수업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논문 작성과 동료평가를 "특정 분야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라 보편적인 연구자 역량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9명의 교수들 상당수가 국내외 학술지의 상시 reviewer 또는 editorial board로 활동하고 있어, 실제 투고·심사·편집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경험을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이다. 단순히 이론적 원칙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자가 경험한 실제 리뷰 코멘트, decision letter, 윤리적 이슈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이 '현장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기준'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본 커뮤니티 팀은 효율적인 교과목 개발과 운영을 위해 기능별로 책임을 분명히 나누었다. 우선 BK21 사업 및 대학원 교육과정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책임교수가 팀의 총괄을 맡아 전체 일정 관리, 회의 기획, 학교와의 소통, 최종 보고서 취합을 담당한다. 교과내용 설계 그룹(3~4인)은 학습목표 설정, Author-Reviewer-Editor 단계로 이어지는 학기별 구조 설계, 과제 및 평가체계 설계 등 교과목의 '골격'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공군별로는 A/B/C 세 과목에 각각 코디네이터를 두어, 유사 전공 교수 3인씩을 묶어 윤강 형태로 설계하고, 각 군에서 다룰 대표 저널과 논문 유형, 전공 특화 과제(실험논문·과제 제안서 등)를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부 사례 조사 담당 교수는 해외 대학의 Scientific Writing·Peer Review 교과목과 Nature Masterclasses, Online Ethics Center 등의 교육자료를 분석하여 커리큘럼 설계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고, 문서화 담당 교수는 회의 내용과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수요목 및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에 중심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전공의 다양성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교과목이 공통 철학과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전공별 특성을 반영한 과목을 개발하고자 의도하였다. 동시에, 개별 연구실·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강의를 "대학원·교육연구단 단위의 공동 설계·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2.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과정

가. 모임 횟수 및 방법

본 교수법 커뮤니티 모임은 학기 중에 주로 논의를 이어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교수법의 컨셉과 구체적인 설계 방안에 대해서는 이메일 회람을 통한 비대면으로 먼저 논의를 진행하고 세부적인 의견 조율이나 논의 등은 비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대면으로 만나 전체 또는 소규모로 모여 논의하였다.

나. 주요 활동 내용

1) **1차 회의**

*일시: 2025년 9월 3일(수) 16:00~17:30

*장소: 약대 506호

*참석자(존칭 생략): 강교빈, 김도희, 김세건, 김주미, 김형섭, 변준호, 신민욱, 현규환, 김태현 교수

1차 대면 미팅 이전(8/27)에 이메일을 통해 교수법 커뮤니티 회의를 위한 안건 초안을 공유함(아래 이미지 참조)

BK21 과제 준비 관련 제안(1) 받은편지함 × 교외 연구과제/4단계 BK21 ×

태현 **김태현** <thkim@sookmyung.ac.kr> 2025. 8. 27. AM 1:05

강교빈교수님, 김도희, 김세건교수님, 김주미교수님, 김형섭교수님, 변준호교수님, 신민욱교수님, 현규환교수님에게

교수님들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 모임을 통해 BK21 과제 지원을 위한 준비 착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그사이 시간이 많이 지나 어느덧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다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으나 개강하고 나면 더욱더 정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늦었지만 모든 교수님들의 아이디어 도출과 실행단계를 도모해야 할 것 같아 제 임의로 몇가지 생각나는 점을 두서없이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학부장님 이메일에 따르면 내년 1학기에 대학원 교과목을 신규 개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설교과목 교수요목(Syllabus 및 교과개설요청서) 제출에 대한 공문이 9월 말~10월 초 사이에 내려올거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바람직하게는 내년 1학기에 실제 신규 대학원 교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초안이 9월 중에 만들어지면 좋겠으나 여의치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계획서에 담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3년에 김용기 교수님을 팀장으로 모시고 작성한 "4단계 BK21 과제 지원서"를 토대로 현재 저희끼리 도모해볼 법한 아이디어를 몇가지 적어보았습니다. 1)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업 외에 정기적인 세미나를 여러 형태로 개최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방안에 대한 것들입니다. 2) 그외 저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법한 것들 중 BK21 과제 계획서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워낙 두서없이 적어서 알아보시기 힘드실 줄 압니다만, 지난 23년도 작성한 BK21 계획서 파일과 제가 작성한 제안 내용을 시간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 도모 가능한 일인지,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 등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직접 모이는 시간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선 부족한 자료이나마 각자 읽어보시고, 늦지 않은 시기에 (9월 1주차?) 간단히 만나서 어떻게 해볼지를 짧게 공유했으면 합니다

어쩌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교수님들께서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자료를 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알려주세요

남은 방학 잘 보내시고 학교서 뵙겠습니다.

김태현 드림

--

Tae Hyun Kim, Ph.D.

Assistant Professor

Lab of Metabolism and Healthy Aging

그림 1. 1차 미팅 전 사전 자료 공유 이메일(화면 캡쳐) (25.0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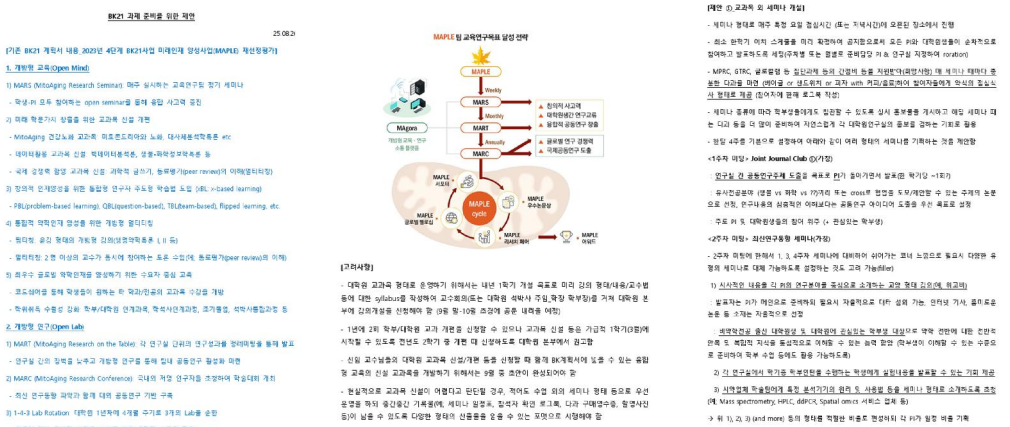


그림 2. 1차 미팅 전 사전 회의 자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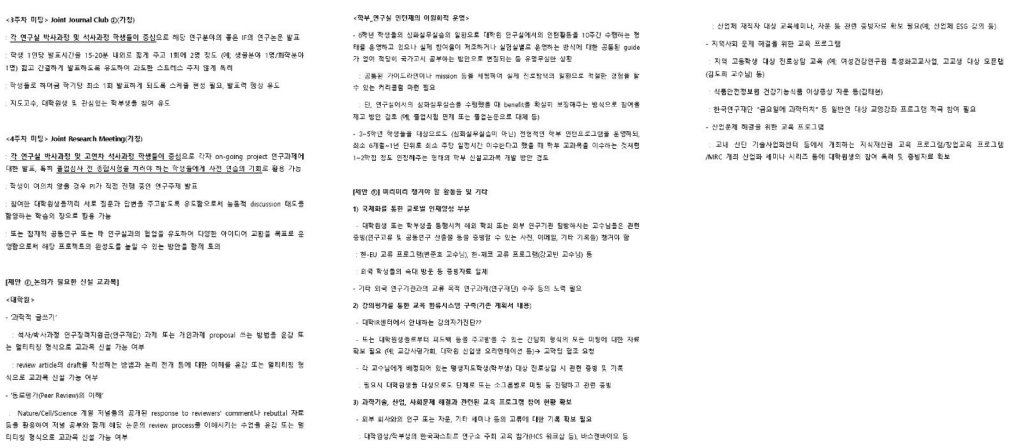


그림. 3 1차 미팅 전 사전 회의 자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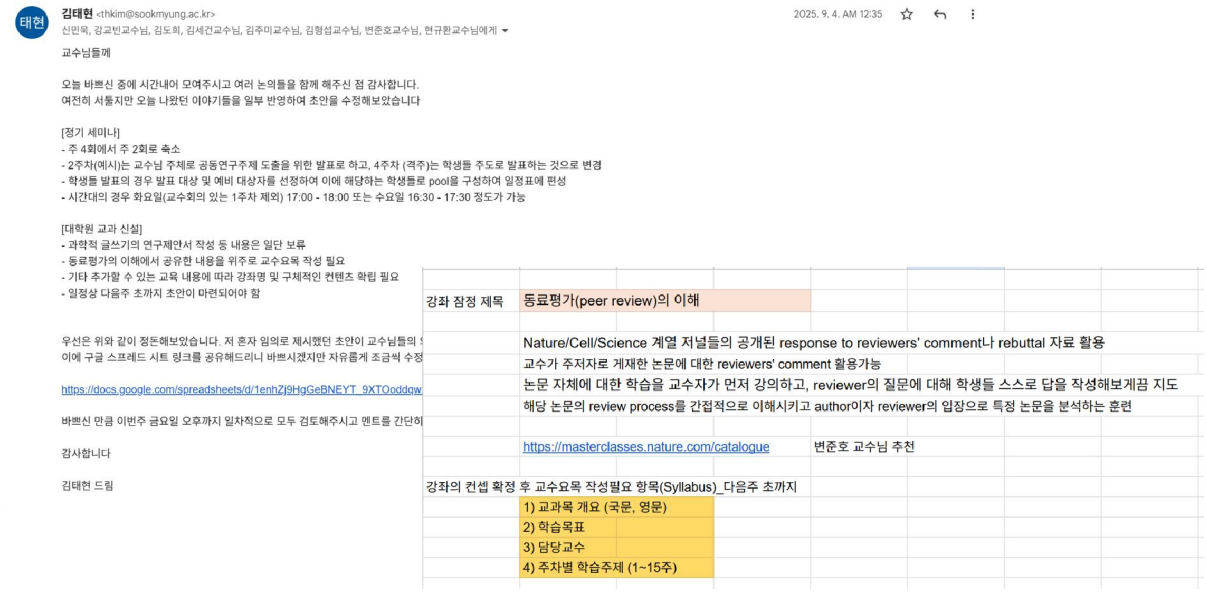
*회의 결과 (아래 이메일 캡쳐화면 참조)

- 과학적 글쓰기 강좌에서 Peer review process 외에 포함하고자 기획한 연구과제 제안서(proposal)은 우선 보류하기로 함

  : 전공 분야별로 서술하는 내용과 평가 주안점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주어진 학사일정 내에 기존의 Peer review process 수업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

  :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학습동기 부여에 역효과로 작용할 우려

  : 한 학기 과정 동안 author, reviewer 및 editor 역할을 서로 번갈아 모두 경험/학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강의 topic을 선정하기 위한 고려 사항 논의함



김태현 <thkim@sookmyung.ac.kr> 2025. 9. 4. AM 12:35

신민욱, 강교빈교수님, 김도희, 김세건교수님, 김주미교수님, 김형섭교수님, 변준호교수님, 현규환교수님에게

교수님들께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내어 모여주시고 여러 논의들을 함께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일부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해보았습니다

[정기 세미나]
- 주 4회에서 주 2회로 축소
- 2주차(예시)는 교수님 주제로 공동연구주제 도출을 위한 발표로 하고, 4주차 (격주)는 학생들 주도로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
- 학생들 발표의 경우 발표 대상 및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pool을 구성하여 일정표에 편성
- 시간대의 경우 화요일(교수회의 있는 1주차 제외) 17:00 - 18:00 또는 수요일 16:30 - 17:30 정도가 가능

[대학원 교과 신설]
- 과학적 글쓰기의 연구제안서 작성 등 내용은 일단 보류
- 동료평가의 이해에서 공유한 내용을 위주로 교수요목 작성 필요
- 기타 추가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따라 강좌명 및 구체적인 컨텐츠 확립 필요
- 일정상 다음주 초까지 초안이 마련되어야 함

우선은 위와 같이 정돈해보았습니다. 저 혼자 임의로 제시했던 초안이 교수님들의
이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 링크를 공유해드리니 바쁘시겠지만 자유롭게 조금씩 수정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nhZj9HgGeBNEYT_9XTOoddgw

바쁘신 만큼 이번주 금요일 오후까지 일차적으로 모두 검토해주시고 멘트를 간단히

감사합니다

김태현 드림

강좌 잠정 제목	동료평가(peer review)의 이해
	Nature/Cell/Science 계열 저널들의 공개된 response to reviewers' comment나 rebuttal 자료 활용
	교수가 주저자로 게재한 논문에 대한 reviewers' comment 활용가능
	논문 자체에 대한 학습을 교수자가 먼저 강의하고, reviewer의 질문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답을 작성해보게끔 지도
	해당 논문의 review process를 간접적으로 이해시키고 author이자 reviewer의 입장으로 특정 논문을 분석하는 훈련
	https://masterclasses.nature.com/catalogue 변준호 교수님 추천
강좌의 컨셉 확정 후 교수요목 작성필요 항목(Syllabus)_다음주 초까지	
	1) 교과목 개요 (국문, 영문)
	2) 학습목표
	3) 담당교수
	4) 주차별 학습주제 (1~15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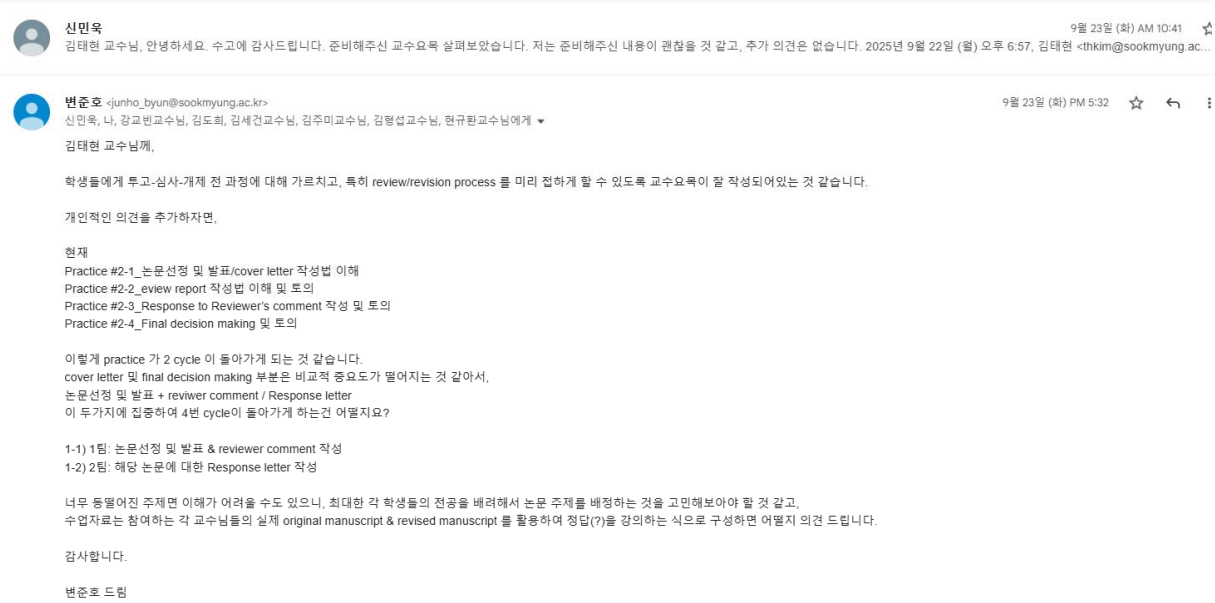
그림 4. 1차 미팅 후 회의 결과 정돈/공유

2) 2차 회의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장소: 이메일 회람/논의

*참가자(존칭 생략): 강교빈, 김도희, 김세건, 김주미, 김형섭, 변준호, 신민욱, 현규환, 김태현 교수



신민욱 9월 23일 (화) AM 10:41

김태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해주신 교수요목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주신 내용이 괜찮을 것 같고,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2025년 9월 22일 (월) 오후 6:57, 김태현 <thkim@sookmyung.ac...

변준호 <junho_byun@sookmyung.ac.kr> 9월 23일 (화) PM 5:32

신민욱, 나, 강교빈교수님, 김도희, 김세건교수님, 김주미교수님, 김형섭교수님, 현규환교수님에게

김태현 교수님께,

학생들에게 투고-심사-개제 전 과정에 대해 가르치고, 특히 review/revision process 를 미리 접하게 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이 잘 작성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자면,

현재
Practice #2-1_논문선정 및 발표/cover letter 작성법 이해
Practice #2-2_eview report 작성법 이해 및 토의
Practice #2-3_Response to Reviewer's comment 작성 및 토의
Practice #2-4_Final decision making 및 토의

이렇게 practice 가 2 cycle 이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cover letter 및 final decision making 부분은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논문선정 및 발표 + reviwer comment / Response letter
이 두가지에 집중하여 4번 cycle이 돌아가게 하는건 어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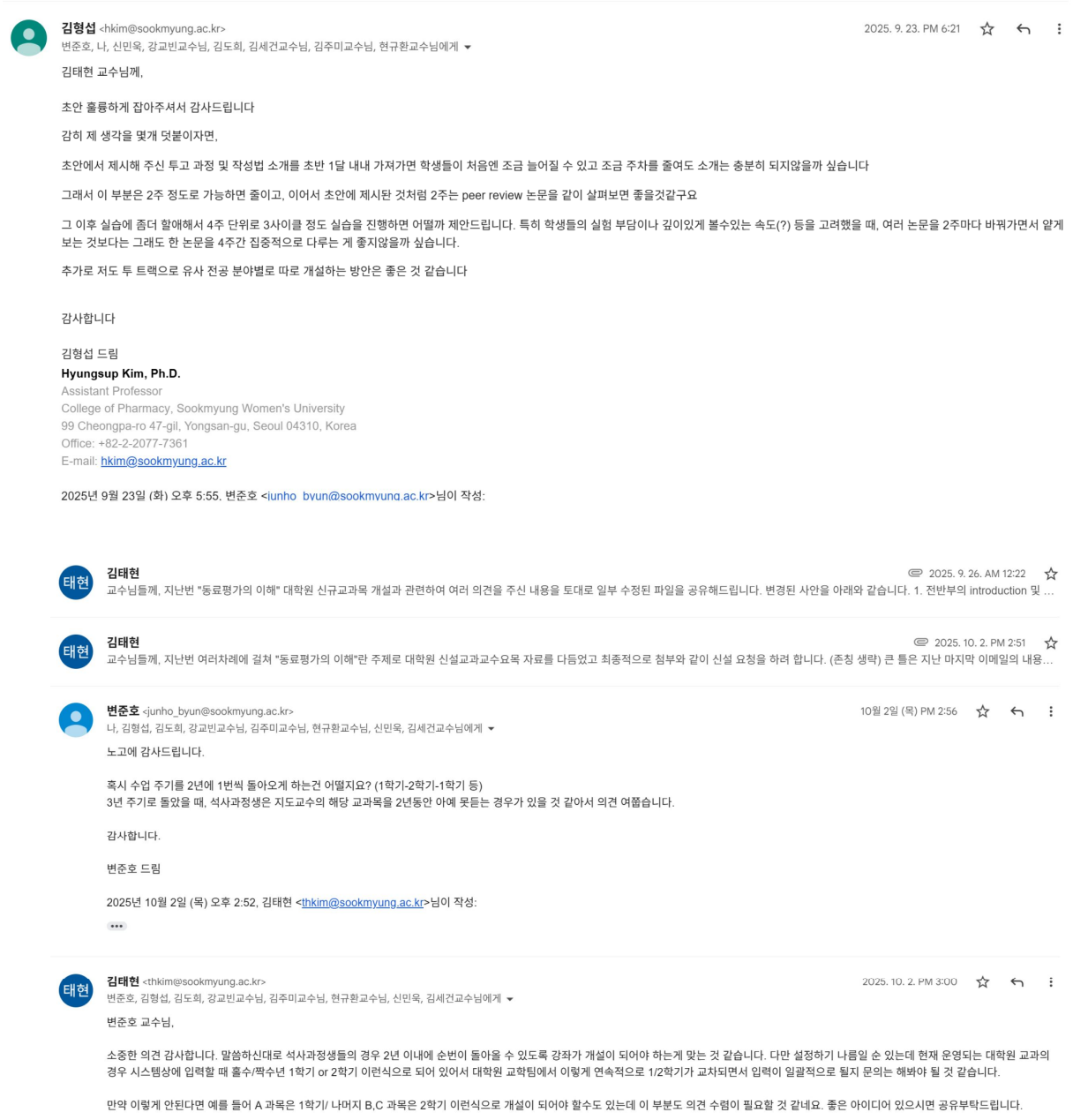
1-1) 1팀: 논문선정 및 발표 & reviewer comment 작성
1-2) 2팀: 해당 논문에 대한 Response letter 작성

너무 동떨어진 주제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최대한 각 학생들의 전공을 배려해서 논문 주제를 배정하는 것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고,
수업자료는 참여하는 각 교수님들의 실제 original manuscript & revised manuscript 를 활용하여 정답(?)을 강의하는 식으로 구성하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드림

그림 5. 2차 이메일 회의 (1)



김형섭 <hkim@sookmyung.ac.kr> 2025. 9. 23. PM 6:21
변준호, 나, 신민욱, 강교빈교수님, 김도희, 김세건교수님, 김주미교수님, 현규환교수님에게

김태현 교수님께,

초안 훌륭하게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히 제 생각을 몇개 덧붙이자면,

초안에서 제시해 주신 투고 과정 및 작성법 소개를 초반 1달 내내 가져가면 학생들이 처음엔 조금 늘어질 수 있고 조금 주차를 줄여도 소개는 충분히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주 정도로 가능하면 줄이고, 이어서 초안에 제시된 것처럼 2주는 peer review 논문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것같구요

그 이후 실습에 좀더 할애해서 4주 단위로 3사이클 정도 실습을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특히 학생들의 실험 부담이나 깊이있게 볼수있는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논문을 2주마다 바꿔가면서 얕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논문을 4주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저도 투 트랙으로 유사 전공 분야별로 따로 개설하는 방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섭 드림
Hyungsup Kim, Ph.D.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Pharma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99 Cheongpa-ro 47-gil, Yongsan-gu, Seoul 04310, Korea
Office: +82-2-2077-7361
E-mail: hkim@sookmyung.ac.kr

2025년 9월 23일 (화) 오후 5:55, 변준호 <junho_byun@sookmyung.ac.kr>님이 작성:

김태현 2025. 9. 26. AM 12:22
교수님들께, 지난번 "동료평가의 이해" 대학원 신규교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일부 수정된 파일을 공유해드립니다. 변경된 사안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반부의 introduction 및 …

김태현 2025. 10. 2. PM 2:51
교수님들께, 지난번 여러차례에 걸쳐 "동료평가의 이해"란 주제로 대학원 신설교과교수요목 자료를 다듬었고 최종적으로 첨부와 같이 신설 요청을 하려 합니다. (존칭 생략) 큰 틀은 지난 마지막 이메일의 내용…

변준호 <junho_byun@sookmyung.ac.kr> 10월 2일 (목) PM 2:56
나, 김형섭, 김도희, 강교빈교수님, 김주미교수님, 현규환교수님, 신민욱, 김세건교수님에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수업 주기를 2년에 1번씩 돌아오게 하는건 어떨지요? (1학기-2학기-1학기 등)
3년 주기로 돌았을 때, 석사과정생은 지도교수의 해당 교과목을 2년동안 아예 못듣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드림

2025년 10월 2일 (목) 오후 2:52, 김태현 <thkim@sookmyung.ac.kr>님이 작성:

김태현 <thkim@sookmyung.ac.kr> 2025. 10. 2. PM 3:00
변준호, 김형섭, 김도희, 강교빈교수님, 김주미교수님, 현규환교수님, 신민욱, 김세건교수님에게

변준호 교수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석사과정생들의 경우 2년 이내에 순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강좌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설정하기 나름일 순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대학원 교과의 경우 시스템상에 입력할 때 홀수/짝수년 1학기 or 2학기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학원 교학팀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1/2학기가 교차되면서 입력이 일괄적으로 될지 문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된다면 예를 들어 A 과목은 1학기/ 나머지 B,C 과목은 2학기 이런식으로 개설이 되어야 할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네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그림 6. 2차 이메일 회의 (2)

*회의 결과:

1차 대면 미팅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 1차 교수법 커뮤니티 회의에서 도출된 제안 사항들을 토대로 신설교과목 교수요목(Syllabus)를 작성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온라인 공동 작성 방식을 도입하여 각 참여교수님의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며 신설교과목 교수요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기로 함

3) **3차 회의**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장소: 백주년기념관 한상은라운지

*참가자(존칭 생략): 김도희, 김주미, 김형섭, 신민욱, 김태현 교수

그림 7. 3차 교수법 커뮤니티 회의

*회의 결과:

1, 2차 회의를 통해 제기된 안건과, 교수법 커뮤니티에 정식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약학과 타 교수님들의 의견을 별도로 여쭈어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기로 함

- 전반부의 introduction 및 이론 강의 부분에서 1개 주차를 줄여서 이론에 대한 학습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조정 (2-5주차)
- Cell / Nature / Science 등의 대표적인 top tier 저널에서 공개된 material을 활용하거나 각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실제 review report 기록 등을 취합・활용하여 2주에 걸쳐 상세히 교육
- 총 3개의 cycle로 practice를 구성하되, 각 cycle 별 주차를 3주로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조정함 (예; 6-8 / 9-11 / 12-14주차)
- 15주차는 수업에 대한 토론 및 성찰, 그리고 강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 공유 등의 느낌으로 자유롭게 마무리(단, 수업 운영 상황에 맞게 조율 가능)

4) **4차 회의**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장소: 약대 206호

*참가자(존칭 생략): 강교빈, 김세건, 김도희, 김주미, 변준호, 현규환, 김태현 교수

그림 8. 4차 교수법 커뮤니티 회의

*회의 결과:

1-3차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 2026-1학기 신설교과목 교수요목(Syllabus)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 회의를 진행함.

- 신규 대학원교과로 개설 시 기존의 약학과에서 운영 중인 필수 이수 과목에 추가하기보다 선택과목으로 설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선택의 폭을 넓히되 수강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각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실제 review report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동일 교과를 운영하는 교수님들끼리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참여교수님들의 전공 유사분야끼리 묶어서 별도 교과(A/B/C)로 개설 및 운영하고, 해당 학기의 실제 수강 대상 학생들의 수와 분포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설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 운영할 예정임
- 화학: 강교빈, 김세건, 현규환 교수 // 생명약학a: 김도희, 김주미, 변준호 교수 // 생명약학b: 김형섭, 신민욱, 김태현 교수 (변동가능)

3. 교수법 커뮤니티 성과

가. 주요 성과 및 결과물

2026학년도 1학기 신설교과목 교수요목 (Syllabus)

교과목명	국문명	학술지 동료평가(Peer review process)의 이해_A		
	영문명	Understanding the journal peer review process_A course		
학점-이론시간-실습시간		3-3-3	개설학기	격년: 모든학기
교과구분		전공(대학원)	이수단계	석사/박사
교과목 개요 (국문)		본 교과는 **유기화학/분석화학/천연물화학**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SCIE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투고, 심사 및 최종 게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제로 체험해 연구자의 학술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학생들은 저명한 국제저널에 게재된 출판 논문의 공개된 자료를 학습하여 동료평가 절차(peer-review process)를 이해하고, 직접 저자·리뷰어·편집자 역할 등을 순환 수행하여 reviewer comment에 대한 대응, rebuttal 작성 등을 직접 경험해본다.		
교과목 개요 (영문)		This course is designed for graduate students conducting experiments in organic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and natural products chemistry. It aims to strengthen their academic communication skills by providing hands-on experience with the entire process of submitting a research paper to a SCIE journal, from submission and review to final publication. Students will learn about publicly available data from published papers in renowned international journals,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peer-review process, and rotate through the roles of author, reviewer, and editor, gaining hands-on experience responding to reviewer comments and writing rebuttals.		
학습 목표		SCIE 저널의 투고–심사–게재 전 과정을 실제로 수행하며 출판논문 공개 자료로 동료평가 절차를 이해하고, 저자·리뷰어·편집자 역할 순환을 통해 코멘트 대응·리부탈 작성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전반적인 학술 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동료평가 과정을 통해 연구논문이 어떻게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되고 수정·보완을 통해 논리적으로 강화되는지를 직접 배울 수 있다.		
비고		담당교수: 약학과 강교빈, 김세건, 현규환 (윤강 or 팀티칭)		
주차		학습주제		비고
1		오리엔테이션/팀빌딩		
2		저널 투고 과정 및 동료평가 체계의 이해 / Cover letter 작성법		
3		Review report 및 Response to reviewers' comment 작성법		
4		국제 저명 학술지의 Peer review process의 예시(1)		
5		국제 저명 학술지의 Peer review process의 예시(2)		
6		Practice #1-1_논문선정 및 발표/cover letter 작성 실습		
7		Practice #1-2_Review report 작성 실습 및 토의		
8		Practice #1-3_Response to Reviewer's comment 작성 및 토의		
9		Practice #2-1_논문선정 및 발표/cover letter 작성 실습		
10		Practice #2-2_Review report 작성 실습 및 토의		
11		Practice #2-3_Response to Reviewer's comment 작성 및 토의		
12		Practice #3-1_논문선정 및 발표/cover letter 작성 실습		
13		Practice #3-2_Review report 작성 실습 및 토의		
14		Practice #3-3_Response to Reviewer's comment 작성 및 토의		
15		기말평가 (토론 및 성찰)		

그림 9.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 최종 결과물

총 4회에 걸친 회의와 기타 소규모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신설교과목 교수요목(Syllabus)를 작성하여 제출함. 대학원 학사편람에 근거하여 개설시기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2026-1학기 또는 그 이후에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가 수정・보완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둠. 최종적으로는 교과목명을 학술지 동료평가(Peer review process)의 이해_A/B/C로 별도의 교과목을 신설함으로써 유사한 배경지식 및 전공분야에서 연구 및 학습하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증대시키는 한편,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수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도모함

위의 syllabus를 최종 산출물로 도출하기까지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음.

(1) ‘논문 투고-동료평가-rebuttal’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신설 교과목 확정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교수법 커뮤니티의 논의를 통해 학술지 동료평가(Peer review process)의 이해_A」라는 구체적인 교과목을 실제 syllabus 수준까지 완성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BK21 계획서 단계에서 막연하게 제안되었던 “과학적 글쓰기”와 “동료평가 이해” 아이디어가, 여러 차례의 회의와 이메일 협의, 전공군별 소그룹 논의를 거치면서 교과목 개요 / 구체적인 학습목표 / 주차별 세부 주제와 실습 구성까지 완성된 형태로 정리되었다.

특히 최종 syllabus에서 제시된 교과목 개요를 보면, 이 과목이 단순한 글쓰기 강의가 아니라 “SCIE 저널에 투고하는 전체 과정(저널 선택, cover letter 작성, review report 및 response 작성, 게재까지 투고 전 과정)을 실제 사례와 실습을 통해 경험하는 과목”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수법 커뮤니티가 처음 세웠던 목표, 즉 대학원생이 논문 투고와 동료평가 전 과정을 한 학기 안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교과목”을 제도적 산출물로 구현해 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영문 과목 개요까지 함께 정리함으로써 향후 영어 강의나 외국인 대학원생 참여, 국제 공동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설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2) 전공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커리큘럼(Practice cycle) 구체화

두 번째 성과는, 교과목의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학생들이 학기 전체에

서 어떤 흐름으로 역량을 쌓아 가는지가 주차별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최종 syllabus의 주차별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이론 설명 → 실제 예시 분석 → 3회 반복 실습(Practice cycle)” 이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 1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전체 개요(논문 투고 과정과 peer review의 틀 제시)
▶ 2주차: “저널 투고 과정 및 동료평가 체계의 이해 / Cover letter 작성법”
▶ 3주차: “Review report 및 Response to reviewers’ comment 작성법”
▶ 4-5주차: “국제 저명 학술지의 Peer review process 실제 예시(1)(2)” 분석
▶ 6-14주차: Practice #1~#3 cycle -
- 논문초록・논문요지 작성 및 발표/cover letter 작성 실습
- Review report 작성 실습 및 토의
- Response to Reviewer’s comment 작성 실습 및 토의
▶ 15주차: 토론 및 성찰, 피드백 공유

초반(1-3주차)에는 저널 투고 과정, peer review 체계, cover letter・review report・response 작성 원칙 등 기본 문법과 틀을 강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중반(4-5주차)에는 국제 저명 학술지에서 공개된 실제 peer review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례와 연결시키고, 후반(6-14주차)에는 Practice #1, #2, #3으로 이어지는 반복・심화 실습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글로 정리해 보고, 동료의 글을 reviewer 입장에서 평가해 보고, 그 피드백에 답변을 작성해 보는 완결된 투고 simulation을 세 번 반복 경험하게 한다.

또한 Practice #1~3에서는 같은 형식의 과제를 반복하지만, ① 첫 cycle에서는 기본 틀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② 두 번째 cycle에서는 논리적 설득력과 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더 엄격하게 점검해 보고, ③세 번째 cycle에서는 editor 관점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가정을 두고 보다 높은 수준의 비판적 읽기와 답변 작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3단계 반복 구조를 통해 학기 전체의 학습경험이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점이, 기존의 단편적인 세미나・워크숍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별점이다.

(3) 멀티티칭과 역할 기반 실습이 결합된 교수법 모델 제시

본 syllabus가 멀티티칭(multi-teaching) 구조와 역할 기반 실습을 결합한 교수법 모델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교수법 커뮤니티 초기 논의에서, 9명의 교수들이 한 과목 안에 모두 들어가는 단일 과목 모델이 학생 전공과의 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대안으로 전공군별 A/B/C 과목 구조가 제안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학술지 동료평가의 이해_A" (그림 9)는 그 가운데 A군(예: 기초·실험 중심 전공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산출물로, 멀티티칭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 서로 다른 저널·연구 유형에 대한 시각 제공
  : 각 교수는 자신이 주로 투고·심사·편집해 온 저널과 연구 유형(기초 실험, 전임상, 특정 질환 모델 등)을 사례로 가져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peer review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
- Author-Reviewer-Editor 역할 분담 지도
  : 예를 들어, 한 교수는 Author 관점에서 논문 작성과 cover letter 구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다른 교수는 Reviewer 관점에서 논리·방법론·통계의 타당성 점검을, 또 다른 교수는 Editor 관점에서 다양한 리뷰 의견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는 식으로 역할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 실습·토론에서의 다각도 피드백
  : student practice에서 나온 초안·리뷰 보고서·response 문서를 여러 교수가 동시에 읽고 토론하기 때문에, 학생은 하나의 글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syllabus는 이러한 멀티티칭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교수법 커뮤니티가 목표로 한 "전공군별 맞춤형 팀티칭 교과목" 모델이 실제 교과 과정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역할 기반 실습 측면에서 syllabus는 매주 "Practice + 토의"를 반복하면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한다. 단순한 과제 제출이 아니라 발표 // 동료의 글에 대한 구두·서면 피드백 // 공동 토의와 자기 성찰까지 포괄하면서, 수업 내에서 Author-Reviewer-Editor 세 역할을 모두 경험하게 만든다. 이는 교수법 커뮤니티가 논의 과정에서 강조했던 "학생을 수동적 수강자가 아니라 active participant로 전환" 시키겠다는 목표가 실제 수업 설계에 반영된 결과이다.

(4) BK21 연구력 제고와 연결되는 학습목표의 구체화

이 과목의 syllabus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를 통해 학생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아래와 같이 다층적으로 제시하였다.

▶ 지식 수준(이해) – peer review 구조와 저널 시스템 이해
▶ 기술 수준(실습) – cover letter · review · response를 자기주도적으로 체득
▶ 태도 수준(윤리/협업) – 건설적인 동료평가 태도와 연구윤리 감수성 함양
▶ 성과 수준(연구력) – 궁극적으로 SCI(E) 논문 출판 역량 제고

이는 교수법 커뮤니티가 처음부터 * "교육 활동이 곧바로 연구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향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설계이며, BK21 지표(논문 수 · 질, 국제협력, 윤리교육 등)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syllabus 상에서 학습목표를 국 · 영문으로 동시에 제시하여, 향후 교과목 운영 성과를 영어 기반의 BK21 평가보고서나 국제적 비교 자료로 전환하기에도 용이하게 하였다.

(5) 향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모범 사례로의 자리매김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면서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작하여 → 문제 진단 → 대안 비교(단일 과목 vs 전공군 분리) → 팀 구성 및 역할 배분 → 세부 syllabus 설계 → 최종 교과목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나가 최종 산출물로서의 syllabus를 완성함으로써 이번 활동의 성과는 "하나의 과목 완성"을 넘어, 우리 대학원 전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종합하여, 이번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신설 교과목 syllabus 완성
◎ 논문 투고-peer review-rebuttal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커리큘럼 설계
◎ 전공군별 멀티티칭과 역할 기반 실습이 결합된 교수법 모델 제시
◎ BK21 연구성과 지표와 직접 연결되는 학습목표 정식화
◎ 향후 타 학과 · 타 대학 확장이 가능한 모범 사례 생성

로 요약할 수 있다.

나. 기대 효과

본 교수법 커뮤니티를 통해 개발된 「학술지 동료평가의 이해」 교과목은, 기존의 강의 중심·지식 전달형 수업에서 벗어나 논문 투고-동료평가-rebuttal 전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실습형 교육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록과 원고 일부를 작성하고, 동료의 글을 심사하며, 가상의 reviewer·editor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히 논문 작성 요령을 "듣고 아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저널 시스템 안에서 요구되는 사고방식과 글쓰기 방식을 몸으로 익히는 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

첫째, 학생 개인의 연구 및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저널 선택, cover letter 작성, 리뷰 코멘트에 대한 논리적 답변 등은 학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SCIE 저널 투고 전 과정을 미리 연습해 봄으로써, 학위논문과 개별 연구 성과를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 저널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학원생 주도의 논문 수 증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저널 도전 등 연구력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공정하고 건설적인 동료평가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수업에서 다루는 실제 review report와 response 사례, 역할극 형태의 모의 심사회의를 통해, 학생들은 reviewer로서의 책임과 윤리,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를 학습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피어 리뷰 문화를 실천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멀티티칭과 전공군별 설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직접 적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유사 전공 교수들이 함께 설계·운영함으로써, 각 전공에서 실제 사용하는 저널·연구 설계·데이터 표현 방식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고, 학생들은 "교과서적 예시"가 아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는 수업에 대한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수강생이 실제 연구실로 돌아가 곧바로 글쓰기·투고 전략을 실천해 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진 입장에서도 본 교과목은 공동 설계·공동 책임의 교수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9명의 교수가 함께 교과목을 설계하고 학생 산출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평가 기준과 지도 방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향후 다른

교과목·세미나에도 확산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본 교수법 커뮤니티 활동은 개별 과목의 신설을 넘어, 우리 대학원 교육 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예상되는 한계점

한편, 현재의 수업 설계에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와 보완 과제가 존재한다. 우선, 평가와 피드백에 필요한 인력·시간 부담이 가장 현실적인 제약으로 예상된다. 본 교과목은 논문 초안, review report, response letter 등 정성적 산출물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며, 각 과제에 대해 세밀한 코멘트가 제공되어야 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 멀티티칭 구조라 하더라도 수강생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담당 교수와 조교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고, 이는 피드백의 깊이와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수강 정원 관리와 TA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루브릭 기반 피드백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둘째, A/B/C 전공군별로 과목을 나누어 운영하는 구조는 장점과 함께 과목 간 난이도·부담 편차라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다루는 저널의 수준, 과제의 양, 평가의 엄격도가 군별·교수별로 미세하게 달라질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반이 더 어렵다/쉽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향후 교과목의 공정성·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교수자 협의체를 통해 각 군의 실라버스·성적 분포·학생 피드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수업 내용 특성상 글쓰기 및 영어 능력 차이에 따른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 저널 투고를 전제로 하는 과목 특성상 영어 표현과 논리 전개 능력이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내용 이해와 별개로 글쓰기 자체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평가에서 언어적 완성도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연구 내용의 명료성·논리 구조·peer review 과정에 대한 이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한 학기(15주) 안에 투고 과정 전체를 세 번의 practice cycle로 경험하게 하는 구조는 교육적 의의가 크지만, 일부 학생에게는 과제량과 시간 압박이 상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험·임상 데이터 생산과 병행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매 cycle마다 초안 작성–리뷰–수정까지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벅찰 수 있으며, 이 경우 겉으로는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충분한 성찰과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필요하다면 초기 1~2년은 cycle 수와 과제 범위를 다소 축소하고, 학

생과 교수의 피드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교과목의 효과는 수업 직후보다는 중·장기적인 논문 투고·게재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평가 지표만으로 수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BK21 사업 등 외부 평가에서는 즉각적인 수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 만족도·자기평가·포트폴리오 분석 등 정성적 지표와 중기 추적 지표를 함께 설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들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본 교수법 커뮤니티가 개발한 교과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완성도 높은 교육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교수법 커뮤니티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학술지 동료평가의 이해(A/B/C)」라는 신설 교과목을 구체적인 syllabus 수준까지 개발함으로써,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 단계를 넘어 실제 교육과정 혁신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결과물을 어떻게 수업·교과목·연구 전반에 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후속 활동 체계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가. 수업·교과목·연구 적용 방안

1) 대학원 정규교과로서의 안정적 운영 및 확산

첫째 단계는, 이번에 개발된 「학술지 동료평가의 이해(A/B/C)」를 대학원 정규교과목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 우선 BK21 참여 학과(약학부)를 중심으로 A과목을 2026학년도 1학기에 정식 개설하고, 수강생의 규모·전공 분포·운영 난이도를 점검한다.
◎ 이후 B·C 과목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임상 및 융합·정책·교육 분야 대학원생도 자신 전공에 적합한 peer revie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1-2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타 학과(생명과학, 의생명공학 등)와의 공동 개설 또는 학과 간 공유 교과목 형태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교수법 커뮤니티가 축적한 syllabus·평가 루브릭·실습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학과에서도 비교적 적은 준비로 동형(同形)의 교과목을 도입할 수 있다. 즉, 이번 결과물은 단지 한 교과목이 아니라, 우리 대학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 패키지로 활용될 수 있다.

2) 기존 교과목 및 세미나와의 연계 운영

둘째로, 「학술지 동료평가의 이해」 교과목을 기존의 대학원 교과목・세미나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연속된 학습・연구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연구방법론・실험세미나와의 연계

- 연구방법론 수업에서 각 학생이 구상한 연구 아이디어와 실험 설계를, 본 과목에서 논문 초안(Introduction/Methods/Results 일부)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한다.
- 실험・데이터 분석을 다루는 교과목에서 산출된 결과를, 본 과목의 Practice cycle에서 figure・table・결과 서술로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이론・실험・글쓰기가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 대학원 정기 세미나와의 상호 환류

- MARS, Joint Journal Club, Joint Research Meeting 등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을, 본 과목의 cover letter 작성, 논문 요약 및 peer review 실습 자료로 활용한다.
- 반대로, 본 과목에서 작성한 초안이나 review report, response letter 중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례는 세미나 시간에 공유하여, 수업 경험이 학과 전반의 연구 문화 개선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 연구윤리・출판윤리 교과목과의 협업

- 이미 운영 중인 연구윤리 관련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저자 자격, 중복게재, 데이터 위조 등)을, 본 과목의 실제 peer review 사례 분석과 연결시켜, ‘규정의 암기’가 아닌 ‘상황 속에서의 판단’으로 재구성한다.
- 예를 들어, 부적절한 저자 순서, 통계적 조작 의심 사례가 포함된 가상의 논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reviewer・editor 관점에서 판단・대응 전략을 논의하도록 하면, 윤리 교육의 체감도가 크게 향상된다.

이와 같은 연계를 통해, 학생들은 각 교과를 개별적인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생애주기 전체를 지원하는 연속된 교육 체계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3) BK21 연구과제 및 개별 연구와의 통합

세 번째 적용 방안은, 본 교과목을 BK21 연구과제 및 대학원생 개별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 BK21 세부과제별로 구성할 수 있는 연구들(예: 노화 연관 질환, 약물개발 등)을

Practice cycle의 주제 논문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업에서 작성한 초안이 그대로 과제 논문 초고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지도교수는 수업에서 다듬어진 초안과 reviewer 코멘트, response 초고를 연구실 회의에서 다시 검토함으로써, 교육과 연구가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 특히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본 과목을 통해 1편 이상의 SCI(E) 논문 초안을 준비하는 것을 최소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학위논문과의 연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교과목에서의 활동이 곧바로 BK21 사업의 정량적 연구 성과(논문 수・질, 국제 공동연구 등)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4) 교육자료・플랫폼 기반 구축 및 공유
네 번째로, 이번 교과목 설계・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는 교육자료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 우수한 논문 초안, review report, response letter는 학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익명화하여 사례집으로 제작한다.
- 수업에서 사용한 실제 peer review 예시, predatory journal 판별 체크리스트, journal selection 가이드 등은 교수학습센터와 공유하여, 학내 다른 교수・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LMS(학습관리시스템) 내에 ‘논문 투고 및 peer review 학습 코너’를 만들어, 관련 자료와 템플릿, 동영상 녹화 강의 등을 탑재하면,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온라인 모듈화 콘텐츠(예: Peer review 4주 집중 온라인 코스)를 개발하여, 학내・학외 연구자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우리 대학원이 논문투고・동료평가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교수법 연구 및 제2・제3의 교수법 커뮤니티로 확장
마지막으로, 이번 교과목 운영 경험은 ‘새로운 교수법 연구 및 개발‘ 등의 주제가 될 수 있다.

-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 포트폴리오 분석,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논문 작성・peer review 이해・연구윤리 인식 등에서의 변화 양상을 연구할 수 있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교수법 학술대회 발표, 교육학・의학교육・고등교육 분야 논문 투고 등을 추진하면, “연구력 강화”뿐 아니라 “교육 연구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번 커뮤니티를 발판으로 연구제안서/연구비 신청서 작성, 학술발표 및 프레젠테이션, 데이터 시각화, 학제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 설계 등을 주제로 한 제2・제3의 교수법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번 교과목의 설계・운영 경험이 자연스럽게 후속 커뮤니티의 모델이 된다.

나. 후속 활동 계획

본 교수법 커뮤니티는 「학술지 동료평가의 이해(A/B/C)」라는 구체적인 신설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 및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탄탄한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이 성과를 1)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확산하고, 2) 기존 교과목・세미나・연구 활동과 긴밀히 연결하며, 3) 교수자 협의체와 학생 지원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4) 대학 차원의 제도화・평가지표・대외협력 전략과 연동함으로써, 우리 대학원이 지향하는 “연구・교육・윤리가 통합된 고급 연구인력 양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후속 과제이다. 이번 교과개발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교수법 커뮤니티와 교육 혁신 프로젝트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